

眞理와 自由의 旗手들

延世의 礎石 15人

延世大學校 出版部

眞理와 自由의 旗手들

延世의 礎石 15人

머 리 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학문적 진리와 인격적 자유를 추구해 온 연세대학교는 이제 그 창립 100주년을 눈앞에 맞이하게 되었다.

연세는 한 세기에 걸친 교육 활동을 통해 학문의 각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 100년을 살아 오면서 우리 민족과 고난을 함께 나누며 민족적 시련을 극복하는 데 지혜와 용기를 주어 왔다. 여기에 100주년을 맞이하려는 연세의 긍지와 전통이 있다.

연세의 전통을 만들어 온 것은 연세인 전체의 힘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초석을 놓은 큰 별들이 있었다. 말하자면 진리와 자유의 기수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수들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은 후배 된 우리들의 마땅한 일인 줄로 안다. 그러므로 연세대학교 출판위원회는 이들 가운데 우선 열 다섯 분을 골라 소개하는 책을 펴내기로 했다. 따라서 속편이 이 책을 뒤따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실린 글 가운데에는 새로이 집필된 것도 있으나 그 대부분은 이미 「연세춘추」에 발표된 것들이다. 특히 용재 선생의 자서전이라 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를 함께 수록하기로 했다. 새로 집필해 주신 분과 이 책에 재수록할 수 있도록 쾌히 승낙해 주신 필자 제위, 그리고 「연세춘추」 당국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려고 한다.

1982년 8월

연세대학교 출판위원회
위원장 유 동 식

차 례

원두우(元杜尤)	-복음의 사도·연세 설립자 5
애비슨(魚丕信)	-한국 근대 의학의 개척자 20
오금선(吳莢善)	-최초의 한국인 의학박사 39
원한경(元漢慶)	-수난기의 연세 파수꾼 52
정인보(鄭寅普)	-한국학의 독보적 거성 69
김윤경(金允經)	-국어학계의 큰 별 92
김원벽(金元璧)	-기미 독립운동의 선봉장 104
최현배(崔鉉培)	-한글 사랑 나라 사랑 119
유억겸(兪億兼)	-덕망으로 연세 지킨 민족주의자 140
이원철(李源喆)	-한국 천문학의 새벽별 154
김명선(金鳴善)	-한국인에 의한 한국 의학 171
현제명(玄濟明)	-연세 음악의 선구자 186
장기원(張起元)	-진정한 교육자의 본보기 201
윤동주(尹東柱)	-하늘을 우리러 부끄럼 없이 214
백낙준(白樂灌)	-연세와 더불어 한평생 241

원 두 우

(1859—1916)

1

연세대학교는 창립 100주년을 맞는다. 이 시기를 맞이하여 지금부터 100년 전인 그 옛날 이 나라를 찾아온 청년 원두우(元杜尤, Horace G. Underwood) 박사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는 정확히 말하여 1885년 부활절이었던 4월 5일 제물포(오늘의 인천)에 내림으로써 처음 우리 땅을 밟았다.

그는 무엇 때문에 왔으며, 그의 배경과 집안, 교육 등은 어떠한가? 사실 1855년 당시 한국인에게 원두우라는 젊은이는 몹시 이상스러운 괴물이었다. 아마도 서양 귀신으로 보였을 것이다. 오늘날 그는 역시 옛 시대에 속하는 한낱 신비스러운 존재로서 정중히 모신 동상으로만 알려지고 있는 이상한 인물이다. 기실 약 70년 전 고인이 된 그를 기억하고 있는 생존 인물이 거의 없으며, 우리는 그를 단지 미국의 선교사로만 기억한다. 또 사실이 그렇기도 하다. 학원 선교 사업의 개척자인 그는 병원, 학교, 기독교청년회, 기독교서회(Christian Literature Society), 성서공회 등 제 기관의 설립을 도왔으며, 찬송가의 집필, 성서 번역 등의 활동을 하였고, 한국의 종교를 깊이 연구한 일인자이다.

하지만 그 자신은 스스로 언제나 다른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보다는 먼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상처되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원두우 박사의 개인적인 배경을 살핌에 있어

전 생애를 통해 큰 영향을 미친 초기의 네 가지 여건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첫째 영향은 그의 부친을 통해 이어받은 강한 실용주의 및 실재주의 사상이었고, 둘째는 비교적 부유한 생활에서 오는 물질에 대한 걱정의 결여와 믿음을 통해 극복해야 했던 극빈 생활이 그것이며, 세 번째의 영향은 긴밀하게 결합된 가족 생활과 업무를 위한 가족에 대한 결합 감각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네째의 영향은 깊은 기독교 신앙과 사명감이었다.

원두우 박사는 1859년 7월 19일 영국의 런던에서 당시 유명한 과학자이며 발명가로 알려진 존 언더우드(원요한) 박사의 6남매 중 네째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존 언더우드는 잉크, 복사용 카본 분야에서 이룩한 공로로 영국 황실 학술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 알버트 경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그의 만아들인 원두우 박사의 큰 형은 아버지의 기술을 계승하여 잉크와 카본 사업을 발전시켜 마침내는 대기업체인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를 만들었다.

가풍을 이어받은 원두우 박사도 그의 선교 생활에서 주택이나 교회 건물을 설계하거나 짓는 기술적인 일에 열중하곤 했다. 인쇄기를 조립하는 일 따위도 했다. 또한 물려받은 그의 사업적인 재주는 학교는 물론 YMCA, 기독교서회 따위의 기관을 조직하는 데 이용되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의 영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살 정도로까지 선교사 사회의 협동체를 조직하는 데 활용하기도 하였다.

원두우 박사의 태도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실질적이고 직선적이었다. 할 일을 보면 즉시 그 일에 착수하는 사람이었다. 손수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을 맡아볼 기구를 조직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처음 한 발을 내디디기에 앞서서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모든 문제를 고려하기 바라는 신중한 사람들의 분노를 사는 일이 흔히 있었다. 예를 들면, 그는 여러 교회에 찬송가 책이 없는 것을 보았다. 비록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을 전담하는 위원들

이 있기는 하였지만, 하도 논쟁과 토론에 얽혀 들어가서 도무지 일의 진척을 보지 못하여 원두우 박사는 직접 번역을 해서 출판해 버리고 말았다. 이 때문에 화를 낸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찬송가 책이 그 뒤 거의 10년 간이나 이용된 유일한 것이 되었다.

원두우 박사의 형인 타자기 회사 사장이 거부가 된 점으로 볼 때에 이상한 일이지는 하지만, 집안에서는 물질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원두우 박사의 부친은 영국에서 번영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나, 이때 그의 동업자가 회사의 모든 자금을 끊어 가지고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번영하던 회사는 망하고 원씨 가문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1872년 가족은 북미주 대륙으로 이민하기로 결심했다.

미국에서 이들은 사업을 재기시켜 보려고 애쓰는 동안 아주 응색한 생활 속에서 허덕여야만 했다. 빈곤은 그들의 사상을 동요시키지 못했고, 돈이 그들의 장애물 노릇도 목표 구실도 하지 못했다. 이 당시 학생이었던 원두우 박사는 어떻게 간신히 대학원 다녔다. 그는 학교까지 10킬로미터의 거리를 매일같이 걸어다녀야 했으니 그 당시의 생활 형편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후일에 가세가 다시 풀렸을 때에도 역시 가족은 부(富)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재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사업을 위하여 맡겨둔 것으로 생각했다. 결코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생각될 수 없었다. 원두우 박사의 형님은 자기의 동생이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을 직접 돕기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듬뿍 했을 뿐만 아니라(오늘의 연세를 만들 자금), 그가 장로 일을 보고 있던 지방 교회를 위하여 돈과 시간을 바쳤고, 그가 오랫동안 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선교회의 사업을 위하여 돈과 시간을 바쳤고, 또 국내 선교와 그 밖의 기독교 사업을 위하여도 그렇게 했다. 집안의 재산이 2차 세계대전과 한국 동란으로 간 곳 없이 사라져서 유감이지는 않지만, 이는 오히려 역사적인 재료가 되는 유물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지 개인이 받는 타격 때문이 아니었다.

원씨 집안의 단결력은 대단했다. 원두우 박사는 일생을 두고 부모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깊은 애정에 관한 말을 했었다. 이런 애정 관계는 대대로 오늘까지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부모는 자식들과 중대한 일을 논의하고, 같이 독서하고, 농을 하고, 즐겁게 놀았다. 또 그들은 작은 일을 통해서 애정을 보여주었다. 어린 것들이 교회에서 지루한 느낌을 갖지 않도록 작은 의자를 마련해 주는 따위의 일이 바로 그것이다. 설교자나 세상 일을 잘 알고 있는 어른이 어리석은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태도로서가 아니라, 그는 사랑으로 어린애의 지능을 존경하고, 앞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애들과 더불어 설교 내용과 당일의 중요사를 논의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긴밀한 관계는 3대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러 가족이 6촌을 친형제 자매처럼 알고 있다. 이상하게도 형제 자매 여럿 중에서 세 사람은 애를 하나씩밖에 두지 못했다.

말딸인 하나는 목사가 된 외아들을 두었고, 원두우 박사의 형인 원요한은 딸 하나만을 두었고, 원두우 박사 자신은 외아들 원한경 박사를 둔 것이었다. 둘째 아들인 원 프렛이 있었으나 장가도 들기 전인 21 세에 죽었고, 그리고 막내는 태어나자 곧 죽었으며, 어머니도 그 때 별세했다. 둘째 딸인 원 헬렌만이 자녀 넷을 가졌었는데, 이 분의 손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현재 연세대 금속공학과에 초빙 교수로 와 있는 코나드 박사이다.

거리와 연령의 차이가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에 속하는 후손은 친밀성을 유지했다. 서로 도왔고, 한국에서 하는 사업도 물론 적극 지원했다. 원하나의 교회에서 현재의 상학관 건물을 위한 자금을 냈고, 헬렌의 자녀들은 연세를 비롯하여 새문안교회와 YWCA의 설립 자금을 희사했다. 원요한은 그의 동생 원두우 박사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주 가까웠다. 예를 들면, 여행하기가 그처럼 어려웠을 적에, 동생이 처음 한국으로 오는 길에 그를 벗하여 뉴욕시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와 주었던 일도 있다. 그의 집은 형제들 간에는 물론이요, 그들의 자녀, 손녀 손

자들까지도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했었다. 필자 자신도 사랑받는 어린애로서 6년 간이라는 긴 세월을 그 집에서 살며 공부한 일이 있다.

하지만 원두우 박사의 배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었다. 유명한 알렉산더 워라는 설교가이며 신학자의 손녀로 태어난 분을 어머니로 모셨던 분이기도 하다. (워 박사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이브린 워의 선조이기도 하다. 아마도 원두우 박사와 원한경 박사의 글 솜씨가 여기에서 온 것일지도 모른다.)

집안 전체가 꼭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집안일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기도 했다. 형식을 지켜서 금연, 금주, 교회 참여 등을 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을 느꼈다. 특히 몸과 정신이 가난한 자들과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했다.

역경에 처했을 때의 믿음도 굳세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역경에서, 이민하는 사람들의 10 퍼센트 이상이 사망하는데도 이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길을 택하여 역경에 처했을 때나, 자식과 어머니를 죽이고 마는 역경과 박해받는 역경에서도 믿음은 강했고 변치 않았다.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일화가 있다. 호레이스와 프렛이 어릴 적의 일이다. 집에서 그들을 프랑스에 있는 기숙학교에 보냈었다(영국에서는 국민학교 어린이들까지도 기숙학교에 보내는 것이 풍습이다). 첫날 밤, 이 어린애들은 기숙사에서 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대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다. 이 때 다른 애들이 보고 소리치면서 놀려댔다. 책을 던지고 구두까지 던졌다. 하지만 애들은 이런 야유에 개의치 않고 기도를 계속하고 나서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다.

머칠 동안 이와 같이 박해를 당하고 난 뒤였다. 몇몇 다른 영국 애들이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동국인이라는 감정에서인지 그들과 같이 기도하기로 하였다.

그 뒤 세월이 얼마 흐르지 않아서 박해는 중단되었고, 영국인, 프랑스인 어린이들 할 것 없이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1885년 당시의 한국처럼 가기가 험난하게 생각되는 곳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는 “기독교인 대 학살”이 있기 바로 몇 해 전이었다. 토마스 목사가 “서만호”를 타고 평양에 들어와서 배 안에서 살해당했다. 프랑스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강화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유교적인 조정의 관리들은 철저히 외국인을 반대하고 있었다. 새로운 종교를 설교합네, 건강과 교육에 대한 새로운 사상을 줘네, 문맹을 없이 합네, 여성의 권리와 정의에 대한 사상을 주입합네 하고 난동을 부리 일으키지 말라고 한국 정부와 미국 외교관들이 선교사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원두우 박사는 처음에 한국에 오기조차 싫어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어 인도에 가고 싶어했다. 하지만 그는 믿음에 복종하여 한국으로 가라는 부름에 응했고, 한국을 두루 여행했고, 문맹 퇴치 사업을 했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켰고,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과 정의를 위한 일에 종사한 것이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하여 그가 지니고 성장한 신앙을 선양했다.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적극적이고 도움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믿음의 선양을 위하여 일했다. 또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를 굴하지 않게 한 믿음의 선양을 위하여 일했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는 명언이 있다. 확실히 우리는 원두우 박사의 경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썼다든가, 물질적인 면을 비교적 중요시하지 않았다는가, 밀접한 가족의 융합을 유지한 데서, 그리고 그의 따뜻한 사랑에 찬 기독교 신앙 속에서 가정 배경이 주는 영향력을 각각 찾아볼 수 있다.

2

지금까지는 원두우 박사의 가족적 배경의 일면을 말했다. 그리고 그 배경이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

필자는 이번에는 그의 전공 분야에 관한 제목으로 글을 써 주기

바란다는 요청을 받고 아주 당황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생전에 한 일이 그토록 여러 가지인 사람을 두고 그의 전공을 과연 무엇이냐고 해야 하겠는가? 그는 목사요, 전도자요, 신학자요, 교육자요, 언어학자요, 의료 보조원이요, 사업가요, 조직원이요, 심지어는 파이프 수리공이기도 했다. 필자가 볼 때 이 모든 것을 한목에 추려서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은 “선교사”라는 낱말인 것 같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비교적 좁은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선교사라 함은 장본인이 완전무결한 훈련을 쌓진 그렇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하도록 부르신 일을 총망라한 전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학교 교육적인 면에서 논한다면 그의 전공은 신학이다. 다시 말하면, 4년 간 인문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3년 간 신학교에 다녔다. 졸업하고 나서는 그가 아직 25세도 되기 전인 1884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같은 기간에 그는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약 1년 동안 의학적인 훈련을 받았다(이 당시의 의학 공부란 흔히 학교 교육이라기보다는 전습을 통한 것이었다). 그리고 간호원 아니면 위생병 정도의 기술을 얻었다. 당시에는 심지어 특수한 전공이라고 해도 오늘날보다 훨씬 일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오늘의 우리들보다도 인간은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더욱 잘 인식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인문 교육은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친다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솜씨를 가르친 것이다.

큰 비중을 두었던 언어 교육,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연구한 불어, 독일어, 라틴어, 그리고 신학교에서 연구한 희랍어와 히브리어는 그의 한국어 연구를 위한 훌륭한 준비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후일의 성서 번역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였다. 또 중점적으로 공부했던 일반 과학과 수학은 그가 당면했던 수다한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것이 틀림없었다. 호기심과 독자적 연구에 대한 인문적인 개념은 그로 하여금 한국의 종교, 문화, 역사 따위를 연구하도록 밀거름 노릇을 해 준 것이었다. 이렇게 말한 뜻으로 볼 때

우리는 모든 지식을 그의 전공이라고 해야 옳다.

이제 그 분의 전공을 한 가지씩 살펴보기로 한다면, 그의 으뜸가는 전공은 목사, 즉 보다 정확히 말해서 복음 전도사였다고 본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전공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목사로서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선교사로서는 역시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것이었다. 일생을 통하여 여러 교회를 책임진 목사로서 그는 설교하고, 학습자를 가르치고, 신자들을 훈련하고, 세례 후보들을 살피고, 집사와 장로를 임명하고, 그 밖에 목사로서의 많은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1887년 9월부터 새문안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 노릇을 했다. 이 때는 그가 한국에 도착한 지 2년 반밖에 되지 않은 때였다. 그 뒤로 그가 돌아간 날까지 그는 여러 시골 교회를 교대로 찾다니면서 당회장 일을 맡아 보았다.

③

물론 처음 몇 해 동안은 선교사이며 목사라는 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행길에 있어야만 했다. 이 땅에 기차, 자동차, 심지어는 자전거마저도 생기기 훨씬 이전 시대에 한국의 방방곡곡을 누볐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 여행을 많이 했다. 처음으로 경인(京仁) 지방을 벗어나서 여행한 선교사가 원두우 박사였다. 평양 땅을, 압록강 강변의 의주 땅을, 강계(江界) 땅을, 그리고 함경도 땅을 각각 처음 찾아갔던 선교사가 역시 그였다. 그가 처음 떠났던 긴 여행은 한국에 온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1887년 봄철에 있었다. 그리고 1889년의 그의 결혼 기념 여행은 북한 지역을 살살이 누비고 다녔던 3개월 여행이었다.

이 때는 토마스가 평양에서 살해당하고, 프랑스와 미국 탐험대원들이 강화도로 침입한 지 20년밖에 되지 않은 때였기에, 한 사람의 외국인이 공공연하게 지방 여행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게 생각되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모험이었다. 여행은 물론 목사나 복음 전도사가 해야 할 특수 업무이기는 했으나,

이는 거의 그의 또 한 가지 전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이리하여 한국에 대한 믿음의 소식, 한국에 대한 자랑스러운 소식을 지니고 한국과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 전문가가 되었다.

설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는 물론 한국어 연구를 해야만 했었다. 오늘날 언어 연구를 위하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현대적 기술을 생각해 보면, 원두우 박사가 그렇게 빨리 익힐 수 있었던 언어를 배우는 데 우리는 그토록 장구한 시일을 보낸다는 것이 부끄럽다. 그는 언어를 배우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손수 사전을 편찬했고, 한국어 연구를 위한 첫 번째 현대 문법을 작성했다. 손수 만들어낸 원칙에 따라서 집필한 그의 문법이 오랜 세월을 두고 조잡하고 부적합한 문법이라고 비평과 비난을 받은 사실을 알고 보면 참 흥미롭다.

하지만 과거 20년 간 그의 연구는 현대적인 언어학과 구조주의 문법의 선조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 이런 이유로 높이 학자들의 찬양을 받고 있다. 더우기 그의 연구서의 초판이 한국에 도착한 지 5년 되던 1890년도에 나왔다는 것을 알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의 한국어 습씨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이용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새로운 세 가지 분야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첫째로, 그는 여러 해 동안 성서 번역 위원회 회장직을 갖게 되었는데, 필자는 어렸을 적에 그 어른이 이용하시던 커다란 성경책을 여러 가지 학자용 품목과 더불어 보던 생각이 난다.

이 성경책을 열면 같은 내용이 여덟 가지 말, 즉 영어, 라틴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희랍어, 히브리어, 범어로 인쇄되어 있는 것을 두 페이지에 걸쳐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필자는 그가 성경 귀절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로 여덟 가지 언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었다. 필자는 비록 성서 번역 사업을 이토록 짧게 여기에 언급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그 정도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지는도 모른다.

성서 번역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일찌기 그는 성서에 권위가

있고 해독력이 우수한 열렬한 인물이었다. 그는 한국어와 영어로 수백 장에 달하는 전도지, 찬송가, 책, 팜플렛, 기사 따위를 썼다.

얼마 전에 필자는 그 분이 한국어로 쓴 작은 책 한 권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계약의 켜가 상징하는 것”에 관한 글이었다. 어떤 뜻으로 보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이상야릇한 제목을 내걸고 노력을 낭비하느냐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 구약성서에 의한 신학을 가르치는 어떤 과정에는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곧 앉아서 집필하여 필요에 응한 것으로 본다.

그는 아주 낯선 곳에서도 늘 바빴다. 그 이유는 그 무엇인가 출판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일화가 있다. 원두우 박사와 부인이 배 편으로 어느 섬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다. 그는 여행하는 시간에 찬송가를 번역하고 있었다. 번역 일을 진행하면서 그는 소리내어 찬송가를 불러보곤 하였다. 그런데 여행 도중에 풍랑을 만났다. 부인은 그만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는 조용히 번역만 계속했다. 그 순간에 번역하던 찬송가는 공교롭게도 “나는 죽을 때 천국으로 가려오”라는 내용이였다. 부인이 화가 나서 “우리는 이제 이 풍랑 때문에 죽게 됐으니 이제 더 기뻐하셔야 하겠구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집필에 대한 그의 관심과 기독교 서적의 중요성 때문에 그는 기독교서회를 창설하는 데 주된 역할을 맡아 본 인물이 된 것이다.

그의 신학적 관심과 병행하여 한국에 대한 연구 때문에 생기게 된 짐세 번째 연구는 한국의 불교, 유교, 샤머니즘에 대한 그의 연구였다. 그는 또한 일본의 신도교(神道敎), 그리고 중국의 도교(道敎)도 연구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종교를 진지하게 연구한 최초의 서구인으로서 그는 생존시에 이 방면에 대한 중요한 권위자였다. 그는 1909년 네 번째의 명예 철학 강사로 뉴욕 대학교에서 선발받아 “동(東) 아시아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강의를 하기도 했다.

위에서 말한 그의 관심에서 자연스럽고 명백하게 생겨나게 된 것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는 정도 여하를 막론하고, 또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교육은 해야 한다고 깊게 믿었다. 그는 우리말 한글에 되살아날 힘을 준 사람이기도 하다. 지각 있는 교회와 지각 있는 국민에게는 문자 해독의 폭이 넓어야 한다는 기본이 없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기 전에 작은 고아원 학교를 시작해서 훗날의 경신학원으로 자라게 했다. YMCA 를 위한 그의 열성은 여러 면에서 명백하지만, 그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기술 교육 계획이었다. 물론 최종적인 그의 대업적은 연세의 설립이었다. 넓은 시야를 가진 청년들을 길러서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한 개의 학원으로 만들겠다고 꿈꾸던 연세였다. 어떤 특수 분야를 위한 좁은 훈련이 아니라,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를 기르는 연세였다.

비록 위에서 언급한 전문적인 연구가 그의 삶과 사업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일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연세의 역사는 그 설립일자를 1885년 처음으로 의료 사업이 시작된 날로 잡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니 원두우 박사가 어느 정도의 의학적 훈련을 쌓은 일이 있고 그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해야만 했던 일의 일부가 의사 알렌 박사를 돕는 조수로서 병원 일을 하는 것이었다. 훗날 의사였던 그의 부인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주 그의 솜씨 있는 도움에 의지했었다. 그리고 의사 예비생 박사와 그가 같이 한국에서 일을 본 데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의료 조수로서 일할 적에 원 박사가 가졌던 한 가지 단점은 그가 피를 눈 앞에 보면 기절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었다.

선교사의 일을 수행하는 데 더욱 중요한 일은, 그가 지냈던 조직가 및 사업가로서의 솜씨였다. 그의 사업적인 솜씨 때문에 한때는 타자기 회사를 경영하는 형님에게서 부사장의 직위를 맡길 터이니 미국으로 돌아와 달라는 요청을 받기까지 하였다는 말이 있다. 조직에 대한 그의 솜씨는 YMCA, 기독교서회, 성서공회와 여러 다른

조직체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학교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는 생애를 통해 여러 차례 선교사들 사이의 협조체, 교회 간의 협조체, 그리고 그 밖의 집단들 사이의 협조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효과적인 주선을 했었다.

그가 교회 연합회(Council of Churches) 혹은 업무 분야에 대한 예의적 합의체를 조직하였을 때에는 아무도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물건을 보다 염가로 구입하기 위한 구매조합을 조직하였을 때에는 선교사라는 가면을 쓰고 부당한 사업 경쟁을 하고 있다고 수입업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는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사업을 한 일이 없었다. 하지만 없어서 크게 고통을 겪든가 수탈 당하는 꼴을 보게 되면 이를 없이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돕는 일을 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윌두우 박사를 연미복 차림의 위엄 있는 노신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실이 될 또 한 가지의 숨씨가 있었다. 흔히 사람들은 그를 육체 노동 그 자체와 세상의 실제적인 문제와는 전연 관련이 먼 목사와 학자라고만 머리 속에 그리고 있다. 비록 상아탑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상 생활품만은 완전히 타인에게 의지해 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가 직접 자기의 손으로 주택의 파이프 시설과 난방 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그 당시 기계 동작 뿐만 아니라 고장시에 수리하는 기술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놀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가장 커다란 전공은 사랑 그것이었음을 지적해 둔다. 필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는 별세했다. 그래서 직접 대하고 사귀어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일생을 두고 그를 알아온 사람들에게서 타인을 위한 그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다. 잘 살건 못 살건, 잘 낫건 못 낫건,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사랑 때문에 이끌렸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전도인으로서 그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요. 사랑으로 사람을 천당으로 이끄니까.”

원두우 박사의 전공, 그것은 무엇이었던가? 전공은 없었으면서 또한 모든 것이 전공이었다. 어떻게 되었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것이였다.

〈글·월일한/연세대 이사, 원두우 박사의 손자〉

4

연희전문학교의 설립자요 초대 교장이시던 원두우 박사에 대하여 피력하라고 했으나, 나는 그이로부터 직접 교훈도 받지 못하였기에 아무 실감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가 없다.

원 박사는 1916년에 학교 기금을 모집하러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그 해에 별세하셨고, 1917년에 연희는 전문학교로 인가가 난 것이다. 처음부터 대학으로 출발하려 하였으나, 왜정 시대의 조선에는 대학교육령이 없고 전문학교 법령만 있다고 하여 그렇게 인가된 것이다. 초창기에는 경신학교 대학부와 배재학당내 대학부인 두 근원이 1915년에 하나로 합쳐서 YMCA 한편의 몇 방에서 학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18년 봄에 신촌 이 기지에다 2층 목조 건물을 짓고 옮겨왔다.

원두우 박사의 행장에 대하여는 그 부인인 릴리어스 언더우드(Lillias H. Underwood)의 저서 *Underwood of Korea*와 원한경 박사의 저서 *Modern Education in Korea*와 「연세대 학교사」에 자세히 논술되어 있으니 다시 사족을 덧붙이고 싶지 않다. 초창기의 선배들이 대부분 타계하였으니 마지 못하여 원 박사가 끼친 정신적 유산의 단편이나마 더듬어 보려 한다. 하나, 그것도 주관적인 사견일 것이므로 오히려 송구스럽다. 다만 나도 모교의 학생으로 희망에 부풀었던 청춘 시절을 회상하자니 감회는 저으기 착잡하다.

원 박사는 1885년 4월에 한국에 오셨다. 그는 본래 1859년 영국 런던에서 출생하였고,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갔었다. 그는 뉴욕 대학을 마치고 또 신학교를 졸업한 후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려고 결심하였는데, 그 때 북장로교회 선교부의 명령을

받아 신교의 초대 선교사로 한국에 오게 된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 여러 방면으로 활약하였다. 선교사로서의 본직 이외에도 본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광혜원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교수하였고, 1889년에 그는 그 후에 오는 선교사들을 위해 「한국어 문법」과 「한영자전」을 편찬 간행하였다. 이 「한국어 문법」은 당시 우리나라 지식인에게 큰 자극과 각성을 주었으리라고 짐작된다. 누구나 제 나라 말로 생각하고 서로 대화하면서도 제 나라 말 속에 법칙이 숨어 있고 이 언어 형식이 우리 사교의 규범이 되는 것을 깨닫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글이라면 한문으로 표현하여야 유식하다고 존경받던 그 시대였다. 1900년 이후에야 우리 문법학자가 생겼고, 그 중에도 「우리말본」을 지은 최현배 선생과 우리말 전용을 주장하던 김윤경 선생이 원두우 박사가 세운 연세대학교에서 봉사하였던 것도 그저 우연의 소치로만 볼 것이 아니다.

제 나라 말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민족 의식의 발현이요 국민 정신의 발달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 박사의 「한국어 문법」은 우리 선각자들에게 민족 정신을 깨워 일으켰으리라고 보인다. 이런 사상의 흐름은 원한경 박사에게서 자주 들었다. 한국 사람들은 한글이 세계 문자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자긍하면서도 지식층이 오히려 이를 사용하지 않으니 웬일이냐고 말쑤하였다.

원 박사가 한국에 온 전후의 동양의 국제 정세를 회상해 보건대, 국내에서는 김옥균이 주도한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고, 일본에서는 한국을 정벌하자는 의논이 물끓듯 하다가 종내 청·일 전쟁이 강토 안에서 벌어졌다. 왜 외국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전쟁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 선각자들을 각성시켰던 것이다. 국제 정세에 밝은 원 박사는 약소민족의 참상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사마리아의 병자를 구호할 자는 한국의 양반이나 지배층도 아니었다. 아무래도 봉건적 구질서를 타파하고 신문명을 도입하는 것이 한국민의 살아 나갈 길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1910년 강제로 한일합방을 당하여 국가는 결국 멸망하였다. 그러나 민족이 다시 희생하려면 국민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민중에

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려면 오직 교육뿐이었다. “대한제국 부강 안테는 국민 교육 보급함에 전제함일세” 하던 그 당시 소학도의 노래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정신적 분위기 속에서 연희전문학교가 태동되었다. 이에 원 박사는 민족적 요구에 부응하여 서울에 대학 설립을 계획하고 여러 교파의 선교사와 의논하였더니 오히려 북장로교 선교회가 반대하는 것이었다. 평양에 이미 숭실대학이 연합적으로 설립되어 있다는 이유였다. 그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울에 대학을 세우기로 결심하여 실현한 것이다.

이 대학 설립의 목적은 기독교주의에 의하여 전문 교육을 행함에 있다고 재단 정관에 규정되었다. 해방 후 1946년 8월에 대학으로 승격될 때 그 학칙에는 기독교 정신에 기하여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하는 동시에 성실 교매한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런 목적을 한 말로 일괄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기독교 정신이다. 오늘날 자유의 정신이 시련을 받게 되는 국제적 상황에서는 연세대학교의 존재 의미와 사명이 실로 중대하다.

〈글·정석해 / 전 연세대 교수〉

애 비 슨

(1860—1956)

Ⅰ

필자가 애비슨(Oliver R. Avison, 魚丕信) 선생에 대해서 듣기는 1944년 세브란스에 들어와서부터이다. 남대문 밖 서울역전에 있던 세브란스 교정 언덕 위에는 깃발을 다는 계양대가 있었고, 옆에는 주인공 없는 빈 동상대(銅像臺)만 쓸쓸히 남아 있었다. 이 동상대에는 원래 이 학교 설립자인 애비슨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2차대전 말기인 1943년 어느 날 침략자 일인(日人)들의 간교한 마수에 징발되어 갔다는 이야기이다. 잔악한 전쟁광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패배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자 학원은 재건 발전을 향하여 약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학원의 설립자이며 한국인의 은인 애비슨 선생의 동상을 찾고자 팔방으로 수소문하였으며, 일제가 거둬간 쇠붙이의 저장 장소까지 샅샅이 살폈으나, 결과는 실망과 낙담뿐이었다.

필자는 1948년에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약리학 조교로 남았으나, 1950년에 6·25 동란이 일어나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하게 되었으며, 1952년말 세브란스가 서울로 복교한 후 당시 김명선 학장의 권유로 뒤쫓아 올라오니 학원은 무참히도 파괴되어 있었다. 이듬해에 세브란스의 소아과 주임교수로 있던 애비슨 선생의 아드님 유골이 한국을 고향 땅으로 생각한 그의 유지에 따라 서울 양화진 외인 묘소에 안장되게 되었다. 2대를 한국에서 봉사하고 유명을 달리한 후에도

이 나라를 못 잊어 하는 이 분들에게서 나는 큰 감명을 받았다.

연희대학교와 합병한 세브란스는 1961년 말에 신촌 캠퍼스로 옮겨 가게 되었다. 애비슨 선생은 세브란스에 40여 년 간(1893-1934) 재직 하는 가운데 20년 간은(1916-1934) 언더우드 선생이 설립한 연희 학원의 교장직을 겸임하면서 같은 교육 이념으로 한국의 인재를 양성하였는데 이 뜻이 양교를 한울 안에 모이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세브란스의 전당이 마련되자 제자들이 성금을 모아 애비슨 선생의 동상을 재건하는 데 정성을 다하였다.

1966년 6월 30일 38년 전의 첫 동상을 그대로 재현시켜 제막식을 가지게 되니 선생의 정신이 재림됨을 느끼게 하였다. 마침 참석한 자제의 모습이 어쩌나 비슷한지 생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였다.

1960년 6월 30일 애비슨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일에 사학가 김두중 박사는 동아일보에 선생의 업적을 소개하고 “다른 민족을 지도하기 위하여 일생을 희생하였다는 그 가룩한 신앙적 정신은 우리의 골수에 아직도 사무치고 있다”고 하며, 또한 “승고한 애비슨 박사의 유지를 받들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절조 있는 학풍의 전통을 그의 탄생 100년제와 함께 기념하려 한다”고 끝맺었다.

20년 간을 모시고 사사하였던 고 심호섭 교수는 조선일보에 기고하여 선생을 경모하고 그 행적을 추억하는 심정을 토로하고, “선생은 우리 한국 근대 문화의 기초를 조성하신 위인으로서 한국 기독교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셨다. 또 한국 근대 의학의 개척자로서 근 1세기 전 암흑천지의 한국 실정하에서 허다한 병인의 구명 혜택은 고사하더라도 끊임없이 유행된 전염병, 그 중에서도 맹독을 품고 하던 천연두, 콜레라 등으로 사경을 헤매던 자가 선생의 덕택으로 생명을 건진 자도 기십만으로 산할 것이며, 정치적 위경에서 당시 황족의 구출에 큰 공이 있었으며, 선생의 덕택으로 배출된 수천의 의사로 인하여 구출된 생명이 기백만에 달하였으리라!” 하고, 선생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민족의 광명이요 은인으로 경모하지 아니 할 사람이 없다고 추모하였다.

양재모 박사(전 연세대 의대 학장)도 같은 신문에서 선교 의사(宣敎

醫師)이면서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한 위인임을 겸근하게 소개하였다.

에비슨 선생은 일생 중 활동기의 거의 대부분인 40년이라는 기간을 우리나라를 위하여 진력하다가 1935년 75세에 귀국하였고, 1940년 80회 생신날을 맞이하여 「한국 생활의 회고」(*Memoirs of Life in Korea*)라는 자서전적 회고록을 기술하였는데(미출판), 선생의 가식 없는 생의 기록은 깊은 감동과 감명을 느끼게 하며, 경모의 정을 금할 길이 없다.

일차적으로 이 회고록을 근거삼아 에비슨 선생이 우리나라에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필자 나름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것으로 1974년 연말에 서울에 와서 환담하였던 에비슨 선생의 손녀 마가레트 양에 대한 나와 또 그녀의 소꿉친구였던 나의 아내의 인사를 곱하고자 한다.

[2]

에비슨 박사는 1860년 6월 30일 영국 요크셔(Yorkshire) 주 웨스트 라이딩 지방의 제저 그린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 후 부친이 옆 마을인 브루크로이드(Brookroyd)의 모직공장에서 일하게 되자 그리로 이사하여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이 학교는 “귀부인 학원”이라 불리었는데, 이는 품행이 좋지 않은 아이에게 “바보 모자”(dunce cap)를 씌웠기 때문이고, 때로는 한 다리로만 서 있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벌도 있었다. 가장 기억에 생생한 고통은 개울 다리에서 떨어져 탈구된 뼈를 다시 맞출 때였다. 조부인 조오지 에비슨(George Avison)은 영국을 떠나기 전 별세하였지만, 7남 4녀의 자그마치 11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부친이 그 중 막내였고 부친만 빼놓고 모두들 음악에 소질이 대단하여 그 삼촌 중 한 분은 빅토리아 여왕이 주최하는 연례 음악회에 참가하곤 하였다. 그러나 음악이 직업은 아니었고 모직공으로 일하면서 여가 중의 오락으로 음악에 열중한 분들이었다.

1866년 2월 영국을 떠나 이민길에 올랐다. “보스턴 시”라는 선명을

가진 기선을 타고 미국 뉴욕으로 향하였다. 이 기선은 귀로에 실종 되었는데, 후문에 의하면 해상에서 발견된 마개를 한 병 속에 “보스턴시”호는 화재를 만나 절망적이라는 쪽지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여하튼 뉴욕에 상륙하자 삼촌들이 이미 정착한 코네티컷으로 향하였다. 여기에는 형제 두 분이 계셨는데, 홀몸인 작은 삼촌은 음주로 지내고 큰 삼촌은 미국 부인과 결혼하여 영국 시민권을 버렸는데, 미국인보다도 더 한층 미국인 행세를 하여 자장가로 영국 국가를 부르는 부친을 보고 펄쩍 뛰며 못하게 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 언쟁을 벌이고 부친은 캐나다에 사는 형제를 찾아가게 되었다. 이곳의 삼촌도 미국 부인을 얻었지만 영국 시민권은 계속 지니고 있었다. 부친은 원래 미국 일리노이로 가서 정착할 심산이었고, 캐나다로 가셔도 일리노이로 옮길 예정이었으나, 캐나다에 있는 삼촌이 만류하여 급기야 그곳 온타리오주 브랜트포드에 정착하고 말았다. 부친이 터론토 시에서 8마일 되는 웨스턴 부락의 모직공 자리를 얻게 되자 다시 학창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모직계의 불황으로 공장이 문을 닫게 되어 부친의 근심은 대단하였다. 마침 공장주가 공장 설비를 다른 마을로 옮기게 되자 부친과 같이 일할 것을 제의하여 트렌드 강구에 있는 캠벨포드(Campbellford)라는 마을로 이사하였다. 그곳 강가에서의 낚시는 참으로 유쾌한 오락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익사자가 생겨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5월 24일이 빅토리아 여왕의 생일이어서 학교가 놀 것이라고 들었는데, 선생님은 그런 기색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아이들은 입을 모아 “5월 24일은 여왕님의 생일이군요, 이 날 놀지 않으면 우리는 뛰쳐 나갈 겁니다”라고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눈 깜짝 하지도 않고 미소만 지으면서 이에 대하여 아무 말이 없었다. 물론 그 날 폭죽 불꽃놀이에도 마실 것을 실컷 마시며 온종일 즐기기는 했지만.

공장주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자 부친도 따라가게 되어 라나크라는 마을로 이사하였다. 여기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의식을

없었다가 깨어난 일이 있어, 몇 년 간은 벼락에 대한 공포심을 버릴 수 없었고, 또 승흥열의 유행으로 병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세균체도 모르는 상태이어서 장뇌를 지니고 다니면 예방이 된다고 믿었으며, 발진 부위에는 마늘 파스를 발랐다.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담임이었는데 산수를 흥미있게 가르쳐 주어 커 가면 서 다시 없는 도움이 되었다. 고학년 때 학업을 쉬고 부친의 공장에서 일하겠다고 자청하여 하루 11시간, 1주 6일 간을 노동에 종사하고 월 10 달러의 보수를 받았다. 같은 또래의 소년공이 많았는데, 대개 공부라곤 해본 일이 없는 무학 소년들임을 알고 야학 지도에 나섰다. 온종일 중노동으로 고단하기가 말할 수 없었으나, 배우는 소년들이나 가르치는 소년이 모두 열심이였다. 이러한 생활을 2년간 한 후 다시 복교하였다. 학교에서는 그간의 공백기를 참작하여 한 학년 낮게 편입시켰다.

그러나 그간 야학에서의 복습이 주효하여 곧 고학년으로 인정받았고, 더구나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는 1등 합격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고교를 졸업하자 국민학교 교사 자격을 얻었다. 신문 광고란에 마칩 스미드 폭포 근처 시골 학교에서 교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다. 서류 심사료 지원자 30명 중에서 선발되어 통지를 받고 기차 편으로 그 지방에 가서 이사장 집을 찾았으나 출타 중이고 이 날이 마침 10월 30일 만성절(Halloween Day) 전야라 이 집에서 오락 파티가 시작되어 저녁을 같이 지내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오락 여흥에 섞이게 되었고, 여흥이 절정에 달하자 이 좌석에서 법관이 선출되고 법관의 판정에 따라 각자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임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마을 밖에서 온 방문객은 자기 외에 두 아가씨와 아가씨를 데리고 온 청년이 전부이고 그 외에는 모두 마을의 젊은 남녀들이었다. 마을 밖에서 온 제니 바네스(Jennie Barnes)라는 아가씨가 죄가를 치를 차례가 되었다. 법관은 엄숙한 어조로 이 방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젊은이에게 입맞춤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6세가 채 못되는 이 가련한 아가씨는 매우 당황하고 난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마을 청년은 아무도 모르고, 그렇다고 같이 온 청년에게 하기도 싫었다. 아가씨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한 귀퉁이에서 있는 제일 어린 17세의 소년에게 가서 얼굴을 빨갱게 붉히고 키스를 했다. 장내는 박수갈채로 넘쳤다. 법관은 다시 키스한 그 청년과 지금 당장에 결혼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했다. 장내는 더할 수 없는 흥으로 들끓었다. 바로 이 아가씨가 8년 후에 일생의 반려자로 될 줄이야 누가 생각하였으랴! 1885년 7월 28일 혼례를 올렸고, 50년 이상 동고동락하게 되었다.

그 이튿날 학생이 40여 명 되는 국민학교에 연봉 240 달러로 채용되었고, 3년을 근무하다 상급 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 오타와로 떠났다. 그 곳 사범학교에 입학하고 3년 후에는 자격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대학 교수가 될 뜻을 가지고 우선 약방에 취직하여 생활비를 벌며 또한 화학 지식을 습득하였다. 3년 후 터론토 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3년제 과정인데 수개월 간 약학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예비 학원에 다니 약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무난히, 그것도 세 과목 우등에다 전 과목 평균점 우등으로 금상과 함께 합격하였다. 그러자 약학대학 식물학 선생으로 추천되어 연봉 6만 달러를 받게 되고, 다음 학기에는 약물학(현재의 약리학) 강의로도 맡아 연봉은 배로 늘었다. 터론토 시내의 일류 약국주는 더 많은 보수로 취직을 제의해 왔으나, 선배의 충고를 받아들여 다시 학업에 마음을 두어 터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의과대학에서는 그간의 학력을 참작하여 2학년에 넣어 주어서 그 덕으로 3년만에 의사가 되었다. 학생 시절에도 계속 약학대학의 약리학을 담당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었고 장학금도 받으면서 3등으로 졸업하였다. 당시 학생 간에 다른 대학 학생 대표를 초대하여 만찬회를 개최하는 연례행사가 있었는데, 풍성한 술 대접으로 밤 열 시쯤 되면 주취측이나 초대받은 학생 중에 만취되어 추태를 부리는 사고가 빈발하였다. 이 폐습을 시정하기 위하여 2년 간 노력한 끝에 만찬회에는 술을 내지 않기로 학생회에서 결의하여 탈선이 일소되었음은 큰 성과였다. 터론토에는 두 개의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로

버트 A. 하디라는 학생이 주동이 되어 기독교인의 우정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두 대학 학생들이 모여 YMCA 를 조직하였다. 이 때 문리대에서는 Y 조직이 있어서 졸업생 한 명을 선교사로 한국에 파견한 바 있었다. *Korean Sketches* 라는 책을 쓴 제임스 S. 게일 씨가 바로 그 사람이다. 목사가 아니었으나 매우 성공적이어서, 또 한 분 말씀 펜윅 씨도 같은 자격으로 파견되었다.

이 분들의 소식이 매우 고무적이었고, 하디는 의사를 특별히 게일 씨와 같이 파견하자는 열의를 보였다. 하디의 이 운동은 호평을 받아 의학 Y를 조직하게 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하디를 졸업 후 보내기로 내정하고 한국에 가는 여비와 생활비를 알아보게 되었다. 게일과 펜윅의 보고에 의하면, 생활비가 매우 저렴하였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 독신이고 또한 한국 집에서 살며 한국 음식을 먹기 때문이었다. 하디는 부인과 가족이 있고 또 캐나다인 수준의 생활을 하는 것이 희망이었을 것이다. 하여튼 하디는 멀고 먼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다. 하디가 떠나기 전 수일 간 애비슨은 집에 불러 같이 지내고 밴쿠버에서 승선하기 위하여 기차를 탈 때는 역까지 전송하였다. 이 때가 1890년 8월이며, 애비슨 자신은 자기가 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은 적어도 1893년 1월까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893년 여름에는 자신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으니! 하디는 1935년 4월 27일까지 서울에서 봉사하였고, 떠나기 전 수일 간을 집에 불러 같이 묵고 또 서울역에서 전송하게 되었으니, 터론토를 떠나 40년의 세월이 지난 때에도 떠나는 방향만 다를 뿐 같은 입장이 되어 기이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디보다 1년 먼저 졸업한 자신은 모교인 터론토 의대의 약리학 강사로 임명되고, 동시에 시내에서 개업을 시작하였다. 약대에 주 7번, 의대에 4번 강의를 맡으면서 환자도 보고 겸하여 사회 활동으로 의학 Y 및 그 지역 감리교회에 관계하여 운영위원장으로 또는 설교자로 일하였으니 그 정열은 가히 추측되고 남음이 있다. 거기에다 번두리 빈민 구호 사업에 참가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를 할애하였으니 참으로 틈나는 시간이라곤 없었다. 우선 집을 구하여 주택

검 병원으로 쓰고 겸차적으로 당시의 의사가 갖추어야 할 의장 및 자가용 차도 마련하였다. 사회적 지위와 존경도 뒤따라 축복의 앞길이 트이고, 시장도 가족의 주치의가 될 것을 요청하고, 특히 대학에서는 약대는 물론 의대의 시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영광을 가졌다. 6년 간의 개업으로 살림에도 여유가 생기고 대학의 강의도 앞으로 5년 간을 더 연장한다는 임명장을 받아 일층 지위를 굳히게 되었다. 그런데도 고향을 뜨게 된 것은 참으로 순간적인 결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즈음 한국에서 최초의 선교 사로 일하던 뉴욕 브루클린의 원두우(Horace G. Underwood) 목사를 초청하였다. 원두우 목사의 터론토 방문은 의과대학생 간의 큰 관심사였을 뿐 아니라, 에비슨 부인 및 자신에게도 어찌나 감명 깊었던지, 내심으로 만일 캐나다 감리교회에서 자신을 한국에 파견하여 준다면 쾌히 봉사에 나설 결심을 하게 되었다.

원두우 씨는 장본인과 별 상의 없이 뉴욕에 돌아가 장로교 외국 선교 본부에 에비슨을 추천하였고, 본부에서도 마침 한국에 보낼 의사를 찾던 중이어서 곧 뉴욕 회의에 참석하여 달라는 미국 선교부의 요청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임무를 맡게 되었다. 한국으로 떠나는 준비를 하는데 막내인 세째 아이가 중이염과 폐렴을 앓기 시작하여 매우 고심하였고, 많은 친지들도 출발을 극구 말렸으나, 결단을 내려 출발하였다. 기선에 승선하기 위하여 밴쿠버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만 어린 생명에 이상이 없으면 배에 올라 한국에 갈 수 있겠지만, 만일에 승선이 거부되면 하나님의 뜻이 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요행히 떠날 입시에 그렇게 허약하던 아이가 차차 회복되어 가고, 밴쿠버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승선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기차 여행 도중에는 폭우로 기차의 승강구 계단 위쪽까지 물에 잠기곤 하였다.

밴쿠버에 무사히 도착하여 1주일을 기다린 끝에 “인도의 여왕”이라는 6천톤급 대형 선박에 탔다. 외형은 장관이었으나, 선실에 들어가니 우선 냄새로 배멀미를 느꼈다. 그러나 마침 자기에게 배우고 터론토 의대를 연전(年前)에 졸업한 브루스라는 의사가 선의

(船醫)로 있어 옛 정을 나눌 수 있었다. 브루스의 일을 도우며 2주를 지나니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다. 나룻배에 탄 남녀가 거의 별거벗고 있는 6월의 이국 풍경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 오기로 된 연락 통지를 기다리는 동안 이곳 저곳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한번은 도등가(桃燈街)에 안내를 받아 여창(女娼)이 공공연하게 번창하는 것을 보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6주를 기다렸는데도 통지가 없어 점차 걱정되었다. 거기에다 네째 아이가 몇 주 안에 출생될 예정으로 있어 마음이 조급하였다. 결국 통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배 편으로 코베에 가서 한국행 배에 같이 탔다. 선실은 좁고 더웠으며, 거기에다 저녁에는 모기떼의 습격까지 받아 한심하였으나, 나가사키를 거쳐 한국 해협을 건너 드디어 1893년 6월 16일 일요일 오후 부산에 도착하였다.

부산에 오자 가을까지 일본에 머무르라는 전보를 못 받았느냐는 이야기를 하였다. 서울의 선교사들이 더위에 못 이겨 모두 시원한 고지로 피서 갔다는 것이다. 부산에 상륙한 지 1주일만에 네째 아이가 출생하였다. 자연히 부산에 머무르게 되어 그동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언어 불통인 두 사람이 서로 물건의 명칭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물으면 “이것은 ○○이오” 하며 번번이 “...이오”로 끝내므로 배우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8월말까지 지내다 선교사들이 피서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떠났다. 작은 기선을 타고 출발하였는데 선상에서 호레이스 N. 알렌 박사를 만났다. 이분은 미국의 선교 선교사로 맨 처음 해외에 파견된 분이고, 마침 한국의 첫번째 외교 사절단을 미국에 안내한 후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 분과 2 일 간을 배에서 같이 지내면서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이 해후가 계기가 되어 결국 알렌 박사의 의료 사업을 인계받아 제증원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제물포에 닿자 원두우 씨의 마중을 받아 다시 작은 범선을 타고 강을 따라 마포에 도착하였다. 여기서부터는 특별 배려로 사람이 매는 세단차인 가마를 타고 서울로 들어갔다.

알렌 박사는 1883년 11월 중국에 미국 선교사로 부임하였다가 이듬해에 전근되어 1884년 9월 20일에 한국으로 입국한 분이다. 이 해 12월에 갑신정변(甲申政變)이 일어나 민영익(閔泳翊)이 자상(刺傷) 당하고 출혈과 상처가 심함에 알렌 박사의 양진을 요청하게 되어 출혈 근원인 절단된 동맥을 결찰하여 지혈에 성공, 결국 완치시키게 되었다. 이 공로로 궁중의로 대우되고, 이듬해(1885)에는 고종의 특명으로 왕립 병원인 광혜원을 설립하여 알렌 박사에게 운영하도록 하명하였다. 이것이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데, 10여 일 후에 이 병원은 구리개(현 을지로 입구)로 옮기게 되고 제중원이라 개칭하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양의학을 토대로 한 진료와 의학 교육이 시작되었다. 1894년에는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되자 이를 애비슨 선생이 인수하여 민영 의료원으로 바꾸게 되었다.

<글·홍사석/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3]

애비슨 하면 한국의 근대 병원이나 의학 교육의 창시자라고 잘 알려져 있다. 그러면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던가?

그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로 이민, 정착하여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도 고학으로 터론토 약학대학과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이면 캐나다에서도 약사나 의사가 많은 시절이 아니었으므로, 개업을 한다면 물질적 생활의 곤란이란 것을 모르고 살았을 터인데, 그는 대학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그는 1890년 당시 한국에 선교 선교사로 처음 나왔던 원두우 목사가 한국에 의사가 없어서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생하니 뜻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와서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터론토 기독교 학생 선교 자원회에서 역설함을 듣게 되었다.

학생 시대부터 교회의 간부로서 일하여 온 그는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이 본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값있고 귀하다는 연설에 감동되어, 자기가 한국에 가서 기독교 의료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원두우 목사에게 제의하였고, 이를 들은 원두우 목사가 당시 북

장로교회 외국 선교부에 연락함으로써 1893년 5월 16일에 그는 가족과 함께 부산에 도착하였다.

터론토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한다면 편안히 살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한국에 가기 위해 월두우 박사의 말만 듣고 고국을 떠났다는 것은 지금 젊은이들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는 아내와 두 어린 자녀를 가졌을 뿐 아니라, 더구나 그의 아내는 만삭의 몸이었다. 그의 집안에서도, 또 그 아내의 집안에서도 얼마나 반대하였을 것인가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며, 대학측에서도 이에 대해 커다란 놀람을 표시하였다. 애비슨 자신은 물론, 만삭의 몸으로 하루 이틀 길도 아닌 수만리 먼 길을 남편과 같이 떠난 그의 부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부산에 도착한 지 1주일 후에 그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다. 병원도 산과도 없는 외국에서 그의 아내는 남편의 도움으로 순산하였다. 이 아들이 지금 양화진(철두산 북쪽) 서양인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디·비·애비슨(D. B. Avison) 으로서, 그는 터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소아과 교수와 병원 원장으로 수교하다가 2차 대전 직전 고국에 돌아가서 일하였다. 1951년 고국에서 타계한 그의 유언에 따라 그는 양화진 묘지에 안장되었다.

해산한 후 1주일이나 지나서 부산을 떠난 그는 8월 1일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 때는 알렌 박사가 제증원이란 병원을 1885년 4월에 지금 계동 덕성여자고등학교 근처에 개원했다가 환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의 을지로(일제 시대 동양척식회사 근처, 전 내무부 자리 근처)에 있었던 감신정변의 주역 홍영식 씨 저택으로 옮기어 정부의 보조로 병원을 운영하던 때이었다.

알렌 박사는 월두우 박사의 도움을 받았으나, 혼자 의사로서 큰 곤란을 당하던 때에 애비슨 박사가 서울에 오게 되어 병원 일을 애비슨 박사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그리고 이듬해인 1894년의 청일 전쟁과 갑오경장 등으로 정부가 원조하기 어렵게 되자, 1894년부터는 미국 북장로교 외국 선교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애비슨 박

사가 병원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다.

알렌 박사는 북장로교 선교 의사로 일하였으나, 그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애비슨 박사가 온 후로는 주한 미국 공사관에 관계하게 되어, 애비슨 박사가 병원 일을 전적으로 맡아 하게 된 것이다.

애비슨 박사는 선교 의사로서 한국에서 일생을 일한다 하여도 자신이 늙어 일할 수 없게 될 때 새로운 선교 의사가 오지 않게 되면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할 한국인 의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병원을 확장하여야 의학 교육을 할 수 있겠고, 이런 꿈을 성취하려면 자금이 있어야겠는데, 선교부로부터는 일시적으로 그런 자금을 받을 희망은 없는 때이었다.

그리하여 박사는 간절한 기도를 계속하였었는데, 때마침 1899년에 미국의 뉴욕 시에서 국제 선교 협의회가 열리게 되어 박사도 참석하게 되었다. 그는 그 회의에서 연설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한국의 의료 사업과 의학 교육이 기독교 선교 사업에는 물론 한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한 기도와 함께 역설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하였던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시의 교회 원로이고 부호인 세브란스 씨가 그 연설에 감격하여 박사가 요구하는 자금을 내놓게 되어 그는 더할 바 없는 기쁨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선교사라 하여도 다 사람들이라 한국의 지방에 주재한 선교사들은 그 많은 돈을 제증원에만 쓰지 말고 지방에도 나누어 병원을 경영하는 것이 선교 사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하여 선교 본부에 청원하게 되자 박사는 이 일을 세브란스 씨에게 연락하였다. 세브란스 씨는 이 자금은 애비슨 박사가 하는 사업에만 쓸 것이므로 다른 사업에 쓰게 된다면 그 자금을 회수하겠다 하여 선교 본부에서도 하수 없이 애비슨 박사가 하는 사업에만 쓰기로 하였다.

박사는 남대문 옆 도동에 병원 기지를 마련하고 병원을 신축하는 동시에, 한국의 유망한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1899년부터 정식 의학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한국 근대 의학 교육의 시작이었고, 제증원이라는 병원 이름은 돈을 기부한 독지가를 기념하기 위

하여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바꾸어 부르게 되었으며, 병원 의학교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발전되어 왔다.

자기의 하던 사업을 자기가 늙어서 할 수 없게 될 때 누구에게 맡겨서 이 일을 계속하게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에비슨 박사는 자신이 하던 사업을 선교사가 와서 계속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곤란한 것으로 알았었다. 그리하여 한국 안에 있는 선교 기관이라 하여도 한국인이 그 기관의 본뜻을 이어받아서 계속하는 것을 양성하려고 크게 노력하였고, 또 한국 안에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서 선교사를 파견하게 되어 각 지방의 선교사가 주재하는 곳에는 거의 다 병원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서울에는 각 선교부가 합하여 병원과 의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박사는 이 일에 힘썼던 것이다.

병원도 병원이려니와 의학 교육에 있어서는 자기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므로, 북장로교 선교부에 의학 교육과 병원 일에 협력할 선교사를 더 보내달라고 요청한 결과, 1904년에 허스트 박사가 북장로교 외국 선교부로부터 부름을 받고 세브란스에 의료 선교사로 와서 에비슨이 경영하는 병원과 대학 교육에 협력하게 되었다. 그 때에는 한국에 교육법이 없었고, 학교 제도에 관한 법도 없었다.

1899년부터 정식으로 의학 교육을 시작하였으나, 제 1회 졸업생은 1908년에 나오게 되었다. 그 때는 누구나 병원에서 몇 해 일하다가 나가서 개업하여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는 시대였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다 나가서 개업을 하여 잘 사는 사람이 없지 않은 시절에 몇 사람만은 졸업장을 받아 가지고 나갈 결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 시절에는 에비슨 박사의 판단에 이 사람이 나가서 의사로서 행세할 수 있으리라고 믿게 되어야 졸업장을 줄 때였다. 그리하여 2회 졸업은 1회 졸업 3년 후인 1911년에 있게 되었다. 요즘 같으면 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회 졸업생 수가 7명이 된 것은, 그 중의 2인은 정부에서 경영하는 대한 의학교를 졸업하고 세브란스 3학년에 다시 입학하여 1908

년에 같이 졸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당시 세브란스의 학 교육은 국가에서 경영하는 학교보다 훨씬 수준이 높았다는 것이다. 일본에 우리나라가 강점되어 학제가 발표될 때까지는 애비슨 박사의 판단에 따라 졸업을 했다. 지금에 와서 만일 애비슨 식으로 졸업을 시키는 일이 있다면, 문교 당국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학생들의 데모에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애비슨과 허스트 두 분이 한국어도 잘 못하고 한국어로 된 의학 용어도 없는 시절에 의학 교육을 시작하였다는 것도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내과에서도 몇 분야로 나누어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는데, 두 분이 아니 가르치는 과목이 없이 의학에 관계되는 것을 다 가르쳤으니, 어떻게 가르쳤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도 곤란하다. 그러나 그 시절에 졸업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개업한 의사들은 다 편작 이상의 명의라고 평판을 받았고, 인간적으로 정승의 대접을 받았었다. 지금도 의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졸업시켜 내보내어 의사 행세를 하게 된다면, 그 시절과 같은 평판과 대접을 받을 것은 틀림없는 것같이 생각된다.

애비슨 선생도 우리 말을 몇 마디 못했지만, 허스트 선생은 더욱 말이 아니었다. 산부인과 의사는 손가락에 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낫손가락에 눈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도 학생들은 그 말을 잘 알아들어서, 졸업하고 지방에서 개업하는 세브란스 출신들은 다 산부인과 전문의라는 명성을 가졌다.

애비슨 박사는 그 몇 마디 아니 되는 우리 말로 강의하다가 학생들에게 “내가 말한 것을 다 알아들었느냐?”고 물을 때 “예” 하지 않으면 강의를 반복하고, “알아들었습니다” 하면 “이제 내가 강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하여 “예” 하지 않으면 또 강의를 반복하였으므로, 학생들은 그 몇 마디 아니 되는 우리 말로 애씨 하신 강의를 못 알아들어도 “예”라고 대답하였다. 지금 선생들이 학생이 알아들고 못 알아들고는 관계 없이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교육이었다.

어찌 되었든 애비슨 박사의 교훈을 받고 의사가 되는 사람들로서

서울에서 개업한 사람은 별로 없었고, 거의 다 지방의 기독교 계통 병원에 가서 몇 해 일하다가 개업하였으며, 그 시절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개업하면 그 지방에 거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아마 세브란스의 전통이었다면 전통이 아닌가 생각된다.

4

애비슨 박사는 병원을 운영하는 데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의학 교육을 시작하였음은 물론, 간호원이 없어서는 병원을 옮겨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북장로교 외국 선교부에 간호원을 파송할 것을 간청하여 1897년에 미스 쉘라(Miss E. L. Shielar)가 세브란스에 오게 되었다. 그녀가 병원 간호원장으로서 한국의 간호 교육을 1906년부터 시작한 것이 오늘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모체이다.

대한제국 시절에는 선생의 뜻대로 교육에 연한이 없었으나,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후에는 학제가 발표되어, 전문학교는 의학을 4년제로 하여 학과목이나 사람됨이 의사로서 행세할 수 있다고 보이면 4년에 졸업을 주게 되었다. 선생의 의견에는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하여도 4년 동안 공부한 것으로는 사회에 나가서 의사 노릇 하는 데는 의술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는 졸업 후 1년 간은 각 과로 돌며 실습을 위주로 한 후에 의사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의사 생활을 통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인턴 제도를 세브란스에 두었는데, 관립 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상당수가 세브란스에 와서 인턴 생활을 하였다. 조국이 해방된 후에 국내 각 의학교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세브란스에서 시작한 것이 한국에서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기초 과목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실습에 중점을 두었지만, 임상에 있어서는 3학년년부터 실습을 위주로 하였었는데, 근래에 와서 3학년부터 실습을 위주로 하는 것이 의학 교육에 새로 도입된 것으로 생각하나, 애비슨 선생이 4년제 의학 교육에 있어서 3학년년부터 실습을 위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은 오늘날만 생각하고 교육하는 교육자와는 너무 같지 않았으니 이것을 소위 선견지명

이라고 요즈음에 와서는 말한다.

일제에 강점 당한 후에는 여러 가지로 교육에 압박이 많게 되었고, 또 기독교 고등교육 특히 의학 교육에 압박을 가하여, 세브란스 졸업생은 졸업 후에 의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의사 행세를 하게 되어 1914년부터 1922년까지 계속하였었다. 그 동안 별의별 방법으로 세브란스 교육에 지장을 주었으나, 선생께서는 이러한 까다로운 법으로 제재한다 하여도 그 법에 잘 순응하여서 계속 세브란스의 발전을 위하여 1935년에 한국을 떠날 때까지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다음과 같은 성경 귀절을 언제나 기억하였음이라고 생각된다. 즉,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꾸준히 하노라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생은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같이 일하는 의사나 그 밖의 어떤 직분을 맡은 직원에 대하여 결점을 보아 내보낼 일은 없었다. 누구에게나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잘하도록 도와 주었고, 직원들 간에 투서나 또는 직점으로 누가 어떠하다고 보고를 하여도 그 글이나 말을 듣고 그렇다고 생각한 일은 없었다.

일례를 든다면, 병원에 목사가 없던 시절에 전도사를 두어 외래환자나 입원 환자에게 전도도 하고 직원들에게 아침 예배도 인도하게 하였었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의사들이 음주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다. 전도인이 하루는 선생을 찾아와서 세브란스 의사 아무개가 술을 마신다고 보고한즉 선생은 “나는 당신을 의사들의 감독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니 당신 일만 잘하라”고 하였다. 직원에게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대하여서도 얼마나 관대하였는지, 오늘날의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일이 많았다. 물론 사람됨이 4년 공부하여 의사 노릇하기에 시원치 않은 인간은 방학 후 다음 학기에는 오지 말라고 편지를 보내어 동료들이 아무개가 어떻게 되어 학교에 다시 오지 않는지 알지 못하는 방법을 썼고, 인간됨이 4년 공부하여 사회에 나가서 의사 노릇 함직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생활에 속속들이 관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학생이 밤에 술에 취하여 선생에게 학생

으로서는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 하여도 정확이나 퇴학을 시킨 일은 없었다. 그 학생이 어느 날에나 나를 퇴학이나 정확을 시키려나 하고 매일 아침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도 선생은 그 학생에게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하였고, 마침내 4년을 마치고 졸업장을 들고 찾아뵈고 “선생님의 은덕으로 졸업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고 인사드릴 때, 선생은 나아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말라든지 지나간 일과 같은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지 않고, 다만 나가서 좋은 사람 되라고 하였다. 그 학생은 일생 동안 좋은 의사로서 자기의 저축한 재산의 거의 전부를 모교에 바친 일이 있었다. 의사나 직원 중에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타일러서 불평을 해소시키도록 애썼다.

지금도 아침 여덟 시에 등교한다는 불평이 더러 있으나, 당시 아침 여덟 시에 등교한다는 것은 모두가 놀랄 일이었다. 그러나 그때 학생들은 일찍 등교하는 것을 우리 학교의 자랑으로 알았다. 선생은 서울에 있을 때면 아침 예배 시간에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 앉았으므로 당시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도 빠짐없이 다 출석하였다. 즉 아침 예배 시간도 세브란스 교과목의 하나라고 생각하여서 결석하는 학생은 없었다. 그렇게 모든 학생이 생각하였던 것은 선생의 일상 생활이 실천궁행인 결과였다. 지방에서 개업하고 있는 졸업생이라도 애비슨 교장이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에 간다든지 또는 미국에서 언제 돌아온다든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교통이 불편한 시절이었어도 서울에 와서 인사를 드렸다. 그 때는 지금에 비하면 마음에 여유가 있었으므로 그리하였을 것이다.

선생은 세브란스를 당시 복장료교 선교부에서 단독 운영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선교하는 여러 신교의 외국 선교부가 합하여서 운영하는 것이 병원과 학교 발전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가졌었는데, 그 일이 1911년에 와서야 이루어져서 각 교파 선교부에서 대표를 파송하게 되어 소위 세브란스 연합 병원과 의학교로 1912년부터 발족하게 되었고, 원두우 목사와는 호적이 달라도 친형제 같이 지내면서, 두 분이 하는 일을 서로 도와 추진시켰다.

원두우 목사는 당시 조선에 기독교 대학을 세우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일제 강점하의 교육령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대학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 기독교 연합 대학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영어로 Chosun Christian College, 우리 말로는 연희전문학교라고 부르게 된 기관에 세브란스를 합하여 경영하려고 하여도 당시 총독부가 기독교 기관이 너무 비대하여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허가를 얻지 못했다. 그리하여 두 전문학교로 운영하게 되어, 원두우 목사가 전문학교의 교장이 되고 애비슨 박사가 부교장으로 일하다가 1916년에 원두우 교장이 별세하게 되자 애비슨 부교장이 두 학교의 교장으로 1934년 은퇴할 때까지 일하였다. 그 후 1957년에 두 학교가 합하여 연세대학교로 되었는데, 이것은 원두우 목사와 애비슨 박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기독교 관계의 모든 기관은 각 교파가 힘을 합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상이 실현된 것뿐이다.

우리는 보통으로 무슨 “일을 본다”고 말하는데, 선생은 한국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왜 보기만 하느냐고 하면서 이것이 한국 사람의 말에서 꼭 고쳐야 할 것이라고 일상 말씀하였다. 일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일을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를 들어 말씀하였다. 대한제국 시절에, 여름에 외국 공관원들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테니스를 하는 것을 구경하러 사린교를 타고 나와 앉아 있던 한 고관이 그 비지땀을 흘리며 공을 치는 공관원에게 당신 집에는 공을 칠 하인이 없느냐, 왜 이 더운 날 땀을 흘리며 공을 치느냐고 하니 공관원 대답이 당신은 음식도 하인에게만 먹이느냐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일을 본다는 사람에게는 늘 이야기하였다.

한국을 떠날 날이 가까와 왔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면서, 한국 사람에게는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 것이 유감이라고 하면서, 생활하는 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거듭 말씀하였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늘 현상 유지한다는 말을 하니 세상에 어디 현상 유지란 일이 있겠느냐,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같이

나아가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현상 유지가 있겠느냐, 현상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대신에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나아가도록 노력하여야 보람 있는 삶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마지막 예배 시간에 간곡히 말씀한 것을 그 때 학생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선생은 내가 세상에 나기 전부터 내 고향에 다녔다고 늘 자랑하였다. 외국 손님을 대접하게 될 때에는 늘 나를 불러 주시어 참석하였는데, 그 손님들에게 이놈의 고향에 이놈 나기 전에 내가 다녔는데 이놈이 지금 나와 같이 일하고 있다고 지나가는 말씀같이 하셨다.

나는 그분을 학생 시절부터 말하자면 15년 간 모시었는데 한 번도 성을 내거나 또는 낙심하며 말씀하는 것을 경험한 일이 없었다. 1923년 병원이 학생들을 교육하기에 너무 작아서 증축하여야겠는데 건축비가 없어서 막연한 중에 있던 차에, 1904년에 완공된 건축물 서편 언덕을 파내자 하여 선생과 학생들이 하학한 후에 열심히 흙을 파고 지게와 들것으로 판 흙을 운반하는 사진을 선교부와 세브란스 씨에게 보낸 결과 세브란스 씨가 20만 달러를 건축비로 회사하여 10만 달러로 병원을 증축하고 10만 달러를 기금으로 둔 것이 오늘 연합 선교 재단에 있는 모교의 기금이다.

선생은 1956년 8월 28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96세로 타계하였어도 선생의 후학들은 그 때 빙그레 웃는 얼굴과 한국을 떠나면서 남기고 간 말씀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다.

〈글·김명선/전 연세대 부총장〉

오 공 선

(1878—1963)

1

붓을 들면서 그분께 송구스런 생각이 앞섰다. 생존하셨더라면 “무슨 부질없는 소리를 쓰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 분은 생전에 당신의 선행이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고, 그 일을 남들이 길이길이 기억하여 주기를 바라지도 않았던 분이기에 때문이다. 당신이 높은 자리에 처하게 되거나 포상을 받아도 자랑하지 않으셨고, 또 누가 당신을 오해하고 헐뜯더라도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변명을 한 적도 없으시며, 누구누구는 이러니 저러니 폄하하는 법도 없었다. 체수(體數)는 옛날 선비처럼 작았지만, 그 분을 대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거인이요 태산과 같이 의연한 분임을 느끼게 하였다. 공정무사하여 서릿발같이 차가우면서도 넓은 공도(公度)와 아량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 주고 용서하며, 남의 어려움을 돕기에 자신을 희생하는 넓은 사랑을 가지셨던 분이였다.

그 분이 말씀으로 교훈하지 않아도 자손들은 그의 생활을 통하여 동양 도덕의 효(孝)와 충(忠)을 배웠고, 성경을 알기 이전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어떤 것이고 예수의 사랑과 봉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배웠으며, 서양과 동양의 윤리 도덕, 생활 양식의 올바른 취사선택과 조화를 배울 수 있었다. 그는 일생을 묵묵히 사회와 국가의 기초의 일부를 굳건히 다지는 일에 헌신하시며, 거부(巨富)가 될 수 있는 기회도, 고관대작의 유혹도, 영웅이 될 수 있는 길도

마다 하신 채 초지일관 한평생을 살다 가신 분이이다.

해관(海觀) 오궁선(吳兢善) 선생은 1875년 10월 4일 공주 사곡면 구암리에서 감찰(監察) 벼슬을 지낸 해주 오공 인묵(仁默)씨와 한산 이씨의 장남으로 태어나셨다. 일찌기 그 위로 10 남매나 많은 뒤에 얻은 아드님이기에 부모는 각별한 정성을 그에게 기울였다. 그리하여 해관 선생이 태어나자마자 그 때까지 살던 터전을 문중에 맡긴 채 공주군 우성면 건천리로 자리를 옮겨 앉기까지 하였다. 10세에 이당진(李唐津, 당진 고을을 산분인 듯) 서재에서 동몽선습 통감 등을 배우고, 12, 3세 때 오언 칠언의 절귀를 짓게 되었고, 그 운(韻) 다는 일까지 하였다. 14세 때 밀양 박씨와 혼인하였고, 검상동 이후 승지(李厚承旨, 고종 때 승지)에게 가서 수년 동안 한학(漢學)을 배웠다.

1896년 18세에 서울에 올라오셨고, 구한국 주사가 되셨다. 그 전후 사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서울에 올라오셔서 정동에 있는 이후 승지의 빈 집에 머물며 그의 하인의 식사 수발을 받으셨던 것을 보면, 아들의 출세에 대한 부친의 기대와 이후 승지의 배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그는 신학문을 배우러 배재학당에 입학하였고, 협성회(協成會) 간부로 「협성회보」 창간에 참여하였고, 활판소 일을 하여 학자(學資)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는 처음 배재의 기숙사에 기거하였고, 같은 해에 상투를 잘랐다. 전통적인 유교적 전통대로 “신체발부는 부모가 끼친 것”이라 하여 소중히 다루던 그는 이 변화를 부모께 보고하기 위해 등곳이 달린 채 자른 상투머리를 소포로 집에 부쳤다. 소포를 받은 어머니와 부인이 섭섭하여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그는 배재에서 영어와 소학 정도의 산술을 배웠고, 지리, 역사도 배웠으며, 목총을 들고 교련을 받기도 하였다. 그가 배재에 재적하던 시절은 한창 독립협회의 활동과 「독립신문」의 계몽으로 민중의 개화 의식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그는 당시 개화 청년들이 지녔던 개화에의 열의와 국가의 장래에 대한 걱정으로 많은 생각을 하였고, 무엇인가 기울어져가는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가 근대 의학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깊은 고민과

속고 끝에 도달한 것이었다.

1899년말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내려진 해산령과 뒤따라 취해진 관계 인사의 체포, 탄압으로 그는 시골에 내려왔으면서도 집에 있지 못하고 공주 침례교 선교사 스테드만(Steadman) 씨 집에 2년 간 은신하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스테드만씨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편 영어 공부를 하였다. 이 기간은 한편으로 그가 배재 시절부터 믿기 시작한 기독교 신앙에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시기였다. 그리하여 그는 1900년 금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후일 “배재 시절에 예수 믿던 것은 외모만이였다”고 술회한 것을 보면, 2년 간의 은신 생활이 그에게 신앙에 대한 깊이를 더했음을 간접으로 알겠으며, 세례는 그 변화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테드만이 강경으로 옹아가 진도하다가 일본으로 가게 되면서 군산에 와 있던 의사 출신 선교사 알렉산더(Alexander)의 한국 선생으로 소개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그 뒤 몇 달 안 되어 알렉산더는 부친상을 당했고, 부친의 유언에 따라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해관의 인격과 의학에 대한 꿈을 익히 알고 있던 그는 선뜻 학비는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하며 같이 가기를 종용하여 도미(渡美)를 결심하게 되었다. 1902년 경월 서울로 올라와 2년 동안의 은신 생활 중 길러 틀었던 상투를 다시 자르고 양복으로 갈아입고 인천에서 서병호 감리로부터 여권을 받아 “코리아”호를 타고 장도에 올랐다. 나가사키(長崎)에 기항했을 때 하와이 첫 이민 배를 보았다. 여자도 한둘 눈에 띄이고 갓 쓴 남자도 있었는데, 울고 있는 장면을 목도하며 비장한 생각에 잠기기도 하였다. 코베(神戸)에서 미국 여권을 받아 가지고 요코하마에서 내려 토오쿄오에 들러 정치학을 하고 있는 공주 출신 김모라는 유학생에게 정치학보다 기계에 대한 공부를 할 것을 권면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로 미루어 그가 의학을 지망하였던 의도를 잘 알 수 있겠다.

요코하마를 떠나 12, 3일 걸려 풍량이 센 태평양을 횡단하여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육로로 시카고를 거쳐 알렉산더의 고향인 켄터키 주 스프링 역에 도착함으로써 미국 유학 6년 반

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우선 그는 켄터키 덴빌(Danville)에 있는 센트럴 대학에서 2년 간 물리학과 화학을 전공하였고, 같은 주 루이스빌(Louisville)에 있는 루이스빌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4년에 졸업하고, 여름에 시립병원에서 인턴으로 임상 실습을 하였다. 의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나, 해부학 시간의 악취로 흡연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가 기독교인이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운다는 일로 힐끗음을 곧잘 당하였는데, 그는 개의치 않고 돌아갈 때까지 흡연과 술을 즐겼다. 그러나 한 번도 절도를 넘겨 취하여 실수함을 보지 못했다. 술을 즐기되 자신이 취했다고 의식하면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고 자리에 들곤 하였다.

당시 그 곳에서는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하여 교회에서까지 흑백 인종이 차별되었고 이발소나 하숙에서 동양인까지 유색인으로서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그러기에 그는 4년 동안 같은 이발소와 같은 하숙에서 지냈다. 처음에 이발소에 향의하였더니 "That's my business!"라 하여 몹시 자존심이 상하였고, 국운이 기울어져 가는 시절이라 더욱 그를 상심케 하였다 한다. 그는 당시 알렉산더에게서 월 30달러의 학비 보조를 받았고, 방학 휴가를 이용하여 고향하며 공부하였다. 당시 담배 회사에서 일하면 주급 2달러 내지 5달러 정도였고, 방세와 식비가 3-5달러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미국에 있는 동안 1주일에 한 번 꼭 부모님께 문안하였다. 그런데 어느 때 3개월 가량 편지가 두절된 적이 있었다. 온 집안이 근심에 싸여 그의 안부를 근심하였더니 장티푸스에 걸려 고생하기도 하였다. 그는 그 곳에서 늘 부모님께 누이동생도 공부시킬 것을 부탁하였고, 1905년 이후로는 국권의 상실에 상심하여 중국 거지를 보고 "그래도 너는 나라가 있지..." 하며 부러워했다는 심경을 써 보내기도 하였다. 루이스빌 시립병원에서의 인턴 생활은 기울어 가는 나라를 생각할 때 초조한 것이었다. 그는 반년만에 중단하고 1907년 9월 귀국하였다. 귀국하자 통감 이토히로부터의 교섭이 있었으나 거절하였고, 대한병원(일인 경영)에서 100원의 월급으로 초빙하였으나 마다 하고 선교부에서 경영하는 군산 병원(장로교 계통)으로

내려가 월급 50원을 받으며 산촌 환자와 벗하였다.

그가 유학을 떠날 때 선교부에 의무가 있던 것이 아니었으나, 기독교 계통의 선교사의 도움이 컸고, 또 의술은 인술이요 봉사요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편으로 여겼던 그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귀국 후 그는 알렉산더에게 진 빚 2,300여 달러를 갚고자 하였더니, 그가 그것을 갚을 생각 말고 한국 사람을 위해 써달라고 하여 그를 기념하여 군산에 안락(安樂) 소학교를 세웠다. 이 밖에 그는 바쁜 병원 생활과 어려운 재정 속에서 군산에 영명학교를 창설했다. 그는 또 완고한 유자(儒子)인 아버지를 설득하여 세례를 받게 하였다. 금강에 나가 침례받은 후 그의 부친은 “양반이 아들 덕에 옷을 다 벗고 망신하였다”고 하였다 한다. 그 뒤 부친도 신앙에 깊이 들어가 해관의 제의에 찬동하여 구암리 교회를 세웠고, 자기 전장(田莊)을 내놓아 일년 계량을 하도록 협력하였다. 군산 병원에 3년 봉직하고 완주와 목포 야소교(耶蘇敎) 선교병원장을 역임하며, 한편 목포 정명 학교장도 겸직하였다. 당시 그의 일과는 말할 수 없이 고된 것이었다. 당시에는 전문별 분야가 있을 수 없었다. 각 과를 두루 보았고, 안과 수술까지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름이 널리 알려져 환자가 많아, 많이 오는 날은 170명까지 환자를 보기도 하였다. 미국에 유학한 당대(當代)의 명의요, 당시로서는 첨단을 걷는 개화인이면 거드름을 피우고 더러 대접받기를 청해 봄직도 하였지만, 그는 유학 전의 한국 전통대로 부모에 대한 효도도 실천했고 형제간의 우애도 지속했다. 당시 해관 댁에 그의 사촌이 조실부모하고 와서 자라고 농사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는 병원이 끝난 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사촌과 일을 함께 하였다. 사촌이 혹시나 소외감을 느낄까 보아 그가 기거하는 곳에 가서 함께 새끼를 꼬아 손바닥에 피가 맺혔던 일도 있었다.

그는 가정의 화목함을 주장하기 위해 가족 상하가 함께 참여하는 게임을 창안해 웃게 하였다. “아버님도 어서 오세요” 하며 게임에 완고한 그의 부친을 참여시키고자 하면 “에헴” 하시며 사랑으로 나가시곤 하였다 한다.

2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보수를 도의 시하고 군산과 광주에서 산골의 불우한 환자를 찾아 하루 최고 170명까지 돌보던 고된 일과 속에서 한편으로 학교를 세워 당시 나날이 압담해만 가는 민족의 운명 앞에서 그는 청년을 일깨우는 일에도 정력을 기울여 마지 않았다. 1911년 스프루(sprue)에 걸려 귀국하게 된 포사이드 선교사의 후임으로 목포 야소병원장으로 옮겨가서도 같은 미션계 정명고등학교장을 겸임하고, 낮에 도보로 또는 소를 타고 배도 타며 환자를 찾아 다니던 고단한 몸을 이끌고 밤이면 학교 야학에 나가 청년을 가르쳤다.

그러던 중 1913년에 그는 세브란스 의학교의 교수겸 의사로서 부름을 받게 되었다. 즉 그 동안 북장로교에서만 운영해 오던 세브란스 의학교를 O. R. 애비슨의 노력으로 각 교파 연합으로 운영하도록 결정을 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애비슨은 평소 그가 의중에 두었던 해관을 남장로교 선교 의사 자격으로 초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관이 의학 교육의 강단에 서게 된 일은, 그가 귀국 후 사명으로 여겨 힘써온 의료 봉사와 청년 교육이라는 그의 2대 명제를 하나로 묶어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해관은 세브란스로 온 처음 2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바쁜 생활을 보내야 했다. 당시 세브란스의 교수 진용이 골고루 갖추어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서양인 교수의 강의를 학생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그 위에 그것을 통역해 줄 사람도 드물었던 것이다. 해관은 부임한 이후 곧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의 기초 과목부터 외과, 내과 등 임상 과목에 이르기까지 직접 강의하거나 서양 교수들의 강의를 통역하여 “백과대전”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그 뒤 세브란스는 여건들이 정비되어 갔다.

일제는 1915년 전문학교 규칙과 사립전문학교 규칙을 공포하고 사립 고등 교육 기관에 압력을 가하여 교수의 일본 학위 소지를 강요하니 부득이 해관은 1916년 4월부터 1년 간 일본 동경제국대학 의

학부에서 피부과학을 견학하고 돌아왔다. 그의 동경 체류 동안 즐긴 일본 형사가 뒤를 미행하였고, 일본 천황의 거동이 있을 때마다 더욱 감시가 심하였다고 한다. 동경대학에 체류하는 1년 동안 별로 학문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었던 모양으로 연구실에서 해관에게 영어를 배우기를 요청하여 교실원을 가르치며 지냈다. 이듬해에 귀입하여 분과 제도에 따라 비뇨기와 교수겸 과장에 임명되었다. 이후로 그는 주로 피부비뇨과 전문 교수로서 환자의 진료와 후배의 양성에 전념하였다. 한편 이 즈음 그는 또 하나의 필생의 사업인 사회 사업을 위해 보육원을 설립하였다.

1921년에 그는 세브란스 학감에 취임하였다. 그 뒤 1929년 한국의 사로서 처음으로 구미 의학계를 시찰하기 위해 세계를 일주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를 거쳐 오스트리아에 가서 빈 대학에서 피부과학을 연구하고 1930년 9월 러시아를 경유, 시베리아 철도편으로 귀국하였다. 그 뒤 그는 세브란스 부교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교실에서 하는 바를 더 학문화하였고, 교실원의 양성에도 힘썼다. 1934년 2월 16일 이사회는 정년으로 퇴임하는 애비슨의 후임으로 그를 세워 제 2대 교장(한국인으로서 최초의)으로 임명하였다.

애비슨 박사는 원만한 인격자요 신앙인으로서, 해관은 그의 인격을 존경하여 보필하여 왔고, 애비슨 역시 해관의 인격과 능력을 알아 많은 참조를 물리치고 일찍부터 그를 후계자로 내정하고 있었던 것 같다. O. R. 애비슨의 해관관(觀)이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으나, 1932년 새로 태어난 해관의 한 외손자를 축복하여 “할아버지 같은 인물이 되라”고 하였다는 한 마디로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해관이 교장으로 재임하였던 1941년까지의 8년은 일제 말기로 우리의 사립 교육 기관이 온갖 박해로 어려움을 받던 수난기였다. 자칫하면 일인들이 트집을 잡아 우리의 교육 기관을 접수하려고 시도하던 시기였다. 그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브란스를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해 지혜와 힘을 총동원하였다. 그리하여 세브란스를 임상 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면에 있어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

게 하였다. 그의 구체적인 노력을 「연세 80년사」에 의지하여 기술하면, “한국인 유자격 교수의 양성에 전력하여 미구(未久)에 각 주임 교수의 한국인 취임, 기초학 교실의 교수 이상 인원 보강, 연구 시설의 장려 확충, 도서관의 완비 등 원래의 병원 중심의 인상이 짙던 세브란스를 ‘의학 교육 및 연구’라는 의학교의 본래의 사명과 책임을 비로소 완수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는 외관상으로는 엄격하고 근엄하였지만, 내면은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온유한 분이였다. 그는 학생들의 정당한 항의를 잘 받아들였고, 교수 배치, 교수 내용 등 학문적인 학생들의 불만과 요구는 즉각 받아들여 몇 번이고 고쳐 학사 행정에 반영시켜 주었다. 또 우리 청년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앞날을 염려하여 보이지 않게 많은 배려와 주선을 해 주었다.

젊은 기분에 간혹 잘못을 저질러 선생님 방에 불려가 호되게 꾸지람을 들은 뒤 선생이 회전의자를 돌려 돌아앉으시며 “젊은이가 그런 맛도 있어야지” 하는 말씀에 조금 전에 들은 호된 꾸지람을 다 잊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 방을 나올 수 있었다고 김명선(金鳴善) 선생은 회고하고 있다. 또 초창기의 해관은 절대로 낙제를 주지 않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시간초에 전 시간의 복습을 시키며 대답을 못하면 눈에서 불이 나도록 꾸지람을 하지만, 마지막엔 급제를 시켜 주어 어떤 학생이 항의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해관은 “내 보기에 그가 의사 노릇 할 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급제시켰다. 지금 미신이 창궐하여 무지한 동포가 병으로 죽어가는 현실에서 한 지엽적인 지식의 결합만을 들어 그의 의사 되는 시기를 늦출 수는 없지 않겠는가. 속히 배운 사람들이 나아가 무지한 동포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말하여 그 깊은 뜻에 감명을 받았노라고 이영준(李永俊) 씨는 회고하고 있다.

또 이런 일도 전한다. 학생이 성적이 불량하여 낙제하거나 학생 신분에서 어긋나는 큰 잘못을 저질러 퇴학을 시켜야 할 적에 한 번도 교수 회의에 회부하여 공개하는 일이 없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습하여 학생의 장래가 그 일로 인하여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배려

하였다. 당시 여학교 교사로 있던 그의 누이동생들에 대한 당부 속에서도 “젊은이의 앞날을 막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강조하곤 하였다고 한다.

그는 졸업생들의 보다 유리한 발전을 위해 총독부로, 일본 후생성으로, 여러 가지로 아니꼬운 일을 당하면서 뛰어다니며 노력하였다. 그 한 예로, 1933년까지 세브란스 졸업생의 의사 면허는 일본 본토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일종의 한지 면허였는데, 그의 꾸준한 노력 끝에 1933년 일본 의학교와 같은 자격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후배에게 발전의 길을 열어주는 의미에서 1941년에 65세 정년 제도도 마련하였고, 스스로는 미리 앞당겨 64세에 정년 퇴임하여 한국인의 손에 교장직을 물려주고 나왔다. 그는 생전에 사육과 사십이 없었다. 그리하여 때로는 그의 공이 엉뚱하게 다른 사람의 것으로 선전되고, 은고(恩顧)를 입은 이가 그를 헐뜯기까지 하는 일도 있었으나, 묵묵히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일의 처리에 있어 자신의 장래나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에 전혀 개의치 않았고, 그 사업과 기관의 올바른 유지와 발전만을 척도로 판단을 내렸다. 그는 세브란스 재임 동안 개인적으로나 체플 시간 같은 때 그 후배와 제자들에게 늘 “의술은 곧 인술”이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기술에 앞서 올바른 인격과 봉사 정신을 갖기를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그는 의료가 축재(蓄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업의가 하나 늘면 그만큼 조선에 가난한 사람이 더 생긴다고까지 말하곤 하였다.

한국의 의사 면허 1호인 해관이 부와 안일과 명성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었던 개업의 길을 버리고 의료를 통한 봉사와 의학 교육자로서의 모범적인 일생을 살아준 일은 근대 의학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데 지극히 복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3

세브란스를 은퇴한 해관은 1919년부터 시작해 온 고아 사업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가 고아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이러하다. 1919

년 3·1 운동의 함성이 전국에 울려 퍼진 뒤 많은 고아들이 서울 거리를 헤매게 되었다. 고아들이 추위를 못 견디어 시장 안 쓰레기통 속에서 잠을 자고 나오는 것을 본 시장 상인 김병찬(金炳贊) 씨가 그들을 위해 무료 숙박소를 차렸으나 돈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 뜻을 전해 들은 해관은 윤치호(尹致昊), 김일선(金一善), 송덕수(宋德洙), 김병찬 등 5인의 뜻을 모아 본격적인 사업을 벌이기로 의논하여 서대문 밖 옥천동에 있는 언더우드의 3천 평 공터를 10년 연부로 사들여 집을 짓고 재단법인 경성 고아원을 발족시켰다.

발기인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 기금의 대부분을 해관이 부담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국인의 손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고아원이 서게 되었다. 그는 1936년에 원아들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기 위하여 안양에 8만여 평의 땅을 구입하여 현(現) 기독교 보육원 자리로 옮겨갔다. 또한 원아들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 채의 단독 주택을 짓고 보모 중심의 한 가족을 이루도록 배려하였다. 그리하여 단체 생활의 획일성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커가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 터전의 모든 것을 그는 “아이들의 것”이라고 표현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였다. 따라서 해방 후 자칫 사회 사업이 영리 사업시 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 보육원만은 보육원이 서야 할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6·25 전란 후 그 곳을 찾은 필자가 감명을 받은 사실은, 커다란 창고에 구호 의류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전문 재봉사가 있어 그것을 각 원아에게 맞도록 개조하고 있던 일이다. 구호 의류가 시장에 범람하던 그 시절에 그것이 보낸 사람의 의사대로 온전히 “아이들의 것”이 되어가고 있는 이 정상이 필자에게 감명을 준 것은 당시의 상식을 넘는 비정상적인 세태의 탓만이었고 고 하지 못할 그 무엇이 있었다.

부산 시절, 안양 시절에 그는 비서 하나 없이 고아를 위해 늘상 타자기 앞에 앉아 있었다. 전시에 미국을 위시한 우방의 후원으로 고아들을 위한 외국과의 서신 연락이 많았고, 그 뒤에 고아들의 자선가에 대한 감사 편지를 일일이 영역(英譯)하여 혼자 타이핑하여

보내기 위함이었다. 팔손이 넘었을 때에도 일의 분주함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고, 피곤하다는 말 한 번 없이 묵묵히 타이핑하던 모습이 두고 두고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해관은 고아 사업 이외에 재단법인 경성 양로원을 설립하여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사업에도 힘썼으며, 1946년 전국 사회사업 연맹 이사장, 1952년 한국 사회사업 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각종 사회 사업을 이끌어 왔다.

이와 같이 여러 기관에 관계하여 많은 직책과 명예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사회 단체나 종교계, 교육계였으며, 초지일관 정치에 간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정계에 나아갈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해방과 함께 진주한 미군이 가져온 자문 인사 리스트에 의해 군정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그는 사양하였고, 다만 일본인 기술진에 의해 움직이던 공장이 우리나라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게 되기까지 일본인 기술자를 억류해 줄 것 등 다섯 가지를 요구하였을 뿐이었다.

그 후에 배재학당과 독립협회 이래의 친구인 이승만 박사로부터 정계에 진출할 것을 종용받았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 박사의 간청에 못 이겨 부산 시절에 잠깐 구황실 재산 관리 총국장직을 맡았을 뿐이었다. 부산 시절 이 박사를 찾아 적언함으로써 두 노인의 인성이 차츰 높아지자 경호원들이 몰려오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며, 이 박사가 제공한 차 편을 마다 하고 돌아온 뒤 별로 접촉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박사가 망명하였다는 소식 앞에 망연히 먼 하늘을 바라보셨다. 친구의 앞날을 염려하여서였을 것이다.

해관은 사회에 대한 봉사와 자선을 행함에 있어 항상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였다. 배재학당 시절에 그는 서울 어느 골목길 처그러진 초가집에서 무능하고 게으른 남편을 탓하며 추위와 배고픔에 못 이겨 부부 싸움하는 집에 몰래 쌀과 나뭇단을 사서 보내주기도 하였고, 외치지도 못하고 사 줄 작자가 나서기를 기다려 밤 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우두커니 서 있는 가난한 시골 나무꾼의 나무를 사서 아무 집이고 근처 집 대문 앞에 쌓게 하였다는 일

화가 전하여진다.

세브란스 시절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전하여진다. 의주로 전차 속에 세브란스 학생이 앉아 있었다. 해관이 마침 올라타서 자리를 양보하는데 굳이 마다 하더니 내릴 때 슬그머니 돈을 주머니에 넣어 주면서 “점심 안 먹었지? 어서 점심 사 먹어”라 하였다. 며칠 뒤 그 학생은 교장실에 불려갔다. 교장이 명함을 주며 아무개 씨를 찾아가 보라고 하여 당사자들만 알게 그 학생이 유지의 학비 보조를 받게 하였다. “선생님은 나의 피곤한 행색에 주의하시고 한눈에 고생하는 형편을 알아차리셨던 것”이라고 한 의사는 당시를 회고하였다.

그의 이러한 봉사와 자선심은 타고난 성품이기도 하였고 부모의 영향도 컸다고 본다. 그의 아버지는 의협심이 강한 분으로, 3년 간의 가뭄으로 호남 일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싣고 가 기민(飢民)을 먹인 분이며, 어머니는 동리의 어려운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으레 미역, 쌀, 간장을 보내주는 것을 상례로 삼던 분이였다. 그는 어렸을 때 새 누비 저고리를 추워하는 거지에게 벗어 주었다. 또 긴 장대로 무방비 상태의 상대를 공격하는 아이들을 만나면 긴 장대를 빼앗아 돌로 나누어 주며 공평한 조건에서 싸우게 하기도 하였다.

그의 가정에서의 사생활 역시 밖에서의 자세와 하나도 다름이 없었다. 그는 말 없는 실천으로 자손을 훈계하였고, 때로는 말 없는 꾸지람이 천 마디, 만 마디를 대신하기도 하였다.

해관 딱 작은 사랑에는 한창 나이 또래의 젊은 조카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끔 젊은 기분에 놀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수가 있었다. 굳게 닫힌 대문을 뛰어넘기는 하였으나 해관의 침소인 사랑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을 벗어 모두 손에 끼고 살금살금 사랑 앞을 지나칠 때 “그거 누구냐?” 하는 해관의 말에 오도 가도 못하고 숨을 죽인 채 우뚝 섰다가 몇 분만에 겨우 정신을 차려 앞사람을 따라 자기 방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내일 아침에 벌 일이 큰일이라 불 호령을 맡아 놓았다고 밤새 끙끙 앓고 일어나면 어제 밤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일언반구 언급이 없어서 다시는 늦게 들어

오지 못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그 분은 효도가 지극하였다. 들고 날 때 문안은 물론이지만, 수시로 부모의 주변을 살펴 누구에게 시키거나 부탁하지 않고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손수 부모님 방에 군불을 넣곤 하였다. 또 손주들과 어울려 숭바꼭질도 하였고, 서로 물을 끼얹는 물싸움으로 옷이 흠뻑 젖는 개구장이 놀이까지 함께 하여 주었다.

그러면서 일의 처리에 있어서는 냉엄하도록 공(公)과 사(私)가 분명하여, 공을 사의 위에 놓는 원칙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을 보지 못했다.

무슨 회의에서 “나는 내 관 뚜껑을 덮은 뒤의 일을 생각하여 이와 같이 주장한다”고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는 1963년 5월 18일 많은 자손과 기른 고아들의 애도 속에 향년 86세로 선종(善終)하였다.

해관의 일생을 돌아볼 적에 일생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만을 상대하여 사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오해와 비방에도 변명을 하지 않고 그의 증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선하다는 말 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가난하고 상처받은 거래의 마음과 육신을 함께 어루만지며 봉사와 사랑의 일생을 사시다 가셨다.

그는 생전에 많은 포상을 받았고 그의 사후 국가에서 문화 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그 분이 돌아간 지 10여 년이 흘렀건만, 그가 보여준 생의 모범과 유덕은 자손과 많은 고아, 제자들의 마음 속에 지금까지도 생생히 살아 있음을 볼 수 있다.

〈글·최숙경 / 이화여대 교수〉

원 한 경

(1890—1951)

1

1948년 초여름인가? 어느 날, 교정의 언더우드 동상 옆을 지나
는 땅딸막한 키에 다부진 몸매의 한 외국인의 모습이 어쩐 일인지
기억에서 사라지지를 않는다. 원한경(元漢慶, Horace H. Underwood)
박사의 모습이었다. 어쩌면 그가 물고 있던 파이프에 관심이 더 갔
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1937년 12월 발행으로 되어 있는 「문우」지에 실린 박영준 학생
(전 연세대 문과대학장)의 작인 “야심을 버려라”란 쇠귀에 “그리고 그
가 떠나던 그 날, ×잔을 같이 들고”라고 했듯이, ×과 ××는 입에
는커녕 글귀엔들 올려서는 아니 되는 금기 사항인 줄 이 학교에 몸
담은 자 다 같이 명심하는 터였은즉, 이 어찌된 탈선인고! 어떻게
동지적(?), 인간적(?) 친밀감을 느꼈던 게 사실이다.

6·25 동란 전해던가? 어느 날 노천강당에서 있었던 채플 시간이
였다. 연사는 위당 정인보 선생이었다. 예의 옥색 두루마기를 입은
위당 선생이 체구와는 닮지도 않은 까랑까랑한 음성으로 한국 문화
의 우수성을 줄줄이 설교하시다, 이야기가 신라 화백 제도에 이르렀
다. 그러자 뒷좌석 내빈석에 앉아 있던 원한경 박사 쪽을 슬며시
돌아보며 “이 미국 사람들이 뭐 민주주의는 자기네가 발명한 것인
양 자랑하지만, 그것은 무식의 소치요, 실인즉 우리는 이미 2천 년
전에 화백이라는 다수결 아닌 만장일치제의 민주주의를 했었던 말

이요”라고 하고는 빙그레 웃었다. 이 때에 가가대소하던 원 박사의 소탈한 용모가 또한 기억에 새롭다.

전해 들은 바로는, 원 박사는 어린 시절에 얼굴에 장난기가 다닥다닥 붙었던 악동이었던 모양이다. 그가 연희전문 교수 시절, 일제 때 서울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두 발 오토바이를 몰고는 장안 거리를 누비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요즈음은 별것 아니나, 이때에는 여간 신기한 노릇이 아니었다.

그는 여가가 나는 대로 열충을 둘러메고 한국의 산야를 쏘다니기를 즐겼다. 그래서 「한국의 수렵 안내서」(*Hunting and Hunter's Lore in Korea*, 1915)란 책자를 펴낸 바도 있듯이, 한국에서의 수렵에 일가견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의 활달하고 호탕하면서 매사에 골몰하는 열정적 성품을 엿보게 된다.

이러한 그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초창기 우리나라 선교계에서는 그를 무척 이단시하기도 하였다. “당신을 만나보니까, 생각했던 것 보다는 나쁜 사람이 아니로군” 하는 말이 지면 없던 선교사들의 입에서 곧잘 나왔었다는, 큰 자제분 원일한 교수의 회고담은 저간의 소식을 웅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어찌면 이러한 그의 사람됨이 그로 하여금 어느 외국인보다도 한국을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게 하였으며, 교파 연합에 의해 창설된 연희의 어려운 여건을 헤치고 그 터전을 굳혀 오늘의 자람이 있게 하고, 특히 그리도 두렵고 어두웠던 일제기 1930년대의 이 학교의 명운을 지탱하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카워짐이 꼭 나만의 소회만은 아닐 줄 안다.

[2]

원씨 가문의 기린아, 한국 선교계의 이단아 원한경은 그의 선친 원두우 박사가 이 땅에 선교의 큰 사명을 펴고자 발을 디딘 지 6년째 되던 해인 1890년 9월 6일, 서울 정동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16세 되던 해에 한국을 떠나, 프랑스, 스위스 등지에서 1년 간 견식을 쌓고는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대학교 문과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는 교육학과 심리학을 익히고, 멀리 한국에서 큰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고자 달려온 지극한 아버지의 자애어린 눈길을 받으며 학사 학위를 얻고는 곧바로 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되돌아왔다. 그때는 한일합방의 소용돌이가 채 가시기도 전인 1912년 9월이었다.

오는 길로 부친이 세운 경신학교에서 영어와 역사 교사직을 맡음으로써 한국에서의 교육과 선교에 헌신하게 되는 첫 발을 내디디었으니, 이래로 태평양 전쟁기를 제외하고는 일생을 한국에서 보냈다.

그가 연희전문학교와 직접 인연하게 된 것은 강사로 출강하게 되던 1915년부터의 일이며, 문과 전임 교수로 부임해 온 것은 1917년 9월의 일이었다. 이 해는 1차 세계 대전의 양상이 엄정 중립을 고수하던 미국의 참전과 러시아 혁명으로 말미암아 급변하던 때였고, 또한 이 해 4월에는 조선 총독부로부터 사립 연희전문학교 기독교 연합 재단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음으로써 정규 전문학교로 발족하게 되었던 때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부 존 T. 언더우드의 기부금으로 오늘 연세의 캠퍼스를 이루고 있는 무악 남녘 양지바른 곳, 송림이 우거진 대얗골 넓은 뜰을 마련했던 해이기도 했다.

그는 문과 교수로 영어 교육학, 심리학, 철학 등을 강의하였으며, 사회학도 강의하였다. 정석해 선생의 말씀에 따르면, 사회학이란 과목을 개설하여 강의하게 된 것은 장남 원일한이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의 일로서(1917-18?), 이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사회학 개설의 효시였다고 한다. 경제학 교수로 있던 백상규가 같은 무렵에 논리학을 개설 강의했던 일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 학술사에서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처음 개설됐던 과목이요 학문이었던지라, 영어로 된 학술 용어를 우리말로 옮겨 교수하였는데 무척 고심했던 모양으로, 애써 번역을 해서 강의를 했으나 학생들은 좀체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의 우리 말 실력은 대단한 것이었으나, 번역의 적절을 기하기 위해 강의 시간에 오모(吳某)란 서기를 데리고 들어가서는 교단 옆에 앉혀 놓고 원어에 적합한 우리 말을 물어가며 강의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오모의 번역도 사회 환경(social environment)을 사회

주위(周圍)라고 하는 등 도시 신통치가 못해서 학생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었다고 한다.

그가 전임 교수로 부임하여 부이사장 겸 부교장의 일을 보게 되는 1927년 9월에 이르는 기간에 그와 더불어 연희의 강단을 밟았던 학자들은 가히 당시의 한국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다. 앞서 들었던 백상규를 비롯하여, 이원철(물리학), 이관용(독일어), 정인보(국문학), 이순탁(경제학), 유억겸(법학), 백남운(경제학), 백남석(심리학), 이춘호(수학), 정인섭(영어학), 최현배(국어학), 백남준(역사학) 등과 베커(A. L. Becker)(물리·수학) 등으로 기라성과 같이 한국 학계의 정상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이들과 어울려 한국에 근대의 신학문을 소개하고 그 터전을 다지기에 힘썼다. 양립되기 어려운 학문적 의욕과 선교의 목적을 용케도 조화시켰던 것이다.

3

그는 진리 앞에 겸허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진취적이었다. 그의 교육이 그러했고 학문이 그러했으며, 또한 신앙이 그러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신앙적 성질을 강요나 위압으로 남에게 강요하려 하지를 았았었다.

강의 시간 중에 곧잘 “망할 녀석 같으니”란 농조어린 힐책을 즐기기도(?) 하였고, 문과 학생들의 연극을 관람하다가 여장미인(女裝美人)의 치맛자락 사이로 들락날락하는 털난 골뎀다리를 보고는 “이 화여전(梨花女專)으로 갈 것을 잘못했다”라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그의 호방하고 소탈한 성품이, 진지하고 경건한 지적, 신앙적 성실과 혼연히 조화된 예술적인 인간상이 남으로 하여금 감화되게 하고, 마음의 이끌림을 갖게 했던 것이다.

그는 한국의 자연과 풍물,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익히려고 무척 애를 썼다. 우리의 명승고적 치고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백두산 처녀림을 정복하고, 천지연에 배를 띄웠으며, 좌수영 옛터를 찾아 이순신의 위대함과 거북선의 독창성을 되뇌이

고, 토함산 석굴암을 찾아 탁월한 예술적 솜씨에 감탄했다. 옹기종기 산기슭 마을, 저녁 밥 짓는 연기가 소복소복한 초가 지붕 위로 피어 오르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좋아했으며, 따뜻한 온돌, 구수한 숯불을 좋아했다. 그의 이러한 한국 산야의 편력이나 풍물에 대한 정감은 단순한 관광이나 호기심의 소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을 참되게 이해하려는 지적 충동에서였고, 한국인의 마음에 젖어 보려는 사립과 사랑의 간절함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그의 한국말 하는 품은 한국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가 어느 날 “본 상점은 없는 물건이 없다”란 간판이 붙은 가게 앞을 지나다가 불현듯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들어가서는 “이것 하나 살 것이요”라고 없어 보이는 물건 이름을 대니까 “그것은 없습니다”고 주인이 대답하였다. 그래서 “없는 것은 없다고 했는데 왜 없어요?” 하니까, 주인 대답이 “없는 것은 없고, 있는 것은 일단 말이요”라고 하더라는 얘기를 하여 학생들을 폭소케 할 정도로 우리말을 유머러스하게 구사할 줄을 알았었다.

그의 우리 글 솜씨 또한 보통이 아니었다. 1922년에 나온 「연회」 제 1호에 실린 “조선 기독교의 유래”란 글귀 중에 “최초에 사명(使命)을 수(受)하여 동래(東來)한 제인(諸人)은 세계사조(世界思潮)와 폐쇄(閉鎖)되얏든 조선 사상의 간성(干城)을 천신만고(天幸萬苦)로 함락(陷落)하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였스니 반드시 오인(吾人)이 기인(其人)의 성명(姓名)을 기억하고 기(其) 미행(美行)의 존경(尊敬)을 여(與)할 가치가 유(有)하다 하노라”에서 보듯이 가히 원본 춘향전의 작자 나름의 실력이 유하였음을 익히 알 것이다. 1893년에 이 나라에 건너와 1935년에 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43년 간 우리나라에서 생활했던 연회전문 제 2대 교장 에비슨(O. R. Avison)은 우리말을 이해는 했지만 능숙치가 못해 언제나 공식 석상에서 한국어로 말하기를 회피하고는 늘 통역을 세워 놓았던 것과 꼭 대조적이었다.

말과 글, 그 뿐인가, 그의 행동도 흡사 한국인이었다. 그는 천문 지식에도 어지간했던 모양으로 음력(陰曆) 썩에 여간 밝지를 앓았었다. 음력 월력에 무척 밝아, 열 손가락을 펴들고는 하나 둘 세고는

거의 정확하게 날씨는 물론 서해의 밀물 썰물의 시간을 척척 맞추어내던 풀이 시골 촌로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한다. 일제 때에는 양력이라면 일본 달력이라 하여 좀체로 쓰려 하지들 않았고, 시골로 가면 아예 음력 일색이었다. 음력을 고집했던 것은 일제에 대한 반항 의식과 무관하지 않았었다. 때문에 이러한 그의 행적의 일면은 당시의 한국인의 심정을 이해하려는 그의 노력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토록 그는 서양인이면서, 그의 말과 글, 그리고 행동까지도 한국인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4]

이러한 우리 말 익힘과 건문의 넓힘이 터전이 되어 그로 하여금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학문적으로 궁리하는 대로 이끌어 가게 했다. 여기에는 3·1 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 학계를 주도해 가고 있던 “국학”(國學) 즉 “한국학” 연구라는 시대적 취향에 영향된 바 없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 즈음 흔히 쓰는 낱말 “국학”이란 용어를 쓰게 한 선구자의 한 분인 위당 선생이 연희 강단에 서 계셨고, 또 그가 1933년에 펴 낸 「조선의 선박」(*Korean Boats and Ships*)이란 책자의 머리말에서 이 책자를 남에 정인보, 최현배 두 교수에게 힘입은 바 컸음을 말하고 있음에서, 그런 필자의 생각이 무리한 추측은 아닐 줄 안다.

그는 한국의 고문헌은 물론이고 외국의 문헌까지도 섭렵하여 치밀한 학적 검토와 전개로써 그 스스로의 한국 인식의 깊이를 더하였다. 또한 그의 그러한 학문적 노력은 일찌기 「재팬 애드버타이저」(*Japan Advertiser*)의 특파원으로 3·1 운동 때의 제암리 학살 사건을 조사 보도하는 등의 언론 활동을 통하여 일제의 포악상을 세계에 폭로했던 것과 같이, 한국의 독립 운동을 돕는다고보다도 그 자신 독립 운동의 참여자가 되고자 함에서였다고 해서 과히 지나침이 아닐 줄로 안다. 이 점은 다음에 언급할 학교 경영에서 보인 그의 애씀과도 견주어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1926년에 「한국의 근대 교육」(*Modern Education of Korea*)이라는 큰 두께의 저작을 내놓은 바 있다. 이것은 근대 교육학적 방법과 이론으로 연구된 최초의 우리나라 교육사로, 오늘날에도 그 가치는 조금도 손상됨이 없는 획기적 노작이었다.

뒤이어 1930년에는 영국 왕립 아시아 학회 한국 지회(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의 회지 「왕립 아시아 학보」 제20집에 “한국 관계 서구 문헌 약목”(A Partial Bibliography of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을 기고하였다. 이 연구는 구미인의 한국 연구의 길잡이를 제공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국내 학자에게 서구 문헌의 이용을 용이하게 한 서지학적 저작으로, 세계라는 넓은 시야에서의 한국 연구의 길을 열어 놓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백낙준 선생의 말씀을 빌릴진대, 이 당시의 최현배 교수의 한국어 문법에 관한 연구와, 정인보 교수의 한국 문학사 연구와 더불어 연희전문학교의 큰 자랑이며, 국학 연구의 성과였었다.

영국 왕립 아시아 학회 한국 지회는 정기적인 학술지를 발간하고 발표회를 갖는 등 한국 체류 서구인의 한국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한국을 세계에 소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현재에도 그러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회로, 원한경 선생은 이 학회의 창립기로부터 참여하여 부회장,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그 활동을 선도하였다.

그는 1933년에 역시 같은 학보 제33집에 앞서 잠깐 소개되었던 “조선의 선박”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 선박의 역사적, 공학적 연구로서, 특히 이순신의 해전법, 그리고 거북선의 형태 및 기능에 관한 최초의 전문적 연구였다. 그는 여기서 이순신을 영국의 드레이크나 넬슨에 비견하여, 한국이 낳은 위대한 제독이라 하고, 거북선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종래로 이야기되어 오던 철갑선설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언급된 “문헌 약목” 서문에서 “서구인의 그릇된 한국관의 시정”을 역설했던 점이나, 또 이 논문에서 “이순신의 거북선은 지금 볼 수 없지만, 이순신의 정신이 오늘날의 한국인에 이어질 것을 바란다”고 하여 민족 정신의 진작을 희구한 대목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5

그가 연희전문 교수로 부임해 온 지 만 10년이 되던 1927년 9월 에 베커의 뒤를 이어 부교장에 취임하였고 부이사장을 겸하였다. 이리하여 그 때의 교장 에비슨을 도와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1934년 10월에는 정년 퇴임하는 에비슨의 뒤를 이어 제 3대 교장에 취임하였고, 이사장을 겸하게 되었다. 그는 1923년부터 학감으로 일해 오던 유억겸을 부교장으로 맞아들였다. 때의 그의 나이 47세요, 유억겸의 나이 41세였으니, 두 사람이 다 같이 40, 불혹의 장년으로 원숙한 인격과 넓은 식견, 뛰어난 재능으로 이 학교의 경영을 주관하게 된 것이다.

유억겸은 당시에 손꼽히던 가문 출신으로, 19세기 말 개화의 선각자 유길준을 문중에 둔 이요, 융희 황제와는 동서간이었다. 일본 최고의 명문 대학 동경제국대학 법과를 나와 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던 수재일 뿐더러, 그의 성품 또한 극히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였다. 그가 원한경 교장과 짝을 이루어 학교 경영에 보인 솜씨는 출중한 바가 있었다. 푸르스럼한 보자기에 쓴 도시락을 지팡이와 함께 들고 현재의 의과대학 정문 근처에 있었던 고갯길을 걸어 가던 이 분의 뒷모습이 눈에 선하거니와, 일제 총독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곳은 일의 처리는 몽땅 그가 감당하였던 바요, 신진준재를 교수로 맞이함에 또한 그의 식견과 안목에 힘입은 바 절대하였던 것으로 전문된다.

이 두 거인이 교장과 부교장으로 취임하는 식전을 도하 신문들은 크게 보도하였다. 보성전문 교장 김성수, 이화여전 교장 아펜셀러, 숭실전문 교장 윤산은, 세브란스 의전 교장 오궁선,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 조선 중앙일보 사장 여운형,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 동문회장 김윤경 등이 이 취임식전에 참석하였었다. 일본인으로는 총독부 학무국 학과과장인가 하는 자가 한 사람 참석하였을 뿐이니, 일제가 연회를 애써 업수히 하려던 심사를 웅변으로 증명하였음에 반하여, 보라! 여기 모인 한국인의 정신과 지성의 영도자들! 이

는 연회와 그리고 이 두 거인에게 걸었던 민족의 여망이 지대하였음을 대변함이 아니겠는가!

때는 바야흐로 일제의 쇠망을 제촉하고 있었다.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병탄하고, 이어 32년에 상해사변, 33년에 산해관 점령으로 중국 침략에 나서고, 급기야 37년 7월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켜 대륙 침략으로 내치달았다. 이러한 침략 전쟁의 강행은 33년에 국제연맹에서의 탈퇴를 부득이하게 함으로써 국제적 고아 됨을 자초하였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어 미국의 대일 정책은 경화되어 갔다. 침략 전쟁의 수행은 일제로 하여금 3·1 운동 이후로 그들이 내세워 오던 문화 정치의 탈을 벗어 던지게 하고는 다시금 무단 정치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군사 통치를 강화하여 마침내는 민족 말살을 꾀하는 식민지 통치의 말기적 현상으로 내치달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회는 온전할 수가 없었다. 저들의 감시의 눈초리는 더욱 번득이게 되었고, 간섭과 탄압은 가중되어 갔다.

그가 학교 경영의 최고 책임자의 자리를 맡고 있었던 7년 간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수난의 시기였다. 일제는 조선어 교육을 물론 그 사용조차 금하였으며, 일본어, 일본학 등을 강제하는 등 민족주의적, 자유주의적 교육을 봉쇄하는가 하면 신사참배를 독려함으로써 이 학교의 건교 이념의 마지막까지를 위협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에 대한 사상 감시를 노골화하여, 마침내 1937년에 접어들면서 수양동우회 사건, 상우회 사건, 그리고 1938년에는 흥업구락부 사건을 조작하여 많은 교수와 학생을 이 학교로부터 내몰았다.

백낙준, 이묘목, 하경덕, 이순탁, 백남운, 노동규, 이춘호, 최현배, 유억겸, 정인보 등 민족 양심의 등불들이 강단에서 강제 추방되거나 옥고를 치르어야 했다.

위당은 때의 괴로운 심정을 이렇게 토해냈다. “세상 사람은 공부를 할수록 잘 살고 행복스럽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즉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행하게 된다”라고.

이 위당의 심정은 어찌 위당만의 것이었으랴! 그가 이 연회의

건교 정신과 교육 이념, 그리고 학문의 자유를 지키려 무진 애쓰면 애쓸수록 더 큰 허망을 맛보아야만 했다.

이 어렵고 괴로운 시기를 오직 이 민족의 경쟁이, 민족의 독립 달성이 곧 하나님의 진리임을 굳게 믿었던 신념으로 감내하였다.

그는 한국인 교수로써 한국의 학생만을 한국말로 교육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였다. 당시 조선어를 정식 과목으로 교수하던 곳은 연희뿐이었고, 더우기 1938년에 조선 교육령을 개정하여 한국어를 교과 과목에서 제거하도록 강요하였으나, 종래와 마찬가지로 문과만은 계속 한국어를 개설하였다.

중학교에서 일본어 상용에 시달리던 학생이 연희에 입학하면서 교내에서의 한국말 사용이 자유로웠던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다는 동문들의 회고담을 종종 듣거니와, 일어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서 5원의 거금을 벌금으로 받기로 했다는 어느 직장의 얘기를 미담이라고 신문에 보도하던 일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범사가 아니었음을 알기에 족할 줄 안다.

한편, 학교 운영에서도 학과장을 비롯하여 학교의 중요 직책을 한국인에게 맡겨 한국인의 주도하에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니, 유억겸을 부교장으로 맞아들인 것이나, 또는 종전에 선교사들이 관장하던 학교 회계 사무를 한국인에게 맡기기 위하여 최순주를 회계로 기용했던 것들은 바로 그의 그러한 취지의 실천이었던 것이며, 그는 이 학교가 종내는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얘기했었다고 들린다.

그는 학문의 창달을 기하기에 힘썼다. 어찌 보면 사상, 신앙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양, 한국인 석학을 불러들이기에 인색하지 않았다.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심지어 사회주의자까지를 망라하고 포섭하였다. 1935년에 의술의 「우리말본」이 연희전문 출판부에서 간행되었고, 1937년에는 백남운이 「조선 봉건사회 경제사」를 저작하였다.

정인보, 최현배의 국학, 이원철, 이춘호, 최규남, 장기원의 수물학, 백남운, 이순탁의 경제학, 이묘목, 이양하, 김선기의 영문학,

하경덕의 사회학 등이 나라 학문의 기틀이 이 곳 연회를 터전하여 쌓여지고 있었다.

이토록 그가 민족 교육과 학문 창달에 헌신한 것은 진리와 자유라는 이 학교의 설립 정신에 충실하려 함이었고, 또 그 진리와 자유는 곧 이 한국 민족의 독립과 번영에 직결됨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믿음의 실천은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한 일제의 모진 탄압으로 그 지속적인 실천이 불가능한 지경에 다다르고야 말았다.

[6]

1939년에 접어들면서 일제의 본교에 대한 간섭과 탄압은 더욱 가혹하여졌다. 간섭과 탄압의 정도를 넘어 강점을 꺾하기에 이르렀다. 그도 그럴 것이, 일제는 중국 침략에 그치지 않고 대동아 공영권 건설이니 세계 신질서의 수립이니 하여 아시아 대륙의 제패를 꿈꾸고, 가진 나라와 안 가진 나라(haves and have-nots)의 불평등을 타파한다는 미명 아래 미·영 세력의 아시아로부터의 축출을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미국이 1939년 8월 미·일 통상 조약을 폐기함으로써 일제의 침략 야욕에 제동을 걸게 되자 미·일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어 갔고, 급기야 1940년 9월에 일본은 독일·이탈리아와 동맹, 이른바 추축국 진영을 형성하여 미·영·불에 대한 정면 도전을 분명히 하고, 국내에서의 국가 총동원 태세의 확립, 전시 체제의 정비라는 이름 아래 파쇼 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태평양상에 전운(戰雲)이 짙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총독부는 일인 교수의 채용, 교수 채용시의 총독부 학무국의 사전 승인제를 강요하고, 1940년에는 일본인 이사의 증원을 강제하였다.

1937년 12월에 잡지 뒷면 편집 후기에 “우리의 문단은 바야흐로 파쇼의 침략하에 그 자취를 감추려는 위기에 있다”라고 적어 일제의 사상 탄압에 저항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문우」지도 1941년에는 일본 글로 꽉 채워져, 그 겉표지에는 “총력으로 이룩하자, 밝은

신동아”라는 일문 표어가 적힌 서글픈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교정에서는 일본인 육군 대좌의 구령 아래 군사 교련의 흙먼지가 요란하고, 북쪽 정면 벽에 “황국신민의 서사” 석탁이 붙어 있고, 예수의 성화가 서쪽 벽면으로 밀려나 장식되어 있던 본관 2층 기도실의 모습에서, 이 무렵의 기독교 학원인 이 학교의 어지간히도 변한 물골을 본다. 이 물골이 바로 저들 일제의 사나운 핍박의 척도를 가름한다.

이 일제의 핍박과 학교의 명운의 틈바구니에서 원한경은 헤아리기 어려운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7

이 학교의 명운을 지탱하기 위하여 그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 그가 겪어야 했던 시련 중의 최대의 것은 신사 참배 문제였다. 총독 미나미는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사 참배를 각 학교에 강제하였다. 신사 참배는 기독교 교리에 관계되는 중대 문제요, 때문에 미션계 학교의 경우에 그 존폐를 가름할 중대사였다. 기독교계에서는 이 신사 참배 문제를 놓고 한국인 교도 간에서나 외국인 선교사 간에서나 교리 해석상의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였다.

특히 장로교파에 있어서의 상극은 심각한 바가 있었다. 1938년 9월 11일에 평양 서문 밖 예배당에서 신사 참배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72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원한경은 많은 일꾼을 사회에 내보낸 전통 있는 연희전문과 세브란스 의전을 존속케 하기 위해 신사 참배를 국가 의식(儀式)으로 이해하겠다는 소신을 피력한 바 있었다. 그는 신사 참배 거부를 고수하던 선교회와의 결별까지를 각오하고, 연희의 존속을 위해 그 같이 결심하였던 것이다.

얘기는 좀 뒤바뀌지만, 1936년 10월에 복장로교 선교회는 1938년 3월까지 동 계통의 학교를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었고, 1937년 10월에는 숭실전문과 기타 학교의 폐교원을 총독부에 제출하였었다.

더구나 1938년 5월 27일의 북장로교 선교회 총회는 “교육 총인퇴”를 가결하였고, 1939년 봄부터 연희전문과 세브란스 의전에 대한 보조금 중지, 파송 이사와 교수의 철수를 선언한 바 있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선교사로서는 신사 참배에 반대하지만, 연희 교장으로서의 총독부의 강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내린 결단이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에 그는 얼마나 착잡하고 어지러운 마음의 고뇌를 이겨내야 했을 것인가!

“학교의 존속을 결심한 후로 선교회의 이런저런 직책을 사양하였고, 모임에도 참석을 삼가하였지요.” 원일한 교수의 말이다. 이리하여 학교 폐쇄의 위기를 넘기었다.

[8]

원일한은 어지간히 무던하였다. 그는 온갖 수모와 고통을 참고 견디어 참을 수 있는 데까지, 견딜 수 있는 데까지 지탱해 보려고 결심하였다. 어떻게든 이 학교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대를 이어 정성을 담아 왔다는 단순한 애착 때문은 결코 아니었다. 일제의 사악한 박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박해 받는 자의 정의의 신념은 더욱 굳어지고 강해짐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총독부가 하라는 대로 따랐다. 그는 명분을 죽이고 내실을 찾았던 것이다. 어떻게든 이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하심이요 이 겨레의 바람이라 확신하였던 것이다.

그는 유수한 일본 제국대학 출신의 한국인을 교수로 채용함으로써 총독부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부득이 일본인 교수를 채용하게 될 경우에도 독실한 기독교인과 한국에 동정적인 인사를 골라 채용함으로써 총독부의 저의를 무색케 하였다. 1936년에 부임해 올 때부터 학생들에게 친일 교수로 지목되었던 Y교수였건만 “공부 열심히 해서 독립의 역군이 되라”는 격려의 말을 간간히 들려주어 놀라기도 하고 감격도 하였다는 김규삼 교수(전 상경대학 교수)의 회고담에서도 느껴지듯이, 민족 양심의 등불은 눈에서 눈, 마음에서 마음으로 꺼질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었다.

1937년에 성서 교수로 부임해 와서 종교부장직을 비롯하여 1938년 유억겸이 물러난 뒤로 부교장직까지를 맡았던 마쓰모토(松本卓夫)는 신학자일 뿐 아니라, 내심 일본의 침략 정책과 군국주의를 비난하고 있던 사람으로, 미션계 전문학교인 일본 청산학원(靑山學院)에 재직중이었다. 원일한 교수는 그가 부임해 오게 된 경위를 “일본인 교수의 채용을 총독부가 성화같이 강요하므로 부친께서 궁리 끝에 마쓰모토 씨를 여러 차례의 간청 끝에 일본서 불러 왔읍니다”라고 술회한다. 총독부의 강점책 등을 가능한 때까지 막아보려는 애씀이었다.

9

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1938년경까지만 해도 교수 간에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라는 사상적 분파가 있어 학생 간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원한경은 옹케도 이들을 한 울타리 속에 포용하고 있었다. 교수와 학생의 사상적 분파는 공부하는 경향 뿐만 아니라, 서로의 교분에도 말 없는 장벽을 쌓았다. 비록 민족 독립이라는 공통의 지표와 원한경의 폭 넓은 포용력으로 하여 큰 갈등은 없었다 하더라도, 서로간의 학풍의 경향으로나 인적 관계로나, 서로의 사이가 따뜻한 것이 못되었다.

이때에 학생 간에 구전되던 연희의 3대 불가사의가 있었다. 그 첫 번째가 민족주의자인 정인보 선생과 사회주의자인 백남운 선생과의 소꿉친구를 연상케 하는 친분이었다고 한다. 학문과 사상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어찌서 그토록 친할 수가 있었을까? 이 불가사의는 바로 이 무렵의 교수와 학생 서로간의 분위기를 웅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교수와 교수 간의, 학생과 학생 간의, 그리고 교수와 학생 간의 위화감은 1939년 일제의 사상 통제가 강화되면서도 눈에는 보이지 않을망정 형태를 달리 하여 지속된 듯싶다. 이 무렵에 일기 시작한 사상 전향의 물결을 타고 변절 친일 교수가 나오게 되

는가 하면, 일본인 교수의 증가 등으로 교내의 분위기는 착잡하고 혼탁스럽기만 하여 갔다.

원한경은 이런 분위기를 애써 잘 꾸려 나갔지만, 그의 심증은 무척 안타까웠다. 그러기에 그가 1941년 2월 25일 교장직에서 물러날 때 퇴임사에서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왜들 다투느냐? 이것을 없애지 않는 한 연회도 안 되고 한국도 소망이 없다”라고 하여 한국인의 대동단결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신봉조 선생의 말씀을 들으면, 원한경은 능숙한 사교성과 비상한 포용력을 지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친근감을 갖게 하는 매력의 소유자였다 한다. 남과의 대담 응대에서 남의 비위를 거스르거나 역겹게 하는 일을 본 적이 없었다고 말씀한다. 그의 이러한 원만하고 관용스러운 도량과 넓은 포용력이 있어 그토록 서러운 간난의 시절을 헤쳐 나갈 수 있었으리라.

10

그가 인고의 나날을 묻었던 백양로를 끝내 떠나야 할 때가 왔다. 미·일 간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던 1939년, 미국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선교사를 비롯한 미국인의 철수를 명하였을 때에도 “한국인이 나의 퇴거를 명령하지 않는 한 한국을 떠날 수 없다”고 본국의 훈령을 거부했던 그였지만, 싱가포르항에 영국 함대가 집결하고 재미 일본인 재산 동결령이 내려서 미·일 간의 전쟁 임박을 직감하게 하는 1941년 2월 25일에 교장직을 내놓았고, 이듬해 이 해 12월 8일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그는 일본 헌병대에 연행되었다가 현 충정로 감리교신학대학 기숙사에서 1943년 5월말까지 오랜 영어(囹圄) 아닌 영어 생활 끝에 6월 초하루 오직 한 사람의 벗 이묘목의 전송을 받으며 서울역을 떠나 부산을 거쳐 강제 송환을 당하였다. 때의 조선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는 비록 적국인일망정 그가 심은 공적과 그의 인격을 특별히 소개하기도 하였다.

1945년 10월 26일에 해방된 한국에 연합군 전사의 일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미군정청 문교 고문으로 민주 교육 제도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으로 연희 재건에 분망하였다. 1946년에 대망의 대학 승격이 이룩되면서 초대 명예 총장으로 초대 총장 백낙준 박사를 도와 초창기 대학의 정지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고, 또 한편으로 세브란스 의과대학과의 합동으로 대 종합대학교로의 오랜 숙원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희를 대학으로 승격시키려 함과, 세브란스와의 합동으로 대 종합대학을 이룩하려 함은 그의 오랜 숙원이었으니, 그 애씀은 1920년대로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 1925년에서 그 이듬해에 걸쳐 대 종합대학의 설립을 위한 6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미국 각지를 순방한 끝에 140만 원을 모금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27만 평의 본교 대지의 구입금이 17만 원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모금액의 적지 않음을 알 만하다. 비록 일제의 방해로 대 종합대학의 꿈은 실현을 보지 못했지만, 이 모금이 오늘의 연세의 모체인 연합 재단의 기금의 대부분을 이루었고, 또 이러한 그의 오랜 적공이 뒷날의 연세대학교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명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49년 3월 17일, 그의 사랑하는 부인 엘터 여사가 폭도의 흉탄에 암살당했다. 그는 조금도 몸가짐을 흐트러뜨림이 없이 비통해하는 친지를 도리어 위로하였다. 그는 부인의 유영(遺影) 앞에서 누군가에게 보낼 편지를 쓰며 밤을 지새웠다. 그는 이 범인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청원하였다.

이로부터 꼭 두 해 지난 1951년 2월 20일, 피난 수도 부산 동래의 우거에서 62세를 일기로 영면하였다. 동래 뒷산 금정산에 올라 한국의 산야를 새삼 눈익히 보고 난 그 다음날이었다.

이 원한경전(傳)의 집필을 청탁 받은 지 며칠 뒤, 때 아닌 휴강으로 굳게 닫힌 교문, 축제의 폭죽 소리 아닌 마음의 폭음이 요란스런 큰길을 피해 돌고 돌아 한경관 앞을 지나며 그의 일생을 골똘히 상념하였다. 또 이 글을 끝맺는 오늘, 학관 현관을 들어서며, 동관에 새겨진 그와 그의 부인의 초상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다시 그의 일생을 상념한다. 어쩌면 그의 명을 단축했을지도 모를 고뇌와 참

변을 겪으면서도 끝내 이 연세와 이 한국을 위해 사랑과 성실로써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했던 위대한 은인의 혈맥을 민족의 대학, 민주주의 대학, 복음의 대학으로서의 연세의 오늘과 미래 속에 이어 보며 붓을 놓는다.

〈글·이종영/연세대 사학과 교수〉

한국학의 독보적 거성

정 인 보

(1893-6.25 동란 때 납북)

1

석양 노을에 한결 돌아 보이는 수박색 두루마기의 설을 왼손으로 움켜쥐고, 가파른 애기능 고개를 넘어가는 30대 후반의 장부가 있었다. 키는 중키였으나, 유난히도 반짝이는 눈과 잘 생긴 두상으로 보아 범상한 분은 아니었다. 학교에서 서대문을 왕래했던 학교 차를 놓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촌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던 경의선 동차마저 놓친 탓으로, 이화여자전문학교의 본관 앞을 지나 북아현동으로 걸어가는 길이었다. 어김없이 한 아람의 책을 짚 책보를 끼고 있었다.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 선생이었다.

정인보 선생의 연구실은 학관 이층 복도의 첫턱을 막아서 마련된 서향방이었다. 간혹 독서삼매에 빠졌다가 책장에 배어드는 노을빛으로 돌아갈 길이 멀음을 알아차리고 황급히 걸어서 서대문에 이르곤 했는데, 그 시각의 걸음으로 보아서 정녕 독서에 골몰하다가 돌아가는 길임이 분명했다.

정인보 선생은 1893년(癸巳年) 5월 6일에 서울의 장흥방(長興坊, 오늘날의 회현동)에서 탄생했다. 어릴 때의 이름은 경업(經業)이었고, 자는 경시(景施)였다. 호는 위당(爲堂), 담원(蔭園), 혹은 미소산인(薇蘇山人)이라고도 했지만, 위당이 널리 알려진 호이다. 위당은 조선조에서 둘째 가라면 서운해 할 만한 명문의 출신이었고, 그의 절조 또한 근대 인물 중에서 엄지로 꼽을 만한 분이다. 그러나 일

제 식민 통치기의 대부분을 나라 잃은 백성으로 대쪽 같은 절개를 위해서 고생하기를 단 엿을 씹는 듯했다. 어려서는 잣죽으로 지냈고 자라서는 고기만으로 반찬 삼았기 때문에 더 없는 고생이 되었다. 야채는 일체 대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창 고생할 때에는 밥상에 삼장(간장, 된장, 고추장)만으로 차려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고 한다.

위당의 이런 고생은 열 한 살이 되던 1903년에 대대로 내려오던 회현동을 떠나서 얼마 되지 않은 전답이 있던 양근(楊根) 땅 양수리로 낙향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양수리에는 평양 감사까지 지냈으면서도 백석지기도 못되는 땅마지기를 겨우 장만했던 아버지 정은조(鄭閔朝)의 농장이 있는 곳이었다. 권세를 위해서는 아무 일이나 거리낌 없이 하던 주위가 싫어서 낙향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내려간 것이다.

위당이 회현동을 떠난 것은 정녕 망국의 징후를 말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위당은 이 곳에서 공부에 더욱 노력했다. 그리고 열 세 살 때 성(成) 씨 닻으로 장가들었다. 그 후 열 다섯 살 때에는 거처를 다시 진천(鎭川)으로 옮겼다. 이 진천은 강화(江華) 섬에서 약 2백 년 동안 계승되어 오던 한국적인 양명학(陽明學)의 세계가 모처럼의 영토를 확보해서 뿌리박기 시작했던 곳이었다.

위당의 집안은 한국의 양명학을 이어오던 몇 집안 중의 두드러진 집안이었던 탓으로 마음과 뜻이 맞는 세계에 파묻히기 위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양수리의 농장이 어떤 사연 속에서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위당은 이 진천에서도 주어진 학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비단 열 다섯 살의 철부지 소년이었지만, 전통적인 학문의 기초 단계를 통달한 지 오래 되었다. 그러나 시대의 여건은 어쩔 수 없었다. 서울에 왕래하다가 열 일곱 살이 되던 해에 서울에서 단발(斷髮)하여 새로운 마음가짐과 머리차림을 하게 되었다. 단발 직전에 상투에 미련은 있었는지, 상투 차림의 사진 한 장을 남기는 여유는 있었다.

위당은 어려서부터 문장과 재기(才氣)로써 유명했다. 명문의 후에

라는 후광에서만이 아니라, 천부의 기혜(奇慧)와 남다른 노력에서였다. 여기에서 강화 섬에서 화동(花洞)으로 이사와 있던 이건방(李建芳)이 위당을 불러 제자로 삼은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이 건방은 호를 난곡(蘭谷)이라고 했다. 강화에서 이어 오던 한국적인 양명학을 제대로 이어온 대학자로서 그 학문을 이어줄 제자를 모색하던 중에 이렇다 할 명문의 수재들을 제쳐놓고 위당을 발탁하게 된 것이다.

위당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촉망했던 난곡 이건방의 종형인 이 건승(李建昇)이 서간도(西間島)로 망명길에 오르면서 종제에게 위당을 당부했기 때문이다. 이 건승은 위당에게 많은 영향을 준 위당의 작은 외숙인 서병수(徐丙壽)와 각별한 교분에 있었기 때문에 서병수가 지극히 아끼던 위당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건방도 위당을 눈익혀 보았음이 분명했다. 하여간 위당은 난곡이 별세하던 1939년까지 30년 동안을 남다른 사승 관계를 지켜왔다. 난곡이 돌아간 후 비문을 짓고 손수 썼다는, 수제자로서의 할 일을 다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역수같이 쏟아지던 빗속의 서대문 네거리에서 땅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그들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각설하고, 위당은 나라를 잃은 1910년의 가을인 10월에 이 건방에게 수학의 예인 집지(執贄)를 드리고 서강(西江)에서 모처럼의 신접 살림을 차리자마자 1911년과 1912년에, 서간도에서 광복 운동을 시작하고 있던 여러 어른들과의 연락을 위해서 압록강을 몰래 건너게 되었다. 두 번째의 도강(渡江)에서는 생어머니 되는 서(徐)씨 부인을 안동하기도 했다. 이 서간도에서의 광복 운동에 대해서는 1975년 정음사에서 펴낸 이은숙(李恩淑) 여사(당시 서간도 광복 운동의 주동자의 한 분이었던 이회영의 부인)의 「민족 운동가 아내의 수기: 서간도시종기(西間島始終記)」에서 속속들이 전하고 있거니와, 위당이 얼마 안 되는 가산을 처분하게 된 것도 이 광복 운동의 자금을 대기 위함이었음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 터이다.

위당은 만주 왕래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1913년 스물 한 살 때

중국의 상해(上海)로 건너갔다. 당시 상해에는 나라를 잃고 울분을 참지 못하던 젊은 청년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새로운 방법의 학문을 접하고 있었는데, 위당은 여기를 찾아간 것이다. 그러나 위당은 상해에 머무른 지 7개월만에 돌아오게 되었다. 부인 성씨가 산고 후 별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당은 귀국 후 검은 옷차림을 하게 되었고, 이로써 일본 경찰에 여러 번 연행되어 조사받기도 했다. 검은 양복에 모자, 거기에 검은 색의 풍안까지 걸들었다고 한다. 양복의 상복이 검은 빛깔이어서 그러하였으리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스무 살이 갓 넘은 위당이 양복으로 상복을 입은 것은 나라 잃은 것도 아울러 곡하는 뜻이 겹친 젊은 청년의 일종의 책기였는지도 모른다. 하여간, 일본 경찰에서는 중국에 다녀온 위당의 돌발적인 복색을 보고 당시 유행한 아나키스트로 오해하였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그 후 위당은 바로 진천으로 내려가 우거하면서 생모인 서씨 부인과 양모인 이씨 부인을 정성들여 모시면서 못 다한 공부를 다시 계속했다. 유모인 강(姜)씨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더불어 광복의 모사도 마다 하지 않았다.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不降其志 不辱其身)는 것이 위당의 평생을 두고 지켜온 신조이었고 보면, 이 동안의 생활도 바로 이런 것이었다.

진천에서 다시 목천(木川)으로 이사해서도 그 생활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서강에서 차렸던 성씨 부인과의 신접살림이 허망하게 깨지고 만 마음의 쓰라림은 얼마 후 조(趙)씨 부인을 맞아서 어느 정도 가지는 듯했지만, 한 번 잃은 나라를 다시 찾은 길이 막연해 지기만 하자 한때 걸쳤던 양복도 훨훨 벗어 버리고, 일생을 두고 변함없이 애용했던 한복의 옷차림이 다시 시작되었다. 한복이라야 늘 소탈하고 검소한 차림이었다.

선천의 관복으로 장만한 수박색의 숙고사 두루마기는 유난히도 아끼는 복색이었고, 1922년 연희전문학교에 부임하기 전부터 벗을 겨를 없이 계속되었던 상복에 방갓은 위당의 일화를 남기고 있는 복

색이기도 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연희전문학교에 교수로 부임해서도 당시 서양풍의 학교이었던 연전에 어울리지 않게 상복을 입고 출근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여하간, 연희전문학교에 오기 이전의 위당은 중국에서 돌아온 후 진천과 목천 등지에서 10년 가까운 시골 살림을 하다가 서울의 양사골로 다시 이사했다. 물론 내 집이 아니었다. 삭일 셋방이 아니면 전셋집이었다. 이 동네에서 저 마을로 여러 차례 거처를 옮기면서도 가난을 허물로 여기지 않았다. 오직 사람다운 생활, 선비다운 몸가짐, 망국의 유민(遺民)다운 마음가짐 뿐이었다. 위당이 스승 난곡에게서 전수받은 양명학적인 정신 지주가 그러했고, 그 몸을 온전히 지키는 데 어쩔 수 없는 끈고이기도 했다. 겨우 내 집이라고 장만한 것이 있다면 연희전문학교에 교수로 취임한 후 마련한 내수동의 보잘 것 없는 집이 고작이었다. 이 집마저 일제 말기에 서울을 또다시 버리고 익산(益山)으로 낙향할 때 잃고 말았지만.

그러니까 위당이 6·25 때 남북되기 이전으로 환산하여 서른 살이 되기까지의 전반기는 망국의 쓰라림을 광복 운동에 온통 가름하기도 했고, 또는 시골에 묻혀 살면서 그 울분을 독서에 쏟던 시기이다. 이에 위당은 여러 뜻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 문장과 학문 수준도 벌써 20대에 범상치 않게 평가되었다. 여기에서 위당은 서른 살의 나이에 연희전문학교로부터 교수로 초청받게 되었다. 실로 우연한 발탁만은 아니었다.

정인보 선생이 연희전문학교에 교수로 부임한 것은 1922년 4월의 일이었다. 부임 연대에 대해서 혹은 1923년 봄이라고도 하지만, 김윤경 선생이 1922년 3월에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4월에 부임했다고 하니 위당의 나이 서른 살 때였다. 당시의 교장은 예비승 선생이었고, 원한경 선생은 부교장이었다.

위당은 그 후 1937년까지 16년 동안이나 교수 생활을 하며 한문과 조선 문학을 강의했다. 문과 각 학년의 담임도 여러 차례 역임했다. 늘 한복을 입고 머리는 짧게 깎아서 유난히도 잘 생긴 두상이 한결 두드러져 보였다. 한문 강의는 「사기」(史記)와 「자치통감」

(資治通鑑)을 가지고 중국사의 강의까지도 했고, 「대학」(大學)과 「중용」(中庸) 등의 유교 경전의 중요 대목을 강의하면서 중국 철학사도 겸했다. 또 조선 문학에서는 박지원(朴趾源)의 「열하일기」(熱河日記)의 문장을 통해서 조선 후기의 실학의 학풍도 설명하고, 시조를 통해서 한국의 정서를 힘주어 강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간혹 일본인 학자들에 의한 한국 고대사의 허구에 관해서 비판하기도 했는가 하면, 양명학의 본질을 연구하기도 했다.

국학(國學)이라고 하면 언필칭 위당을 연상하곤 하는데, 위당은 연희전문학교에서 강의를 통하여 이 국학을 힘주어 역설했다. 따라서 당시의 문과 학생이면 위당에게서 한문과 조선 문학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위당도 당시 중국에서의 국학의 제청자였던 장병린(章炳麟-太炎)의 문장을 좋아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의 한 나라이면서도 탈아론(脫亞論)이라고 하여 아시아의 여러 후진국과는 달리, 또 아시아를 지배하는 선진국과도 달리 아시아를 지배하는 선진국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자만이 높아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중국의 장병린과 한국의 정인보는 전통적인 아시아 속에서의 고유한 자기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정리해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자 했던 것이다. 때마침 이 무렵의 연희전문학교에는 한국을 대표할 만한 석학들이 많이 있었는데, 위당은 이들과 뜻을 합하여 젊은 학생들에게 한국의 정신을 심어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한반은 유명한 야구 선수가 위당의 강의에서 영락없이 낙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런데 위당이 어쩐 영문인지 그 학생을 급제시킨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을 의아하게 여기던 주위의 학생들에게 “그 사람이 흠린을 쳐서 일본인 학교를 이겼기 때문에 급제를 시켰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공부는 못했지만 일본인을 이긴 그 수훈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위당다운 평가이었다. 한국 정신을 그만큼 소중히 여긴 것이다.

위당은 늘 쪽지 몇 장만을 가지고 강의를 했다. 원문은 모두 암

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트가 필요없었다. 어떤 때는 원전을 달달 외어서 학생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취미로 전각(篆刻)도 했다고 하지만, 이는 여가의 일이었다, 전하기에는 청(淸)나라 학자 응방강(翁方綱)의 문집인 복초재집(復初齋集)의 필체를 좋아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전형적인 선비다운 독특한 필체로 많은 문고(文藁)를 집필했다. 더러는 벽자를 골라서 쓰기도 했고, 까다로운 문체를 구사하기도 했지만, 문장은 대체로 전통적인 팔가문(八家文)의 세계를 터득한 것이었다. 아울러 한국의 옛 말을 알맞게 골라서 유창한 글과 아름다운 시조를 짓는 데도 일품이었고, 한시(漢詩)의 경지도 탈속하면서도 현실적인 경제(經世)의 호소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장(詞章)의 면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치밀한 고증(考證)의 면에서도 위당의 면모는 드러났다.

조선 후기의 이른바 실학자의 연구와 그들 저서의 정리 간행을 위해서 그의 심혈을 다했고, 한국 고대사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서도 정력을 다 바쳤다. 또 현대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한국에서의 양명학(陽明學)의 발달과 그 본질의 연구와 천명을 위한 노력에서도 그의 온 힘이 경주되었다.

이렇게 보면 위당은 한국의 정신적 이해와 그 천명과 전수를 위해서 강의와 문필을 통해서 역설하였고, 문·사·철(文·史·哲)의 겸비한 그 역량을 바탕으로 이를 요령있게 설파하기도 했다.

위당에게서 배운 당시의 학생으로서 위당의 참다운 정신을 이해한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른다. 후일 위당의 정신과 학문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민영규 선생과 돌아가신 홍이섭 선생이 있었고, 비록 전공은 달랐지만 김하태 선생 정도가 아니었던가 싶다. 모두 위당의 지극한 훈도를 담백 입은 분들이었다. 위당은 귀엽게 보면 한량없지만, 밍게 보면 그 또한 한량이 없었다고 한다. 사랑하는 학생이면 길을 가다가도 깨엿을 사주는 정도였다고 한다. 이에, 그런 위당에게서 눈에 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하간 위당은 연희전문학교에 계시면서 비로소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그는 늘 어릴 적에 자라던 회현동을 잊지 못했다. 여가가 있으면 어린 딸의 손목을 잡고, 그 옛날의 남촌 시절, 당신께서 열 한 살 때 낙향했어야만 했던 그 시절을 상기하면서 가파른 길일망정 마다 않고 산책하기를 좋아했다.

해방 뒤에 감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불하받은 집이 바로 회현동이었는데, 비록 여기서 납치당하기는 했지만 위당으로서는 가장 즐거운 거처가 되기도 했었다. 이 집도 위당이 납북된 후 어떤 고관에게 뺏기고 말았다.

위당은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하면서 이화여자전문학교,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중앙 불교 전문학교에서는 국학과 동양사를 강의했고, 아울러 「시대일보」와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대륙 침략 전쟁이 날로 확대되고,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일제의 식민 통치도 차츰 가혹해졌다.

이 동안 서간도에서 활약하던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칠성관 위에 엮혀 말 없이 돌아왔는가 하면, 두 어머니와 유모도 세상을 떠났다. 여기에서 위당은 뒷날의 「열 두 가지 슬픔」(12애)을 능가하는 「자모사」(慈母思) 40편을 시조로 읊어 서러움을 삼았다. 이는 두 어머니를 여윈 서러움이자 나라를 위하다가 못내 이루지 못하고 널찍으로 돌아온 선렬을 곡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위급한 때는 오고야 말았다. 1937년 6월에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학교에서 여러 친구가 체포되고, 다시 7월에는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이 시작되어 연희전문학교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었다. 이전에는 교실에서 한국어의 사용이 묵인되었지만, 이제는 일본어만의 강의가 강요되고, 조선 문학이란 강의마저 허락되지 않게 되었다. 각 학교와 직장마다 일본 천황에 충성한다는 황국신민의 선서가 강요되었다.

위당은 이런 판국에서 더 이상 교편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이에 병을 핑계 삼아서 휴직을 한 채 두문불출하게 되었다. 얼마 후인 1939년에는 스승인 난곡 이견방마저 별세하여 마음울 의지할 곳조

차 아스러져 버렸다. 병이 아니면서도 누워 있기란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더구나 생활의 위협마저 느끼게 되었다. 더우기 일본이 1941년말 미국과 전쟁 상태에 들어가면서 잔인무도한 횡포가 더해지자 위당은 1943년 가족을 데리고 전라북도 익산군에 있는 황화산(皇華山) 속에 숨어들게 되었다. 늘 신변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나들이에는 조심했다.

1945년 8월에 해방이 되자, 단신 상경하였다가 이듬해에 가족을 데리고 서울에 돌아왔다. 그리고 위당은 평생의 소원인 국학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학대학을 이룩하여 젊은 학생들에게 한국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여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였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검찰원이 생기자, 위당은 검찰위원장이 되어서 새 정부의 관기(官紀)의 숙정에 나섰다. 하지만 시세는 강직한 위당을 검찰위원장직에 오래 있지 못하게 했다.

이에 위당은 그 자리를 사직하고 국학대학장을 잠시 역임하기도 했으나, 그나마도 내어놓고 앞서 말한 남산 아래의 옛 보금자리인 회현동에 묻혀 있다가 6.25의 전란통에 남북되고 말았다. 선 여덟이었다.

한동안은 위당의 소식이 묘연하였다. 생존한다고도 했고 혹은 별세했다고도 들었지만, 얼마 전에 확실히 별세했다는 기별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위당이 우리 학교와 마지막을 고한 것은 1950년 봄이었다. 당시 채플 시간에 위당을 청하여 실학에 대한 강연을 부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강연이 그칠 줄을 몰라서 채플 다음 시간을 전교에 휴강 조치하면서까지 경청한 일이 있었다. 우리 학교로서는 전무했던 예우였다. 위당을 위한 학교의 예우도 예우이었지만, 위당으로서도 우리 학교를 위한 마지막 성의를 다한 것이었다. 마침 평소에 아끼던 수박색 두루마기가 초봄의 새 잎과 한결 어울리기도 했다.

위당을 따르는 사람은 비단 위당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은 아니다. 그의 시조에 나타난 한국 정신이 담백 서린 글을 통해서도

위당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위당과 조석으로 대하면서 속마음을 주고 받았던 친구와 그 따사로운 손길로 훈도를 받았던 제자의 따름은 오죽하였으랴. 한편 위당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대야골 연세의 숲과 교사, 학교에서 주장한 뒤 맨 먼저 이용했다는 구통(九通)에도 위당의 체취는 남아 있다.

얼마 전에 우리 학교 출판부에서 「담원문록」(舊園文錄)을 출판하여 위당을 추념했고, 학관의 중심 벽에 위당의 사진을 모셔서 기리고 있는가 하면, 실학 공개 강좌를 아홉 차례나 개최해서 위당의 학덕의 일모를 상념하고 있는 것도 우리로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또 우리 학교에 위당의 학을 입은 후학들이 교수를 통해서 그 뜻을 다시 이어오고 그 뜻이 계승되어 갈 것이고 보면, 위당과 연세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것만 같다. 위당의 후반기는 연세와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만 같다. <글·황원규/연세대 사학과 교수>

[2]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선비를 중시하였고, 선비 중에서도 문학과 조행이 갖추어진 인격자를 존경하였다.

특히 민족의 수난기나 또는 외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나는 10여 세 때부터 서울에 변영만, 정인보, 홍명희라는 세 문학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뒤 1939년 봄에 나는 처음 서울에 왔었다. 약관 23세의 청년인 나는 그 세 어른을 위에서 열거한 순으로 찾아뵙게 되었다.

그에 앞서 이 세 분과 이름이 막상막하이던 최남선, 이광수는 이에 이르러서 이미 뜻 지닌 청년 후배에게 신망을 잃어버렸고, 그 아류에 속하는 선비들은 혹은 지나치게 고루하여 진부한 옛 껌질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하면, 스스로 개화파라 일컫는 경조부박한 시류는 알미웁기 짝이 없었다.

혹은 이 세 분을 일러 경성삼재(京城三才)라 하기도 하였다. 그 중 위당과 변옹(卞翁)은 특히 고문가(古文家)로 이름이 높았으므로 더

우기 쌍벽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위당은 몹시 맑고 연약한 한편 역시 내강(內剛)하였고, 그의 아호인 위당의 위(爲)는 일을 부지런히 한다는 의미이다. 위(爲)는 애당초 어미 원승이를 상형(象形)한 글자로서, 원승이는 조금도 쉴 사이 없이 무엇을 조각하기 때문에 하염이 있다는 뜻을 지닌 것이다.

위당(爲堂)은 그 아호와 다름 없이 부지런하였다. 유학(儒學)의 사상이란 물론 유위(有爲)의 두 글자에 지나지 않았지마는, 위당은 범사(凡事)에 있어서도 그리하였거니와 특히 글을 쓸 때에 깊은 사색과 여러 차례의 추고(推敲)를 거친 뒤에 발표를 하였기에 그 어느 한 글자, 어느 한 글귀에도 소홀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당의 공(工)”이라는 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내가 처음 위당을 만나 뵈었을 때 위당은 “글을 얼마나 읽었으며 글을 써 본 일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서슴지 않고 속주머니에 품었던 글 몇 편을 내어 드렸다. 위당은 자세히 검토해보고는 하나 하나 평을 쓰고는 또 즉석에서 칠언 한 절을 만년필로 써 주는 것이었다.

筆意已看獨老成
有時金石淵淵聲
須將天卑勤功力
他日期君作鳳鳴

글 뜻을 보아하니
독창하여 노성한 듯
때로는 연연하여
금석 소리 나는고려
모름지지 타고난 제주에다
부지런히 공부하라
다른 날 그대에게
봉새 울음 기대하이.

<필자의 역>

나에게 주신 기대도 컸으려니와 후배를 사랑하는 그 애연한 정이 넘쳐 흘렀다. 나와 같은 가정에서 교동으로 자라난 청년으로서도 감명 깊이 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에 그 한 절 시를 차운한 것 두 수로써 갚아 드렸다. 어느 날 나는 우어간에,

“선생님, 성암 김태준(金台俊)이 쓴 「정인보론」을 읽어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너무 지나치게 당돌한 물음이어서 그런지 위당은 아무런 답이 없었다. 또 어느 날의 일이다. 나는,

“서울 안에 한문학자가 몇몇이나 되는지요?”

하고 물었을 때, 위당은 말씀하였다.

“어른도 한 손갈, 어린애도 한 손갈이어서 잘 알 수 없다네!”

이는 그들의 실력 정도가 그렇다는 것이다. 위당의 눈 아래에는 실로 그러함이 결코 헛된 농말이 아니리라.

위당은 일찌기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장론을 남겼다. 이들은 모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결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는 모두 후배들과 대화할 때나 또는 시율의 창수에서나, 혹은 편지로 주고 받는 중에 나타난 것들이다.

① 박승도의 경우

박 군의 글은 당·송 사람 글의 껍질만을 붙였을 뿐이요, 그 뜻이 통하지 않는 만큼 이제부터 허에서 실로, 가에서 진으로 옮겨서 기운을 돋우고 뜻을 높여야 할 것을 알려 주었다.

② 성환혁의 경우

성 군에게는 너무 지나치게 고문의 가법(家法)에 맞추려고만 힘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의 글은 소심하게 명·청 고문파의 글에서 모의 또는 도습하여 독창성이 결여함을 깊이 경계하였다.

그러나, 성 군은 끝까지 옛에서의 의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글씨에 이르기까지 위당의 필적을 모방하였던 것이다.

③ 이원조의 경우

이 군은 주로 자구의 공교로움을 사랑하였으므로 자구에 대한 조탁을 버리고 우여하고도 심후한 곳으로 지향할 것을 깨우쳐 주었다.

④ 김춘동의 경우

김 군의 글은 지나치게 난숙하여 심오한 곳과 더듬지 못할 것과, 또 척수(尺水)가 고인 그 위에 물결을 일으킬 것이 없음을 깨우쳐 주었다.

이는 모두 그들의 부족한 점을 키워 주려는 고심에서 나온 약석(藥石)의 말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위당은 나에게도 일찌기 글을 씀에 있어서 전편 중에 기(畜)한 것도 있고 불기(不畜)한 것도 있는 것보다는 한결같이 혼성된 것이 아름다움을 알려 주었다. 이는 기와 생을 좋아하는 나에게 대한 일침이었다.

위당은 또 우리나라 역대의 문장을 열거하면서 농암 김창협, 연암 박지원, 연천 홍석주, 대산 김만원과 같은 이도 오히려 한 편으로 기울지 않을 수 없었으나, 다만 그의 은사 난곡 이건방을 제일인자로 추승하였다. 그러나, 나의 의견으로 보아서는 난곡의 문장은 위으로 영재 이건창을 따를 수 없고, 아래로는 위당에게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로 미루어 위당의 문장이 대단하였음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겠다.

또 위당의 문장에 대하여 그가 재세하였을 때부터 논평이 자못 분운하였다. 지나치게 오묘하여 읽어서 그 뜻을 알 자가 극히 적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음은 아니다.

그의 역저「조선사 연구」나「담원 시조」는 비록 한글과 한자의 혼철이었으나, 특히 조어가 창고하고 의취(意趣)가 심오하므로, 그 당시에 있어서 이미 난해의 물(物)로 알려졌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빌린다면, “위당의 글은 단지 세 사람의 독자밖에 없었다” 하였으니, 그 세 사람은 저자인 위당과 식자공 및 교정원을 가리킨 것이

다. 하물며 순한수인 「담원문록」일까 보나?

그러나 잘 읽는 자가 읽어 상세히 살펴보면 모두 백련(百鍊)의 정금(眞金)이요, 십총(十琖)의 양옥(良玉)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대개 그 천품이 고결하고 공부에 정한하였을 뿐 아니라, 때마침 외적의 사술에 얽매인 민족적 감정에 의한 그 비분과 강개에서 이러한 기위(奇偉)·고괴(古怪)한 문장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또 위당의 글은 한갓 문장이기보다도 오히려 역사성을 띤 것으로서, 특히 이조 후반기 실학파의 사적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문제를 제시해 놓았는 만큼 기학의 연구가에 커다란 도움이 됨은 물론이요, 또는 외국인 특히 중국 학자에게 한국학의 연구 자료가 될 것도 부언해 둔다.

우당 윤희구는 일찌기 위당의 유운문(有韻文)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남겼다.

“위당은 문에는 능하나 시를 잘 못했으니 이는 반인(半人)이야!”

그러나, 위당은 그 뒤에 시에 대한 공부가 적지 않아 스스로 일가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글·이가원/연세대 국문과 교수〉

3

나는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 선생을 그분 생전에 뵈지를 못했다. 굳이 찾아 뵈을 기회를 가지고자 했더라면 아니 될 나이도 아니었지만, 아무 공부 없는 청년이 대가(大家) 앞에 불쑥 나타나 가르침을 비는 것이 겸연쩍어서 미록미록하다가 끝내 기회를 잃고 만 것이다. 이 분의 친지, 제자가 아직도 적지 않은 오늘의 시점에서 내가 위당 사학(史學)을 말한다는 것은 결코 적격이 아닌 줄로 알지만, 내가 이해하는 한도 안의 몇 가지를 사학사적(史學史的) 관점에서 적어보고자 한다.

위당(爲堂)의 역사학 관계 저술로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① 해방 전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오천년 간 조선의 얼」을 책으로 한 「조선사 연구」(朝鮮史研究)(1946—47), 역시 주로 해방 전의 역사학 관

제 논술이 많이 포함된 ② 국문 문집 「담원국학산고」(舊園國學散藁)(1955)와 ③ 한문 문집 「담원문록」(舊園文錄)(1967)이 있다. 이 중의 「담원국학산고」와 「담원문록」은 백낙준(白樂濬) 선생의 우정 어린 노심(勞心)으로 이룩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록」서(叙)는 위당의 학을 조감(鳥瞰)할 수 있는 명문장이다.

지금 남아 있는 이 글들의 발표 연대를 따라 위당 사학의 연구 내용을 편의상 대별(大別)한다면 다음의 두 방면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조선 후기 실학(實學)에 관한 것으로 「성호사설서」(星湖僿說序)(1929)에서 시작하여 「조선고서해제」(朝鮮古書解題)(1931)를 거쳐, “정인보·안재홍(鄭寅普, 安在鴻) 교(校)”로 되어 있는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간행(1934)과 때를 같이 하는 정약용(丁若鏞) 관계, 또 그와 전후하여 「여암전서」(旅庵全書)(申景濬), 「담헌서」(湛軒書)(洪大容), 「완당집」(阮堂集)(金正喜) 등에 붙인 서문 등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본래 역사학을 위해 쓰인 것은 아니지만, 「양명학연론」(陽明學演論)(1930년대로 추정)도 실학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또 하나는 한국 상고사(上古史)에 관한 것으로, 「오천년간 조선의 얼」(1935-)이 그 중심이 되어 있고, 낙랑(樂浪)을 다룬 정무론(正誣論)과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를 다룬 「광개토분평안호태왕릉비문석략」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글들이다.

이제 위당 사학을 살펴보는 데 있어, 먼저 그 사학사상(史學史上)의 위치와 위당 특유의 “얼” 사관(史觀)에 언급하고, 그 뒤에 조선 후기 실학과 상고사에 관한 업적을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조선 왕조 시대는 문치(文治) 중심이라 역사 연구에 있어서도 상당한 유산을 우리에게 끼쳐 주었다. 그러나 왕조 말에 자강개화(自強開化)의 물결이 들이닥치고, 이른바 “신학문”·“구학문”의 갈등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역사학도 일대 시련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양의 여러 학과 가운데 중국에 고유(固有)했던 것이 있다면 오직 역사 뿐”이라고 한 양계초의 말과 같이, 역사학은 그래도 구학문적인 방법과 신학문적인 방법 사이의 연결이 가능한 분야이기는 했

지만, 박은식·장지연·신채호 등이 왕조말에 새로운 안목으로 한국사를 다루기 시작할 무렵, 일본에서는 독일의 랑케 사학을 도입하여 한국사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병호가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 사학이 일본으로부터 개단(開端)되기를 바라리오” 하고 개탄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그러나 일본인에 의한 한국 사학은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침략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거기에 동원된 결과가 된 것이 많았고, 함방 후 조선 총독부의 풍부한 재원으로 추진된 역사학·고고학 방면의 연구도 또한 그 입장은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인 연구자들은 한국사의 자료를 얻어보는 데조차 거꾸로 일본인보다 곤란을 겪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대개는 민족주의 위에 서서 피눈물 나는 연구 활동을 계속했던 것이다.

위당이 역사학에서 가장 활발한 업적을 남긴 1930년대의 한국 사학은 몇 가지의 중요한 특징 내지 경향을 나타낸 시기이다.

첫째로, 민족주의 사학이 더욱 집요하게 추구되었다. 3·1 운동 이후 한동안 활발히 전개되던 민족 운동이 만주사변(1931—32) 이후로 크게 봉쇄되자, 그 민족 의식은 민족 정신의 온존 양양이라는 심층적(深層的), 내연적(內然的)인 방향을 잡게 되고, 역사학은 그러한 면에서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조선 후기 실학이 체계화되기 시작하고 그와 표리(表裏)를 이루면서 “조선학”—오늘날의 “국학”—논의가 활발해진 것도 이 시기이다. 이 시기의 민족주의 사학으로 국내에서 두드러진 이들로 정인보·안재홍·문일평 같은 이들을 들 수 있고, 이때 여순옥에 있던 신채호의 구고(舊稿)가 국내에서 발표되어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 가운데서도 “실학” 내지 “조선학”이라는 시각(視角)에서는 위당의 비중이 가히 독보라고 해도 좋을 것이었다.

둘째로, 이 시기의 특징의 하나는 백남운(白南雲)을 중심으로 하여 마르크스 사관에 입각한 한국사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점이다. 구전(口傳)으로 들은 것이라 확실치는 않으나, 백남운의 이 연구의 문헌 자료는 연희를 같은 직장으로 했던 위당에게서 많이 힘입었

다고도 한다.

세째로, 이병도 선생을 중심으로 한 진단학회가 탄생하여 사론(史論)보다는 사실(史實)의 엄밀 견고한 실증(實證)을 중시하는 사풍(史風)이 일어나고, 이리하여 한국 사학을 역사학으로 이끌어가는 데 많은 공헌을 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의 한국 사학이 실증 위주의 사풍을 주류로 삼고 있는 것도 여기에 유래하는 면이 크다.

그렇다고 하여 위당의 역사학이 고증에 소홀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말한 「정무론」이나 「광개토태왕비문석략」 같은 것은 그 결론에 대한 찬반 시비는 있겠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고증이란 이런 것」이라고 범례(範例)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정치(精緻)한 것이다. 다만 위당의 역사 서술에서는 항상 사관(史觀)이 물씬 풍기는 데에 특징이 있다.

[4]

해방 후에 쓰인 「조선사 연구」 부언(附言)에 이런 대목이 있다.

“나는 국사를 연구하던 사람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 본생(本生) 선인(先人)이 늘 말씀하기를 ‘너, 우리나라 사책(史冊) 좀 잘 보아 두어라. 남의 것은 공부하면서 내 일은 너무들 모르더라’ 고 하였건만, 딴 노릇에 팔려 많은 세월을 녹였다.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 일인들이 「조선고적도보」란 첫 책을 낸 것을 보니…벌써 ‘분’ 한 마디가 나타나므로 ‘이것 그냥 내버려둘 수 없구나’ 하였고, 또 어느 해인가…소위 점선비(粘蠟碑)의 석각(石刻)이 용강(龍岡)에서 처음 나왔다고 하여 일본 학자의 조선사에 대한 고증이 저희 총독 정책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을 더욱 깊이 알아 ‘언제든지 깡그리 부숴 버리리라’ 하였다.

그 뒤 신단체의 「조선사연구초」(朝鮮史研究草)가 들어와 그 안식(眼識)을 탄복하는 일면에 역내(域內)에 뚝뚝 돌아다니는 종종(種種)의 출판물 띄 한심하게 여기었으나… 갈수록 세고(世故) 점점 다단(多端)한지라 민족적 정신이 여러 가지로 흐려지는데다가 전(前)으로는 오래 내려오던 선민(先民)의 방향(芳香)이 끊인 지 오래

요, 후(後)로는 자기를 모르는 분들이 적의 춤에 마주 강구를 쳐 마음속 영토나마 나날이 달려 들어가는 때다. 버리버리한 한인(恨人)의 고분(孤憤)을 무엇으로 헤칠 길이 없었다.”

이만 하면 위당의 역사학이 어디에서 비롯하여 어디를 향해 갔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사람의 고도리(꼬투리?)는 얼이다. 얼이 빠져버렸을진대 그 사람은 꺼풀 사람이다”로 시작되는 저 “얼” 사관(史觀)이 이리하여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정신사관이요, 그것을 민족에서 찾으면 민족 정신사관이다.

“저는 저로서의 그 얼”은 “칠척(七尺)의 신(身)”에서 시작하여 “민족으로부터 크게 전 인류 내지 천지 만물에 이르러 일체”라는 것이요, “누구나 다 있는 그 얼을 누구나 지니지 못할새, 만회(挽回) 급무되는 것이요, 누구나 지니지 못하였으되, 본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 언제나 고심(顧尋)할 수 있는 것이로되, 외우(外遇) 점점 홍용(洶湧)할수록 파랑(破浪)의 일타(一柁)는 오직 그 얼에 내(來)할 것”이라 한다. 또 그것을 역사에서 찾으면, “편시(片時)의 섬현(閃現)하는 그 얼로 천추만사(千秋萬社)의 일관되는 대척주(大脊柱) 엄연히 나타날 새, 사적이 이에 귀하고, 역사 이에 귀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그 “얼”은 어찌면 「양명학연론」에 보이는 “실심(實心)에 대한 환성(喚醒)”과도 같은 뿌리에서 온 것인지도 모른다.

위당은 사가로서의 신채호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 신채호를 “명실상부한 거벽”이라고도 했고(「단체와 사학」), “4천 년에 처음 보는 사가”라고도 했다 한다(홍이섭, 「근대의 사가들」). 위당 사학은,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면에서는 “단체 사학의 확충 전개”(홍이섭, 윗글)로 파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채호는 위당보다 12세 장(長)으로, 상해에서 서로 만난 일이 있다.

5

위당 사학의 구체적 내용은 조선 후기 실학과 한국 상고사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하였다. 먼저 실학부터 살펴보자.

“실학”이라는 말은, 종래 유학자들이 유학 그 자체를 가리켜 허(虛)·공(空)이 아닌 실(實)이라고 자처하여 써온 말이며, 허·공으로 빠지지 말고 “실”로서의 참된 유학을 지키자고 자경(自警)하여 써온 말이다. 이 말이 1930년대에 들어와 또 하나의 다른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익(李瀾)·홍대용(洪大容)·박제가(朴齊家)·정약용(丁若鏞) 등 어떤 새로운 경향을 가진 일군(一群)의 조선 후기 학자들의 학문 내지 학풍을 가리키게 된 것이다.

그 새로운 경향이란 무엇인가? 아직 일치된 견해는 없으나, 나는 이것을 “근대 지향(近代志向) 의식”과 “민족(民族) 의식”을 두 척도(尺度)로 한 조선 후기 유학의 “개신”(리포메이션)적 사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이른바 “실학파”의 학자들은 전통 유학의 정통(正統)에서 보면 주류(主流)에는 들지 못하는 이들이었다. 이들을 재평가하여 조선 후기 유학사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데서 “실학”이라는 개념이 부각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실학파에 대한 관심은 벌써 왕조말의 1880년대쯤부터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것이 처음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이 1930년대요, 그 체계화를 위한 움직임의 중심이 바로 위당이었다. 따라서 위당의 실학 연구는 일(一) 연구라기보다도 차라리 정초(定礎)였다고 하는 것이 옳겠다.

위당은 처음에는 “의독구실지학”(依獨求實之學)이니 “조선학”(朝鮮學)이니 하는 말을 써서 이것을 “실학”이라고 부르는 데는 주저한 듯하나, 그러면서도 결국은 “실학”이라는 호칭에 따라간 흔적이 농후하다. 그러나 용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조선 후기 실학의 실질내용의 주추를 세우고 틀을 잡은 것은 위당이었다.

위당은 「성호사설서」에서, 성호 이익의 학의 특징을, “의독”(依獨) — “주조선”(主朝鮮)과 “구실”(求實) — “징실구시”(徵實求是)라 하였다. 그 “독”(獨)은 곧 물(沒)민족 의식에 대립되는 민족 의식이요, 그 “실”(實)은 적어도 한국 연구의 방법으로는 전(前) 근대 의식에 대립되는 근대 지향 의식이었다. 실학의 개념은 이렇게 위당에 의하여 벌써 그 주추가 놓이고 있는 것이다.

위당은 또 실학파의 계보에 대해서도 벌써 큰 틀을 잡아 놓았다. 「조선고서해제-초원유고」와 「여암전서 총서」에 의하면, 조선 후기의 새 학풍은 ① 유형원(柳馨遠)·이익(李翼)·정상기(鄭尙驥) 등의 계열, ② 김육(金堉)·이이명(李頤命)·김만중(金萬重)·홍대용(洪大容) 등의 계열, ③ 장유(張維)·최명길(崔鳴吉)·정제두(鄭齊斗) 등의 계열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 세 계열의 일부에 대하여는 뒤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상당한 연구 업적들이 나왔고, 특히 ③ 가운데의 속칭 강화(江華) 학파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에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위당 자신도 이 강화학파에 속하는 이견방(李健芳)을 스승으로 하였다. 그러나 위당이 파악하는 실학파는 그 어느 학파 위주가 아니었다. 「조선고서해제-초원유고」에서 “삼계(三系)의 추향(趨向)이 야릇하게도 일 없이 합하여 거의 일선생(一先生)의 지수(指授)인 것 같음은 다른 연유가 아니라, 당시 조선인의 절지(切至)한 고민으로 좇아 생기는 진정한 성오(省悟)와 피차 서로 다룰 리 없는 까닭이다”라고 한 것이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다음은 위당의 상고사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자.

그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조선사 연구」(상·하)로 집약되고 있는데, 삼국시대 중간쯤에서 중단된 것이기는 하나 그 분량이 상당하여, 거기에 제시된 문제점들을 여기서 일일이 들어 맞힐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위당 사학이 단재 사학의 “확충 전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가 바로 이 상고사의 부분이라는 점이다.

단재는 기자(箕子)가 은(殷)에서 온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세력이 단군 조선의 일부를 형성한 것으로 본 데 대하여, 위당은 기자의 “기(箕)가 왕건의 “검”이라 하여, 기자 조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군의 원서(遠緒)를 계(繼)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 단재는 한사군(漢四郡)을 요동 반도에 비의(比擬)한 데 대하여, 위당은 요하(遼河)에서 난하(灤河)에 펼쳐는 발해만의 광역(廣域)에 비정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의 차이는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보다는

만주와 요하 방면에 역점을 둔 “시조 단군”의 판도(版圖)와 그 문화를 강조하고, 일변 중국 기록의 동이(東夷)와 연결시키면서, 한국 상고사상의 여러 종족이 한반도와 만주에 걸쳐 각각 분포되는 과정을 설(說)하는 줄거리는, 신재호(申采浩)의 상고사 체계와 서로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사 연구」가 발표된 지 벌써 45년, 그 뒤로 특히 고고학, 인류학 등 역사학의 인접 과학이 크게 진전되었고, 문헌사학에서도 어찌된 일인지 상고사 연구에 손 대는 이가 많지는 않은 대로 전인(前人)의 업적 위에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이리하여 오늘날 「조선사 연구」에 제시된 여러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점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30년대라는 그 어렵던 국면에서 민족의 “열”을 “만회”(挽回) “고심”(顧尋)하는 작업의 하나로 이 상고사 체계를 제시한 위당의 “열”에는 누구나 경의를 표해야 마땅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설 자체로 보더라도, 그 견해의 어느 부분은 위에 재음미·재해석된 것이 지금까지도 적지 않다. 동이(東夷)의 문제, 북삼한(北三韓)과 남삼한(南三韓)의 문제,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의 문제, 백제의 요서(遼西) 경략의 문제... 얼른 손꼽아도 이런 예들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광개토왕릉비의 해석은 근대 일본인 학자 가운데에도 위당 설에 바탕을 두는 이가 나타나기까지 하였다.

다른 분야는 모르나, 적어도 역사학에 관한 한, 어느 학자의 어느 학설도 그 시대의 제약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누구의 어느 설이 후인(後人)에 의한 수정(修正)을 요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누구의 학문적 생명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두고두고 거론되고 재음미되는 요소를 풍부하게 지니고 있을수록 그 생명은 그만큼 계속된다. 그런 점에서 위당의 상고사 역시 그 지지자에게이건 반대자에게이건 간에, 강인한 생명력을 앞으로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故) 홍이섭(洪以燮) 박사는 「근대의 사가들」에서 지금 「조선사 연구」를 다시 읽는다면 “...초점은 조선 반도가 예로부터 북으로는

한(漢) 민족의 식민지요, 남으로는 일본인 학자들의 문헌학적 내지 고고학적인 논증을 비판 시정하자는 일체의 논증을 그에 집중시킨 것이었다… 낙랑(樂浪)과 임나(任那)의 문제는…위당 학설에 좌단(左袒)하지 않더라도 위당 설을 한 번 신중히 다루어 보아야 한다는 이 말까지 북고적이니 국수적이니 할 것까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북도 식민지, 남도 식민지였다는 견해는 그렇게 내놓고 말하는 이는 없었지만 은연중에 그것을 시사하는 일이 적지 않았고, 더구나 그것이 일본 강점기(強占期) 한때의 옛 이야기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지금도 일본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한국사 관계 서적에서 한사군 시대를 다룬 부도(附圖)들을 일瞥(一瞥)하기만 해도, 진번군(眞番郡)이 나주(羅州) 일대에까지 뻗어와서 한반도의 대부분이 한(漢)의 군현으로 표시되고 있다.

나머지 부분인 경상도 일대의 한(韓)과, 심지어 충청, 전라도 일대까지도 다음 시대에 가서는 일본의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이야, 이것을 억지로 아니라 할 수도 없겠지만, 분명히 사실이 그렇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다. 진번군이 나주 부근까지 뻗어 있었다는 것은 “진번군의 치소(治所)가 장안(長安)에서 7,640리”라고 한 「한서」(漢書) 주(註)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것을 따르더라도 동북으로 7,640리를 잡아 만주 영고담(寧古塔) 방향을 진번군으로 본 견해도 있다. 이것을 굳이 나주 방향으로 보는 이 근거 박약한 견해가 마치 정설인 양 일본에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임나일본부”는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한국측 자료에 한 줄도 없는 것은 물론, 일본측 자료로도 「일본서기」와 같은 시대에 나온 「고사기」(古事記)에조차 한 줄도 안 비치는 허구의 구조물(構造物)인 것이다. 이것 역시 일본에서는 그 최고(最古)의 역사 기록의 하나인 「일본서기」의 권위를 등에 업고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것인 양 굳어져 있다.

위당은 이것을 “낙랑”과 “임나”의 문제로 압축하였다. 거듭 말하

여, 위당의 낙랑·임나 해석이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논자에 따라 의견이 다를 것이지만, 한국 상고사의 핵심의 하나라고 이것을 포착한 것은 위당의 “열”의 소산인 동시에 그 형형(炯炯)한 사안(史眼)의 소산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당이 던져 놓은 이 큰 과제는 아직도 오늘의 연구자들의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글·천관우/사학자〉

국어학계의 큰 별

김 윤 경

(1894—1969)

1

“한결”은, 김윤경(金允經) 선생의 변함 없는 삶의 직선적 의지와 절개를 상징한 그의 호이다. 여기에 국어학계의 큰 별이었고 근대 민족 정신사의 상징인 한결 김윤경 선생의 생애를 말하련다. 선각자들이 제 나라에 독특한 말과 글이 있음을 깨치고, 이로써 국민 생활의 모든 방면에 새로운 생기를 불러 일으키려는 감오경장의 혁신의 기운이 일 무렵, 한결은 1894년 5월 28일 경기도 광주군에서 태어났다. 선생의 생애를 말함에 국어학을 빼놓을 수 없다.

한결이 국어학을 필생의 사명으로 생각한 동기는, 이 나라 근대의 선각자요 그의 스승인 주시경 선생에게 순전히 힘입었다고 할 것이다. 열 네 살 때 고향 산속에서 천자문(千字文)이나 통감(通鑑), 그리고 경서라는 한문을 공부할 때 주위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글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가졌다고 한다(김윤경, “생각의 자서전”, 「사조」, 1958. 8).

그런데 어찌하여 한평생 그렇듯 국어를 생명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고 아껴 왔는가?

한결은 율희 2년(1908)에 새 교육을 위하여 상경, 청년학원(중등학교)에서 주시경 선생에게 국어를 배웠다고 한다.

그리하여 “나의 과거에 가졌던 그릇된 선입견은 깨어졌다”고 말

하면서 그의 스승이 말한 “제 나라 글에 무식하여도 수치로 여기지 않음은 사대 사상의 중독 때문이다”라고 한 가르침이 영구히 잊혀지지 않는다고 술회하였다. 그리하여 본시 수학 방면에 재질과 취미를 가졌던 한결은 주시경님의 말에 감동하여 국어 연구에 방향을 돌렸다고 한다. 그 때 이래 한결의 문자관은 파란만장한 민족 수난사를 겪으면서 70이 넘는 삶에 이르러서도 털끝만한 변함도 없이 한결같았던 것이다.

한결은 “한 민족의 흥망성쇠는 그 민족이 가진 문화의 소장성쇠에 정비례하고, 문화의 소장성쇠는 그 민족의 문자의 있고 없음과 좋고 언짢음에 정비례하여, 민족과 문화와 문자는 서로 연쇄적 관계를 가지고 운명을 한가지로 한다”(『한글』, 99호, 1947)고 썼는데, 말 할 것도 없이 한결의 문자관은 민족의 근원적 사상에 뿌리박은 것이었다.

한결은 1917년에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1919년에 3·1 운동 사건에 걸려 휴학을 하였다.

1921년에는 조선어 연구회(조선어학회, 한글학회) 창립 회원이 되었고, 1922년에는 수양동맹회(홍사단)의 창립 회원이 되었으며, 같은 해에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였다. 졸업과 더불어 배화여자학교 교원이 되었으나, 얼마 후 일본에 유학, 입교대학 사학과에 입학하였다. 사학과에 입학하였지만, 그 목적은 국어 연구를 위한 방법론과 이론의 도입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한결은 본시 국어 연구에 뜻을 두었는데, 현재의 우리말을 알기 위하여서는 그 변천과 또 학자들의 학설의 변천을 알아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보아, 스스로 또는 친구에게까지 부탁하여 일일이 자료의 발췌집(스크랩북)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부를 더 해 볼 욕심이 일고, 또 다른 한편 일제가 연희 졸업생에게 교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일본 입교대학에 입학할 해야 했다고 그 입학 동기를 밝히고 있다.

1929년 한결의 입교대학 졸업 논문은 「조선 문자의 역사적 고찰」이며, 그것은 200자 원고지로 614장에 달하는 방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증보하여 낸 것이 불후의 대작 「조선 문자 급 어학사」(朝鮮文字及語學史)(1938)이다. 그의 사학과 입학의 동기는 순전히 우리글의 역사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한결이 1922년에 수양동맹회(지금의 홍사단)의 창립 회원이 되었음은 이미 밝혔다. 그러나, 한결은 1937년에 이 동맹회의 이른바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된 바 있었다. 또 그 후 1942년(49세)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남 흥원 경찰서에 검거되기도 하였다. 이제 이 두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서술하여 보기로 한다.

2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잃고 일본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된 이래, 이른바 “조선어 말살 정책”에 따른 왜말만 쓰기 정책에 의하여 우리 민족은 괴로운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압박 정치의 피수는 테라우찌 총독이었다.

이러한 총독의 압박 정책에 견디다 못하여 일어난 것이 3·1 운동이다. 그 결과 후임으로 사이토 총독이 오게 되었다. 사이토는 거짓 문화 정책이나마 결사의 자유를 허가하게 되니, 여기 국어학자들은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를 조직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안창호의 지시에 따라, 같은 1922년에는 김윤경, 홍사용, 이광수 등이 수양동맹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한국 동화 정책의 적극화와 중국 침략에 호시탐탐하던 일본은 중일전쟁 1개월 전에 수양동맹회 회원인 김윤경, 이광수, 주요한, 한승인 등을 검거하였으니, 이른바 이것이 수양동맹회 사건이다.

한결 김윤경은 제 2심 공판에서 4년 판결을 받았으나, 제 3심 공판에서 스즈끼 요시오의 강력한 변호에 힘입어 무죄로 석방되었던 것이다.

1938년에 이르면, 일본은 학교의 과목에서 국어를 폐지하고 만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국어학자들은 「표준말 모음」,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0)을 비롯하여 우리말 보존의 최선책으로 「큰사전」의 편찬을 서두르게 되고 한결은 그 위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한결은 다른 동지 30여 명과 함께 치안유지법 제 1조 독립운동죄로 검거되었다. 이것이 잘 알려진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환산 이윤재 선생은 함흥 감옥에서 옥사하고, 한결은 1943년에 기소 유예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한결이 수양동우회 사건과 어학회 사건으로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 없었다. 「큰 사전」은 이러한 여러 목숨의 희생의 결정체이다. 한결은 그때의 동지 환산 이윤재 선생을 그리워하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해 주었다.

“옥중에 같이 있을들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있을지라도 지척이 천리라 하기보다 벽 하나가 천리보다 멀었다. 그러나 길한 소식이 있으면 간수가 없는 틈을 타서 벽을 쳐 신호를 하였다. 하루는 벽을 쳐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나중에 안 일이나, 이 때 이미 그는 옥사를 하였다.”

한결은 석방은 되었으나 집에 와 보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머니가 석방 4개월 전에 이승을 하직하였다는 것이다. 한결의 당시의 심정은 그 뒤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세벽』 1960)으로 그려졌다.

한결은 해방과 더불어 조선어학회 상무이사가 되었다. 그리고 1945년 9월 연희전문학교 접수위원이 된 이래 모교인 연희와 오랜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연희전문 교수로, 문학원장으로, 연희대학교 총장 대리, 대학원장으로, 1962년에 연세대학교를 정년 퇴직할 때까지 모교에서 봉사하였다.

밖으로는 문교부 중앙교육위원(1950), 학술원 종신 회원이 되었으며, 국어국문학 교수단의 이사장이 되었다. 그간에 끼친 공로로 학술원상, 한글 공로상, 문화 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한결은 1969년(76세)에 산업 시찰 여행 도중 부산에서 별세하니, 국민은 한결을 애도하여 사회장으로 모셨다.

겨레의 부침이 무상한 가운데 주시경 선생의 뜻함과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 이은 한결은, 젊어서나 노년에 이르러서나, 기구다난한 국운에 처하여서나, 파란만장한 세계의 격동기를 맞이하여서나, 한결같이 우리의 말과 연구를 통한 겨레 얼의 수호에 귀밑머리 흰 서리 옴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실로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정실성” 그것이었다. 이 점에 대하여 외솔(최현배)은 한결의 고회를 맞아 다음과 같은 시조로 읊었던 것이다.

두 손에 짚은 절개 청송이 푸르렀고,
가슴 속 가진 양심 명월이 밝아 있다.
아마도 입의 청풍은 백세 천세 불리다.
한 해에 한 나라에 한 사명 떠고 났네.
한글에 한 뜻하여 고생조차 함께 하고
한가람 안은 연희에 한가지로 늙누나!
젊어서 세운 뜻이 늙은들 가실소냐?
어제도 “한결”이요, 오늘도 “한결”일세.
문노니 머리털아, 너만 어이 변하노?
(『한결 국어학 논집』에서)

3

한결은 연세인이요, 연세의 동문이다. 24세 되던 1917년에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고, 3·1 운동 사건으로 뒤늦어 29세 때인 1922년에 졸업을 하였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는 연희전문학교 접수위원이 되었고, 아울러 이사직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부터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되었을 뿐 아니라, 문학원장이 되었다. 그 뒤 1948년과 195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연희대학교 총장 대리로 중책을 맡았으며, 1952년에는 대학원 원장이 되었다. 1954년에는 연희대학교 대학원에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1962년에는 교육임시특례법에 의하여 연세대학교를 정년 퇴직

(69세)하였으니, 교수 생활 18년 동안에 연희전문, 연희, 연세에 차례로 갈라들면서 모든 증책을 다 맡아서 본 셈이다.

그러나 그의 교수 연한이나 보직의 증책도 중요하려니와, 더욱 중요하고 귀한 것은 한결과 같은 연희인에게 국가의 난국을 극복함으로써 이 겨레의 재생과 영원한 삶의 희망을 안겨 주었다는 사실 외에, 우리 연세를 민족 정신과 그 수호의 본산지로 다져 놓았다는 사실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국학의 본산지로서의 연세 터전을 닦음으로써 연세 전통을 세워 주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연희, 연세에서 한결의 교육을 받은 한 사람으로, 그 간에 보았던 그의 특징을 다음에 적음으로써 그 생애의 내면적 세계를 펴보기로 한다.

한결은 누가 보아도 위풍이 당당하고 굳자스러운 성실성의 표본이다. 연희의 부산 영도 가교사 시절에 한결은 총장 서리를 보면서 한편 문법 강의를 하였다. 영도 가교사 하면 문과대의 제 4 강의실이 유명하다. 문과대는 어느 과를 막론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합동 강의를 받았다.

한결의 문법은 필수로서, 그 당시 교재는 그의 저 「나라말본」이었다. 세상이 어지러운 때이고 안정을 잃은 때이지만, 한결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 같았다. 오직 강의에 임하되, 분초도 늦는 일이 없다. 아니, 늦는다는 것보다는 빠르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시작 종이 울린다. 그러나 끝나는 종은 울렸어도, 강의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종 울린 것을 모르고 계속한다. 강의의 음성은 부드럽고 유창하다. 그러나 평가는 대단히 엄하여 지금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점수의 분포는 영점에서 90점까지이다. 대개 59점 내외에서 감돈다. 59점(학점 취득에 1점 미달)에 머물러도 학생들의 호소에는 아랑곳없이 이에 대한 주관적 구제는 추호도 없다. 제출된 보고서는 날날이 수정되어 학생들에게 되돌려 주어 참고로 삼게 한다. 그는 휴강이라는 글자를 모른다. 휴강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이러한 그의 성실한 강의관, 시간관, 평가관은 그 후 서울 본

교로 돌아와서도, 그리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도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다. 한결이 얼마나 강의에 충실하였나 하는 것은 따님의 결혼식에도 나가지 않고 강의를 하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미루어 짐작이 가리라.

한결은 강의를 하는 틈틈이 민족사관에 대한 이야기와 조선어학회 사건 및 수양동우회 사건의 진상을 이야기하여 주었고, 질곡의 쇄사슬에서 고문을 당하던 상황을 이야기하여 주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켜 주었던 것이다. 한결은 제자들의 학교 생활과 장래 문제에도 관심이 깊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곤 하였다.

“학생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다. 둘째, 흥금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스승을 적어도 한 분쯤 알아 놓아라. 세째, 선배를 알아 놓아라.”

또 학자가 되는 자질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다.

“첫째, 오락과 유희에 침혹치 말라. 둘째, 모리배가 이익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과 같은 생각을 버려라. 세째, 진리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진리와 돈, 진리와 권세는 바꿀 수 없다.” 그리고 학자가 되려는 이는 “머리가 명석하여야 한다. 아내를 잘 얻어야 한다.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하였다.

한결은 졸업생들의 취직을 위하여 가자는 데는 다 갔다. 그러나 한결은 남을 속이는 것은 추호도 생각지 않았다. 정직하기 이를 데가 없다. 그는 일생 동안 단 한 번 거짓말밖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일각이 여참추”로 기다리는 환산 이윤재 선생의 옥사를 그의 노모에게 차마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 뿐이라고 한다(“환산 이윤재 형을 그리워함”에서).

한번은 창천동에 집을 샀는데, 집세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세리가 찾아와서, 싸게 내는 방법이 있다 하고 갔다고 한다. 한결은 세무서장을 찾아가서 싸게 내는 정당한 방법이 무엇이나고 정식으로 물었다고 한다. 한결의 천진난만함은 이를 테가 없고, 자기가 정직한 것처럼 남도 순수하고 정직하다고 본다.

한결은 기독교인이었고, 명실공히 독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자였다. 종교에의 신앙성, 생활에의 정직성, 순수성, 청렴과 결백의 한결성은 그의 인생관이요 생활 철학이다.

그이는 매일마다 일기를 썼는데, 학생 때부터 시작하여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썼다고 한다. 그런데, 6·25 사변통에 그때까지의 일기는 없어졌다고 한다. 한결은 무엇보다도 이 없어진 일기첩을 아까와했다.

한결의 진실성은 당시 제자들로 하여금 “군자”라고 부르게 하였다. 또 한편 “석두”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그러기에 그는 학문에 관한 한 자기 주장에는 추호의 양보도 없다. 당시 그이는 고급 학년에서 “용비어천가”와 “문법론”을 강의했다. 용비어천가 강의는 칠판 필기가 전반으로, 칠판 글씨의 빠른 속도에는 학생들이 따라 쓰지 못하여 찢찢매던 기억도 새롭거니와, 그의 필적은 언제 어디에 가서도 알아볼 수 있는 특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결의 서명에는 도장이 필요 없다. 더구나, 그이는 옛 글자 “ㅇ”의 소리값은 “o”과는 다르므로 “김윤경”의 “경”은 “경”이어야 한다 하고 일생 동안 그렇게 썼던 것이다.

문법의 강의는 외솔(최현배)의 주장과 맞섰다. 학설에서는 이와 같이 대립되었지만, 그러나 일단 논전이 끝나면 한결과 외솔의 우정은 대단하여 그 우정에는 성기어 본 일이 없다.

한결은 연세인으로서 외솔과 그리고 열운(장지영)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어학계의 별이요, 또 다른 연희의 훌륭한 학자님네들과 더불어 연세 전통과 연세 국학과 전통의 형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이의 학문과 업적은 정당히 평가되어, 연희대학교 대학원에서는 1954년(61세)에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내렸다.

학문을 사랑하는 그이는 연희의 후학을 위한 “한결 장학금”을 설치하고, 세상을 가신 뒤에는 그이의 유지에 따라 가족으로 하여금 그가 아끼던 책들을 연세에 기증하게 하여 “한결 문고”로 남겼다.

[4]

한결은 “조선말과 글에 바로잡을 것”이라는 첫 논문을 1925년에 「동광」(東光)에 쓴 이래, 1963년까지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90여 편의 논문을 썼다. 물론 한결이 가진 1969년까지를 조사하면, 무려 100여 편의 논문이 될 것이다.

논문의 중요 발표 기관지는 「동광」, 「교육 연구」, 「한빛」, 「동아일보」, 「사원」(史苑), 「신생」, 「조선일보」, 「별건곤」(別乾坤), 「연희」, 「한글」, 「교육신문」, 「한국일보」, 「최현배 선생 환갑 기념 논문집」, 「연희춘추」, 「민생신보」, 「용재 백낙준 박사 환갑 기념 국학 논총」, 「자유 문학」, 「일석 이희승 선생 송수 기념 논문집」, 「새 가정」, 「동방학지」, 「세계」, 「성서와 한국 근대 문화」, 「경향신문」, 「연세춘추」, 「새 교육」, 「여상」(女像) 등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로 한글학회의 기관지 「한글」을 통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논문의 종류는 주로 음운, 문자, 형태, 어학사, 비교언어학, 언어정책론 등으로 나누어 전개되었다.

이 중 중요한 논문들이 뽑혀 「한결 국어학 논집」(1964, 한결 교회 기념 논문집 간행회)으로 간행되었다. 이 밖에 30여 편의 시평과 70여 편의 수필 및 잡문이 집필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결의 학문적인 저서와 학설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저서에는 「조선 문자 급 어학사」(朝鮮文字及語學史, 1938), 「어린이 국사」(1946), 「나라 말본」(1948), 「중등 말본」(1948), 「한국 문자 급 어학사」(증보, 1954), 「용비어천가」(연희 국문학회), 「새로 지은 국어학사」 등이 있고, 필자본으로 남긴 「조선 말본」(1926)이 있다. 이 중에서 불후의 대작으로는 「조선 문자 급 어학사」를 들 수 있다. 문법학설의 대표적인 저서로서는 「나라 말본」을 들 수 있다.

일본 입교대학 사학과 졸업 논문 「조선 문자의 역사적 고찰」을 고쳐 쓴 것이 저 방대한 「조선 문자 급 어학사」(200×281)요, 그 증보판이 「한국 문자 급 어학사」이다. 이 책은 세계의 언어 분류와,

우리말의 특질과, 우리말의 연원적인 고찰과, 우리 문자의 여러 기원설과, 자신의 우리 글에 대한 “고대 문자 기원설” 등을 전개하고, 신라 향찰 이래 훈민정음이 나오기까지의 문자 발달사적인 고찰과, 훈민정음의 해설과, 훈민정음 이래의 우리 국어학 연구의 학설사적 연구와, 국어 국문의 수난사와 국어 정책에 대한 사적 고찰을 하는 등, 국어학의 사적 고찰을 총망라한 대저이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나라의 “3대 저서”라는 말을 잘 썼거니와, 그것은 외솔의 「우리말본」과 무애(양주동)의 「고가 연구」와 그리고 한결의 「조선 문자 급 어학사」를 두고 한 말이었다. 한결의 이 「조선 문자 급 어학사」는 우리나라 사람의 손에 의하여 지어진 최초의 국어학사 책이다. 우리는 이 한 책을 통하여 우리 국어 연구의 사적 전면상을 훑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이 사료(史料)로서도 귀중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결의 학문적 학설로는 위에 말한 어학사에 있는 한글의 “고대 문자 기원설” 이외에, 그이의 문법 저서를 통한 분석주의의 언어관을 들 수 있다.

두루 아는 바와 같이, 한결은 근대 언어학의 비조(鼻祖)인 주시경 선생의 제자이니, 그의 민족주의적 사상과 분석적 문법 체계를 계승한 제자이다.

1926년에 나온 한결의 필사본인 「조선말본」에는 언어 문자의 효용 가치를 국가 성쇠와의 함수 관계로 언급하였다. 이것은 이미 그이의 학문의 바탕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언어 문자관에서는 당연히 언어의 규범적 체계와 언어의 불규칙성의 불가론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드디어 그이의 어법 체계에 기계주의적 분석 체계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한결은 “말은 종합에서 분석적으로 발전한다”(「한글」 110호, 1955, 4; 111호, 1956, 5)고 확신하거니와, 이미 이러한 언어관은 일찍부터 태동하였으니, 그것은 저 1926년의 필사본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결은 필사본에서 내린 단어의 정의에서, “씨(단어)는 한 소리나 한 소리 이상으로 무슨 뜻을 나타내는 낱으로 된 말이다”고 했다.

이는 낱말(단어)을 오늘날 최소한의 의미적 단위인 형태소(morpheme)의 개념에 하한선을 두고 이해한 것이며, 그 상한선은 불명확하나 형태소의 배합체로 이해하였다고 풀이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낱말을 분석 가능한 형태소까지 내려 보았다는 것은 분명히 낱말 정립에 분석적 견해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적 경향성은 「나라말본」(1948)에서 다시 다져진다. 거기에서 “씨(단어)란 말의 낱덩이를 이른다”고 한 생각이나, “한 법칙을 보이는 더 가를 수 없는 낱덩이다”라는 일반적 정의를 볼 수 있다. 이는 말은 종합에서 분석적 방향으로 발달하여 간다는 분석적 언어관에서 연유한 정의이다.

그리고, 우랄알타이 말은 개념어와 형식어를 구별하여, 형식어는 개념어에 첨가되어 말이 이루어진다는 특질을 강조하고, 국어는 이 첨가어족 계통의 언어이므로 개념어와 형식어를 각각 낱덩이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그 원칙을 못박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토나 씨끝(어미)과 같은 형식 요소까지도 낱말로 보게 되는 문법 체계를 정립하였던 것이다. 이는 곧 주시경 선생의 체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결의 이러한 체계를 분석적 체계라 하거니와, 위와 같은 주시경 선생과의 일치점에서 그는 주시경 선생의 분석 체계의 후계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근본은 분석 철학과 기계주의적 철학관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계주의에 터잡았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의미론(semantics)의 개제는 금물이 되어 있다. 이러한 기계주의적 언어관은 세계 언어학적 조류에서 보면 블룸필드(L. Bloomfield) 학파에 유사하다고 갈라 붙일 수 있겠다.

주시경 선생의 제자 중 외솔은 「우리말본」에서 말의 종합적인 면과 분석적인 면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 분석 체계(철총 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토는 한 낱말로 보나, 씨끝은 낱말로 독립할 수 없고 그것은 어간과 합하여서만 낱말이 된다는 문법 체계를 세운 것이다. 한편, 정열모의 「신편 고등문법」에서는 토나 씨끝은 독립한 낱말을 이룰 수 없다는 종합적 체계를 세웠다.

여기 한결의 분석적 체계를 합하면 이른바 세 큰 문법 체계가 된

다. 이를 학계에서는 “3대 문법 체계”라 하거니와, 한결은 그 중 분석 체계를 이끌어 나갔던 것이다. 이처럼 한결의 민족관은 분명할 뿐 아니라 학문관도 분명하다.

한결은 파란만장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연세에게는 국학 전통의 확립을 위하여 일하신 한 분이요, 인간 한결로서는 성인군자요, 좀처럼 보기 드문 성실한 인격자이다. 민족에게는 정신적 지주였고, 학문으로는 국어학계의 큰 별이었다.

〈글·김석득/연세대 국문과 교수〉

김 원 벽

(1894—1928)

1

1919년 3월 5일. 노도와 같은 만세의 포효 소리가 끊는 피 속에
용솨음치며 불타오르던 3·1 운동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

서울역으로 이르는 남대문동의 좌우 보도는 학생들로 가득히 메
워져 있었다. 전날의 약속에 따라 전문학교 학생들은 한복을 입었
으며, 그 중에는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도 무수히 모여 있었다. 모두
들 무엇을 기다리는 듯한 긴장한 표정들로 굳어 있었다.

오전 열 시경, 남대문 쪽에서 인력거 두 대가 나란히 달려오는 것
이 보였다. 술렁임의 물결이 잠시 스쳐 갔다. 인력거 위의 2인, 김
원벽과 강기덕은 가까이 오더니 준비했던 태극기를 하늘 높이 쳐들
었다. 맑은 하늘이었다. 순간 서너 명의 학생이 달려들어 인력거를
밀고 당기며 “독립 만세”를 목메어 부르기 시작했다.

아! 망국 후 처음 보는 태극기.

몰려든 학생들의 가슴은 터지는 듯했다. 김원벽(金元璧)은 인력거
위에서 더욱 더 높이 태극기를 치켜들었다.

좌우 연도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어 숨겨 두었던 태극기와 붉은 띠
를 꺼내 들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다. 장한 기운이었
다. 조국에의 끊임없는 사랑과 일제(日帝)에 항거하는 분노의 물결
이 서울역으로 서울역으로 밀렸다. 자유를 갈구하는 백의의 민중들.
이제는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단군의 핏줄을 이어받은 한 겨레 한

형제였다.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만세!”

함성은 노도처럼 일렁거렸고, 이를 지켜보는 도로 연변의 민중들의 눈에는 눈물이 아롱졌다. 얼마나 갈구하던 독립이며, 얼마나 보고 싶던 태극기인가!

서울역에는 고종 황제의 인산을 마치고 귀향하려는 지방민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태극기를 보자 인력거 주위로 몰려들었다. 인력거 위의 한 사람, 키가 크고 장대한 김원벽 동문이 큰 소리로 짧은 연설을 했다. “지방에 돌아가더라도 계속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을 당부했고, 각 학생들은 비라와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같이 “독립 만세”를 외치자 일본 경찰들이 긴 칼을 빼어들고 나타났다.

김원벽 동문은 행렬을 향해 남대문 안으로 밀고 들어가자고 독려했다. 그러나 이미 남대문 안은 수많은 일본 경찰들로 메워져 있었다. 이들은 마구 찌르고 자르는 등 축건과 같은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순식간에 유혈이 낭자했다. 이들의 악착같은 저지로 행렬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들의 만행은 당시 연전 학생이던 김윤경 동문의 일기에도 적혀 있다.

3월 5일

오늘 아홉 시 남대문 정거장 앞에서 둘째 번의 시위 운동이 폭발했다. “만세!” 소리에 산천이 진동하고 “조선 독립”, “대한 독립”의 깃발과 손에 든 홍색 포편(布片)에 햇빛이 아득하다. 남문 안에서 참혹하게 맞고 묶이는 사람의 얼굴, 창백색을 띠고 혹은 유혈이 낭자하여 까무러치어 늘어진 대로 실리어 가는 여러 사람과 또 여학생이 무수히 결박되어 간다. 나는 나아오다가 이것을 볼 때에 사람의 맘을 가진 이야 누군들 눈물이 쏟아짐을 막으랴!

.....하락.....

김원벽이 탄 인력거는 십여 명의 학생들이 옹호하여 남대문 쪽으

로 갔고, 시위 행렬은 밀리고 밀려 남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세브란스의 간호원들이 나와서 부상자들을 간호하자 일경(日警)은 이들도 잡아 끌고 갔다. 남대문 안의 일경은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둘렀다. 일군(一群)의 순사가 칼을 휘두르며 인력거를 향해 물려들었다. 학생들은 김원벽을 에워싸고 보호했으나, 일경의 마구 휘두르는 칼에 인력거를 끌던 많은 학생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김원벽 동문은 태극기를 매달았던 대나무를 가지고 용맹스레 수많은 일경의 칼에 대적했다. 무수한 칼날에 대항하여 사투를 벌였으나 중과부족이었다. 그는 끝내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인력거 위에 쓰러졌다. 일경은 피를 흘리는 그를 끌어내어 체포하고 마구 때리며 끌고 갔다.

그 날의 학생들의 시위는 수많은 일경의 참혹한 저지로 인하여 오래 끌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거는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다. 뒤이어 일어난 방방곡곡을 뒤흔든 자랑스런 만세 소리의 주역은 모두 이 학생들임을 생각할 때 김원벽 동문의 희생은 실로 값진 것이 아닐 수 없다.

3월 1일의 만세 운동이 김원벽 동문을 중심으로 한 학생층의 배경을 등에 업고 고종 황제의 인산으로 물려온 민중과 학생을 대상으로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 아래 일으킨 운동이라면, 3월 5일의 학생 만세 운동은 김원벽 동문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순수한 학생들의 끓는 피로써 대필한 정의에 찬 봉기였다는 점, 또 삼천리 강산으로 메아리친 항일 만세 운동의 직접적인 불씨가 되었던 점으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당시 학생들 간에 애국 애족의 투철한 정신과 뛰어난 웅변가로서 명성과 선망을 한 몸에 모으던 김원벽 동문, 그의 순결하고 짧은 생애를 기술함에 앞서 먼저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죽음을 각오한 무저항, 무폭력의 조용하고 평화적인 시위 행렬.

고종 황제의 숭하하심으로 더욱 굳건히 결속된 민족애의 발로와 불타는 일본에의 적개심이 이의 촉진제가 되었으나, 그 근원을 따지

면 먼저 월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의 주창과 세계 정세에 민감했던 학생들의 판단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1918년, 4년 동안이나 끌어오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왔던 제 1차 세계 대전이 파괴 속에서 종언을 고하였다. 이 때 월슨이 주장한 14개 평화 원칙 가운데 민족 자결이라는 조항이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희망을 불어 넣어 주었던 것이다. 또 이 당시 기미년 5월에 세계 평화 회의가 열린다는 소문이 들려 학생들에게 이상한 반응과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

민족 자결은 원래 강국들이 유럽의 약소 민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내걸었던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상관될 근거가 없는 것이나, 이 민족 자결의 원칙은 일제하에서 모진 설움을 겪고 있는 한민족에게 똑같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이로써 반만년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한국의 국가 주권 회복은 당연한 것이며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학생들 간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제 1차 세계 대전의 대세가 결정되자 김원벽은 민주주의와 공화 정치에 대한 갈망을 소리 높여 외쳤다. 이러한 여론은 학생들 사이에 독립 운동의 준비를 서두르도록 이끌어갔다.

한편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발표된 후 피압박 민족 중 체코슬로바키아가 1918년 11월 공화국이 된 것을 본 왜적은 공포를 느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정세는 밖으로는 애국 지식들을 중심으로 조국 광복의 운동이 활발하고, 안으로는 고종 황제가 1919년 1월 총독 하세가와에게 데라우찌 통감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한일합병 당시의 각서를 보이고 상약(相約)한 조선 통치 10년 기한이 되었은즉 이제 한국 통치권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세가와는 이 말에 대경실색, 1907년 고종 황제가 헤이그 밀사를 파견한 일도 있은즉 이 참에 민족 자결주의를 들고 나오면 더욱 문제가 중해질까 두려워 고종을 없애기로 작정했다. 그리하여 황제를 모시는 내인 2인을 매수하여 독살케 하고, 내인 2인도 죽여 입을 봉해 버렸으며, 1919년 1월 22일 고종이 승하한 것으로 공표했다.

고종 황제가 승하하신 소식이 전해지자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꼬

리를 물고 일어나 이러한 심증은 더욱 굳어지기만 했다. 이 때문에 고종 황제에 대한 동정의 눈물과 함께 왜적에 대한 적개심도 같이 높아가고 독립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하여 갔다. 이렇게 한민족의 마음이 하나의 목적으로 뭉치어 가자 독립 운동의 준비도 착착 진행되어 3·1 운동의 거사가 치러질 단계가 된 것이다.

이러한 때에 민족 대표 33인과 기맥이 서로 통해 있고 학생층의 막강한 세력과 지지를 얻고 있는 김원벽 동문의 힘이야말로 3·1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2]

김원벽 동문— 그의 뜻있는 생애는 1894년 6월 24일 황해도 은울군 별기동에서 시작된다. 황해도 안악군 교동교회에서 시무하는 김태석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다.

그의 아버지 김태석 목사는 일찍부터 개화기의 문명을 받아들인 인사로, 1901년 황해도에 제일 먼저 교회를 건립했고 교회 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김원벽 동문의 조모는 이씨 모니카로,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다. 이씨 모니카는 그 아들 김태석 목사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 후 기독교가 전래됨에 따라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목사가 된 것이다.

황해도 구미포는 언더우드 박사가 한국 땅에 기독교의 포교를 위해 처음 발을 디딘 곳으로, 따라서 황해도는 다른 지역보다 일찍 개화의 물결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황해도에 언더우드 박사는 별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서양인들도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김태석 목사는 언더우드와 교분이 두터웠다. 그에게서 많은 신문화를 받아들인 김 목사는 이를 실천에 옮기기에 힘썼다. 기독교 청년 면려회니 여름 성경학교 등을 만들어 문맹 퇴치에 힘을 기울였고, 은울군 이도면에 승실학원 등 여러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신문화를 일찍 받아들인 탓에 황해도에서는 항일 운동이 무척이나 활발했으며, 뜻있는 사람들은 자제를 모두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에 보내 교육을 시켰다. 이로 인해 일제는 학생을 모으지 못함을 두려워한 나머지 1940년 말에 이르러서야 공립학교 하나를 강제로 세울 수 있었다 한다.

이러한 기독교적 자유 사상이 몸에 배인 집안의 분위기와 고장의 항일 분위기 속에서 김원벽 동문은 나라를 잃은 설움과 그에 대처해 나갈 지혜를 하나씩 깨우쳐 나가고 있었다.

그는 만 일곱 살 때인 1901년 은율군 이도면에 있는 충실학원에 입학하여 1908년까지 수학하고, 평양 대성, 충실학원 등에서 잠깐 수학했으며, 1908년 4월 서울의 경신중학교로 유학했다. 경신중학교는 언더우드 박사가 연희전문학교와 더불어 설립한 학교로, 전국의 뜻있는 사람들과 많은 영재(英才)들이 몰려들었다. 이 경신학교는 일제 말에 강제 폐교당해 사라져버렸다.

어릴 적의 김원벽 동문은 씩씩하고, 집에 돌아오면 열심히 집안 일을 도와 효자라는 칭찬을 들었다. 다음날이 서울로 떠날 날인데도 오늘까지라도 집안 일을 돕겠다고 농사 일에 뛰어들어 감탄을 사기도 했다.

어린 시절에 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버지 김태석 목사였다. 당시에는 조혼의 풍습이 있어서, 이들 부자(父子) 간의 나이 차는 얼마 되지 않아 서로 의기가 상통하였다. 김태석 목사도 자유 사상이 몸에 배인 사람으로, 아들과 가끔 신학문과 사상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아들 김원벽 동문과의 토론 중에 아들의 논리 정연함과 놀라운 지혜에서 많은 것을 도리어 배웠다는 회상이다. 당시로 보아서 아주 사이 좋은 부자(父子)였던가 보다.

김원벽 동문은 농민의 개화에도 열심이였다. 김태석 목사는 1910년경 친분이 두터운 언더우드 박사의 영향으로 농민들의 부수입을 올리는 특용작물로 사과 과수원을 시작했다. 김원벽 동문은 팔을 걷고 나서서 동네 청년들에게 열심히 사과 재배법과 정조식으로 심으라는 등의 작업 지도를 함으로써 농촌 개발에 힘썼다.

그가 연희전문 상과에 입학한 것은 1915년, 기록상으로는 1917년이다. 언더우드가 연희전문을 연 것은 1915년이나, 총독부에서 조선

교육령에는 학령이 없다고 해서 대학 대신 전문학교를 인가한 것이 1917년이기 때문이다. 경신중학교와 같은 계통이므로 연전이 개교되자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김원벽 동문은 연전 개교와 더불어 입학하게 되었다. 당시에 상과는 3년제로 인가가 났기에 상과 1회 졸업생들은 2년씩 묵고 1919년에 졸업하게 되었다.

연전 시절의 김원벽 동문은 외국어, 특히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하였고, 수학의 실력이 상당해 동료 급우들의 선망을 받았다. 그의 또 하나의 천재적인 재질은 웅변이었다.

당시에는 학생들과 국민을 선도하고 계몽하는 데는 웅변이란 매체 밖에 없었으므로 웅변의 힘이란 실로 큰 것이었다. 김원벽 동문은 이 시기에 기독교 청년회와 각 교회 청년회 연합회에서 강연을 몇 차례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서울 장안의 유명 학생이 되었으며, 학생치고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 “그는 키가 후리후리하게 큰데다 허스키 보이스였으며 타고난 웅변가였다. 한 번 연단에 서서 정열을 쏟아 웅변을 토할 때에는 모든 청년들이 귀를 기울이고 감탄사를 연발케 하는 웅변가였다”고 정석해 동문은 회고담에서 쓰고 있다.

③

연전 시절에 김원벽 동문은 그의 탁월한 영도력으로 연회 기독교 학생회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당시 학생 운동은 기독교 학생회 하나밖에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었다.

한편 그는 언더우드 덕에 기숙하면서 집사 일을 보아 주었다. 당시에는 재단 조직이 없어 언더우드 박사 혼자 학교의 사무를 담당했는데 이에 김원벽 동문이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다.

같은 학생 운동의 선구자이고 세브란스 의전(醫專) 학생 대표였던 이용설 동문은 김원벽 동문을 다음과 같이 평한다.

“그와는 그가 연전을 들어올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그는 타고난 천품의 뛰어난 영도력, 활발하고 포용력이 강한 성품에, 달변으로 정의감이 무척이나 강한 학생이었기에 처음 보자마자 펍 훌륭한

학생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이 같은 정의감에 불타는 성격은 3·1 운동에 유감없이 발휘되게 되었다.

1919년에 이르러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이 성숙해 가자 1월말경 중앙 YMCA 간사 박희도 씨는 동회 회원부 회원인 김원벽 동문을 만나 청년회원 모집을 협의했다. 그리고 중등학생 이상의 학생과 청년 등을 모집하고, 기독교학생회의 단결력을 견고히 하는 의미로 시내 각 전문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대표를 모으기로 결정했다.

이 박희도 씨는 후의 민족 대표 33인 중의 한 분으로, 김원벽 동문과는 같은 황해도 출신이라 아주 친밀히 지내는 사이였다.

이야기가 이쯤 되어 박희도 씨의 이름으로 그 해 1월 26일 대관원에서 각 학교 대표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 회의에는 당시 세브란스 의전 대표였던 이용설 동문도 참가했다.

이 회의에서 이들의 기독교청년회 가입을 권고하고 나자 보진 졸업생인 주익이 일어나 “대전 결과 세계 지도가 변하였고 우리 조선도 강화 회의의 문제가 될 모양이니 이 때 우리 동포가 일제히 일어나 운동을 일으키면 성공할지도 모른다”고 열변을 토했다.

열띤 토론이 끝나자 박희도 씨를 포함한 일동이 찬성하게 되었다. 동경 유학생들도 독립 운동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국내 청년들도 선언서를 발표하여 여론을 환기시키고 세계 여론에 우리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기로 의견이 결정되었으나, 김원벽 동문만이 이 의결에 가담하지 않았다.

김원벽 동문의 주장은 “독립은 찬성이나 지금 독립 선언을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설사 독립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의 상태로는 국가의 체면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김원벽 동문은 막강한 기독교학생들의 세력을 배경으로 업고 있었으므로 그가 빠지면 일의 성사가 곤란하다고 생각한 각 학교 대표들은 김원벽 동문의 설득에 들어갔다.

김원벽 동문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으로서도 심사숙고한 후 오랜 고민 끝에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결단을 내린 뒤로는 분명히 앞장서서 일을 진척시켰기 때문에 독립 운동의 준비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갔다. 일본에서는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 선언문이 발표되어 이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우어 주었다.

김원벽 동문은 독립 운동을 벌이기로 한 결정을 당시 연희전문 기독교청년회장이던 이병주에게 연락하여 그 회원들의 찬동을 얻었다. 김원벽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독교, 불교, 천도교 등의 연합 전선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독립 운동 계획도 거의 마무리되어 2월 26일에는 독립 선언문을 인쇄하기에 이르렀다.

민족 대표로는 33인 이외에 제 2진이 구성되어, 민족 대표가 모두 잡혀 들어가면 제 2진이 남아 계속 독립 운동을 밀고 나가기로 내정되었고, 유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제 2진으로 남은 사람도 있었다. 김원벽 동문은 학생이므로 민족 대표에는 끼지 못하였으나, 그의 탁월한 영도력은 3·1 운동을 지휘하는 데 큰 능력을 발휘했다.

운동 하루 전인 2월 28일, 김원벽 동문은 가장 먼저 세운 연건 학교 건물인 치원관에 전교생을 소집하고 내일의 거사 계획을 설명하였다. 다음날 오후 두 시에 붉은 머리끈과 태극기를 가지고 탑골 공원으로 모일 것을 신신당부하였다. 그는 밤까지 뛰어다니며 내일의 거사 계획과 독립 선언문의 배부를 계속했다.

3월 1일 오후 한 시경부터 탑골 공원에는 학생 대표들의 연락을 받고 모인 학생들이 그득하게 모여 있었다. 두 시에 민족 대표 한 사람이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뒤따라 시위 운동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두 시가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모두들 초조해 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정재용이 품속에 감추었던 독립 선언문을 꺼내 큰 소리로 낭독했다. 그러자 우렁찬 만세 소리가 뒤이어 우뢰같이 터졌고, 만세 소리가 퍼져 나가자 학생보다 더 많은 시민과 지방민이 모여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미리 계획된 대로 지휘에 따라 이들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난폭한 행동이 없는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시위 운동을 시작했다. 이때의 일을 당시 연희 기독교청년회 간부이던 김윤경 선생은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다.

.....생략.....

백두산에서 흐르는 물이 보에 막히었다가 트이어지는 듯이 남대문 안 큰 길거리에는 학생, 신사, 상민 구별 없이 “만세”를 부르며 뛰노는 사람 바다가 내밀친다. 사람은 몇이라 할 수 없고 거리 거리 사람 바다로 차벨을 이루었다. 여자도 많다. 아! 이는 자유를 부르는 민중의 과열됨이 의심 없이 명백하다.

.....하략.....

이 시위 운동은 오후 여섯 시까지 계속되었고, 연전 부근에는 학생들이 모여 밤 열 한 시까지 해산하지 않고 만세를 불렀다. 이 운동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결박당해 갔다.

다음날 학생들은 다시 학교에 모여 사후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다음날은 고종의 인산날이니 백성 된 예를 지켜 조용히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3월 5일은 고종의 인산으로 서울에 올라온 지방민들이 다 고향으로 내려갈 터인즉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서울역과 남대문 사이에 학생들을 모이게 하고 2차로 학생들만의 만세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지방민들이 학생의 시위를 보고 자극을 받아 고향으로 가셔도 운동을 계속하게 하려 함이었다.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다. 즉 누구를 제일 처음의 희생자로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각 학교의 대표들은 이 만세 운동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 한 번에 한 사람씩만 희생되어 일주일 간격으로 끊이지 않고 이 만세 운동이 계속되게 하려는 의도였다.

죽음을 각오한 첫번째의 대표자로 연회전문의 김원벽 동문이 선포 나섰었다. 그는 당시의 풍습대로 조혼을 해서 부인과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 이런 제약에도 선포 나선 그의 끊어오르는 애국심에 동료 대표들은 찬사를 보냈다. 김원벽 동문이 선두에 나서서 진두 지휘하기로 되자 계획은 순조로왔으며, 3·1 운동 당시에 학생복을 입은 사람들만 중점적으로 잡아 갔으므로 모두 한복을 입고 나오기

로 의견이 모아졌다.

3·5 학생 만세 사건 당시의 상황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3·5 만세 사건이 나자 일경은 학생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었으며, 그 포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예방책으로 각 학교 대표들을 예비 구속해 버렸다. 따라서 2차, 3차 만세 운동의 계획은 무산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운동의 여파는 방방곡곡으로 퍼졌고, 어디서나 학생들이 선봉이었고 전위 부대였다. 더듬어 생각하면, 이때부터 한국에는 사회의 한 잠재 세력으로 “학생층”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은 절실한 현실의 요구에 근거하여 사상과 이념으로 무력에 대항해 나갔던 것이다. 이때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학생 운동에 앞장서서 거사를 치르어 나갔던 김원벽의 큰 모습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 준다.

3·5 만세 운동시 일경의 칼을 맞고 구속되었던 김원벽 동문은 곧 재판에 회부되었다.

4

이 3·5 만세 사건으로 인하여 김원벽 동문 외에도 연전 학생 중 5일에는 김상덕, 하태홍 등이, 6일에는 김한영, 최형집, 이병주, 서광진이, 8일에는 최치완, 박태화, 윤기성, 윤대진, 강우석, 송기주 등이 체포되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연전 학생은 15명에 달하였다.

3·1 운동의 전국적인 파급은 3월 5일의 학생 시위로 급진전하게 되었으며, 당황한 일경은 3월 5일 오후 두 시부터 계엄령을 선포하고 가택 수색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아직 잡히지 않은 학생들은 만주 등지로 멀리 피신하고, 시골 등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연전 측에서는 3월 7일 학생들을 소집하여, 예정된 시험을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본 즉, 모였던 25명 중 3명을 제외하고 모두 거부 의 뜻을 표했다. 이로써 학교는 1년 동안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이 1919년은 연전 1회 졸업식이 거행되는 해였다. 연전 창립과 동시에 입학했던 김원벽 동문도 1회 졸업생에 끼여 있었다. 이 해에는 문과 8명, 상과 10명, 수물과 4명 등 모두 2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으나, 3·1 운동으로 인하여 졸업식을 거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석해 동문의 회고에 의하면, 나중에 학교에서 졸업장을 만들어 졸업생 전원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한다.

그 때 연전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3·1 운동에 가담했느냐 하는 것은, 1918년의 연전 전교생 수가 94 명인데 1919년에는 17 명에 불과했다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3·5 학생 만세 운동으로 투옥된 연전 학생들 중 6명은 6개월에서 12년까지의 선고를 받았고, 1명은 사망했으며, 5명은 3년 간의 집행유예, 2명은 미결수,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무죄 석방되었다. 잔악한 일경도 3·1 운동의 전국적인 확대에 겁을 먹은 탓에 김원벽 동문을 죽이지 못했고, 김원벽 동문은 미결수로 2년 간 복역하게 되었다.

일경은 3·1 운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전기한 민족 대표 33 명을 포함하여 3·1 운동의 주모자 48 명을 색출해 냈는데, 김원벽 동문은 이 민족 대표 48인 중에서도 가장 주동격이었다.

3·1 운동에 의해서 우리가 비록 독립을 쟁취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 운동이 끼친 영향은 크다. 일제는 3·1 운동으로 한국인을 결코 무력으로 누를 수 없음을 절감하여 무단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그 통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또 학생들 사이에서 만민 평등의 민주주의 사상이 크게 보급되었고, 이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그 해 4월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었다.

김원벽 동문은 3·1 운동을 통해 교회와 민족을 위한 연회의 창립 정신을 빛으로써 만방에 보인 큰 인물이다.

2년 간 복역한 후, 김원벽 동문은 모교의 사무직원으로서 2년 간 재직했다. 또 1924년경 최남선 씨가 주간으로 있던 「시대일보」의 재무 담당으로 2년 간 일하기도 했으나, 이 신문이 강제 폐간되게

되어 그만두게 되었다.

이때부터 김원벽 동문은 3·5 만세 운동 때에 맞은 상처와 고문 등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그의 타고난 역량과 뛰어난 인품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또 김원벽 동문이 출옥한 뒤 한층 더 심해진 일경의 감시와 방해는 그로 하여금 마음놓고 일에 열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에 견디다 못한 김원벽 동문은 한때 미국으로 몰래 떠나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고 떠날 날짜만 기다렸으나, 어찌된 일인지 일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5]

1923년 3월 5일 연희전문 5회 졸업식이 끝난 후 신·구 동창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졸업생 친목 기관의 설치를 의논하던 중 한 사람이 “졸업생이 100명에 달하도록 연락 기관이 없으니 상설 기관을 설치하자”고 발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렇게 해서 연희 동문회의 결성이 확정되고, 김원벽 동문을 제 1회 동문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이어 규칙 기초 위원으로 김원벽, 노준탁, 김윤경, 김한영, 강헌집을 뽑았다. 이로써 연희 동문회가 조직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1928년이 되자 김원벽 동문은 생활비 문제의 해결과 요양을 위해 사리원에 가 있게 되었다. 이 사리원에는 세브란스 출신의 친구가 문재 병원을 경영하고 있어 김원벽 동문의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일경의 감시는 이 곳까지 뻗쳐, 김 동문은 정기적으로 몇 십리 떨어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어느 날 먼 경찰서에 가서 취조를 받고 온 김원벽 동문은 그대로 자리에 누워 열흘쯤 뒤인 1928년 4월 9일 그의 참과 순결함으로 다져진 짧은 생애를 마쳤다. 향년 35세.

1928년 4월 12일자 「동아일보」는 “김원벽 씨 장서(長逝)”라는 제호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황해도 사리원 동리(東里) 김원벽 씨는 얼마 전부터 우연히 병마에 걸리어 신음하던 중 지난 9일 오후 여섯 시경에는 그의 부인의 단지주혈한 효과도 없이 35세를 일기로 한 많은 이생을 떠났는데, 씨는 중학을 마치고 연전에 입학하여 수업하던 중 기미년 삼일 운동 당시 48인 중 한 사람으로 민족 운동에 참가하여 결국 철창에서 긴 세월을 보내던 바 출옥한 후 신생활사와 전 시대일보사의 간부로 문화 운동에 많은 힘을 쓰다가 그것도 운이던지 모두 실패하고 사리원에 와서 상업에 전공하던 중이었는데 씨는 소년 시대부터 웅변가의 칭을 듣고 또는 재질이 풍부하였다더라.”

1945년, 해방 후 국가는 독립 운동을 하다 숨진 선열들을 찾기에 힘썼다. 정부 수립 후 정부는 1919년의 학생 운동의 주동이요 독립 운동의 기치를 높이 든 자랑스런 연세인 김원벽 동문을 찾아냈고, 1962년 3월 1일 그에게 건국 공로 훈장 국민장을 수여했다. 1973년 10월 3일에는 김원벽 동문의 묘를 국립 묘지 충혼비 뒷쪽 애국 지사 묘 127호로 이장하고, 다음의 묘비문을 새겨 그의 공적을 기렸다.

—애국 지사 김원벽의 묘

“황해도 은율인, 1919년 연회전문 제 1회 졸업반 재학시 3·1 운동의 학생 대표로서 행동대를 총지휘하니 33인과 그 외 15인을 합친 48인의 한 분이다. 왜정의 총칼을 무릅쓰고 독립선언식에 이어 서울역 광장 결기 대회와 군중을 지휘타가 피체, 3년의 옥고를 치르시고 심한 총상과 옥고로 인하여 1928년 4월 9일 영면하시다.”

그는 자유와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 또 조국을 도탄 속에서 건지기 위해 젊은 생명이 다하도록 이 세상에 봉사한 전형적인 연세인이며, 외로운 민족 혼의 한 떨기 꽃이었다.

1921년 11월 5일 김원벽 동문이 공덕리 경성 감옥에서 만기로 출옥하던 날의 기사를 「동아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다.

“독립 시위 운동 때 수만의 학생 수령으로 일하던 연희전문학교 생도 김원벽 씨에게 옥중감상을 물은즉 얼굴에 냉정한 빛을 띠우고 ‘옥중에서 고초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만기되어 출옥하니까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흰 옥양목 두루마기에 검은 빛을 띤 얼굴에는 쓸쓸한 미소를 띄우더라.”

민족을 위해 희생되는 것쯤 당연지사라 알던 김 동문의 말에서 그의 지극한 충정을 본다.

김원벽 동문, 그는 교회와 민족을 위한 연희의 창립 정신을 맨 먼저 만방에 알린 분이요, 그로 인해 연전의 항일 운동이 처음 실천되었다. 그는 연세인 최초의 항일 투사이며, 항일 운동에 참가했다가 순국한 첫번째 연세인, 민족 대표 48인 중 가장 나이 어린 학생이었다.

그로 인하여 학생 운동의 자랑스런 맥이 연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 3·1 운동을 기점으로 한국에 학생 세력이 등장, 사회적 진로의 선구적 임무를 다해 왔다. 이 의기로운 학생 운동의 불은 연이은 항일 운동으로, 가까이는 4·19 의거를 통하여 뚜렷이 확인되었다.

김원벽 동문은 진리와 자유의 선봉에 서고 있는 모든 연세인의 뚜렷한 지주이며 정신적 목표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연세인에게조차 잊혀져 가고 있으니, 과연 그의 후배인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신적 유산을 물려준 김원벽 동문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글·한은경/전 「연세춘추」 기자〉

최 현 배

(1894—1970)

[1]

외솔 최현배(崔鉉培) 선생은 1894년 10월 19일 울산에서 태어났다. 외솔 하면 주시경 선생을 우선 생각하게 되는데, 외솔은 17세 때 한일합병이 되자 다니는 관립 한성고등보통학교보다는 주시경 선생의 조선어 강습원에 더 열심하였다. 외솔의 생애에서 나라 사랑과 우리 말글의 연구 보급을 들지 않을 수 없는데, 그 근본 이념은 그의 스승 주시경 선생의 교육으로부터 비롯한다.

외솔의 확고한 민족관의 표현은 1922년 일본 경도대학 철학과를 거쳐 1925년에 동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최고 학부를 나오는 선물로서 사랑하는 겨레에게 바친 저 「조선 민족 경쟁의 도」에서 볼 수 있다.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 정복자의 압제 정치 아래서 목숨을 살면서 공부를 하자니 압박과 설움, 수치와 통분 속에서 현재를 견디며 장래를 근심하기에 남모르는 마음의 고생은 끝일 날이 없었다. 살기는 무엇을 위하여 살며 공부는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조선 민족 경쟁의 도」에서).

이와 같이 민족의 비애를 통감하면서 그러나 그는 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나의 끝없이 사랑하는 배달 거래의 경쟁을 위하여 누누수만언(累累數萬言)을 써 그 방도를 강구하여 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조선 사람이다.
세계는 넓건마는
조선만이 내 땅이다.”

「조선 민족 경쟁의 도」 끝 부분

의술이 나아갈 인생의 길은 여기 이미 조선 민족 경쟁의 도에 지포되어 있다. 오직 할 일은 그 길을 가는 것이요, 실천하는 길이다.

2

의술이 연희와 인연을 맺기는 1926년에 연희전문 교수로 취임하면서부터이다. 의술은 연희전문 교수로 취임하면서 「동아일보」에 “조선 민족 경쟁의 도”를 60여 회에 걸쳐 발표하여, 일제에 억눌린 우리 민족의 생기를 진작시켰다.

학교에서는 철학, 논리학, 국어를 강의하였는데, 철학과를 나온 이로서 국어에 관심을 두고 국어를 연구하며 교육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나라를 건지는 방법은 오직 나라말과 나라글을 갈고 닦고 보호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신적인 자세와 확신은 이미 「조선 민족 경쟁의 도」에 이루어져 있었고, 이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전투 태세가 취하여져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할 때, 일본어 교육을 집어치우고 의연히 국어 교육에 종사하면서, 저 불후의 대작 「우리말본」을 완성하였으며, 「한글의 바른 길」을 지어 젊은 세대에게 민족 정신과 민족 문화의 나아갈 길을 깨우쳐 주다가 소위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체포되어, 재임 12년만에 강제 사직당하고 말았다.

의술은 연희전문 교수 때 수다한 삽화를 남겼다. 그 중 그의 인생

관과 유관한 두어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여 본다. 그 하나는 언더우드 동상 쪽으로 올라가는 돌층계에 비스듬히 누인 돌에 새긴 돌 이야기다. 그 돌에는 “뉴욕에 있는 우리 겨레로부터 붙여줌. 1927”이라고 오목새김(음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솔의 글이라고 한다. 그런데 당시 연전에서 국학의 쌍벽이요 고집의 쌍벽인 위당 정인보 선생은 그 글이 한글로 쓰임과 또 “민족” 대신에 “겨레”라는 고유어로 쓰인 데 불만, 상당한 설전을 벌인 뒤 드디어 위당은 그 돌층계를 피하여 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쯤 뒤 위당이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그 글이 괜찮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다. 그 뒤부터 위당은 돌층계를 오르내렸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외솔의 언어관과 고집을 본다. 이 고집은 그의 나라 사랑의 얼을 지켜 왔고, 그의 학문을 대성케 했으며, 다른 일에서 한 번도 꺾인 바 없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고집을 문자 정책적인 면에서 꺾고 마는 일까지 해냈다.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저 유명한 우리나라 음악의 선구자 현제명 선생과 유관한 이야기다. 외솔이 한참 학관 연구실에서 「우리말본」을 집필할 때인데 현제명 선생이 옆방에서 시끄럽게 노래 연습을 하여 매우 밉더라는 것이다. 외솔은 이러한 일을 회상하면서 그가 그렇게 대성할 줄이야. 차라리 격려를 하여 줄 것을!” 하고 후회하였다.

연전 때에는 일제의 우리 민족 말살 정책에 거슬러,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면서 민족 얼을 가누기에 혼신하는 그 밖에는 여념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기에 「우리말본」의 원고를 집에 놓고 나갈 때 부인에게 꼭 “집에 불이 나면 저 원고부터 옮겨 놓으” 하다가 나중에는 독을 묻고 원고를 간수하였다는 일화도 있다.

외솔은 일정으로부터 강제 실직당한 지 3년만인 1941년에 연전 교수로 복직하였다. 그러나 1942년에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경도 흥원에서 영어(囹圄)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때에 있었던 토막 이야기를 적어 외솔의 “대쪽” 같은 인생관을 짐작해 보기로 한다.

저 지독한 일제하에서 개명(改名)하지 않고 지낸 사람은 다시 보아야 할 것이다. 외솔은 그때걸코 개명하지 않았다. 사람을 몇 번이고 죽였다 살렸다 함을 손 뒤집듯 하던 고문관도 외솔의 곳곳한 모습에는 질렸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제 최현배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의미 있는 말까지 하더라는 것이다. 그는 고문관에게 양가슴을 채여 뒤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앞으로 엎어졌다고 한다. 기어코 앞으로 엎어져서 자기의 승리를 보이자는 뜻에서였다고 한다. 당시 흥원은 민족주의자가 들끓던 곳이었다. 뜻있는 사람은 돈으로 간수를 구워 삶아 놓고 사식과 더불어 외솔의 요구에 의하여 연필과 종이 조각을 들여보내 주었다고 한다.

외솔은 아침에 넣어 주는 주먹밥을 시간을 벌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빨리 먹고 그 후에는 한글에 대한 연구를 하여 그것을 쪽지에 적어 바지 살을 타서 차곡차곡 간직하였다고 한다. 그 형언할 수 없는 호된 고문을 받아가면서 간직한 연구 쪽지들은 해방과 더불어 석방되면서(당시 52세) 인쇄에 옮겨져서 「글자의 혁명」이라는 책자로 나왔다.

우리는 무심코 「글자의 혁명」이라는 책을 보지만, 거기에는 외솔 개인의 피어린 사연과 한 많은 사연이 민족의 얼로 승화되어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최현배 선생의 대쪽 같은 성품은 그의 아호 “외솔”에 잘 나타나 있다. 외솔의 친필에는, 을사춘 삼월에 쓴 성삼문의 글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승 되었다가 /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가 있지만, 아호 “외솔”의 뜻은 바로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그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말과 글을 위함은 정말 외솔과 같다. 그의 생애는 그렇게 높은 산에 외로이 서 있는 외솔처럼 역경과 시련의 전부였다.

③

1945년 외솔은 조선어학회 상무이사로 있는 이래 문교부 편수국장, 한글학회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1954년에 연희대학교 교수로 다

시 취임하였다. 같은 해에는 대한민국 학술원회원이 되고 연회에서
는 문과대학장이 되었다. 1955년에는 연희대학교 부총장에 나가고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시대는 바뀌어도 외술의 민족관과 교육관은 한결같았다. 말·글·
일의 삼위일체를 통하여 민족 경쟁의 도를 실천함에 여념이 없었
다.

외술은 공직에 있을 때 공·사의 구분이 명확하기로 유명하다.
문교부에 근무할 때의 일인데 가방 속에는 언제나 사사로이 쓸 봉
투와 용지가 따로 들어 있었다고 한다. 또 물건 아끼기로도 유명해
종이 한 장이라도 여백을 그대로 두고는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당시
같이 문교부에 있었던 홍용선 선생의 말).

필자가 대학 시절의 일인데, 한번은 외술이 너무나 흰 옷을 입고
학교에 온 것을 보고 민망하여 물었더니, 아주 옛날에 입던 옷인데
아직 성하여 아까워서 입고 왔다고 했다. 하기야, 구두도 8년을
신었다는 말을 듣고 어느 신문기자가 놀랐다는 글을 필자는 보았지
만, 외술에게는 흔히 있는 일로서 조금도 놀랄 일이 못된다. 외술은
또한 외국산은 질색을 한다. 한번은 부인이 모르고 사온 외국산 옷
감을 알아보고 그것을 되돌려 바꾸어 온 일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외술을 말할 때에, 학문과 나라 사랑이 이원론적으
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체로 뭉쳐 있다고 한다. 마
찬가지로 외술에게서는 강의 시간만의 교육이 아니라, 위에 말한 바
실제 생활에서의 교육과 강의에서의 교육이 일체로 나타난다. 따라
서 외술에게는 삶의 일체가 교육이었다.

한번은 외술이 문과대학장 재직시에 학생들이 등록금 연기 신청
서를 내었다. 그리 하였더니 전부 퇴짜를 놓으면서 맞춤법이라든가
문장 표현이라든가 문서의 모양이라든가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제대로 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의 직권으로 연기원 제출을 하루
연기한 일도 있다.

또 어느 졸업한 제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선생에게 편지를 하였는데 그 편지가 되돌아와서 뜯어 본즉, 온

통 교정이 보아져 있었다고 한다. 야속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야속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이를 배우고 그이를 배우지 않을 수 없고 또 배운 것을 자랑하게 됨은 무슨 까닭인가?

「연세춘추」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외술의 입김을 많이 쏘아왔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외술은 「연세춘추」의 맞춤법이나 문장, 그리고 짜임새에 이르기까지 온갖 힘을 기울였다.

외술의 말은 강한 경상도 어조에다 조금 뜨는 편이어서 강의를 언뜻 들어보면 시답지 않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어 잘 정리하여 보면, 짝 짜인 틀 안에 철학성이 알차게 들어 있고, 그 알찬 내용은 귀납법으로 매물차게 묶어간 것이었다. 그리하여 3학년 이상의 학생이면 그의 강의의 진가를 이해하게 되었다.

외술은 키가 작운데다가 몸은 깡마른 편이다. 그러나 머리 둘레만은 크기로 유명하다. 그리하여 외술의 온통 훌륭한 재주와 위대한 사상은 그의 머리 크기에 연유한다고들 하였다.

외술은 노래를 부를 줄 모른다. 그리하여, 한번은 학생들이 들놀이에서 노래를 부탁하였더니, 노래 대신 독립선언서를 외운 일도 있었다. 그러나, 노래는 못하여도 노래 듣기는 좋아하였다. 노래를 짓기도 좋아한다. 그의 “한글 노래”나 “나라 사랑의 노래” 가사는 이 나라 이 겨레의 사랑뿐 아니라 노래 솜씨로 보아도 일품이다.

외술은 문장가는 아니다. 그러나, 그의 논리적 문장과 이론적 전개는 매섭고 힘이 있어, 웬만한 논전의 대상은 그의 철학과 이론의 전개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만다.

[4]

외술의 주장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문에 대한 자기 학설의 주장이요, 다른 하나는 학문에서 얻어진 결과를 실천하는 주장이다.

외술의 학문에 대한 주장은 주시경 선생의 분석적 언어관을 수정하는 데서 비롯한다. 외술은 1953년경에 연희대학교에서 일반 문법

과 국어학 연습 등을 강의하였는데, 외솔의 말본 강의는 당시 한결 김윤경 선생의 “나라말본” 강의와 충돌하게 되었다.

한결 선생은 1952년에 함도 부산 영도의 연희 가교사에서 당시 문과대학 1학년생들에게 필수로 “나라말본”을 강의하다가 1953년 경에 상경, 본교에서 국어학을 계속하였던 터이다. 그런데 김윤경 선생의 말본 체계는 주시경 선생의 체계를 그대로 계승한 분석적 체계였다. 외솔은 1953년 문교부로부터 학교에 돌아오면서 “일반 문법”이라는 이름으로 말본을 강의하게 되니, 종래의 한결의 강의와 학설면에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외솔은 한결 체계를 비판하고, 한결 역시도 국어학 강의에서 외솔의 체계를 비판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당황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3대 문법 체계 중 당시 서울대의 심악 이승녕 선생의 종합 체계를 빼어놓고는 나머지 두 체계가 다 연희에 있음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윤경 선생의 스승인 열운 장지영 선생까지 국어학을 강의하고 있었던 터이라, 명실공히 연희는 국학의 전당이 되었었다. 이 세 어른은 문자정책관(한글 전용)에서 완전 일치하고, 조선어학회 사건 때 영어의 고초를 받은 점도 일치했다. 이와 같이 연희는 국어 연구로나 민족 수호의 전당으로 울연히 그 전통을 굳혀 나아갔던 것이다.

외솔은 밖으로 심악 이승녕 선생의 종합적 체계와도 논쟁이 벌어지고,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석 이희승 선생의 학설과도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외솔의 「우리말본」이 나온 이래 40여 년이 되었지만, 이 나라에는 이를 능가할 만한 체계가 아직 집성되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학문의 담보를 말함보다는 그의 학문의 탁월성의 의미로 받아들임이 옳을 것 같다.

외솔의 학문의 주장은 학파를 낳았다. 외솔의 자기 주장에 대한 논지 전개가 탁월함은 이미 말한 바 있지만, 일단 옳다고 생각하는 지론에 대하여는 추호의 양보도 없었다.

우리말 옛 소리글자에 “아래앗 자”(·)가 있는데, 그 소리값에 대한 “ㄱ- 사이 소리설”과 심악 이승녕 선생의 “ㄱ- 사이 소리설”이

대립하게 되었다.

이것은 외솔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계속한 논쟁의 하나이지만, 당시의 이 논쟁을 계기로, 이른바 보수적인 S대학과와 진취적인 Y대 학파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아는 사람은 잘 아는 것이다.

학문적 이론의 대립 중에도 외솔이 처음 세운 잡음씨(지정사)의 논쟁은 가장 치열했다. 다른 체계는 외솔과 유사하나 오직 잡음씨 문제에서만은 이승녕 선생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일석 이희승 선생과의 논쟁은 드디어 문교부의 중고등학교 문법 통일 문제에까지 비화하여 가장 심각한 대립을 보였었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정되지 않는 것이 외솔의 잡음씨설이다.

남의 학설을 헐어버리려 함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심리인지라, 한 쪽에서 그 반론이 기승하여 오자 이를 알고 있는 외솔은 언젠가 외국어대학(당시 종로에 있었음)에서 “다시 ‘이다’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다. 아마 발표하는 시간이 족히 네 시간은 걸렸으리라. 외솔은, 당시 노구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피로의 기색이 없이 논지를 전개하여 나아갔다. 그때 그의 비판을 받는 쪽에서는 네 시간 동안 안절부절을 못하며 당황하던 기억이 선하다.

그러나, 외솔은 학문의 토론을 떠나면, 일석 이희승 선생이 말했듯이(「나라 사랑」 1집) 변치 않는 우정으로 돌아가곤 하는 것이었다. 외솔 학문의 실용적인 실천은 한글 전용과 고유어 사용의 문자 언어 정책으로 나타난다. 그는 “한 겨레의 문화 창조의 활동은 그 말로써 들어가며 말로써 하여 가며 말로 남긴다” 하고, 그 올바른 실천의 길을 대담하게 모색했던 것이다. 그의 주장의 집요한 실천에의 노력은, 드디어 1948년에 국회에서 헌법의 본문과 국경 교과서를 순 한글로 하라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외솔은 인간의 창조력을 매우 귀히 여겼다. 그리하여 말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다는 언어 창조관을 세운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새 말 만들기”이다. 외솔은 훔볼트의 철학관을 자주 말함으로써 그의 철학관을 짐작케 하였지만, 훔볼트의 인간의 창조적 능력설을 믿어 몸소 실천한 것이었다. 그가 만든 말 가운데는 가

락국수, 초밥, 덮밥, 그미(그녀) 등의 평범한 말로부터 학문의 술어에까지 다양하게 미친다. 오늘날 학자나 대중이 스스로 어려운 말을 쉽게 만들어 쓰려는 노력을 많이 함은 실로 그이의 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이의 창조적 노력은 우리 글의 모양의 연구나 글자의 기계화에까지 미치었으니, 이 진취적 기상은 모두 그의 창조적 철학관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외술의 주장이 칼날 같은 것처럼 제자 양성에도 무서운 신념이 있었다. 제자의 건강에 유의하여 약방문을 손수 내주고, 부총장 재직시에는 어느 제자의 병을 걱정하여 세브란스에 손수 입원시켰으며, 제자가 세상을 떠나자 목놓아 울었다.

그가 연회에 있었을 때에는 한국의 페스탈로치로 알려졌지만, 학생들을 위해 많은 어록도 남겼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다.” 이것은 그 중의 하나로서 지금까지 연세 동산에 남아 메아리친다.

외술은 연세에서 명예 교수(1961), 재단 이사(1962)를 끝으로 세상을 하직하였지만, 밖으로는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를 설립하여 성왕의 유덕을 펴 나가기에 끝까지 일 보았다. 외술의 노고를 무엇으로 다 치하하랴마는, 이 현대의 석학을 나라에서는 건국 공로 훈장(1962)으로 상 내리고, 세상을 뜬(1970) 뒤에는 국민 훈장 무궁화장으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숭덕비를 남산 중허리에 세웠다. 그리고 그의 위대한 업을 영원히 기리고자 모여든 사람들이 “외술회”를 만들어 기관지 「나라 사랑」을 내고 있다.

〈글·김석득〉

5

외술 최현배 선생의 업적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몇 장의 원고지에도 그 윤곽이나마 다 그려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 서는 선생의 국어학의 역사에 끼친 업적만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선생의 순수 국어학 이론의 저서로는 「우리 말본」과 「한글갈」을 들 수 있는데, 이 두 책은 둘 다 그 “분량”으로써도 다른 국어학의 저서를 압도하는 것이었지만, 그 “내용”으로는 더욱 그러하다. 일

제 시대의 국어학의 대표적인 명저로 우리들은 네 권의 책을 든다. 즉 「우리말본」, 「한글갈」, 「조선 문자 급 어학사」(김윤경 지음), 「조선 고가 연구」(양주동 지음)가 그것인데, 이 중의 두 권이 외솔 선생의 저서임을 보아도 선생의 국어학사에 남긴 그 업적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우리말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소리갈”(음성학)과 “말본갈”(문법학)이 그것이다.

우리말의 소리에 관한 연구로는 「훈민정음 해례」, 「훈민정음 운해」, 「언문지」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매우 훌륭한 업적으로 손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대 언어과학적 방법에 의한 음성학의 연구는 역시 주시경 선생의 「말의 소리」를 시초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외솔 선생의 말 소리 연구는 선생이 주시경 선생의 문학생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소리갈」(1929년 초판)의 짜임새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음성 기관에 관한 설명이고, 둘째는 “낱소리” 즉 개별적인 음성에 관한 설명이고, 세째는 “이은 소리” 즉 소리의 결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다루는 부분이다.

“음성 기관”에 관한 우리 말로 된 설명은 그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는데, 선생은 동서양의 이 방면의 서적을 널리 참조하여 음성 기관의 짜임새와 그 움직임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숨쉬는 데”, “소리내는 데”, “소리 고르는 데”로 음성 기관을 나누는 것은 오늘날에도 변치 않는 일반 음성학의 방법이다.

“낱소리” 부분에서는 일반 음성학에서 취하는 방법대로 홑소리와 닿소리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하위 구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닿소리”는 홑과 겹(거듭)으로 다시 나뉘는데, 이 방법은 이미 주시경 선생에서 시작된 것이다. 다만 달라진 점은, 된소리를 주시경 선생은 그 글자 끝에 끌려 겹소리로 보았으나, 외솔 선생은 그 소리나는 이치를 살펴 홑소리로 다루었으니, 이것은 글자와 소리를 엄격히 구별한 근대적인 방법이다(외솔 선생도 1929년의 초판에서는 이

소리들을 겹으로 보았으나, 1937년에 「우리말본」으로 완성시켰을 때에 고쳤다).

이리하여 낱낱의 소리를 실례를 들어가면서 상세히 설명하였고, 특히 된소리의 성질에 대해서는 무척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된 소리는 지금도 그 음성학적 성격을 구명하는 데 많은 사람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니 그 당시로서는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더구나 주 선생이나 김두봉이 다 겹으로 본 것을 홑으로 보게 되었으니, 그 설명에 힘을 한층 더 기울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된소리를 흔히 목청터짐 소리라고 하는 일이 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지식으로 본다면, 이것도 된소리의 한 가지 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통 말에 있어서의 된소리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니, 외솔 선생이 된소리 내는 법을 “예사소리보다 그 나는 자리의 막음을 단단히, 또 오래 하여서, 그 숨을 되게 쌓았다가 내는” 것이라 한 것은 매우 잘 된 설명이다. 다만 이것을 울림소리(유성음)의 한 가지로 본 데에는, 현대 국어학자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 하는 사람도 있다.

“홀소리”도 홑과 겹으로 나누는 점은 닿소리의 경우와 한가지인데, 주 선생은 닿소리의 경우처럼 글자 모양에 끌려, “기, ㅍ”들을 겹으로 보고 있는데, 김두봉은 이 두 소리를 홑으로 본 것을 최 선생은 다시 “ㄱ”도 홑으로 치고서 훌훌소리(단모음)를 아홉으로 잡았으니, 이 체계가 지금까지 그대로 국어 교육에서 지켜지고 있다. 여기 문제가 있다면, “ㄱ”를 다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관한 의견을 다름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생의 음성학에 더 이상 머무를 여유가 없다. 다만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점은, 주시경 선생의 「말의 소리」가 1914년에 나왔고, 김두봉의 「깁더 조선말본」이 1922년에, 그리고 최선생의 「소리갈」이 1929년에 나왔으니, 불과 15년 사이에 우리 말 소리의 연구는 선생으로 말미암아 장족의 발달을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선생의 업적은 소리갈에서보다 말본갈에서 더 크다. 주시경 선생

의 말본 연구를 이어받아서 20세기 초기의 말본 연구를 집대성하여 우리 국어학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저서가 바로 「우리 말본」이다. 이 저서가 나온 지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우리는 그 해박한 자료면에서나, 그 물썰 틈 없는 체계에 있어서 이에 추종할 만한 말본 저서를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다.

외술 선생의 말본 연구가 주시경 선생에게서 이어받은 것이라 하나, 그 체계는 많이 달라졌다. 우선 낱말의 규정 방법부터가 달라졌으니, 주 선생이 풀이씨의 줄기와 씨끝을 각각 독립된 낱말로 보고 풀이했는 데 대해, 최 선생은 이것을 떼어놓지 않고 합쳐서 한 낱말로 보게 된다. 따라서 말본의 체계상 크게 달라진 것은, 풀이씨에 끝바꿈(활용)이 있음을 풀이하게 된 점이다.

“가다, 먹으니, 엮음” 따위를 한 낱말로 보게 되면, “가시다, 먹겠으니, 엮었음” 따위도 한 낱말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시, 겠, 엮”을 “도움 줄기”로 처리했으니, 이도 외술 선생의 독창적 견해이다.

우리말의 풀이씨의 씨끝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활용형의 체계를 세우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외술 선생의 끈기는 이 어려운 일을 능히 해내고야 말았다. 먼저 월을 끝맺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끝맺는 마침법은 다시 말할 이와 들을 이와의 관계에 따라 네 가지 끝바꿈꼴(활용형)로 나누었으며, 끝맺지 않는 이음법은 열 네 가지의 끝바꿈꼴로 나누었는데, 이 이음법의 꼴의 범주는 그 뜻이 매우 미묘하여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감목법”(자격법)의 설정은, 오늘날의 변형 생성 이론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붉은, 먹기, 해(보다)” 따위의 활용형이 두 가지 감목(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속구조와 겉구조에서 다른 기능을 가졌음을 인식한 것이니, 우리는 외술 선생이 언어 구조의 이중적인 성격을 깊이 통찰하고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도움풀이씨”의 설정도 속구조에 대한 인식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창을 열고 보다”와 “창문을 열어 보다”는 그 겉구조는 비슷하나, 앞의 경우에 있어서는 ① “창문을 열다”와 ② “(밖을) 보다”가 다 속뜻으로 이해되나, 뒤의 경우에 있어서는 ②는 속뜻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선생은 뒤의 월의 “보다”는 도움풀이씨라 하여 앞의 월의 “보다”와 구별한다.

“때매김”에 있어서, “더”를 “도로생각”의 때매김으로 처리하여 이와 “바로 때매김”과를 대립시킨 것은 탁견이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 때매김 표시와 과거를 표준으로 하여 말할 이의 정신 상태를 그에다 갖다 놓고 때때로 서술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말의 큰 특색의 하나이다.

그 밖에, “모자란 풀이씨”를 설정하여, 활용형이 구비되지 못한 풀이씨를 설명했으며, “벗어난 풀이씨”에 대한 상세한 풀이는 형태음소적 변동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기술이다.

우리는 최근에 서양 일반 언어학을 받아들여 국어학의 이론을 정밀히 닦고 있으나, 어떤 부문에 있어서나 선생의 말본 이론은 그 출발점이며 토대가 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외솔 선생의 말본 체계가, 그가 학풍을 이어받은 주시경 선생의 그것과 크게 달라진 점은 풀이씨의 활용을 인정하는 데 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인데, 그렇다면 토씨와 앞의 임자씨와의 결합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외솔 선생은 토씨는 임자씨와 분리하여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 말에는 “곡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다. 즉 어떤 사람들은 토씨도 풀이씨의 씨끝과 같이 다루어서 임자씨의 곡용을 인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외솔 선생은 그 때 이미 토씨가 한 독립된 낱말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낱말이란 반드시 자립 형식만이 아니라 점, 임자씨와 토씨의 연결 관계는 풀이씨의 줄기와 씨끝과의 관계와 다르다는 것, 우리의 언어 의식으로도 “사람이”는 두 낱덩이로 직감할 수 있다는 사실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궁이 가는 이유들이다. 그리하여 이 체계는 대체로 그대로 오늘날에도 답습되어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임자씨의 “격”의 개념이 분명한 범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도 우리 말본에서이다. 격이란 원래 인구어에서는 임자씨의 통사 기능에 따르는 형태 변화의 문법 범주이다.

우리말의 임자씨를 토씨와 분리시켜 놓으면 그러한 형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의 임자씨에는 격이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말의 토씨에는 일정한 통사 기능만을 표시해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서, 토씨의 분류에서는 격을 그 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토씨 분류의 기준으로서의 격은 어디까지나 그 통사 기능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솔 선생은 격을 “자리”라고 옮긴다. “자리”란 월에 있어서의 자리란 뜻이니, 바로 통사 기능을 가리킨다. 이 이론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타견이다.

“자리”가 통사 기능을 표시해 주는 우리말의 문법 범주이므로, 이것은 마땅히 월 성분의 종류와 서로 일치해야 한다. 외솔 선생의 월 성분의 체계는 바로 이러한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임자자리”가 있으면 “임자말”이 있고, “부림자리”가 있으면 “부림말”이 있고, “매김자리”가 있으면 “매김말”이 있다. 실로 정연한 체계이다.

그런데 오늘날 나와 있는 문법 저서들 가운데는 이러한 이론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서, “월 성분”은 월 성분대로, “자리”는 자리대로 아무런 관련이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6]

외솔 선생의 학문은 단순한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었다. 겨레의 무궁한 발전의 토대는 그 말과 글의 올바른 사용에 있음을 인식했기에, 우리말, 우리글의 연구와 보급에 그 한평생을 바쳤던 것이다. 선생이 우리 민족의 지적 산물 가운데 가장 값어치 있는 “한글”의 연구에 몰두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한글(정음)은 조선 사람의 지적 산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인 동시에 또 지적 탐

구의 가장 긴밀한 대상이 아니면 안 된다”고 선생은 말하고서, 이에 「한글갈」이란, 국어학사상 최초의 새로운 학문의 체계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1938년 9월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연희전문학교를 강제로 사직당하고 난 외솔 선생은 바로 그 때부터 훈민정음에 관한 모든 문제를 체계있게 연구 정리하기 시작하여, 1940년 겨울에 「한글갈」을 완성해 내기에 이르렀다. 선생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모진 손톱에 두 번이나 고난을 겪었으니, 흥업구락부 사건과 조선어학회 사건이 그것인데, 「한글갈」은 이 두 번 고난의 중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때는 제 2차 세계대전이 일본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던 때인지라, 선생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극히 불리한 형편에 외롭고 초조한 마음으로” 서둘러 이 책을 지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은 풍부하고도 정연하다.

학문으로서의 한글갈은 “훈민정음에 관한 일체의 역사적 문제와 한글에 관한 일체의 이론적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책도 따라서 첫째 매 역사편, 둘째 매 이론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역사편은 한글 쓰기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글자에 대한 연구의 역사로써 엮여진다.

한글 쓰기의 역사적 발전은 우선 훈민정음 창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훈민정음을 만든 경과를 설명하고, 그 쓰인 역사적 전개상을 크게 여섯 시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의 한글 사용 문헌의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누어 고찰했으나, ① 독립적 사용, ② 한문 번역, ③ 한자 새김, ④ 외국 말 번역이 그것이다.

한글 연구의 역사는 사실상 국어학사에 해당되는 부문이다. 「훈민정음 해례」의 학설을 비롯해서, 최세진의 「훈몽자회」, 신경준의 「훈민정음 도해」, 유희의 「언문지」 따위의 고전적 한글 연구 문헌을 총망라하다시피 하여, 그 학설의 상세한 소개와 비판을 전개하고서, 유길준, 주시경, 그리고 그 이후 해방 전까지의 한글에 대한 연구를 다루면서, 타자기의 글자판에 대한 문제까지 다루고 있으

니, 선생의 우리나라 글자 생활의 과학화에 대한 정성을 엿볼 수 있다.

이론편은 한글에 관한 저자 자신의 여러 논문들을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엮어 놓은 것이다.

첫째는 훈민정음 풀이인데, 훈민정음 설명의 짜임새, 만든 방법을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둘째는 없어진 글자의 소리값에 대한 설명인데, “△, ▽, ▹, ▸” 따위 소리의 복원 방법은 정밀을 극하고 있어 그 연구의 태도는 뒷사람들의 거울이 되고 있으며, 그 음가 추정의 결과는 오늘날 거의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

세째는 “ㄸ, ㅃ, ㅆ, ㅈ...” “ㄱ, ㅋ, ㆁ...” 따위 병서의 음가를 논한 부분인데 “ㄱ” 따위는 된소리이고, “ㄸ, ㅃ” 따위는 글자 그 대로의 소리가 났던 것으로 단정하였다.

이 방법이나 태도, 역시 뒷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한 것으로서, 그 결론은 오늘날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째는 한글의 기원 문제이다. 종내 여러 가지 기원설이 분분하였으나, 선생은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되기 전에 이미 발음 기관 상형설을 세워 놓았는데 해례의 발견으로 그 학설은 완전히 굳어진 것이다.

다섯째는 한글의, 세계 글자 중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논했고, 여섯째는 한글과 다른 글자와의 상호 전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 민족의 슬기를 자랑할 수 있는 으뜸가는 산물인 한글은 우리의 지적 탐구의 긴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과거의 우리 민족은, 다른 모든 민족 문화 부문에 있어서도 그랬거니와, 한글을 거의 돌보지 않았다. 쓰는 데 있어서도 그랬고 그것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그랬다. 간혹 신경준, 유희와 같은 선각자가 있어 한글을 연구하기도 했으나, 그들 자신의 글은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연구마저 계승 발전되지 못했던 것이다.

민족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랑에서 우리 말과 글을 연구

하기 시작한 이는 주시경 선생이었다. 그 학문과 정신의 유산은 바로 의술 선생에게 계승되었으니, 선생의 우리 말과 글의 연구는 민족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정성에서 시작된 것이다.

선생의 학문은 이런 각도에서 보아져야 한다. “한 겨레의 문화 창조의 활동은 그 말로써 들어가며, 그 말로써 하여 가며, 그 말로써 남기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민족의 창조적 활동의 말미암던 길이요, 연장이요, 또 그 성과의 축적인 우리 말을 연구한 결과가 「우리말본」으로 나타났고,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의 “지적 산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 탐구의 가장 긴밀한 대상”이 되어야 하는 한글을 연구하고 체계화한 결과는 「한글갈」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신적 자세에서 우리나라의 결과인지라 그 성과는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으니, 실로 선생의 두 저서는 20세기 국어학계의 위대한 금자탑이다.

〈글·허 응/서울대 교수〉

[7]

의술이 연세와 인연을 맺은 것은 경도대학을 졸업한 이듬해 저 「조선 민족 경쟁의 도」를 펴내어 겨레에게 삶의 철학을 심어 주던 1926년 4월부터이다. 이보다 앞서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말하여 보기로 하자. 1922년경에 조선 총독부에서는 “조선 교육령”을 공포하고 전문 교육은 전적으로 일본 제도에 따라야 한다고 강제했다(「연세 대학교사」, p. 334). 그리하여 전문학교에서 일본 문학을 교육 과정에 넣을 것을 강요하였다. 따라서 1924년 연건 교과 과목에 의하면, 일본어와 일본 문학, 한문학, 문학 개론이 있을 뿐, 한국어는 정규 과목으로 넣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국어 과목을 과외 과목으로 출발하였고 차차 정규 과목으로 학점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그 담당 교수는 한헌샘 주시경 선생의 제자 의술 최현배 선생이었다.

더욱 이것이 위용을 떨친 것은 당시 유억겸 학감과 용재 백낙준

문과과장의 정신적 일치는 물론, 스승은 학생의 내심을 알고 학생은 또한 스승의 내심을 알고 있었음에 기인한 것이었다(『연세대학교사』 p. 357 및 최현배 선생 회고기).

외솔의 1930년대에는 국학의 개척자로서 명실공히 그 업적이 찬란하다. 그런데 그 찬란한 업적이 다 연희의 재직시에 이루어졌으니, 연희는 그에게 국학을 할 수 있고 민족의 정신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도장이요, 연희는 그의 학문과 정신적 재산을 차근차근히 쌓아 올라간 것이었다. 외솔은 1930년에 「조선어 문학 연구」 제 1집에 “조선어의 품사 분류론”과 “한글 낱말의 글자의 쓰이는 변수로서의 차례 잡기”란 논문을 발표하였으니, 우리 말 글을 없애고 일본어만 쓰게 하는 정책 밑에서의 이런 논문은 당시 국어학계에 큰 성과라 할 뿐 아니라, 연희의 국학과 연희의 민족 정신의 한 초석을 이루어 놓은 것이었다.

1933년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의 중심 인물이 되고 1935년에는, 이미 누차 언급한 바 있는 불후의 대작 「우리말본」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 머리말에는, 연희전문학교의 두터운 호의와 연진 학생의 진실한 토구의 도움임을 밝히고 있다. 1936년에는 「시골말 캐기 방책」(방언 채집 수첩)과 1937년에는 조선어학회와 더불어 「조선어 표준어 모음」을 출간하니, 실로 이 모든 것은 그의 연진 교수 시절에 이루어 놓은 금자탑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외솔은 피압박 밑에서 한국 민족의 경쟁의 씨를 연희에다 심고, 연희로 하여금 민족혼을 배양케 하였으며, 그의 문법학은 연희 학원에서 과학적 체계를 이루어 놓음으로써 연희의 그 문하생으로 하여금 심오한 진리 탐구의 문을 두드리는 전통을 심은 한 분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한글” 하면 우선 연세를 생각하고, 연세에서 나오는 「연세춘추」를 비롯하여 모든 간행물이 한글로 나옴을 직관한다. 그것은 외솔(물론 외솔 뿐 아니라 한결 김윤경, 열운 장지영 선생도 같지만)이 연희에서 한글의 정신과 그 과학성을 재인식시키고, 국어를 통하여 민족혼을 불러 일으킨 결과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리라.

1938년으로 가면, 연전에 학칙 개정이 오고 국어 교육이 더욱 짓눌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견딜 대로 견디어 보자는 방침에 따라, 문과만은 한국어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1940년으로 들어서면 한국어 대신 일본학의 과목을 넣어, 국어 사용까지 불허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1937년에는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용재 백낙준 선생을 비롯하여 이묘목, 하경덕, 갈홍기 등의 교수가 강제 퇴직되고 이어 1938년 9월에는 부교장 유억겸 선생을 비롯하여 당시 문과과장 최현배 교수, 이춘호 교수 등이 민족주의적인 반일 교수로 몰려 강제 추방을 당하고 만다. 이로써, 외솔이 연희에 1926년 4월에 몸을 담은 지 12년 5개월만에 연희를 일단 뜨게 된다.

외솔이 연희를 뜨게 된 이유가 명확관화한 일이라 그 후의 외솔의 수난은 불문가지이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의 4대 저서의 하나인 「한글갈」을 펴내었다. 그러나 1942년 10월에 드디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피검되니, 그 죄목은 치안유지법 제 1조 “독립운동죄”이었다.

학교는 일제에 피탈되고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로 바뀌어 해방까지 이르렀다. 해방과 더불어 개편된 연희대학교에는 문학원에 국문, 영문, 사학, 철학, 교육, 정치외교학과 등이 생기는 동안, 외솔은 밖에서 조선어학회 상무이사(1945) 및 이사장(1953-1970), 그리고 미군정청 문교부 편수국장(1948), 대한민국 문교부 편수국장(1951-1954)을 역임하다가 그만두고 1954년 4월에 당시 백낙준 총장의 권유로 연희대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 연희에서 강제 사직당한 지 16년만이다.

외솔이 연희에 돌아온 뒤 1954년 7월 3일에 소위 “한글 간소화안”이 구체적으로 이선근 문교부 장관에 의하여 공포되었다. 당시 연희에서는 반대 여론이 물끓듯 하였다. 연희의 국어국문학회에서는 이 안에 대한 반대 투쟁에 앞장섰다.

동년 7월 8일에는 본교 소강당에 국회 문교분과위원을 참석케 하여, 최현배 선생과 김윤경 선생은 강연을 통하여 말과 글에 대한 과

학적 소양이 없으면서 이를 힘에 의하여 파괴하려는 행정 당국의 처사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것이 효시가 되어 모든 국내의 문화계와 교육계에서 간소화안에 반대하고 나서고, 예일 대학 한국어 전공 사무엘 마틴 교수가 이 대통령에게 건의서를 보내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 안은 드디어 좌절되고 말았지만, 하마터면 우리 맞춤법이 15 세기의 그것보다 더 뒤지는 비과학적인 것으로 떨어질 뻔하였다. 그 위기 일발에서 우리 글을 구하여 내기에 앞장선 이가 외솔이요, 그 어려운 작업이 여기 연회를 기점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듯 일제의 우리 어문의 말살을 외솔이 연회에서 그 방패막이를 한 것처럼, 해방 뒤에 판치는 어문 파괴를 막기 위하여 연회에서 또한 방패막이 노릇을 하였던 것이다. 그 덕택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 과학적 맞춤법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외솔은 학교에 돌아오자 일반 문법을 강의하는 한편 문과대학장직을 맡아 학교의 교육면에 자신의 철학을 심기 시작했다.

1955년에는 본교에 부총장제를 둘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초대 부총장으로 외솔이 추대되니, 그는 그의 민족사관, 교육관, 그리고 항상 창조적 삶을 지향하는 생활 철학을 학문적인 면이나 교육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행정면에까지 부각시키려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무렵(1955)에 대학원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연회 창립 40 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날에 외솔은 다른 몇 분(김윤경, 유진오, 한경직, 유형기)과 더불어 연회에서의 첫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연회는 1957년에 세브란스 의대와 병합하여 연세대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초대 총장에 백낙준 박사, 수석 부총장에 최현배 박사가 부임했다.

1961년에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되어 유명을 달리던 1970년까지 연회에서 강의를 하였으니, 일제의 강제 추방기와 문교 행정기를 빼어도 외솔은 연진 교수로부터 연회, 연세를 걸쳐 30년의 연회 생활을 한 셈이다. 그러나, 30년이라는 숫자적 개념보다는 연회에 심은 민족 정신사, 교육사와 아울러 국학의 학문적 전통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줄 안다.

그의 가르침을 직접으로 간접으로 받은 이, 우리나라에 그 누구도 아닌 사람이 없으려면, 유독 연회에서는 모든 학생을 그의 제자라고 할 만큼 그의 학철학은 예민하고 포용력을 발휘했다. 그리하여 그의 위대한 사상과 학문을 이어받는 제자는 2대, 3대, 4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의 정신은 영원히 연회와 더불어 온 민족에게 지표가 되고 있다. 여기 외솔이 연회에 끼친 공적, 그것은 그대로 민족에게 끼친 공적으로 함께 길이 남을 것이다. <글·김석득>

유 억 겸

(1895—1948)

[1]

백양로를 따라 쪽 오르면 담장이 넝쿨로 둘러싸인 학관이 나타난다. 그 뒤를 왼쪽으로 끼고 돌아가면 길 왼편에 4층 석조 건물이 우뚝 서 있다. 교육관이다. 수많은 이들이 이 곳에서 배우고 또 지나치지만, 이 곳이 고(故) 유억겸(兪億兼) 선생 기념관임을 생각하고 지나치는 이가 몇이나 될까?

연희전문의 가혹한 수난기였던 1923년부터 20여 년 간 연전을 맡아 끝없는 인고와 뼈를 깎는 희생으로 명실공히 민족 사학의 전당으로 키워 오며 흘린 선생의 피와 땀이 서려 향기 높은 아름다운 이 캠퍼스. 민족의 정기 아롱진 곳.

선생의 사랑하는 후진들이 그의 장한 뜻을 기려 1963년 이 곳에 기념관을 세우고 다시 새로운 민족의 얼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망각 속에 잊혀져선 안 될 그의 넋을 찾아 당시를 회고한다.

유억겸 선생의 집안은 명문 중 명문이다. 선생의 부친은 「서유견문록」으로 유명한 구당(矩堂) 유길준 선생이며, 선생의 부인은 순종 황제의 황후인 윤비(尹妃)의 동생이다. 따라서 그는 순종과 동서간이 된다.

이런 명문임에도 그는 항상 겸손하고 조용하며 검소한 성품과 특히 나라를 사랑하는 열화(熱火)와 같은 마음으로 세인(世人)의 감탄과 존경을 샀다.

백낙준 박사는 선생을 회고하며 “그는 아주 부지런하며 정직하고 이해가 깊은 성격이었다”고 평하며, 절대로 남과 충돌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의 자상하고 꼼꼼한 성품은 다음의 정인섭 선생의 말에서도 나타난다.

“1928년 내가 동경 와세다 대학에 다닐 때 24세의 애송이로 유역겸 선생으로부터 연전에 와 달라는 초청을 받고 인사를 드리러 갔었지요. 선생의 집은 가회동에 있는 지붕이 낮은 아담한 한식 가옥인데, 아주 귀족이고 높은 어른이라 어려워하며 갔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검소해서 놀랐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인사를 끝내고 나오려는데 선생이 뒤에서 겹옷을 입혀 줍니다. 그 때의 황송하고 감격했던 기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당시는 그런 풍속도 없던 때니까.”

선생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예의가 발랐다. 그의 집에서는 찾아오는 손님의 고하를 막론하고 선생이 직접 겹옷을 입혀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또 선생은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오면 직접 교직원의 집으로 인사를 나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유역겸 선생은 1923년부터는 연희의 학감을 지냈고, 34년부터 42년 퇴직할 당시까지는 부교장을 겸임하면서 실제적인 교장의 역할을 해 왔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역경을 뛰어넘기에는 그의 타고난 행정적 수완과 인품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는 인화(人和)의 천재였다. 말은 적고 행동도 사교적이지는 못하였으나, 높은 교양과 지성의 미(味)가 대인 관계의 원활유 구실을 했다.

당시 연전에는 서양인 교수, 미국 계통 교수, 일본 계통 교수 등으로 사이가 미묘했고, 조선 총독부와의 관계도 복잡했으나, 그는 온화한 미소로 극복을 해 나갔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선생의 배경과 동경제대 법학부 출신인 그의 높은 인격 등으로 함부로 연전을 넘보지 못했고, 그의 도움으로 연전은 한국에서 제일 나라를 사랑하고 한국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학교가 되었고, 사립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있게 설립을 꾸려 나가는 학교가 되었다.

그는 매우 사무적인 사람이기도 했다. 선생의 사무실은 본관 아랫층 맨 구석에 있는 에비슨 선생의 바로 옆방이었다.

송치명 선생은 “선생은 학교의 대소사(大小事)를 막론하고 혼자서 전부 관리했어요. 특히 체육에 관심이 깊어 전국 중학교 체육대회를 매년 1회씩 개최했는데, 그런 날은 며칠 전부터 선생의 사무실은 불이 환했고 선생은 비서 한 사람만 데리고 며칠 밤을 새워 일했지요”라고 당시를 더듬는다.

그는 또 대한체육회관, 대한소년단 건립에도 관계했으며, YMCA 이사로도 일했고, 각종 국제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또 선생은 교수진 학생이진 간에 조금만 잘한 일이 있으면 남모르게 그를 격려하고 고무함으로써 의욕과 사기를 북돋우어 주었다. 특히 교수의 강의 방법이 좋냐든가 하면 이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여 모범으로 삼았다. 강직한 성품으로, 바른 일이라 생각되면 만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안한 이의 입장을 옹호하고 지지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선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31년 “어둠의 힘”이란 학생 연극이 연전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것이다.

이런 성품은 후일 문교부장 시절에도 나타나, 당시 교육위원이던 오천석 선생의 회고에 따르면, 그가 제안한 국립대학안이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끝내 실현되게 된 것은 유억겸 선생의 큰 도움과 격려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한다.

다시 돌아가, 송치명 선생은 또 회고한다.

“어느 날인가 선생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교수가 들어와 모 교수의 비행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선생은 잠자코 듣더군요. 그러곤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 교수는 머쓱해서 나갑시다.” 그는 아주 솔직한 성격과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타인의 비행을 탓하려 하지 않고 넉넉히 충고를 해주어 감화를 시켰다.

선생은 조용한 성품이긴 하나 유모어가 있어 농담을 즐겼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당시 한국에는 자동차가 몇 대 없었고, 연전에서는 원한경 선생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다.

하루는 유역겸, 정인보, 정인섭, 이원철 선생을 태우고 원한경 선생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성질이 급해 과속으로 운전을 해 나갔다.

그런데 좁은 굴레방다리를 지날 때 하필이면 달구지를 물고 가는 말이 좁은 길에 우뚝 서서 장시간 소변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차는 그 말이 소변을 그치고 달구지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이 때 익살꾼인 이원철 선생이 정인보 선생을 장난스레 보며 입을 열었다.

“맑은 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구료.”

그러자 별명이 당나귀였던 정인보 선생이 말을 지그시 쳐다보며 마주 농을 했다.

“나는 하도 당나귀라고 놀림을 많이 받아서 저 사람(말)을 보면 저 사람이 낸지 내가 저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오.”

유역겸 선생이 말했다.

“사촌인 당나귀님이 두 분이냐 계시니 저 말이 너무 반가와 저러나 본데 뭘 그러시오.”

1938년이 되자 일제의 박해는 점차로 더 심해져 갔다. 이 때 흥업구락부 사건이 터졌다. 이는 민족 단체를 말살하려는 일제의 간악한 농간이었다. 이로 인해 흥업구락부의 연전 최고 책임자로 유역겸 선생은 이춘호, 최현배 선생 등과 3개월 간 옥고를 치른 뒤 기소 유예로 풀려 나왔다. 풀려 나왔으나 앞으로 변호사직에서 은퇴할 것을 서약했으며, 아울러 연전 교수직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41년에 윤치호 선생이 교장이 되면서 “유역겸 선생이 복직되어야만 나는 교장직을 맡겠다”고 말해 유역겸 선생은 사무적인 서무부장으로 복직이 되었다. 이 때에도 교장의 모든 임무를 대행

했음은 물론이다.

연희의 위기가 왔다. 대동아전쟁 막바지에 일제는 한국 학생을 군수 공장으로 끌고 갔으며, 심지어는 언더우드 동상까지 철거해 갔다. 1942년 일제의 발악이 극에 달하자 연희를 지켜 왔던 교수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유억겸 선생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평화가 오면 우리 다시 학교 합시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그는 사직했고, 한국에서는 고등 교육이 중단되었으며 학교 이름까지 바뀌었다.

1945년에 해방이 되자 그는 다시 연희로 돌아와 연희 접수 위원회에 참가했으며, 교장직을 맡았다.

그러다가 미군정치의 문교부장직을 수락하여, 연희만이 아닌 모든 한국의 학교를 위해 일했다. 그러나 1946년 11월 어느 날 아침, 지병인 고혈압에 과로가 겹쳐 세수하다 뇌일혈로 쓰러진 뒤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후손이 없었기에 그의 유해는 기계(杞溪) 유씨들의 고장인 광주 선산에 묻혔으나, 묘비도 없는 쓸쓸한 묘였다. 백낙준 박사 등 친구들이 모여 비문을 지어 묘비를 세워 놓고, 그가 사랑하던 연희 동산에서 캐온 기념수를 심어 놓았다.

지금도 찾는 이 없을 이 묘에 마음 속으로 절을 하며 생각하는 성취가 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복음 12장 24절).

2

지금 아름답고 수려한 동양의 미와 서양의 미를 적절히 배합한 날렵한 루스 채플 앞에 쓰러져가는 초라한 집(?)이 서 있다. 수경궁의 옛 터이다. 이 수경궁은 이조 영조대왕의 노여움을 받아 뒤주에서 죽은 사도세자의 생모(生母) 선희궁 이씨를 위해 지은 것이다.

때는 1930년대. 루스 채플은 물론 없었다. 수경궁 앞터에 애기능이란 무덤이 하나 있다. 이 애기능은 선희궁 이씨의 묘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 얘기능 옆 모퉁이 학교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일군(一群)의 교수들이 모여서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있다. 한참 떠들썩한 것을 보니 재미있는 농담이 터졌나 보다.

그 중 몇몇은 담배를 비스듬히 꼬나물고 있다. 한창 다정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간다. 이 중에 가장 열심히 연기를 뽑는 중년 신사. 단아한 용모와 어딘지 모르게 귀티가 풍기며 총기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유역겸 선생이다.

연전에는 당시 규칙상 학교내에서 술과 담배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일군의 교수들은 일부는 담배를 즐기러, 혹은 다정한 대화를 위해 점심 후에 산보(?)를 가는 것이다.

담배 형제인 유역겸 선생과 원한경 선생이 앞장을 서서 상학관 옆의 다리를 건넌다(현재에는 없음). 현재의 강당 뒤로 돌아가면 학교 밖이 되며, 학교가 안 보이는 아담한 장소가 나타난다. 이 곳이 얘기능이다. 학교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 또 자기의 습관을 지키기 위해 검사 검사 학교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조용하고 말이 적어 평소 보기 힘든 자연인 유역겸 선생의 모습이 여기에도 있다.

인간 유역겸 선생의 큰 생애를 하나씩 더듬어가며 그의 입김 속에 아스라이 피어오르는 풍운의 연희를 돌아본다.

1895년 11월 21일, 쌀쌀한 바람이 겨울을 예고하듯 부는 날, 계동의 어느 커다란 가옥에는 아침부터 긴장이 감돌았다. 이 커다란 집의 주인은 당시 거물급 개화파 인사 유길준 선생이었다.

그는 일찌기 개화주의의 물결을 타고 미국 와싱턴과 보스턴 대학에서 수학했으나, 정변에 관계하여 일본에 망명했다 돌아와서 갑오경장 때 김홍집 내각의 내무대신을 맡은 큰 인물.

바야흐로 이 집에 오늘 커다란 행운이 찾아오려는 것이다. 드디어 고고의 성이 울렸다. 긴장은 걷히고 기쁨만이 일렁거렸다. 유길준 선생의 둘째 아들로 유역겸 선생이 탄생한 것이다. 집안의 모든 사람은 어린 유역겸의 앞날에 뜨거운 축사를 보냈다.

그러나 바깥의 기류는 일제의 독한 손톱이 점점 더 깊숙이 박혀 오고 있었고 그에 따라 우리 겨레의 아픔도 비례해서 커가던 때였다. 이런 시기에 태어난 유억겸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항일 정신과 민족주의자의 외로운 감정을 하나씩 익혀 나갔다.

선생은 어릴 적에 한학자인 할아버지께 한문을 배우고, 그 후 서울 계산학교에 다녔다. 이 때 그의 아버지 유길준 선생은 고종이 하사한 노량진의 집으로 이사했는데, 어린 유억겸 선생은 손수 나룻배를 저어 학교에 다녔다고 전해진다.

이어 선생은 일본으로 건너가 동지사중학과 경도 관립 제 3 고등학교에서 수학했다. 그리고 당시 수재 중의 수재만 모인다는 동경제대 법학부를 수료하고, 1920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명문의 집안이라 얼마든지 좋은 자리가 있었으나 거절하고 중앙고보에서 교편을 잡다가 그 해 9월 연전의 초청을 받고 평생을 교육에 바치기로 한 신념대로 연전으로 옮겨 상과에서 법학을 강의했다.

1923년부터는 에비슨 선생 밑에서 학감으로 있다가 1934년에 원한경 선생이 교장이 되자 부교장과 학감을 겸임하게 되었다.

밖으로는 조선 총독부 등 관청과의 교섭의 일을 맡고, 안으로는 학사 행정에 전념한 그는 온 정력을 학교에만 쏟았다.

송치명 선생은 “세상에 그렇게 학교 일에 열심인 사람은 처음 보았다”고 감탄하며 말을 잇는다. “아마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쓸쓸한 심정이 그대로 학교로 옮겨진 것 같아요. 학교를 자식보다 더 위하고 학교와 더불어 생각하고 행동해 왔으니까요.”

그의 강의는 동경제대 법문학부를 나온 사람답다는 것이 1934년 당시의 학생이던 김규삼 교수(상경대 교수 역임)의 짤막한 평이다.

그는 일본에서 7년 동안이나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말이 서툴렀다. 보통 때에는 물론 한국어로 강의했으나, 조선 총독부에서 시학관(視學官)이 오면 일본어로 강의할 수밖에 없었다. 교재인 민법책도 일본어로 된 것을 사용하도록 강요되던 때였다.

그러나 그의 서투른 일본말은 학생들의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데

충분했다.

7년 동안이나 일본에서 공부하면서도, 또 동경제대 법학부를 나올 정도의 수재이면서도 일본말이 서툴다는 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다. 그러나 구황실의 자손이니만큼 나라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강했기에 일본어를 의식적으로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때의 사립학교의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하라면 한국어로 강의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만큼 사립학교의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던 때였다.

서양인들도 일본어의 강의를 강요받은 끝에 시나이더 같은 이는 서양인으로서의 무척 어려운 일본어를 습득하여 일본어로 강의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선생은 순수한 민족주의자로, 잠시라도 민족을 잊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강의 시간에도 그는 짧은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민족 사상을 투입시키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일제의 모질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과목에 조선어 강의를 집어 넣은 것은 그의 공로였다. 비록 나라 국(國)자 국어라고는 못하고 조선어라고 고치긴 했으나, 학생들에게 우리말, 우리글의 아름다움과 아울러 민족주의 사상을 고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동양사 과목을 개설하여 조선 역사를 가르치게 한 것도 백낙준 박사와의 순수한 정신적 일치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는 훌륭한 스승이기도 했다. 아주 섬세한 분으로, 연건 졸업생이면 누구라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는 한 해 졸업생이 100명도 안 되던 때였으니 스승과 제자와의 사이는 더욱 가까울 수밖에 없었다. 졸업생들은 무슨 일이 있어서, 심지어 학적 증명서를 떼러 학교에 오더라도 본관 아랫층에 있는 유역검 선생의 방을 잊지 않고 방문했다.

그러면 유역검 선생은 온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반색을 하며 맞아들였다. 오랫동안 사제의 정을 나누다 점심 시간이 되면 졸업생의 팔을 잡고 학관 아랫층에 있던 식당에 들어가 25전짜리 점심을 대접하고야 보내곤 했다. 그 때의 25전 짜리 식사는 고급이었고, 선생은 콩나물국 장국밥을 즐겨 드셨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선생의 주의도 각별하고 다정했다. 김규삼 교수의 회고에 의하면, 언젠가 선생이 “자네 앞으로 뭘 하려나?” 하고 물기에 “네, 지금 고등고시를 준비합니다”고 대답했더니 어깨를 툭툭 치며 “그래, 잘 생각했어. 공부 열심히 해서 부디 인도의 간디 선생 같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가 되게”라고 격려하더라. 선생의 머리는 항상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그는 원만하고 포섭력이 좋으며, 급하면 자기가 당할지언정 남을 해칠 수 없다는 전형적인 한국 양반이었다.

정월에 학생들이 세배를 드리러 가면 양반답게 한복 위에 마고자까지 단정히 입고 보료 위에 좌정하고 앉아서 학생의 세배를 받았다. 선생의 집에서 차려 내놓는 음식은 궁중 음식이기 때문에 아주 정결했으며, 모양도 보통 여염집하고는 달랐다. 윤비의 동생인 부인 윤씨도 양가집 규수로, 요조숙녀로 이름 높았고, 솜씨도 깔끔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아낌없는 존경을 받았다.

이 때 언전에는 교직원의 친목 모임인 우애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우애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회식을 하고 회비를 거두어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썼다. 유억겸 선생은 이 우애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우애회의 큰 사업으로 1927년 언더우드 동상을 건립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의 암운이 한반도를 서서히 덮을 즈음 동상은 징발되었고, 언전에도 비운이 점차 감돌기 시작했다.

③

1937년.

서대문 경찰서 취조실은 팽팽한 분위기로 살벌한 기운이 떠 있었다.

소위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기소된 피의자들을 취조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중에는 이 사건의 언전 최고 책임자인 유억겸 선생을 비롯하여, 백낙준, 최현배, 이춘호, 김활란, 신흥우 선생 등이 있었다.

총독부의 기소 이유는, 흥업구락부가 표면으로는 한국인의 뜻을 모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안으로는 윤치영을 연락인으로 미국의 이승만 박사와 연락하여 국내에서 독립 운동을 일으키라는 밀명을 받고 미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지하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취조관은 혹독하게 취조를 해 댔으나, 유역겸 선생은 귀족이기에 배를 때린다거나 유치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들은 머리를 짜낸 끝에 매일 두 시간씩 벽을 마주 보고 서 있게 하는 고문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 취조실에는 흥업구락부 사건의 피의자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통칭 경제 연구회 사건으로 연전 학생 셋이 한쪽 구석에서 취조를 받고 있었다. 모진 취조는 계속되었으나, 선생은 선생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자기 문제는 아랑곳없이 서로 상대방에게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사제지간의 따뜻한 정이 여기에 오갔다. 따라서 모진 고문도 보다 쉽사리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흥업구락부 사건의 진상은 아직 확실치 않다. 흥업구락부원이었던 고(故) 장덕수 씨는, 미국은 당시 심한 경제 공황에 시달리던 터이므로 제 살기에 급급해 남의 나라에 그리 많은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없었을 것이며, 유역겸 선생의 연전 부교장이라는 공적으로는 지하 조직에 직접 참가하지도 못했을 것이라 한다.

결국 유역겸 선생은 일경(日警)의 기소가 풀림으로써 3개월만에 석방되었다.

당시에는 일본의 정책에 순응한 한국인도 꽤 많았던 모양으로, 이들은 일제의 앞잡이로 정보원 노릇을 하는 자도 있었고, 앞서의 흥업구락부 사건이나 경제 연구회 사건도 동료의 밀고로 생긴 것이라 전해진다.

일제 말기에 일본은 강력동화(強力同化) 정책을 써서 한국인의 단체인 그 목적과 대소를 가리지 않고 탄압하며 자진 해체를 종용하였고, 이에 순응하지 않는 단체는 모두 다 독립 운동 단체라 하여 검거함으로써 자연 폐쇄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1937년의 수양동우회 사건과 흥업구락부 사건의 조작, 후의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켰으며, 말기에 가서는 강한 민족 의식의 전통을 지닌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거부하면 투옥시켜 순교하게 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일제의 발악 속에서 연전의 운명은 풍전등화였다. 민족주의자들은 모두 주목의 대상이 되었으며, 걸핏하면 잡아 가두었다. 이런 사태 속에서 기독교청년회니 신구구락부니 흥업구락부니 하여 여러 사회 활동을 하여 민족주의 사상을 고취시킨 유억겸 선생을 일제가 꼭게 놓아 둘 리는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생은 1939년 9월 29일 민족주의자인 반일(反日) 교수들과 함께 교수직을 박탈당하였다.

1939년 3월 22일 윤치호 선생이 교장에 취임하자 그의 도움으로 선생은 4월에 일개 직원인 서무부장으로 복직되었다. 윤치호는 윤비와 그의 부인의 친오라버니였는데, 그도 역시 한국인인지라 연전을 일제의 손아귀에서 지켜주는 데 일익을 담당했으며, 그의 가장 큰 공헌은 유억겸 선생을 복직시킨 것이다. 선생은 복직이 되자, 일부는 민족주의자로, 일부는 사회주의자로 투옥된 교수들로 공백이 생긴 학교를 위해 젊고 반일 정신이 투철한 소장 학자들을 속속 불러들여 학교를 지키게 했다.

이 시기의 선생의 또 하나의 커다란 업적은 한국 체육의 진흥이었다. 그가 체육에 특히 관심이 컸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 있거니와, 이 부분에 대한 그의 업적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현재 양대 사학의 제전으로 정기 연고전(延高戰)이 있다. 너무 과열되어 가끔 소동이 벌어지곤 하지만, 당시의 연보전(延普戰)은 일제하 한민족의 항일 정신의 발로였고, 밖으로 뻗어 나가지 못하는 민족적 울분의 출구였다. 그는 이 연보전을 통해 학생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이 행사를 통해 민족 사상을 실질적으로 고취해 왔다.

교내 체육 외에도 그는 대한 소년단에 관계했고, 조선 체육회 부회장직을 맡았다.

YMCA 이사로 있던 선생은 매년 YMCA 조선 대표로 각 회합에 참석했고, 1922년에는 하와이에서 열린 태평양 관계국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으며, 인도 뉴델리의 YMCA 대회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 돌아오면 항상 총독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총독부의 주장인즉, 세계 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명목 뿐이고 미국에 가서 이승만 박사를 만나 구국 운동에 대한 지령을 받고 한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동한다는 것이었고, 이런 것들이 말미가 되어 전기(前記)한 흥업구락부 사건 등이 터진 것이다.

이러한 체육에 관한 그의 노력은 이에서만 그치지 않고, 해방 후 독립된 나라에서 YMCA 와 대한 체육회장 등을 역임함으로써 계속되었다.

1942년 총독부가 가나시마를 교장으로 임명하자, 유역겸 선생을 비롯한 교수들은 연전을 지키려는 피나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을 알고 연전을 떠나게 되었고, 선생은 1942년 9월 30일자로 사임했다.

학교를 그만둔 후 한때 할 일이 없어 잠시 가회동 동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선생 외에도 학교를 물러난 교수들이 할 일이 없어 백낙준 박사는 영등포 마차 조합에, 홍승국 교수는 의사인 동생의 집에서 경리 사무를 보았으며, 이순탁 교수는 세브란스의 일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전쟁의 암운이 거두어지고 민족의 숙원이던 해방이 되었다. 미군정청은 학교의 접수를 계획했다. 그들은 연희 관계인에게 연희를 접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9월 25일에는 연희전문학교 접수위원회가 정식으로 조직되었다. 이 때의 동문회 대표는 이모목, 김윤경,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 대표 조귀선, 재단 기부자 김성현, 연전 대표 유역겸, 백낙준, 이춘호 등이었다.

연전을 접수한 이들은 호선으로 유역겸 선생을 교장으로 선출했다. 교장직을 수락한 선생은 해방 후 혼란해진 학교를 바로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 때부터 연희는 전문학교가 아니라 대학이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니버시티를 대학교로, 칼리지는 대학으로 부르는 것은 유역겸 선생의 창안이었다. 선생은 흐트러진 학교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해방되기 전의 한국 잔류 교수 중 친일적인 교수를 배제하고 교수진을 더욱 강화하여 명실공한 연세의 기틀을 이루어 놓기에 부심하였다.

이러한 유억겸 선생을 미군정청은 그대로 두지 않았다. 혼란된 한국의 교육계를 이끌고 나갈 인물은 유억겸 선생밖에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유억겸 교장을 지금의 문교장관격인 문교부장으로 임명했고 선생은 이를 수락하여, 1946년 1월 14일 정식으로 연전을 사임했다. 오랜만의 결단이었고, 어느 한 대학만이 아닌 사랑하는 조국의 모든 학교를 위한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문교부장이 된 선생은 천성의 성격으로 성실히 일했다. 모든 공문서 등을 부하 직원에게 맡기고 도장 하나 찍는 그러한 관리가 아니라, 직접 공문서를 대하는 진정한 사무가였다. 일을 하다 넘치면 집으로 가지고 가서 밤새도록 보았다. 그의 집에서의 시간은 항상 짧았고 거의 대부분을 집무실에서 보냈다. 문교차장이던 오천석 선생이 제안한 국립대학안에 수궁, 이를 통과시키고 실현에 옮겼으며, 많은 문교 정책의 혁신을 가져왔다.

이러한 희생적 정신이 지나친 과로를 불러왔음인지 1948년 11월 8일에 51세란 한창 일할 나이로 하늘은 선생을 불러가고 말았다. 많은 지인(知人)들이 물러들고 문상객들이 물러와 선생의 가심을 애통해 했다. 그러나 문상객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문교부 장관이란 높은 직책을 가진 선생 택임에도 집에는 손님을 대접할 쌀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졸업생 중 한 명이 즉시 뛰어가서 쌀 세 가마를 사왔다. 그의 청렴한 이런 생활은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항상 다정하고 온화한 미소, 채플 시간이면 고정 좌석에 앉아 “나는 만년 부교장이라”고 깔깔 웃으며 학생을 즐겁게 하던 선생, 연희를 위한 다함 없는 열정과 사랑, 나라 사랑으로 몽쳐진 생애, 연희 재건에 동분서주하던 일, 소박하고 검소하며 장국밥을 즐겨 들던 선생, 문교부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몸을 아끼지 않고 나라 위하던 희생, 그의 단아하고 귀족적인 모습은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려 17회 광복절을 맞아 교육부문의 대한민국장을 수여했으며, 연세는 유억겸 기념관을 세워 그

를 기념했다.

그는 갔으나, 그의 아름다운 녀은 온 연세인의 가슴에 고마움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비록 선생이 묻힌 곳은 광주의 기계 유씨
선산 몇 치 땅에 불과하나, 그의 영원한 녀은 광활한 연세 대지 위
에, 아니 온 한국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글·한은경>

이 원 철

(1896—1963)

Ⅰ

일제 36년 간의 잔악한 통치로 말미암아 한국의 모든 교육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어려웠던 시대, 그리고 현대 순수 과학과 국민의 사회 생활이나 사업 간에 유대 관계가 채 형성되지 못했던 시대에 고(故) 이원철(李源喆) 박사는 살다 가셨다.

그의 생애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나라의 천문학의 역사와 유럽의 현대 천문학의 발전사부터 짚막하게나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천문 관측이 조직적이고도 계속성 있게 행해졌던 것은 중국이나 우리의 삼국시대였지만, 그 이후의 한국의 천문학은 그 많은 천상(天上)의 현상들을 귀중한 기록으로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주관은 원시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려의 서운관(書雲館)을 거쳐 이조에 들어와서 관상감(觀象監)으로의 개편이 있었지만, 직제만 바뀌었을 뿐 관측 방법은 물론 그들의 과학 사상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말하자면, 이태조의 천문도(天文圖)가 현재 남아 있는 최고의 천문도임은 코펠(Z. Kopal)에 의해서 1948년에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는 특기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장영실을 비롯한 세종대왕의 관상감 학자들은 중국 주(秦)의 혼천의를 개량하였고, 몽고 민족이 페르샤에서 도입한 새로운 태양력을

해득하기 위해서 「칠정산내외편」을 출판한 것 등은 자랑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후 50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도 한국의 천문학은 원시적인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하늘의 이변을 쉬지 않고 관측하여 기록에 남겼을 뿐, 이렇다 할 새로운 변혁의 싹이 틀 가능성은 전혀 엿보이지 않았다. 이조 말에 와서 서양의 문물이 중국이나 일본을 거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천문학에 준 영향이라고 하면 기껏해서 정영택이 1908년에 발행한 천문학 책 정도이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서구의 책을 번역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조의 중인들의 손에 의해서 역서가 간행되었고, 별자리에 밝은 그들이 육안으로 밤하늘을 지켜보는 것으로써 관계(官界)에 진출하고 있던 시대마저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 막이 내렸던 1910년경에 새 천문학을 가지고 한 벽안의 사도가 연희 동산으로 찾아왔다.

그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한국 천문학사 연구의 선도자(先導者)”로서 우리 기억에 부활하여 와야 할 고(故) 루푸스(W. C. Rufus) 박사이다. 그는 미국 미시건 대학의 천문학 교수로서 1910년경과 1930년경에 두 번 내한하여 연희전문학교에서 현대 천문학을 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13년에 「이태조의 천문도」에 관한 논문을 처음으로 현대적인 해석 방법에 의해서 영국 왕립 아시아 학회지에 보고하였고(주: 이 학회지는 현재 백낙준 박사가 소장하고 있음), 다시 또 1936년에는 「한국의 천문학」이라는 둘째 논문을 여러 장의 진귀한 사진들을 포함하여 역시 왕립 학회지에 보고하였다(주: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백낙준 박사 소장).

한편 유럽에서는 문예부흥이 시작될 무렵, 그 때까지 약 1,000여 년 동안이나 믿어 의심치 않았던 천동설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무너지고,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닌 태양이며 지구는 한날 행성에 불과하다고 하는 지동설이 주창됨에 따라 마침내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의 운동이 타원이라고 하는 새 법칙이 발견되었고, 망원경이

발명되어 육안만이 아닌 광학기를 통한 정밀 관측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광학과 사진술의 도입으로 그들의 우주는 확고한 현대 과학의 지식의 터전 위에서 팽창되고 있었다.

천상의 이변이 왕정(王政)이나 개인의 운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 새 과학 사상이 교황청의 간섭의 대상에서 사라져 갔다. 태양계를 포함해서 허다하게 많은 별들이 모여서 은하계라는 소우주를 이루고 있고, 이와 같은 소우주는 또 무수히 많아서 그 천체가 비로소 참 우주(大宇宙)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들은 1900년초의 한국인에게는 믿어지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마치 아마존강 깊숙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TV 나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가 수궁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한 세대나 민중의 사고에는 일시적이고도 급격한 변화나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 환경에서 태어나서 글방에서 한학을 배운 한 청년이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에 1회로 입학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불문에 붙이더라도, 루푸스 박사의 강의를 듣고 공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무심코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사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도 갈릴레오가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피사 대학에 입학했지만, 천문학 강의실 복도 밖으로 흘러나오는 코페르니쿠스의 새 학설에 귀를 기울이다가 급기야는 의학을 버리고 천문학도가 되어, 마침내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는 데 혁혁한 공헌을 했다는 것이 우연 이상의 그 무엇이었던 것과 비교할 수 있을는지.

무엇이 그렇게도 강렬한 작용력이 되었기에 젊은 이원철로 하여금 그를 에워싼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에서 뛰쳐 나와서 이 새로운 과학 사상에 사로잡히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으나, 그의 천재성과 노력은 그로 하여금 연희전문학교 2학년생의 몸으로 1916년 3월부터 1학년 수학을 강의하는, 말하자면 학생 교수가 되게 하였다.

이원철 박사의 호는 우남(羽南). 1896년 8월 19일 서울 다동에서

이중역 씨의 4남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재주가 뛰어나서 주위 사람들로 부터는 신동(神童)이라 불리었다고 이정근 박사의 글에 소개되어 있다(주: 「신아일보」에 연재된 “잊을 수 없는 사람” 참조). 그 후 이 박사가 보성중학교, 선린상업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한 것이 1915년의 일이었다.

1919년에 1회로 졸업한 후 1922년 1월까지 모교에서 전임강사로 있으면서 후배 양성에 전력하였다. 연희전문학교에서는 이 박사의 후배 겸 제자로서 기라성 같은 과학자들이 속출하였다. 1920년대의 인물만 예로 든다 하더라도 1924년에 고 신영목 교수(배재교 교장과 인하대학 교수 역임), 1925년에 고 장기원 박사(연세대학교 이공대학장 역임), 최규남 박사(전 서울대학교 총장), 1929년에 고 국제표 박사(전 국립중앙관상대장), 그리고 1930년에 고 박철재 박사(전 원자력원장) 등의 여러 석학들을 손쉽게 꼽을 수 있겠다.

별빛에 인화된 젊은 이원철 선생은 연희전문학교 수학 강사로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인화된 불길은 날이 갈수록 강렬하게 타올랐다. 마침내 1922년 1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시건주에 있는 엘비언이라는 작은 대학에 4학년생으로 편입하였다. 미국의 학제로는 1월에 제 2 학기가 시작되고 6월에 졸업식이 있고 9월이 되면 새 학년이 시작된다. 2월부터 시작된 그의 학교 생활에서 그의 천재성은 여실히 증명되었다. 교수 회의에서는 유난히 키가 작은 코리아에서 온 학생에게 5개월만에 졸업을 허가하고 학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미시건 대학교(미시건 주립대학이 아님) 대학원에 입학하여 천문학을 연구하도록 강력하게 추천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그는 무난히 미시건 대학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이 되어 다음해인 1923년에 이학 석사 학위를 받고, 이어 박사 학위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시건 대학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나 미시건의 거대한 망원경 앞에 처음 섰을 때의 이 박사의 가슴은 인화된 불길이 절정에 이르러 폭발할 만큼 감개무량

했을 것이라고 능히 상상할 수 있겠다. 별을 딸 수 있는 “장대” 앞에 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유난히 마음에 든 별은 독수리 자리에 있는 “에타” 별이었다. 미시건의 여름 날씨가 1년 중 좋은 편은 아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름 별을 택한 데에는 학문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

하늘의 별들은 누구나의 것이라고 말하기 쉽다. 토지에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의 소유권이 보장되어 있고, 바다나 하늘에는 국가 간에 영해권(領海權)과 영공권(領空權)이라는 것이 있다지만, 별들의 세계에서만은 아직도 인간의 욕심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말하자면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 무풍 지대라고 생각하기 쉽다.

알집의 감돌이도 뒷집의 감순이도 맑은 밤이면 “별 하나 나 하나”를 외우며 노래할 자유가 있지 않은가? 바다를 향해하는 뱃사람들은 별을 보고 시간과 자기 배의 위치를 알게 되고, 계절을 따라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는 세상의 농부들도 다 똑같은 별들을 보고 때를 맞춘다.

그러나 별에 대한 학문을 한다고 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정 이쯤 까다로워진다. 누가 어느 별을 관측하여 무엇을 했는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영해권, 영공권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원 학생들이 그들의 학위 논문에 사용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연구할 별을 골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도 교수가 해야 할 첫 일은 그 별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을 여러 문헌에서 조사하는 일이다. 이 일은 구청 직원이 호적등본을 열람하는 것과는 같은 일이지만, 별에 관한 기록은 한 권의 책에 그 기록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 좀 다르다. 학생이 연구하려는 현상이 아직 그 별에서는 연구되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현상을 연구하기에 알맞는 별이라고 판정이 되면 학생은 물론 교수도 만족할

수 있겠는데, 만일 그 별에 대해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잘 연구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면 학생은 부득이 다른 별을 찾아내야 한다.

별의 수는 많고 각국의 학자들에 의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야 연구되는 것이므로 별 하나 하나에 관한 족보나 호적 같은 간편한 형식으로 자료가 수집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별을 거의 같은 기간에 두 사람 이상이 독자적으로 연구에 착수하는 경우도 학자들 간에 허다히 있다. 이와 같은 일을 사전에 막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 천문 연맹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 가며 노력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경우도 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 같은 별에서 같은 현상에 관해서 연구했다고 하는 경우가 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연구에 미비한 것이 있다든지, 망원경과 다른 관측기가 날로 개량되고 있으므로 정밀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후세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서로 앞을 다투어 가며 다시 관측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또한 허다히 많다. 별이 충분히 밝고 중위도 지방의 하늘에 높이 뜨는 별일수록 새 방법과 새 기기(器機)로 거듭 거듭 관측되고 연구된다.

말하자면, 잘 연구된 별이라면 아무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한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연구된 별에 대한 그 연구가의 공로와 권리와 명예는 국적을 초월하여 존중되는 것이므로, 그 별은 “아무개가 관측한 별”이라고 말하게 되며, 그것은 소유권 이상의 것으로 받아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별은 아무나의 것이지만, 또한 아무나의 것이 될 수만은 없다.

여기에 아무나의 별 “독수리 자리의 에타 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의 것은 아니고, 1920년대부터 알려진 “이원철의 별”이다. 1920년 이후 아무도 그 소유권을 손쉽게 갱신할 수 없도록 이 별에 관하여는 이원철 박사가 철저히 관측하고 연구하였기 때문이다.

“독수리 자리의 에타 별”은 물론 독수리 자리에 있는 밝은 별이다. 이 별 자리에는 아주 밝은 1등성이 있는데 그 이름은 “견우”이다. 이 견우성은 은하수 건너편에 먼저 떠오르는 거문고 자리의 알파 별인 “직녀”와 음력 칠월 칠석날에 만난다는 전설의 별이다. 이

별들을 관측하기 좋은 계절은 여름이다.

작품이 몰아치고 발 끝에서 머리 끝까지 얼어붙는 미국 5대호 지방의 겨울을 피하여 여름의 별을 택했다니 이원철 박사는 겁장이었던가. 여름이면 사람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이나 바다를 찾는데 그 분에게는 그와 같은 낭만이(요새 학생들이 즐겨 쓰는 용어인 낭만)이 없었던가. 나는 그분의 젊은 시절을 모르기 때문에 무어라 말할 수는 없으나,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름 별을 관측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히 기후 때문이다. 여름 밤이 짧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에게는 불과 5시간이라 한다면 그 분의 분광학적인 관측으로는 대단히 짧은 시간이다. 5시간이 전부 완전히 맑기란 별을 관측해 본 사람이 아니고는 잘 모를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습기가 많고 온도가 높다.

그러나 이것이 사진 관측자에게 얼마만한 고통을 주는 것인지 한국에서 알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지금처럼 냉장고도 없었던 시절에 이원철 박사는 사진 건판을 보관하는 것과 약품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거듭했을 것이다. 남들이 소나기라도 한 줄 퍼부어 줄 것을 바라고 있을 때 이원철 박사는 구름 한 점의 움직임에까지 신경을 쓰고 있었을 것이다. 대기층의 공기가 가장 불안정한 시기이므로 별빛이 공기층에서 흡수가 가장 많은 때이기도 하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진기 렌즈의 노출 시간을 늘여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노출 시간을 길게 하느라 하면 지나가는 얇은 구름이 또 방해하게 마련이다. 이래저래 여름 관측은 피하게 마련이고, 따라서 여름철이 되면 천문대는 아예 문을 닫고 망원경을 정비하고 고장난 기기(器械)들을 보수(補修)하는 기간으로 잡는다.

그에게도 젊은이의 욕망과 조급한 생각이 없었을 리가 없다. 빨리 이름난 학자가 되어 보려는 야망, 빨리 학위를 받고 사랑하는 조국에 돌아가서 후진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잠시도 머리에서 떠났을 리 없다. 이원철 박사가 여름철 별 독수리의 에타를 관측해야만 했던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 우리는 부득이 그

시대의 천문학의 연구 경향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1596년에 이탈리아의 신부인 파브리치우스(Fabricius)는 프톨레미(Ptolemy) 이래 1,000여 년 동안 “별들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어온 사실에 반대되는 놀라운 발표를 하였다. 그것은 고래 자리의 밝은 “오미크론”이라는 별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져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그 다음해에는 다시 점점 밝아져서 본래대로 밝은 2등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파브리치우스는 이 별을 이상하다는 뜻으로 “Mira”라고 불렀다(주: 이 별의 변광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파브리치우스가 아니고 그보다 4년 먼저 우리나라 신조래왕의 관상감 학자들이었음. 1975년 7월 7일자 「연세춘추」참고). 그 후 정밀한 관측법이 개발됨에 따라 많은 별들이 변광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러나 그 변광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그로부터 훨씬 후인 19세기 초에야 규명이 되었는데, 그것은 두 개의 서로 접근된 별이 두 별의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하여 공전 운동을 하다가 가끔 식(食)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별이 서로 돌다가 어떤 때는 한 별이 다른 별 앞에 와서 뒤에 있는 별의 빛을 차단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일식 때와 같이 그 별이 어둡게 되고, 다시 두 별이 떨어져서 다 같이 보일 때에는 도로 밝게 보인다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기적으로 규칙 있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별들을 그 후부터 “식변광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그 시대의 지식으로는 가장 타당한 것이어서, 사람들은 많은 변광성 중에서 주기적인 변광을 하는 별이면 모두 식변광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변광성 연구에 새롭고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많은 주기적 변광성 중 어떤 별은 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변광의 원인은 맥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별이 주기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함으로써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한다는 것이다. 이 새 학설이 1910년 하버드 대학 천문대의 대장이었던 샐플리(Shapley)에 의해서 발표되자, 그 학설의 진부를 가려내기 위해

서 1920년대의 천문학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분광학적 관측 방법으로 알맞는 별을 골라서 관측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의 이원철 박사는 미국에 갔고, 그가 이와 같은 시대의 천문학적 조류에 어두울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침내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후의 악조건을 알면서도 이 여름 별인 독수리의 에타 별을 관측하기로 결심하고 망원경 앞에 선 것이다. 이 별은 4등성에서 5등성으로 변광하는 거대한 초거성이다. 이원철 박사의 미국 이름은 다윗(David)이다. 구약성서에 보면 골리앗은 거대한 체구의 수만 대군을 거느렸던 장수이지만, 깊은 신앙심을 가진 작은 소년 다윗의 팔매돌에 거꾸러졌다. 어린 시절 신동이라 불리었던 키가 유난히 작은 이원철의 장대에 이 거대한 별 “독수리 자리의 에타”는 마침내 걸리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별을 “원철성(星)”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3

50대 이상의 많은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는 “원철성”(源喆星)은 하나의 신화적인 존재로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원철(李源喆) 박사 하면 “원철성”의 발견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사플리 박사가 주장한 맥동설을 입증한 별은 많았지만, 유독 이 독수리 자리의 에타 별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 이원철 박사가 이 별을 관측하고 연구했다는 것을 조국의 영광과 연관 지어서 그의 귀국을 보도했던 1920년대의 매스컴의 역할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한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박사는 1925년에 미국 천문학회에서 이 별에 대한 예비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학회 소식을 다루던 *Popular Astronomy*(지금은 폐간되었으나 1940년대까지 널리 보급되었던 천문학 잡지임)에 그것이 소개되어 있다. 박사 학위 논문은 1926년에 제출되었고, 곧 이어 같은 해에 이 박사는 귀국하여 연희전문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것을 출판할 준비를 하였다. 그의 논문이 미시건 대학교 천문대 대보(*Publication of the Observatory*) 제 4권에 게재된

것은 귀국한 후 6년만인 1932년이였다. 그 논문의 첫 페이지에 그는 학위 논문으로 제출되었던 것 중에서 약간 수정하였다고 명기하고 있다. 학위 논문의 지도 교수는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루푸스 박사였는데, 이 분이 그 당시 “케페우스 형변광성”의 맥동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박사의 논문에서 엿볼 수 있다.

그가 1926년에 귀국한 후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8·15 해방과 6·25 사변을 맞는 동안에 겪어야 했던 어려운 수모의 생애는 앞에서 언급한 이정근 박사의 글에 소상히 소개되어 있으며, 필자가 그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바는 없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면, 그가 한국의 초대 관상대 대장에 임명된 데 관한 이야기와 인하공과대학 학장을 사임할 당시 그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 정도에 그친다.

8·15 해방과 더불어 미군이 서울에 입성하자, 이 박사는 시간을 다투어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이었던 하지 중장을 찾아갔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기상 업무에 관계된 중요한 자료들을 일본 사람들이 더러는 불태우고, 중요한 것들은 철수할 때 가지고 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 군정장관은 이 박사를 따뜻이 영접하고, 기상대(후에 관상대로 개칭)를 인수받는 초대 대장으로 일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이 그가 일제의 탄압으로 일단 사임했었던 연희전문학교로 해방과 더불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1961년에 은퇴할 때까지 관상대에 머물게 된 이유라고 전하여지고 있다. 관상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는 한국 기상학회지(김성삼 교수와 김진면 부산 지대장이 같이 쓴 글)와 이정근 박사의 글을 참조해 볼 만하다.

필자가 받은 이 박사의 인상은 언제나 조용하고 깔끔하였다. 1955년부터 1958년까지 나는 관상대 관측과 현업 근무를 하였다. 하루 24시간을 3분하여 8시간씩 실제 관측을 시간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임무였다. 낮 당번은 아침 아홉시부터 저녁 다섯 시까지이고, 저녁 당번은 저녁 다섯 시부터 새벽 한 시, 그리고 새벽 당번은 한 시부터 아홉 시까지였다. 바이칼호에서 불어오는 서북풍은 겨울에

새벽 근무할 때에는 몹시 차고 거웠다. 20을 갓 넘은 나에게 이럴 때마다 엄습해오는 시험, 그것은 “차라리 그대로 잠을 자버릴까?”였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이란 이런 것이려니 생각하며 극복할 때였다. 이윽고 아침 일곱 시 반이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전화가 온다. “나, 대장인데, 고생이 많지?” 철없던 그 시절에는 근무 상황을 점검당하는 것 같아, 솔직이 말해서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은 보통 정성과 책임감 없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느껴진다.

일선 근무자였던 나와 이 박사 사이는 한국의 정부 직제로 보면 하늘과 땅만큼이나 된다고 할까. 그러나 나는 낮 당번이나 비번이 있을 때에는 곧잘 대장실을 노크했다. 결재 서류를 든 과장급의 인사들도 노크하기에 앞서 거울 앞에 섰어야 했던 그 방을 나는 결재 서류 대신 천문학 책만 들고 가면 언제나 환영받았다. 과장들은 1, 2분에 용무가 끝났어도 나의 경우는 짧아야 2, 30분이었다. 과장들이 줄을 지어 서성대는 것을 보고서야 그 방을 나왔다. 대한민국 최고 호봉의 관리였던 1급 1호의 이 박사와 최하의 5급 15호였던 나와 관계는 대한민국은 고사하고 세계 어디서 그 유례를 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관계가 주위 사람들의 눈에 걸려 오래 계속되지는 못했다. 왜 안 찾아오나 하셨을 것이나, 그런 사정 이야기를 나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 후에는 몇 차례 저녁에 댁으로 찾아가서 나의 천문학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도 했었지만, 그 때 이미 그의 건강은 좋은 편이 아니었다.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으레 사모님이 “이제 약 드실 시간입니다” 하면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전 직원은 회의실로 집합하라는 전달이 내려졌다. 많은 직원들이 의아스런 얼굴로 집합했다. 그때의 이 박사의 표정은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지만, 말씀은 첫 마디부터 “칼날”이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개성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개성 사람과는 절대로 깊이 사귀지 말아요.” 그 “개성 사람”이란 다름 아닌 당시의 절대 권력자요 국회의장이었던 이기붕 씨를 가리

켜 한 말임을 곧 알 수 있었다. 자유당 사람들의 권력이 학원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이기봉 씨의 저택이 넘어지면 코 닿을 관상대 바로 밑에 있었고, 틀림없이 관계자들이 관상대 주위를 맴돌고 있었을 터인데, 아무리 1급 관리라고는 하지만 어디다 함부로 할 소리였던가. 인하공과대학 학장직을 퇴임하면서 학원이 당시의 부패한 정치인들의 농간에 좌지우지되어 가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하신 말이었다. 그때 그는 인하공대와와는 전연 관계가 없었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참지 못할 욕을 당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다.

이야기는 4, 5년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알려져 있는 많은 관공서의 책임자들과는 성격적으로 판이하게 다른 면을 지니고 있었다. 관상대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연구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박사의 경우에는 학자적인 체취가 풍부하게 넘쳤다. 따라서 직제상의 계통이나 순서는 생략하고, 오히려 국가적 이익을 생각하고 실력을 행사한 것 같다. 필자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6·25 사변이 한창이던 때 정부는 부산에 있었고, 따라서 중앙 관상대도 임시로 부산 측후소(현 중앙 관상대 부산 지대) 내에서 전국의 예보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 전쟁의 와중에서 기상 업무에 밝은 기술 요원이 부족했었던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직 직원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다. 관상대에서는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그 직원이 병역 해당자가 되어 예고도 없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 이미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실이 이 박사에게 전해지자 이 박사는 그 즉시 차를 몰아 논산 훈련소로 찾아갔고, 다음날 그 직원은 관상대에서 예전과 다름없이 근무했다. 군번까지 받은 훈련병을 어떻게 도로 데려왔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은 전후방을 막론하고 기상 정보는 국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된다. 아마도 이 박사가 공문을 작성해서 당시 소속 부서였던 문교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다면,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논산 훈련소에 도달할 때쯤 이미 그 훈련병은 훈련을 마치고 일선에 배치된 후이나 기대해 볼 수 있었을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한 이 박사의 용단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이었다.

[4]

필자가 아는 이원철 박사의 생애 가운데 그의 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또 쓴 잔을 감내하여야 했던 일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958년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세계 천문 연맹(IAU) 총회에서 북괴의 과학원이 회원으로 가입되었다. 이 IAU 총회는 3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되어 있으므로 그 다음 총회는 1961년 8월에 미국 버클리에 있을 예정이었다. 이 정보를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입수하였는데, 국제 기구에 가입할 좋은 기회라고 외무부에 보고하였다. 외무부는 자기들의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내무부로 이관하였으나, 당시에는 천문대는 고사하고 천문학회조차도 없었다. 내무부는 문교부에 통보하고 문교부는 다시 또 학술원에 이관하였다. 학술원에서는 우선 IAU에의 가입을 추진하는 첩경으로 학회 조직부터 서둘러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원철 박사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에는 이 박사 자신을 제외하고는 천문학자라고 지칭할 만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박사는 기상학과 물리학계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을 준비 작업 하는 일에 추천했다. 학술원에서는 황과장(성명을 확실치 기억 못함)이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에 있었던 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호소한 끝에 발기인 총회를 모일 것에 동의를 얻고, 전원 모일 수 있는 날에 사용할 장소로 호텔(이름을 기억 못함) 방 하나를 예약하여 놓았다.

약속된 날, 호텔에 모인 사람은 이 박사를 비롯해서 국채표 박사, 박철재 박사, 안세희 박사, 이은성 교수 등과 그 외의 인사로 3, 4명이었다. 놀란 것은 학술원의 황과장이었다. “서울대에서 3명의 교수가 참석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하면서 의아스런 표정이었다. 약속 시간이 지났지만 지루하게 기다렸다. 그러나 사

정이 있어서 참석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황 과장과 다른 분들이 발기인 총회를 시작할 것을 서둘렀다.

그러나 이 박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대학 교수들이 올 수 있는 날로 연기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황 과장은 자기가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학술원의 예산의 부족은 고사하고 한국이 IAU에 가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국가적인 문제이니 회의를 시작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표, 박철재 박사를 비롯하여 다른 이들도 “우리는 기상학이요 혹은 물리학이지만, 선생님이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뜻에서 참석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일에 바쁜 몸들이니 다음으로 미루신다면 저희들은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딱한 처지에 놓였고, 또 회의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발기인 대표에 이원철 박사, 총무에 안세희 박사만을 뽑고 2차 발기인 총회를 다시 가지기를 원하는 이 박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2차 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황 과장이 하던 일을 우리가 대신해야 한다고 해서 필자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회의의 절차로 보나 그 진행 과정은 누가 보아도 합법적으로 된 것이었지만, 서울대학의 세 분 교수(분명히 밝힌다면, 한 분은 기상학, 두 분은 물리학)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박사는 그 이상의 진전을 원치 않았다. 수완이나 재치나 융통성이 없는 대나무 같은 외교집이었다. 그 후 나는 서울대학의 교수들을 찾아가서 회의의 경과를 설명하고 2차 회의 날짜와 장소를 그들이 편리하도록 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거의 만나질을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나, 앞뒤가 맞는 이야기는 도무지 없었다.

그 중 K 교수의 이야기는 여기에 옮길 수가 없다. 찾아간 내가 절없고 어리석었다고 하는 생각이 그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가졌던 소감의 전부였다. 이 박사는 끝내 모든 것을 사양하였다. 따라서 발기인회도 해산되어 결의 없이 없어졌고, 정부가 추진하던 IAU 가입건도 무산되고 말았다.

한국의 많은 저명 인사들 가운데, 그 신분에 맞진 맞지 않진 간

에, 혹은 자의로 혹은 타의에 의해서 얻어 쓰고 있는 감투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박사는 1960—1961년 사이에 역임했던 직책이라곤 단 둘 뿐이었다(중앙 관상대장과 중앙 기독교청년회 이사장). 한국 현대 천문학의 개척자로서 일생을 학교와 관상대를 위해서 살아 온 이 박사의 마음에 한국 천문학회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어찌 없었겠는가?(한국 천문학회는 그 후 이 박사가 세상을 떠난 후인 1965년 3월에 서울대학교 교수실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조직됨).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박사는 저서를 남기지 않았는가 의아스럽게 생각한다고 미망인 김화순 여사는 말한다. 사실 이 박사는 생전에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학술지에 남긴 연구 논문도 앞에서 소개한 독수리 자리의 “에타 별”에 관한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 대학자로 알려져 있는 그의 생애를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실망하게 되지만, 그의 학구적인 생활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생각한다. 그 한 가지 예만 소개해 보자.

몇 해 전 김화순 여사는 남편이 남겨 놓은 장서를 모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마침내 건국대학교 도서관에 “이원철 문고”로서 기증하였다. 이 책들이 연세대학교가 아닌 건국대학교에 기증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다음과 같다. 이야기는 다시 6·25 사변 때로 돌아가지만, 공산군은 이원철 박사를 체포하려다가 실패하자 그의 집안에 있는 요긴한 물건과 책들을 트럭으로 실어가 버렸다. 이정근 박사의 말에 의하면, 이 박사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책은 주로 세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학회지였었고, 단행본까지 합치면 엄청난 권수에 달한다고 한다. 일시에 그 많은 책을 다 잃어버린 후 이 박사가 다시 책을 모은 것은 전쟁이 끝난 1953년년경부터 작고한 해인 1963년까지 사이의 약 10년 간에 불과할 것이며, 따라서 그의 장서의 총수는 약 500여 권에 머물렀다.

김화순 여사와 그의 가족들은 500여 권의 책은 너무 그 수에 있어서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연세대학교의 중앙도서관에 기증해 봤자 어느 구석에서 눈에 띄지도 않을 뿐더러, 6·25의 사연

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찌서 이 박사의 책이 이렇게 적은가 하고 의문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한 나머지 비교적 장서가 적은 건국 대학에 기증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건국대학교 도서관 서고에 가서 이 박사의 문고를 본 바에 의하면, 약 500권 중 200여 권은 잡다한 기증본이거나 정부간행물 등 비과학 서적들이었고, 나머지 300여 권 중에서 절반인 약 150권은 알뜰한 수학, 물리학, 그리고 천문학에 관한 단행본 원서들이었다.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의 책들이므로 지금의 과학 서적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지만, 그가 생존하던 시대에는 최신의 간행물들이었다. 10년 동안에 150권, 1년 평균 15권. 이것은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책이다. 일선에서 한창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필자 자신도 1년에 5권 미만의 원서를 구입하는 정도인데, 그 나이의 이 박사가 1년에 15권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놀라운 이야기이다. 이것은 그의 학구열이 젊은이 이상의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에 불과하다.

그가 가고 이미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관측 자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로서 어찌 그가 그 시대에 혼자서 연구 논문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말로 된 천문학 책이라곤 이은성 교수(현 인하대학교)가 자비로 출판한 「천문학 개론」 뿐이며, 300권의 초판을 소화시키는데 3년이 걸렸다. 독자층이 없는데 어떻게 저서가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의 대학생들이 일반 천문학 책조차도 우리말로 된 것이 없어서 원서를 가지고 반쯤이나 이해하는 정도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번역판도 출판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지금의 형편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의 생애는 미완성의 반복이었다. 두 차례나 일제의 탄압에 못 이겨 연희전문학교를 떠났어야 했고, 6·25 동란으로 공산군에 의해서 체포되기 직전에 위험은 모면했으나,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공산 치하에서 살기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부인과 더불어 자결을 기도했고, 인하공대와 관상대를 타의반 자의반으

로 물러났고, 마지막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천문학회를 결성하는 문전에서는 좌초당하고 말았으니, 아무래도 우리 사회는 위대한 인물을 담아 줄 그릇이 못되었는가 보다.

그의 생애는 매마른 땅에 외로이 홀로 피었다가 외롭게 홀로 진 꽃과 같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의 천문학의 후예들도 이 땅에서 영광스런 생을 누리기에는 먼 훗날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글·나일성 / 연세대 천문기상학과 교수〉

김 명 선

(1897—1982)

1

“김 박사는 이 기관의 수호자였습니다. 이 학교에서 배우고 일하면서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고귀한 전통을 지키고 후대에 전하여 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기관의 업적과 명예를 옹호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의학계에는 경험 쌓은 원로요, 이 기관에서 그의 유업을 계승한 후배들에게는 스승이요 아버지였습니다.”

화창한 봄이었던 그 따스함마저 외로움을 더해 주던 지난 봄날 영원한 연세인이며 사랑의 구도자요, 꺾일지언정 휘지는 않는 기풍을 가진 선비였던 고(故) 김명선(金鳴善)님의 장례식에서 말씀하신 백낙준 박사의 조사 중의 한 귀절이다.

김명선 박사는 황해도 해주에서 서쪽으로 200리쯤 떨어진 장연군 후남면 남호리라는 산골에서 1897년 10월 17일 농사 짓는 아버지(金秉奎)와 어머니(郭仁愛)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이 해는 광무 원년(고종 34년)으로, 국내에서는 민비가 시해된 지 2년 후였고, 3년 전인 1894년에는 지방 각지에서 동학란이 일어났으며, 중앙부에서는 갑오경장의 진통을 겪었고, 거기에다 조선 반도를 전쟁터로 하여 청국과 일본이 난동을 부린 이후여서 민심이 매우 불안정할 때였다. 을사보호조약(1905)이 체결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씨 왕조는 이미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으며, 서구의 새로운 문물이 막혔던 물 쏘아지듯 밀려 들어와서 아직 각성하지 못한 이 민족의 상하층, 유무

식자를 막론하고 마구 희롱하고 있을 때였다. 국가의 주권은 흔들리고, 경제적 이권은 영악한 외국인들에게 강점되었고, 백성을 선도하여야 할 지식층은 정신적으로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 사상과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려는 개화 사상 사이에서 각기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뒤엉켜 있어서 그 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일본에게 수탈당하고 어둠 속에서 살게 했던 암흑의 구름이 서서히 다가들고 있을 때였다.

선생이 평생을 종사하였던 의학적 방법에서는 선생이 태어나기 12년 전인 1885년 선교사 알렌이 서양 의술을 이 땅에 펴고자 최초의 서구식 병원인 광혜원(후에 제중원으로 개칭됨)을 설립하였는데, 이 병원은 왕립 병원이었으나 현 세브란스 병원의 모체가 되었다.

그 2년 후인 1899년 대한제국 법제에 의한 최초의 서구식 의학기관인 관립 경성의학교(교장 池錫永)가 설립되었고, 같은 해에 제중원 의학교가 설립되었다.

선생은 유년 시절을 남호리에서 멀지 않은 솔내(대구면 송천리)에서 보냈는데, 이 솔내라는 곳이 그 당시 조선의 상황으로는 좀 특이한 곳이었다. 이씨 조선 중기 실학의 대두 이전에 벌써 천주교가 전래되었고, 조선 정부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서양 문물을 앞세워 신교가 뒤따라 전파되었기 때문에 개화 초기에는 다른 분야보다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 황해도외 두메 산골 솔내에는 일찍 개화한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압제를 피해 숨어들게 되었고, 자연히 그 곳 주민은 또한 일찍 개화하게 되었다.

이것은 선생의 일생의 방향을 정해준 남다른 점일 것이다. 선생은 송천 해서 제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송실중학교에 입학한 것이 17세 되던 해(1914)이므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2년 간 가사를 돌보다가 중학을 만학하게 되었다. 21살 되던 해에 송실중학을 졸업하고 교육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송실전문 이학부에 입학하였다.

세계 제 1차 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부터 해외에 나가 있는 독립운동가는 물론 국내에 있는 여러 뜻있는 사람들 사이에 나라를 도로 찾자는 운동이 한층 활발히 전개되어 갔다. 이같은 움직임은

교회를 중심으로 크게 번져 갔고, 이런 기미를 알아차린 조선 총독부가 우선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 압력을 가해 와서 송실전문을 졸업해도 교원 자격을 받지 못하게 되자 실망한 선생은 차라리 일본에 건너가 고등사범을 나오는 길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해서 만주로 잠시 방황하게 되었는데, 이런 방황 끝에 고향에 도로 주저앉았던 선생은 같은 동네에 살던 세브란스 의전(醫專)을 나온 분의 권고로 의사가 될 뜻을 가지게 되었다. 선생이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독립 운동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를 몰랐으나,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돌아가는 정세를 접적 보고서는 우리나라 독립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하였기 때문에 그 분의 권고대로 뜻을 정하고 경성(지금의 서울)에 올라왔다. 그러나 그 해에도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에서 입학생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송천의 선교사 휴양지에서 이미 안면이 있던 에비스 교장의 권유로 연희 전문학교 수물과에 입학하여 1년을 수학하다가 다시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로 옮기어 1925년 이 학교를 졸업하였다.

선생의 끈고 강인한 성품은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근원을 얻었고, 독수리 한 번 날개를 펴매 지칠 줄 모르듯 머나먼 여로를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소명을 받게 되었으니,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요, 좁고 험한 길이요, 스스로 택한 길이였다.

[2]

선생이 생리학을 전공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그 당시 세브란스 의전의 생리학 교수였던 벤버스커크 교수와 일찍이 알게 된 데서 연유한다. 선생은 1학년 때부터 벤버스커크 교수에게 발탁되어, 그 분의 한국인 유아 사망률에 대한 연구 조수 역할을 하였고, 4학년 때에는 교수진이 크게 모자란 이유도 있었지만 그 분의 배려로 저학년의 생리와 생화학을 지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때에는 한 학년이래야 20명 남짓해서 한 학년 학생들은 형제와 같았고,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즐거움과 어려움을 같이 하였다. 또한 살기가 어려웠던 때라 요즘 대학생들과 같이 젊음과 낭만을 즐긴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간혹 몰래 빠져나가 술이나 즐기는 정도였다고 한다. 선생이 세브란스 의학전문을 졸업하던 때가 28세이었으므로 대부분 이국인 교수인 학교에서 저학년들과는 선생이라기보다 자상한 선배로서 보다 친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임상의가 되어 병을 치료해야 할까, 아니면 기초 의학 분야에 뛰어들어 의학 발전과 후배 양성에 기여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주위 사람들의 권고도 있고 하여 이미 인연을 맺었던 생리학교실 조수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그 후 도미(渡美)하여 1932년 노드웨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선생의 지도 교수였던 아이비(A. C. Ivy) 교수는 그 당시 세계적인 소화생리학자였다. 선생은 위액 분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한국에서 첫 번째 생리학 박사가 되었다.

대하는 누구에게나 스스럼없이 말씀하셨듯이, 선생은 자신은 재간이 없는 사람이라 부지런한 것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려 했다고 평소에 말씀하셨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몸에 젖은 기독교적인 봉사에 입각한 생활 방식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학생 시절부터 누구보다도 매사에 열심이었다. 선생의 유학 시절에 어느 일요일 조용한 캠퍼스를 둘러보려고 학교에 들렀다가 휴일에도 연구실에서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는 미국 학생들을 보게 된 이후로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하여 누구보다 일찍 실험실에 나왔다가 가장 늦게 실험실을 나서고, 항시 동료들이 하는 일에는 굿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짬만 있으면 옆에서 거들어 주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노력이 천재를 이긴다는 말이 있지만, 나는 이때처럼 부지런함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한 때가 없었다”고 후에 슬 회하였다. 특히 그런 이유로 해서 이때 사귄 몇 분과는 노후에도 끊이지 않고 서신을 주고 받을 정도로 친밀하였다 한다.

한국 의학사에 있어서 1900년부터 1910년까지를 한국 의학의 창립기,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수난기로 보는데, 이 때는 일본 정치하에서 일본인 의사들의 단체인 경성 의학회, 조선 의학회와 이에

맞서 조직된 조선인 의사들의 단체인 한성 의사회 및 조선 의사 협회가 대립할 때였다.

선생이 귀국할 당시에 경성제대 의학부에 생리학 교수로 영국에서 공부한 일본인 나까니시(中西) 교수가 있었고, 세의전의 벤버스커크 교수는 교내에서의 마찰로 귀국한 후여서 생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두셋에 지나지 않았다.

선생은 선진 문화를 몸소 익히고 연마하여 당시에 많지 않은 선각자의 대열에 서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소망하던 교육자가 되어 가장 첨단에서 한국인에 의한 한국 의학의 정립에 매진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개 농부였지만 진리를 알고 계시던 부모님이 항상 지켜 주셔서 혼란하고 어려운 때였으나 순조롭게 자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선생은 말씀하셨다.

3

교육자로서 김명선 박사는 끈은 성품으로 일화가 많은 분이었는데, 선생으로부터 생리학 강의를 들었던 세의전 출신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졌던 몇 가지 소문은 다음과 같다. 호랑이처럼 무섭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학생은 선생님 눈 밖에 날 뿐 아니라, 적어도 낙제 아니면 정학을 각오해야 하며, 반면에 아침 채플에 참석을 잘 하고 술 담배를 하지 않는 학생은 한두 번 시험에 실패하더라도 구제 받을 수 있다는 등등이었다. “공명선병”(恐鳴善病, Myungsun-phobia)이라는 것이 학생들 간에 있었는데, 그 증상은 심장 박동수 증가, 불규칙적인 호흡, 혈압 강하 등이고, 예방은 술 담배 끊고 채플에 참석 잘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되도록 멀리 도망다니는 것이 그 치료라는 것이었다.

간혹 선생은 왜 그토록 학생이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시느냐는 질문이라도 하면, “멘소레담(외용연고의 일종)을 만드는 공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의사를 길러내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되나” 하고 주저 없이 말씀하셨다. 그 외에 선생에 대한 에피소우드로는, 선생도 자신의 용모에는 별로 자신이 없었는지 “외과의(外科醫)는

얼굴이 험악해도 힘만 좋으면 되지만, 소아과 의사는 곱살해야지 나처럼 금계랍(金鷄納, Quinine) 없이도 말라리아 고칠 수 있게 생겨 가지고는(놀라게 하면 학질이 떨어진다는 데서 온 것임) 소아과 의사는 틀렸어”라고 농담 삼아 말씀하시곤 하였다.

6·25 사변이 끝나고 네 것 내 것 없이 불타버린 집터에서 피해가 크시냐고 누가 묻자, “우리 집 번지수만은 그대로 있네다”고 웃으며 대답하던 선생이셨고, 의료 사고로 떠들썩한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저 하나님 오라는 날짜에 간 것으로 생각하면 될 일인데…” 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사를 개탄하기도 하였다 한다.

말은 전해질수록 불어난다고 과장된 점도 있겠으나, 선생은 엄하기도 하였지만 인간의 품성을 교육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으며, “일생을 젊은 학도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넉넉지 못한 경제력을 가지고도 불우한 학생의 딱한 처지를 보고는 그냥 두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고야 말던 그 가룩한 마음씨는 젊은 학도의 심금을 울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의 같은 시기를 함께 살아오신 이용설 씨는 선생의 영전에서 말씀하셨다.

선생이 귀국하여 세브란스 의전에서 다시 교편을 잡은 후 먼저 기억될 일은 이영춘 박사와의 깊은 교류를 가지게 된 일일 것이다. 이영춘 박사는 선생이 졸업하던 해에 세전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세전 병리학 교실에 근무하면서 한국인 교수(윤일선 박사) 밑에서 첫 번째로 학위를 받은 분으로, 군산 지역에 있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소작인들을 위한 진료소에서 일하다가 해방 후 그 곳에 “농촌 위생 연구원”을 세우고 시그레이브 기념 병원을 열어 농촌 의료 봉사의 뜻을 불태운 분으로서, 이 분이 이러한 길을 택할 때에 선생이 조언을 하였고, 후일에는 농촌 위생 연구원 및 시그레이브 병원 이사로서 계속 관여하였다.

선생이 안정된 기반 위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활동할 때의 국내의 정세는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세계에 내세우고 중일전쟁(中日戰爭)을 일으키고는 한국인에 대하여 신사참배 및 창씨개명을 강요할 때였다.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긍지를 지키려는 한국인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인 조치였지만, 가식이나 형식적이라는 구실로도 도저히 이러한 것은 용납될 수 없었던 기독교인,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민중의 주시를 받을 위치에 있던 계층의 인사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포함해서 이제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걸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될 시련이었다.

“내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가장 고민하던 때는 1937년인 것 같다”고 선생은 말씀하셨다. 선생은 신사참배를 하면서 학교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한 끝에 학교를 그만두기로 하고 연희전문대의 원한경(H. H. 언더우드) 교수를 찾아갔을 때 원한경 교수는 “기초를 한 사람이 이제 개업을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며, 학교를 그만둔다면 남아 있는 학생은 누가 지도할 것인가?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가르쳐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간곡하게 만류하였기 때문에 그 분의 권고대로 생각을 돌리어 봉직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진하여 삶을 버렸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문을 닫아야 했고, 교회들이 폐쇄되었는데, 지금까지 잘 알려진 일부 지식인들도 일본인의 사주를 받았거나 아니거나 간에 민족의 장래에 대한 회의론을 공공연히 대중 앞에서 표명하던 혼란한 시기였다.

조선 신궁은 남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처음 한동안 세전에서는 오궁선 교장, 연전에서는 유억겸 부교장만이 조선 신궁을 다니오는 것으로 무사했으나, 나중에는 어느 칩자의 고발로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전 교수 전 학생이 참배하라는 문책을 받게 되자 오궁선 교장은 난처하게 되었다. 이때에 선생은 그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매 월요일마다 학생들을 한 반씩 인솔하고 조선 신궁을 다녀온 후 명부에 “김바라(金原) 의학박사 이하 세브란스 교수 학생 일동”이라고 적어서, 해방이 되도록 세전의 다른 교수는 신사참배의 부담을 받지 않고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고 한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던 해인 1941년 초부터 해방되던 해까지

선생은 평양 연합 기독교병원장을 겸임하였다. 한 주간의 전반은 세의 전에서, 후반은 평양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하였는데, 이 평양 기독교병원은 큰 병원이었지만 미국인 병원장과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운영이 무척이나 어려워져서 선생께서 취임하자 그 달 직원 봉급부터 해결하여야 될 정도였다. 선생은 은행에서 변통하여 다른 병원 수준으로 오히려 봉급을 인상 지급하여 직원들이 자진해서 보다 열심히 일하게 함으로써 합심해서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도록 했다고 한다.

병원의 예배에서마저 찬송가, 설교도 일본어로 해야 했고, 일본 천황은 아예 하느님으로 진급하고, 성경 귀절은 간간이 먹칠이 가해지기까지 되었을 때, 일본은 소위 조선의 애국자로 지목되던 인사들에게 민심을 규합하기 위해서 일본을 찬양하는 시국강연을 요구했다. 그 때 평양에 계시던 조만식 선생은 본인도 모르는 시국강연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신문에 발표해 놓고 있었는데, 선생은 연료하신 조만식 선생을 만성 신장염이라는 진단을 붙여 장기 입원시켜 드러서 해방이 되도록 시국강연에 불려나가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이 무렵 조선 백성은 일본인의 핍박에 몸서리치고 기아에 허덕이는 것만이 고통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 외에 무엇이 있었을까? 아마 그것은 누구도 민족의 장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일 것이다. 이러한 시한이 없는 고통은 동족끼리의 불신을 더욱 깊게 했는데, 반도 북쪽에 사는 동포들에게는 이것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만주에서 수시로 국내로 잠입한 독립 투사들은 소위 민중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들을 습격하는 일이 빈번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들은 다수의 종교인들까지도 포함하여 일본 경찰의 힘을 빌어서 우선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비극도 허다했다. 이토록 서로 아우성치던 때에, 연희전문은 해체되어 경성 공업경영전문학교로 되고, 세브란스 의학전문은 아사히 의학전문으로 이름이 바뀐 적도 있었다.

선생은 평양에 계시던 중 해방을 맞았다. 해방 직후 대부분의 대

학은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이들 대학교 교수진의 대다수가 일본인이어서 이들이 한꺼번에 떠나버린데다 학생들은 남아 있는 한국인 교수 가운데 친일(親日)한 사람이 있다 해서 배척 운동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희전문학교는 조선 총독부에 접수되어 있어서 인수 인계가 필요했지만, 세브란스의전은 이름만 잠시 바뀌었을 뿐 교수진마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으므로 혼란 없이 지낼 수 있었다. 해방 당시 세브란스 의전에 몸 담고 있던 많은 인재가 이들 혼란한 다른 학교에 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병리학 교실의 윤일선 교수는 경성대학 의학부로 갔다가 그 후신인 서울대학교 총장까지 하였고, 내과의 심호섭 교수는 경성의전으로 갔다가 서울의대 학장, 고병간 교수는 대구의전으로 갔다가 그 후신인 경북대 총장에 이어 연세대 총장을 역임했고, 외과 이용설 교수는 해방 후 미군정청 보건 후생부장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선생은 군정청 의학 교육 담당관 일을 잠시 돌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특히 해방 후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병원 즉 적산의 운영권 쟁탈 문제의 조절과 교수가 대부분인 의학 교육 기관의 기능을 빨리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다고 한다.

모스크바 외상 회담(1945년 12월) 이후 국내는 찬탁(贊託)과 반탁(反託)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러한 소요가 몇게 되자 6·25 사변(1950년)이 발발하게 되었다. 남북한은 외국의 힘을 빌어서 서로 싸워야 했고, 막대한 인명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세계의 양대 진영은 서로 무기 경쟁이라도 하듯 밀고 밀리면서 전 국토를 두들겨 부수는 참변이었다.

세브란스에서는 수도 육군 병원에 의사 20명과 간호원 20명을 파견시켰었는데, 서울이 적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자 선생은 가족을 돌볼 틈도 없이 파견되었던 이들 세브란스 의료진을 이끌고 군부대의 철수 작전에 따라 대전으로 해서 울산에 진료소를 설치하고 부상병과 피난민의 치료를 지휘하였다.

선생은 그 해 9월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에 종군하여 수복된 서울에 일찍 돌아오자 먼저 세브란스에 들렀다. 10월쯤에는 다시 공

부할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 조성해 놓게 되자 이번에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다시 철수를 하게 되었다.

이 무렵 선생은 미국무성 초청으로 이우주 교수, 유준 교수 등과 더불어 방미하게 되었다. 미국의 유명 대학을 두루 돌아보고 옛 은사도 찾아본 후 귀국한 선생은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선생이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 상의를 하던 분으로 이국인이지만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민족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같이 했고 이 땅에서 생산된 것을 먹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같이 호흡하던 원한경 씨가 한국 땅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원한경 씨는 일본인에 의해 잠시 이 땅을 떠났을 때에도 새가 부서지는 제 등지 주위를 돌듯 필리핀과 미군이 점령한 도시를 맴돌며 우리말 방송을 통해 “조금만 있으면 해방이 될 터이니 한국 동포는 잘 견디어 끝까지 참아 달라”고 애타게 당부하던 분이였다. 유언에 따라 사별이 나기 전해에 복귀가 보낸 집자에 의해 피살된 사랑하던 부인과 함께 당인리 양화진 서양인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4]

오래 전부터 간간이 말이 오가던 서울의 기독교 계통 대학의 통합 문제는 해방이 되어 원한경 씨가 미군정청 자문관으로 오면서 부터 다시 논의되었으나, 당시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장이던 김활란 씨는 이화만은 그대로 남아 여자 대학으로 특색을 살려가기를 바랐으므로 이 문제는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통합만으로 압축되었다. 세브란스 졸업생의 상당수가 이에 반대했지만, 이미 학교 재단과 미선교부, 그리고 교수들 사이에 어느 정도 통합에 대한 원칙이 서 있었기 때문에 선생이 세브란스 의과대학 학장으로 계시던 1957년 1월 7일 연세대학교로 문교부 승인을 받음으로써 양교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동안에 참혹한 전쟁으로 대부분 파괴되어 버렸던 남대문 밖 복숭아골의 세브란스 병원은 미 제5 공군과 한미재단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복구되어 있었으나, 미 8군이 기념 병원 짓기를 원하여 이

에 차이나 메디칼 보드 및 미국 선교부의 후원을 더 받아 이미 해관 오공선 선생 때 구입해 두었던 연회동 3만여 평의 넓은 대지 위에 커다란 병동과 의과대학, 간호대학, 소아마비 재활원 및 기숙사 등이 들어선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것이 모두 선생이 학장으로 일할 때에 추진된 일이다.

4·19 학생 의거에 이어 1961년 5·16 군사 혁명이 성공하여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될 무렵 연세대학교의 총장은 백낙준 씨에게서 최현배 씨(서리), 원일한 씨(서리)에 이어 고병간 씨로 이어져 내려왔고, 선생은 의무 부총장으로 계셨다.

문교부 장관 고문 자격으로 선생은 혁명 정부에 잠시 참여하였는데, 혁명 정부가 수립되던 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 과학 연맹 총회에 한국 대표로 안동혁 씨와 함께 참석하여 회원국들과 교섭하여 한국을 가입시키고, 귀국한 후 곧 정년 퇴임하고 명예 교수로 남게 되었다.

선생은 19세기에 출생한 분이지만, 자녀를 둘만 두었으니 평균 이내로 너무 적은 편이다. 선생 자신이 어렵고 가난했던 시대를 살아오면서 남의 사정이지만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어서 이를 자신이 실천하여 실천한 것인지는 몰라도, 산술급수적인 경제 성장률을 제치고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인구가 우리 사회에서도 큰 문제로 인식될 무렵 선생이 1961년부터 7년 동안 대한 가족 계획 협회 회장으로 추대되었음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가족 계획 협회 기관지(1964년)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글에서 선생의 보건의 및 인구 문제에 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들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인강 홍수가 빚어낸 무서운 사태, 즉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 건강을 해치는 과잉 인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방황하던 인구 정책이 조직적으로 전개된 지도 어언 3년이 지났습니다.”

이 때는 혁명 정부에서 1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하여 국가의 중흥을 다짐하던 때인데, 여기에 발맞추어 가족 계획이 또한 잘되어야 “잘 살아 보자”는 우리의 희망 또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다 고도한 기술과 학문을 익혔을 때에 국가의 장래는 충천일로이며 우리들의 생활도 향상될 뿐 아니라, 고귀한 인간의 가치를 찾고 누린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교육자로서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인데, 선생의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에서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번영을 찾고 누리기 위한 것이 기술과 학문의 필요성이라면 사람이 남아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에 대한 저해 요인이 되는가를 강조한 선생의 뜻을 엿볼 수 있다고 본다.

[5]

“사람의 종류에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하찮은 곤충을 보더라도 거미는 그물을 쳐놓고 날아다니는 다른 곤충을 걸리게 하여 먹이를 구하고, 개미는 자기만을 위해서 축적에 몰두하고 있으며, 벌은 자기와 그리고 주인에게도 도움을 주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 글은 선생의 지기(知己)였던 유일한 씨의 유지를 따라 선생이 팔순의 노력에도 마지막까지 돌보시던 유한학원의 교지(校誌)에 실린 글의 일부이다.

유일한 박사는 소년 시절에 도미하여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고학 하였고 그 곳에서 자수성가한 분이다. 그는 기업인이 기업을 통하여 성공을 했다면 그 공은 기업을 키운 모든 사람과 사회에 함께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실천한 존경할 만한 기업인이었으며, 에비슨 씨의 권유로 조국에 돌아와서 조국의 발전에 큰 관심을 쏟았던 분이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사이가 원만치 못해서 유일한 씨는 외국에서 지내면서 유한양행을 이끌어 갔고, 선생의 협조를 받아 유한학원을 세웠다. 이 학원은 자신이 기업에서 얻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자를 양성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는데, 전 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던 학교이다.

선생은 노후에까지도 자신은 교육자임을 잊지 않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고 봉사할 수 있는 곳을 구했다. 교육은 학교에 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 교육으로 연장되어야 하며, 세칭 상아탑의 높은 수준의 교육만이 고귀한 것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더 소중하다면 낮은 곳에서 결코 버려질 수 없는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한국에서 남을 돕고 싶다는 이방자 여사의 청으로 박영효 씨 등이 설립했던 사회사업 단체인 보린회 재산을 다시 정리해서 제단법인 명휘원으로 바꾸고 이방자 여사를 이사장으로 추대되도록 한 것도 선생이었다. 명휘원은 불구 아동들에게 기술 훈련과 직업 보도를 하는 곳이다.

기독교인임을 잊지 않고 성서공회, 기독교서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신구교가 힘을 합하여 성경을 공동 번역하는 데 조력했는데, 이런 일은 기독교사상 유례가 드문 일이다.

선생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놓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주어진 삶을 부지런히 살아보려 애써 왔을 뿐이다”라고 하였으나, 1963년에는 연세대학교로부터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대한민국 학술원 종신 회원을 지내기도 하였다. 평소에 자녀나 제자들에게 “어느 일을 하든지 한 우물을 파라”고 말씀하였던 선생은 학자로서 생리학 분야에 정진하기를 40여 년, 국내외 잡지에 발표한 논문 편수가 150여 편에 이른다. 이러한 외곬 인생이지만, 학문의 대해에는 손도 담겨보지 못했다고 후회하곤 하였다.

여러 사학재단에 관여하고 기독교 사업에 참여하여 사회에 이바지한 공로로 수차례 걸쳐 국가 및 사회로부터 훈장과 표창장을 받았다.

타계하기 전에는 평화 통일 자문회 상임위원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았으나, 이미 3년 전부터 심근경색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그 후 뇌중양이 생겨 긴 투병 끝에 1982년 4월 24일 자택에서 향년 86세

로 그 영혼을 거두어 생전에 진심으로 모시던 주님 곁으로 가시니, 이 분의 인생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을 섬기는 삶이었다.

“내가 죽거든 내 몸을 의학 교육의 실험 재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의학 교육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하신 대로, 선생이 영면하신 후 선생의 시신은 제자들의 손으로 해부되어 심장과 뇌는 표본으로 만들어져 실험 재료로 보존되었고, 연세대학교는 학교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6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티끌이요 낙엽일 수 있다. 힘겹게 오른 언덕이 돌아보면 발 밑에 있는 격이다. 더구나 요즘 세상이라는 것이 하도 복잡하고 스피디해서 달아나는 시간 속에 의미를 찾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 또 사람들이 물질의 혜택으로 안일에 빠져 스스로 자신을 잃어버리기까지 한다.” 이 글은 선생이 1980년 「유한학보」 제 2호에 “시간의 참 뜻”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의 일부이다. 「한국일보」 1979년 10월 13일자부터 12월 30일까지 61회에 걸쳐 집필한 “나의 이력서”에서 선생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었다.

“나는 1897년 10월 17일(陰)에 태어났다. 그러니 올해 내 나이 여든 둘, 꽤 장수한 편이다. 그러나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면 주마등 같이 스쳐간 일순간의 일들이다. 그러나 후회는 없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건강 때문에 크게 고생한 일이 없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 나는 요즘도 아침 다섯 시면 일어나 30분 간 전신 냉수 마사지를 하고, 여섯 시 라디오 뉴스를 듣고 신문을 본다. 여섯 시 40분 아침을 먹고 일곱 시 40분에 집을 나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311호실 나의 방에 들러 신문과 잡지로 부터 온 편지 등을 읽고, 병실을 둘러본다. 수요일 아침 여덟 시 30분에 갖는 채플 시간에도 종종 둘러본다. 내가 돌아가거든 이 기관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한 고(故) 애비슨 세브란스의전 교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오후엔 이사장으로 있는 유한공업전문학교와 성남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대한성서공회, 65세 이상의 의사들의 모임인 인수회(仁壽會), YMCA 초창기 회원들의 모임인 계묘(癸卯) 클럽, 교회 관계 모임, 종신회원으로 있는 학술원 등을 짬짬이 돌다 보면 하루 해가 저문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밤 열 시에서 30분 간 갖는 성경 읽는 시간이다. 내가 이 같은 생활에 젖은 지도 어언 60년이 넘은 것 같다.

나는 한평생을 불만이란 것을 모르고 살아왔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다.”

〈글·강두희 /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현 제 명

(1902—1965)

1

“인간만이 실존한다. 나무는 존재하지만 실존하지는 않는다. 말(馬)도 존재하지만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하이데거가 말한 바 있다. 인간은 실존하기에 역사를 창조하고 고매한 예술을 지어낸다. 예술의 빛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냉대와 멸시와 맞싸우며 노력한다.

멘델스존의 용기와 투쟁이 아니었다라면 바하의 불멸의 음악의 빛이 언제 누구에 의해 발하게 되었을지... 또한 쉬베르크가 “조성(調性)의 전제”를 용감하게 타파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민족주의적 이념의 음에 대한 처리나 12음의 묘미를 감지(感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발전을 향해 달리는 가운데 “희생”이라는 대가를 요구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희생자야말로 도식하는 무위자들의 험담과 욕을 먹어 왔고, 이러한 국면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오랜 잠에서 깨어나려고 발버둥치던 19세기 말 이른바 개화기에 가눌 수 없는 외세에 짓눌리면서 우리 민족의 새 역사를 창조하려던 숭한 지성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우리는 선구자라고 부른다. 다른 분야도 그러했겠지만, 생소한 서양 음악의 씨앗이 뿌려질 때 받아들이고 가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음악계의 선구자들도 예외 없이 사생활의 안일이나 잡념 없이 오로지 음악을 생명으로 알고 일생을 바쳐 왔으니, 우선 1885년에 출

생한 김인제(金仁堤), 1884년생의 이상준(李尙俊), 정규 음악가의 효시인 1893년생의 김영환(金永煥) 및 한국의 슈베르트라 불리는 난파 홍영후(洪永厚) 등은 잊을 수 없는 선구자였다.

바로 그들 뒤를 바짝 따른 선각자의 수도 적지 아니하거니와 현 제명(玄濟明) 선생은 전자들이 손대지 못했던 분야의 큰 일들을 해 나가다가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채 타계한 큰 공로자이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세계 만방의 신문명의 빛이 바야흐로 이 땅에 비쳐 올 즈음, 그러나 이 한반도의 하늘 위에는 검은 먹구름같이 일본의 마수가 뻗치기 시작했던 1902년에 현 선생은 대구에서 고고(테너)의 소리를 치며 출생했다. 남보다 몸집이 큰 우량아였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장성한 후의 그는 남성 중의 남성적인 좋고 든든한 체격이었으니 말이다. 그는 2남 2녀 중 차남으로 출생했으나, 조실자모하고 엄격한 부친의 교육과 기독교적 가르침 속에서 자랐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나 보통학교(소학교)에서 노래 잘 부르기로 이름났고, 음악열이 높은 계성중학교에서도 인기 높은 존재였다. 노래뿐만 아니고 피아노도 칠 줄 알아 모두가 그는 음악가가 될 것이라 짐작 정도였다.

1920년 봄 계성중학을 마치고 동계(장로교)인 평양 숭실대학(당시는 대학이라 불렀음)에 입학했다. 학비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가세였기에 그는 고학을 면치 못했다. 학교 안에 설치한 목공부, 또는 선교사 집에서 잡일을 하며 스스로 학비를 조달했다. 미국인들의 공통된 생각인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생각을 이 땅에서도 실현했다.

현 선생은 건강했던 덕으로 맹 장로(선교사, 목공부 주관자)가 까다롭고 호되게 많이 주는 분량도 거뜰히 해치우곤 했다. 공부하랴, 음악부에서 연습하랴, 눈코 뜰 겨를이 없다시피 했다. 특히 음악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서울 연희전문학교의 음악 활동이 눈부시게 활발해졌던 것은 1930년에 접어들면서부터였지만, 숭실의 음악열과 활동은 훨씬 앞질러 있었다.

현 선생의 재학 시절에는 음악의 재질이 풍부했고 열의에 찬 동

창들이 있었으니, 피아니스트가 된 박경호, 독고선(비전문가이지만), 작곡가 김세형, 박태준 등 상당수가 있어 평양 시내는 물론 서북 지방 일대를 휩쓸며 순회 공연을 가졌었다.

1923년 문과를 졸업한 그는 고향 아닌 전남의 명문 신홍중학교에 영어와 음악 선생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이화여자전문학교 보육과에서 수학하던 전남 태생의 묘령의 미인 양신선 양이 방학에 하향하던 으레 교회에 나오고, 성가대로 찾아와 같이 노래를 불렀다. 그리하여 성가대를 지도하던 현 선생의 눈에 들기 시작하여 들의 교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방학이 삼시에 흘러가 서로 헤어지고 나면 우편 배달부의 발소리만 고대했다.

세월은 흘러 양신선 양의 영예로운 졸업이 끝난 후 1926년 양춘가절인 3월 26일에 두 사람은 드디어 백년해로를 약속했다.

1년 후 귀여운 딸 해진이 출생하게 되었다. 기쁜 생활 속에 또 하나의 경사가 생겼으니 그 경사란 대략 아래와 같은 내력의 꿈 같은 이야기이다.

송실 4년 재학시의 어느 날 채플 시간에 한 미국 손님이 내방했었다. 부흥 전도가이기도 한 실업가(테인보우 레코드 회사 및 악보 출판사 사장)였다. 이 날도 통례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현 선생이 찬송가 한 장을 불렀다.

일이 이쯤으로 지나고 말았던 것이 경사의 실마리가 될 줄이야! 본국으로 돌아간 실업가 로디 히버(Rody Heaver) 씨는 현 선생의 찬송 소리가 인상적이었던 까닭에 미국 유학의 길을 터주고 싶어 초장을 보냈던 것이다.

가고 싶었던 미국 유학의 길이었지만, 처자를 두고 떠나는 가슴은 그리 즐겁지 못했다. 드디어 반갑게 만난 두 H 씨는 우선 무디 성경학교(Moody Bible School, 시카고 소재)로 찾아들었다. 그리고 미리 주선된 바대로 그 학교에 통학하게 되었다. 현 선생은 다소 실망했지만, 종교음악과가 병설되어 있는 관계로 몇 시간 선택할 수 있어 위안이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후버(Hoover) 대통령 때의 불경기 시대여서 히버 씨의 도움도 일부 있었지만 현 선생은 달리 고학

을 아니할 수 없었다.

3만리 타향에서 외로이 방안에 고된 몸을 누어 놓고 있을 때마다 스며드는 고통감, 부인과 애기 생각이 그에게 눈물을 자아내게 했다. 이 때 떠오르는 가사에 붙인 멜로디가 바로 “고향 생각”이다.

1. 해는 저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나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2. 고향 하늘 바라보니
 별떨기만 반짝거려
 마음 없는 별을 보고
 말 전해 무엇하랴.
 저 달도 서쪽 산을
 다 넘어가건만
 단잠 못 이뤄 애를 쓰니
 이 밤을 어이해.

이 노래와 “월 돛단배”(자작곡, 지금은 부르는 이가 없다)와 찬송가 몇 곡이 레인보우 레코드에 수록되었다. 현 선생의 처양 첫 이름이 로디(Rody)였으니, 로디 히버(Rody Heaver) 씨의 첫 이름을 기념으로 받은 것이다.

현 선생이 무디의 3년생으로 되던 해 하나의 선보에 접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교포 실업가 이병두(李炳斗, William Lee) 씨가 연희전문 교수 베커(Becker) 씨의 편지를 들고 현 선생을 찾아온 것이다. 내용은 음악 교수를 물색해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곧 의논 끝에

건(Gunn) 음악 교수에게 등록, 1년 수학 후 연희전문에 부임하게 되었다(1937년 이씨가 들려준 회고담임). 현 선생의 월급은 1,2년 간 허버 씨가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연전은 일석이조의 득을 본 셈이다.

1929년에 부임한 현 선생은 언더우드 동상 뒤에 우뚝 서 있는 건물 4층의 큰 방을 음악 연습실로 삼고, 2층 좌편의 한 방을 집무실로 하여 자리잡았다.

1920년 중반까지는 김영환 선생이 음악과 없는 음악과장으로 음악부를 지도했었다.

필자가 처음으로 현 선생을 뵈는 때가 1930년 봄이었다. 1929년에 상학과에 입학했다가 당시 2학년생(20여 명)이 주동이 되어 몇몇 교수님을 배척하여 스트라이크를 벌이던 판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신입생들을 몽땅 합세시켜 버렸다.

애매하게 전원이 퇴학을 당했다. 1년을 고스란히 놀다가 재입학이 허용되어 동상 뒤에서 어느 교수님의 오리엔테이션(당시에는 이 용어가 없었다)을 받고 있을 때 짙은 하늘색 양복에 붉은 양화틀 신은 운동가 타입의 체구이지만 온순하고 인자해 보이는 좋은 인상을 풍기는 그 분이 내 곁을 지나는 것이었다.

그 날 몇 시간 후 현 선생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유한 목소리로 유억겸 선생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며 앞으로 음악부에서 늘 만나자고 하였다. 조금 후 바이얼린의 광정순, 익살장이 황재경 등이 그 방을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

[2]

1929년 초여름에 귀국한 현 선생은 방학 동안, 다가올 2학기부터의 음악부 활동에 관한 계획을 짰다. 초대 음악부장 김영환 선생의 뒤를 이은 제 2대 부장 현 선생은 음악부를 강화하였다. 전보다 짜임새 있는 연습 시간을 각 분야, 즉 관현악부와 합창 또는 밴드의 연습 시간을 달리 정하고 맹연습을 가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1929년 10월 중순에 당시 하세가와조(長谷川町)의 공회당(현 조선호텔 앞 상공회의소 자리)에서 제 1회 연주회를 열어 장안 호

악가들의 인기를 집중시켰다.

이에 앞서 9월 27일에는 공회당에서 현 선생의 귀국 제 1회 테너 독창회가 열려, 당시 본격적인 테너 가수가 희귀했던 탓으로 인기가 대단했다.

음악부는 1930년 입학기에 더 많은 음악부원을 맞이하게 되어 실로 충실한 음악부가 형성되었는데, 1929년도까지의 음악부원과 1930년대의 부원을 대략 소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929년도 : 김대연(첼로), 황재경(플룻·4중창), 광정순(바이올린), 김병모(트럼펫·바이올린), 오창희(트롬본·4중창·합창), 김장억(트럼펫·4중창), 이양선(트롬본·4중창) 외 10여 명.

1930년—1933년 : 김성태, 이우선, 문학준, 황재경, 신원근, 이양선, 광정순, 김병모, 김장억, 최성두, 이우성, 이용필, 장명호, 김용우, 염계정, 서남용, 한태일, 이인범, 김성려, 임동혁, 한인환, 이정식, 선우철복, 이억길, 황인수, 유기홍, 김성도, 모기운, 김규백 외 15,6 명.

해마다 졸업하고 나가는 수를 신입생으로 메워 가면서 어김없이 춘추로 서울 공연을 가졌고 지방으로 순연했다. 지방 순연시는 현 선생과 회계결 감독으로 김순주 선생이 빠짐없이 동행했다.

수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우리들이 얻은 바는 수업 문제에 비할 바 없이 컸었다. 우리가 들러 연주한 지방을 대충(1934년까지) 적어보면 인천, 개성, 수원, 대구, 부산, 청주, 논산, 강경, 광주, 전주, 이리, 보성, 남원, 군산, 목포, 진남포, 평양, 신의주, 선천, 안동, 정주, 원산, 함흥, 성진, 청진, 나남, 회령, 흥남, 용기, 안변, 북청 등이다.

인솔자로 원한경 박사와 이운용 교수가 동행한 때도 있었는데, 그 당시 교수님들의 옷차림이 머리에 떠오른다. 대부분 미국에 유학한 분들이어서 그런지 그 시절 미국에서 골프를 칠 때 입는 반바지(넓은 바지통을 무릎에서 접어 묶음)와 긴 스타킹이 서울에서 유행되었는데 특히 연희 숲속에서 더 많이 착용된 듯하다. 나비 타이에 그 바지를 입고 나서는 품이 그때에는 썩 잘 어울렸다.

춘추로 계속 음악부의 연주는 발전되어 가면서, 음악을 몰라 감상하기 어려운 지방에서까지 연주를 들려 줌으로써 감상력을 기르는 동시에 정서 순화에 이바지한 공은 실로 큰 것이었다. 어떤 곳(홍남, 응기, 나남 같은 곳)에서는 불과 4,5명의 청중을 앞에 놓고 맥없는 연주를 한 적도 있었다. 그때 우리들 가운데는 그만두자는 수가 많았지만 그대로 강행시킨 현 선생의 의무감과 굳은 의지에는 감탄을 아니할 수 없다.

1933년 이전과 1933년 이후에도 남성 4중창단이 있었지만, 1930년부터 1933년 봄까지의 4중창단은 명물 중의 명물로 서울은 물론 방방곡곡에서 대단한 인기 속에 열연한 것 같다. 키다리 베이스에 신원근, 익살 단판가 황재원 등이 끼었던 4중창단은 불균형의 체구부터가 폭소를 자아냈고, 익살맞은 노래도 섞여서 빠져서는 안 될 프로그램의 하나였다. 현 선생은 사교가 넓고 사업적 두뇌가 비상하여 일본 동경 콜럼비아 레코드 회사로 우리 4중창단을 이끌고 노래(교가, 응원가 등도)를 취입하기까지 했고, 현 선생은 청색판 독창자로 명곡을 취입, 판매하게 되었다. 이 4중창단의 테너 파트의 필자가 졸업하자 전 음악대학장이던 이인범이 바톤을 이어받아 활약한 바 있다.

여러 가지 음악 행사가 많았지만, 기억에 남는 대연주는 남학생 없는 이전(梨專) 합창부와 여성(女聲) 없는 우리 합창부와 연합 합창으로 하이든 10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천지창조」 중의 “하늘은 말한다”를 공연했던 일이다. 그 당시 드문 대합창으로 장안의 화제에 올랐다. 그때에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즉 합창 속에 나오는 중창 중에 소프라노 이춘자(李春子) 양(후일 바이올리니스트 박정순의 아내가 됨)의 키가 너무 커서 옆에 서게 된 필자가 무색하게 되므로 현 선생의 아이디어로 상자 하나를 놓고 올라섰던 일이다. 지금도 그때가 회상되면 혼자 웃어본다. 이 음악회는 1932년 봄 연주회였고, 이러한 음악부 연주회에서 현 선생의 독창을 늘 듣게 되었다.

“고향 생각”, “나물 캐는 처녀”, “나나”, “산들바람” 등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를 때 앵콜 소리가 연발했고 그의 인기는 충천했다

(그러나 그의 발성은 성악적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발성이었다).

현 선생은 독창자였으며 가곡과 한국 최초의 한국 오페라 「춘향전」의 작곡가였을 뿐 아니라, 합창과 관현악 지휘자였고, 또 후일에는 본격적인 음악 교육가였으며, 음악가 중에서 보기 어려운 사업가이기도 했다. 연희 음악부의 높은 실력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하나는 현 선생의 폭넓은 지도력을 우선 논해야 하겠고, 둘째로는 부원들의 재질과 음악을 향한 열의를 들어야겠다. 부원이 적고 열의가 없으면 별 도리 없었을 것이다.

1937년, 현 선생이 구미를 순찰하던 해, 이진(梨專)에서 가르치던 박경호 선생이 연희 음악부를 대신 지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졸업으로 학교를 떠난 음악부원의 수가 많았고 남은 부원들이 부족했던 까닭으로 그 해의 연주회는 지나치게 대조적으로 저조했다. 이것을 보면 지도자의 우열을 가름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되며, 학생들을 잡아 끄는 현 선생의 흡인력을 우리는 논하지 아니할 수 없다.

현 선생의 귀국 후 다시금 수습하여 본연의 실력이 발휘되기 시작하였으나, 때는 바야흐로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험악해져 감에 따라 음악부의 활동도 침체하기 시작했다. 비단 음악부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종교, 기타 모든 분야에 걸친 불황, 일제의 횡포가 점차 흑심해 가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1940년 11월 추계 음악회를 해방 전 마지막으로 하여, 전시 체제로 돌입한 이 땅의 모든 문화 운동의 숨은 꺼져가고 말았다.

현 선생은 연전 음악부의 일만을 한 것이 아니었다. 종로 YMCA 안에서 때때로 공연하던 중앙 악우회의 자매 그룹인 혼성 합창단을 1929년에 조직하여 지도하기 시작했었고, 음악계 원로 및 중견들과 함께 조선 음악가 협회를 조직하여 이사장에 취임하였으며, 음악가들의 우의 증진과 음악 발전에 진력했던 것이다.

이 협회가 종전(終戰) 후에는 대한 음악가 협회로 되고, 해방 후에는 한국 음악가 협회(이 협회의 이사장도 저변), 이것이 변하여 한국 음악가 협회(대한 음악가 협회와 문종의 음악 최고위원회라는 양대 협회의 대립 상쟁이 10여 년 간 지속하다가 1959년에 병합되어 이루어진 협회)로 개

칭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간교한 간섭과 제동이 심해지고 한국인들로서는 음악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현 선생은 부득이 일본 음악가(총독부 촉탁) 평간문수(平間文壽)와 손잡고 “후생 악단”이라는 눈 감고 아웅 하는 조직체를 만들어 시절에 맞는 음악 활동을 하기도 했다. 기개가 크고 넓으면서 활동력이 강한 현 선생의 남모르는 고충이 이 시기에 대단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만하다.

[3]

왜놈들의 발악과 고전의 보람도 헛되이, 허세를 부리며 호장하게 내세우면서 망하지 않는다면 야마도 다마시(大和魂)는 1945년 8월 15일 무색하게도 미국 폭탄에 무릎을 꿇었다. 동포들의 목 메어 외치는 만세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고, 새 삶을 찾으려는 3천만은 금방 나라의 큰 뜻이 이룩된 줄 알았지만, 날로 혼돈만이 계속되고 사상적 분열이 심해져 갔다. 음악가 중 어떤 이는 음악 동맹이라는 간판 아래 권력을 휘두르며 날뛰기도 했고, 남의 피아노를 강제 탈취하기도 했는가 하면, 심지어 동란시에는 저편에 동조 아부하다가 북행한 자도 있지만 이쪽에 남아 버젓이 큰소리 치며 일하는 애매한 존재도 없지 않았다.

현 선생은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음악가 협회를 강화하는 한편, 서울의 괴명물이었던 남산의 왜놈 신사(神社) 자리에 경성 음악 전문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수업하기 시작했다. 교수진의 확보도 문제였지만, 제일 급한 것은 교수의 대우와 운영 자금난이었다. 그렇지만 수완 좋은 현 선생은 거뜬히 조달 처리해 나갔는데, 이것은 절대 과소평가 못할 큰 일이었다. 여기서부터 그는 본격적인 교육가의 면모를 갖추었고, 한편으로는 해방 전까지 할 수 없다고만 생각해 오던 오케스트라를 일선에서 조직하여 지휘하며 운영해 나간 그의 무서운 힘과 의지에 탄복해 마지 않는다.

그는 성악가였고 작곡가였으며, 교육가였고 교향악 운동의 선구자였다. 우리나라에는 해방 전에 교향악단이라기보다 오케스트라라

는 소규모의 조직체가 있었으니, 그 모체는 1929년에 조직(박경호, 현제명)되고, 세브란스 병원 치과의사 부스 박사의 영부인이 지휘했던 중앙 향우회 오케스트라, 경성제대(일본인의 수가 우세했음) 오케스트라와 연희의 오케스트라, 경성 중앙방송 오케스트라(홍난파 지휘), 그리고 후일 이종태가 주재하던 경성 관현악, 그리고 후생악단 등을 들 수 있다.

해방되던 해인 1945년 9월에 교향악 운동에 뜻을 가진 분들을 규합하여 조직해 보자고 해서 회합을 거듭한 나머지 고려 교향악 협회를 우선 조직했는데, 그 중심 인물이 바로 현 선생이었다. 한 달 후인 10월에 역사적인 고려 심포니 악단의 창립 연주회가 독일 유학에서 금의환향한 계정식(1934년 귀국) 지휘로 수도극장(현 스카라극장)에서 베토벤 심포니 제 5 번으로 첫 테이프를 끊었다. 다음해인 1946년 3월 16, 17 양일에는 국립극장(명동 예술극장)에서 제 1 회 정기 공연회를 열었는데, 여기 그 순서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베토벤 교향곡 제 6 번 「전원」
2. 슈베르트 교향곡 제 8 번 「미완성」
3.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
4. 베를리오즈의 「헝가리 행진곡」

가만히 극장에 앉아서 심포니를 들으며 즐거움을 느끼기는 쉬운 일이지만, 없던 심포니 조직체를 만들기까지의 고심과, 적지 아니한 단원들에게 줄 매월의 보수 조달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단원들과 운영자만이 아는 고통이었다. 특히 현 선생은 경성 음악 전문학교와 교향악단을 운영 유지하기에 동분서주하면서 사재를 털고 모금하곤 하였는데, 당연히 그 노고에 감사해야 할 일이다. 몇 회를 거친 후로는 김성태, 임원식, 김생려 등의 지휘로 연주가 지속되다가 제26회 연주회를 끝으로 사상 최초의 교향악단인 고려 교향악단은 해산의 쓰라림을 맛보게 되었다.

해산 전에 고려 교향악단의 총무로 일하던 김생려가 사정에 의하여 사임하자 몇 단원이 탈퇴하고는 김생려 주체의 서울 관현악단이 조직되어 민중 음악 운동을 표방하고 주로 영화관 등의 무대 위의

연주가 당분간 지속되기는 했으나, 그 동안 고려 교향악단과의 알력이 없지 않았고, 탈퇴해 나갔던 단원들이 되돌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파란 많은 고려 교향악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26회의 정기 연주회로써 끝을 고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해산의 가장 큰 원인은 현 선생의 도미로 부재한 시기에 일어난 걸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태가 현 선생의 귀국 후의 수습도 불가능하게 한 정도로 악화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손을 뗀 현 선생은 오로지 경성 음악 전문학교의 행정에만 힘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경영 문제가 쉽지 아니하여 때마침 서울대학교에 병설될 기세에 따라(16년의 긴 관계를 가졌던 연희대학교로의 병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울대학교로 들어가게 되고 현 선생이 음악대학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동에서 서로 뛰어 다니면서 운영금을 모으는 어려움이 없어진 현 선생은 한시름을 덜게 되었고, 다소 한가한 틈을 이용하여 한국인 최초의 오페라 작곡이라는 획기적인 일에 힘을 기울였다. 그 작품이 바로 「춘향전」이다. 이 작품은 드디어 1950년 5월 명동 국립극장에서 작곡자 자신의 지휘로 처녀 상연되었다.

우리네 문학 작품으로 어린아이들까지 잘 아는 「춘향전」이라 장안 사람의 입장이 물밑듯하여 비명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하는 춘향과 이도령의 2중창 멜로디의 일부분은 당시 젊은이들의 흥흥거리는 콧노래가 되어 버렸다.

여기서 현 선생이 연전 시절에 두드러지게 편 활동의 몇 가지를 더듬어 열거해 보고자 한다. 지금은 전국 주요 도시에 산재한 각급의 학교에서마다 음악 경연 대회가 열리고, 또한 주요 신문사 주최의 경연 대회를 비롯하여 많은 행사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 시작은 바로 1932년 봄에 현제명 선생이 창안하여 실시한 제 1회 “전 조선 남녀 중학교 현상 음악 대회”라는 긴 이름을 가진 경연 대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당시 경연 종목은 독창, 바이얼린·피아노 독주, 밴드, 합창

등이었는데 1937년까지 6회의 경연 대회를 가짐으로써 음악에의 의욕을 북돋우어 주었고, 합창, 밴드 등의 단체 음악에도 크게 활력을 가해 주어 음악으로 크게 이바지했다. 현 선생이 서울대학교로 가기 전에 길러낸 음악가 중에서 현 음악계에서 크게 활동하는 거물들이 적지 않음은 우연의 일이 결코 아니다.

현 선생은 사회적 활동도 지대했고 분망했다. 서울시의 문화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 예술원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세계 도처에서 열리는 여러 국제 음악 회의에 참석했는가 하면, 국제 음악 교육 연합회 한국 카운셀링 이사장 등으로 쉴 사이 없이 일했다.

제한된 지면에 도저히 그의 업적을 일일이 기록할 수 없다. 다만 회갑을 넘기지 못하고 많은 일을 남긴 채 1960년(4·19 당시) 희망의 나라로 가지고 말았다. 더 계셨더라면 음악계의 발전은 더 활발했을 텐데!

〈글·이유선/전 중앙대 교수〉

[4]

현제명 박사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정녕 사람은 가도 노래는 남는 것. 그가 한국 음악계에 남긴 찬란한 공로는 오늘도 우리들이 그의 노래를 애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한다.

그는 서정색 짙은 명 테너였고, 그의 작품 역시 서정으로 일관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음악 교육자로서 한국의 음악 발전에 끼친 공은 정녕 선구자로 불리움에 손색이 없다. 박사는 성악, 창작, 교육을 함께 이룩한 삼상(三相) 음악가이다.

초창기의 음악가들이 다 그렇듯이, 현 박사도 기악과 성악 수업으로 시작하여 나중에 창작 활동으로 영역을 넓혀간 사람이다. 더구나 1920년대부터 8·15 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 창작은 거의 동요와 가곡이 대중을 이루었기에 더욱더 그의 창작은 독보적이고 음악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대구 계성학교, 평양 숭실대학을 거쳐 미국과 독일에 유학하고 돌아온 박사는 1930년 귀국하여 연희전문학교에 봉직하면서 31년에

는 창작 가곡 11곡을 모아 「현제명 작곡집 제 1 집」을 출간했고, 33년에 작곡 발표회를 가졌다.

“나물 캐는 소녀”, “니나”, “희망의 나라로”, “고향 생각”들은 서정주의에 입각한 대표작이었다. 언뜻 생각하면 민족적인 울분이나 구원에의 희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가곡은 제 3집에 이르기까지도 계속 조형보다는 민중이 스스로 부르면서 삶의 애환을 직감하는 가곡이었다. 그의 가곡에는 강인한 노스탈지아가 깔려 있어, 망향이나 애수를 통해 내민족의 안위를 소박하게 바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부를 수 있고 칠 수 있는 연주가였기에, 창작은 항상 다분히 능동적이고 연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1924년 10월 20일 경성 중앙 기독교 청년회관(YMCA)에서 열렸던 전국 남녀 전문학교 연합 대음악회의 프로그램을 보면, 평양 숭실대 학생인 현 박사와 박경호 씨와의 피아노 연주 순서가 눈에 띄는 바, 그때까지만 해도 박사의 성악가적 성장은 다분히 가려져 있었다. 그의 작곡가로서의 기반이 굳어지기는 미국 유학 중 음악 박사 학위까지 받은 음악학교에서였지만, 그의 창작적 발상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모국, 특히 대구, 평양의 자연이나 인경 속에서 충분히 움터 있었다. 그의 작품은 서정주의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정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사상(事象)을 대상으로 해서 겨레의 공통적 동의와 정신의 동일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박사는 신음악에 신각하여 새로운 감각, 현대적 인식을 서정 속에 부담 없이 도입하고 있다. 서정주의는 여운을 남기는 데 특질이 있기에 그의 작품을 듣고 나면 아련한 향수가 가슴에 밀려든다. 그의 작품, 특히 가곡이 이렇듯 서정성이 강한 것을 이해하면서도 해방 후 다시 부르게 된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의 노래에서는 경쾌한 악상 속에 애국 애향에의 분발이 솟구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강한 서정성은 항상 곡의 저변을 이루고 있다. 즉 역센 행진을 연상시키면서 내 나라의 풀 한 포기, 이슬 한 방울, 기울어져 가는 조각달들

에 대한 애린이 각 귀질의 디테일이 되어 있다. 그의 창작적 대접성을 이룬 것은 6·25 전해에 완성된 오페라 「춘향전」이다. 작사자 이석구 씨가 대중극 출신이라는 점에서 창작상의 위화감이 생기기라는 기우도 없지 않았으나, 작곡자가 회구한 것은 손쉽게 민중의 귓전에 남겨질 노래 귀질이였다.

비록 1948년 1월 국제 오페라사(의과 동문 이인선 주재)가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전막을 공연함으로써 한국 오페라사의 기점이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우리 오페라의 정립은 50년 5월 「춘향전」 공연에 두게 된다. 피난지 부산 공연 때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친히 「기녀 수절춘향독보」(妓女守節春香獨步)라는 휘호까지 보냈지만, 춘향전이라는 고전 문학 작품의 묘미는 부르고 듣기 쉬운 노래의 기복으로 명암지어져 국민들의 보편적 동의와 공감을 자아냈다.

이탈리아가 남긴 명 테너 스키피, 지글리, 스테파노들이 불후의 테너로 기억되는 것은 강한 서정성에 있다. 현 박사가 서정적 가창자로 한국 성악사에 기억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 한마디로 서정 가수란 우선 목소리 자체가 맑고 감미로워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는 심상에 애환의 발상이 짙게 터 잡아야 한다. 지난날 박사의 독창을 들은 올드 팬들은 기억하거니와, 노래를 듣고 난 뒤 민족의 절규라든가 통곡은 실감하지 않지만 불현듯 눈가에 이슬이 감돌고 애환을 느끼는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물론 이것은 그의 음색과 창법에 따르는 제너럴 이펙트이지만, 그가 부르는 가곡이 거의가 풍토성 있는 자기의 창작이라는 데서 더욱 실금을 울리며 연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그의 서정 창법은 수제자인 전 연세대 음대학장 교 이인범 교수에게 계승되어 이차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이 교수의 요절로 한국 서정 가창의 정립은 또 다시 차단이라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 오늘날 현대적 창법을 숙달한 음색과 음질 좋은 유망한 테너가 계속 배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례의 애환을 심상에 소중히 지니고 토래실을 한 줄 한 줄 풀어 나가는 듯한 야릇한 서정을 구가하는 가창자는 너무나 희귀하다.

그의 음악 교육가적 사명은 미국 유학에서 귀국한 직후인 1930년 로디 히버 씨가 지급해 주는 봉급을 받고 연희전문학교에 봉직하면서 실천으로 이룩되었다. 그 당시 연희전문은 비록 음악 전문과가 없었으나, 문과생을 주로 하여 전교생을 망라해서 합창부, 관현악부를 조직하고 음악의 명문이었던 숭실전문 음악부와 쌍벽을 이루었다. 음악 교육가로서의 그의 벅찬 의욕은 춘추 2회로 13도에 걸친 대외 순회 공연을 통해 청중이라는 조직체를 전국 각지에 파급시키는데 있었다. 이러한 동안 문하생에게 음악 전문가로의 길을 키우고 열어 김장익, 이유선, 김성태, 황재경, 김성도, 최성우, 이인범, 김생려, 정희석, 문학준, 광정선, 한태일, 김광(북원), 임동혁이 배출되었다. 연희전문 관현악단의 활동은 일반 민간 관현악단 운동을 연쇄 촉구하여 34년 경성 관현악단, 36년 경성 방송 관현악단, 40년 조선 교향악단의 탄생을 보게 된 것이다.

1949년 9월 15일 현 박사는 고려 교향악단 창단에 참획, 동년 10월 수도구장에서 이 나라 교향악단의 본격 공연을 실현시켰다. 그러나 박사의 이상은 뮤직 콩세르바트와르에 있었기에, 46년 모운숙 씨 등과 경성 음악 전문학교를 설립한 후에 국립 서울대학교에 흡수, 예술대학에서 음악대학으로 독립시켰다. 이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기라성 같은 연주가, 작곡자를 국내외에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설립자 현제명 박사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몇 해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이 현제명 기념관 설립을 알리자 서울 음대 동문 관계자들이 자기네 영역을 침범한다는 반발을 보였는데, 그것은 지나친 생각으로 여겨진다. 현제명 박사의 음악 교육자로서의 시발점이 연희전문학교였고, 여기를 기점으로 한국 음악사의 새로운 개척이 진전되어 오늘의 음악 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작곡가, 성악가, 음악 교육자로서의 현제명 박사가 남긴 업적은 유독 연세대학교의 자랑일 뿐 아니라 한국의 자랑으로 길이 겨레와 함께 기억되고 반추되면서 뚜렷이 부각될 것이다.

〈글·유한철 / 음악평론가·작곡〉

진정한 교육자의 본보기

장 기 원

(1903—1966)

1

백양로를 따라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보면 체육관 옆에 아담한 2층으로 된 흰색 바탕에 짙은 주황색 가로무늬로 된 건물을 보게 된다. 그 건물이 바로 장기원 기념관이다. 비록 큰 건물은 아니지만, 교내외를 막론한 각종 문화 행사나 크고 작은 각가지 모임에 이용되어 지금은 꽤 널리 알려진 건물이라 하겠다. 아다시피 이 건물은 고(故) 장기원 선생이 연세대학교에 남긴 학문적, 교육적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선생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모금한 2,700여만 원의 기금에다 학교 당국에서 내놓은 그와 비슷한 액수를 합친 돈으로 이룩하게 된 건물이다.

비록 제자들의 모금이 건축비의 전체가 아닌 반을 차지하였다고는 하나 그만한 건물이 제자들의 정성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각박한 세상 인심에 비추어 그 같은 예는 그리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돈 많은 실업가도 아닌, 거개가 교직을 가진 제자들이 은행에 매월 꼬박꼬박 정기적금한 정성 어린 돈으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스승에 대한 제자들의 흠모와 추앙심을 말해 준다 할 만하다. 특히 이 사업을 시종일관하여 주관하였고 또 건물의 설계로부터 내부 시설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심혈을 기울여 이룩하게 한 분을 잊을 수 없다. 그 분은 바로 현 총장 안세희 박사임을 이 기회

에 밝혀 동문들과 더불어 그 노고에 감사하는 바이다.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 선생의 뜻을 위한 기념관을 세우게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고 장기원 선생에 대한 스승으로서의 높은 평가와 교육자로서의 귀감 됨을 기리어 기념하기 위한 뜻에서 이와 같은 사업이 비롯된 것이라 하겠는데, 여기 또한 연세춘추사에서 이와 같은 편집을 의도한 뜻도 우리 연세에 흐르고 있는 숭고한 기독교적 사랑과 사제지간의 정신적인 혈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는 그 뜻이 같아 의의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선생은, 세브란스 의학교(당시에는 제중원 의학교라고 불렀음)가 창설된 지만 4년 후인 1903년 6월 16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장학섭 씨의 장남으로 평안북도 용천군 양하면 726번지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만 해도 서당에서 한문 공부나 하는 것이 고작이었는 데, 선생은 일찍 시세의 깨달음이 있었던 터라 1920년 3월에 선천중학교를 졸업하자 곧 서구 학문의 요람인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또 선생은, 세브란스의 예비승 박사와 연희전문학교의 원한경 박사 두 분이 기독교 계통의 교육 기관 통합을 위해 도미했던 해인 1925년 3월에 연희전문학교 수물과를 졸업하였다.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서구 학문으로서의 고등 교육이 도입된 때이다. 그 당시 연희전문학교에서는 이미 베커(A. L. Becker) 박사의 수학 및 물리학 강의, 밀러(E. H. Miller) 박사의 화학 강의, 이원철 박사의 천문학 강의 등 서구적 학문의 강의를 개발되어 있었다. 이는 실로 우리나라의 과학 교육의 효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선생은 만 1년 간, 그러니까 1925년 3월부터 1926년 3월까지 조수로서 모교인 연전에 몸을 담고 있었다. 그 후 1926년 4월 일본으로 건너가 동북 제국대학 이학부에 입학하여 수학을 전공하게 되었는데, 일본에서는 그 당시만 하여도 조선에서 받은 교육 과정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동북제대에서는 장기원 선생을 통해 조선 학생의 교육 수준도 평가할 겸 연희전문학의 학적 수준이 미흡하다고 하여 조건부로 선생의 입학이 허락되었던 것이다. 만일 수준 이하로 평가되면 앞

으로는 연진 출신에 대한 입학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실력이 인정되어 그 곳 학생들을 따라갈 만큼의 성적이 된다면 앞으로라도 계속 연진 출신을 받기로 한다는 뜻이다. 이라고 보니 선생으로서는 참으로 무거운 책임을 두 어깨에 지고 현해탄을 건너간 셈이었다.

과연 그 곳에서의 선생의 성적은 우수하여 일본인들을 놀라게 하고, 노력한 보람이 있어 최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되었다 한다. 후에 선생의 제자이자 경북대학 총장을 지낸 박정기 박사도 장 선생의 추천으로 동북제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많은 제자가 동북대학에 유학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은 장 선생의 놀라운 성적 덕택이었다 하겠다. 전하여지고 있는 이야기로, 동북대학 시절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우수하였지만 특히 사면기하에서 교수에게 각 별히 인정받아서 졸업 후에도 계속 그 곳에서 연구 생활을 할 것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선생은 1929년, 그러니까 그 해 11월 유명한 일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던 3월에 동북대학을 졸업하자 곧 귀국하여 4월부터 이화여자전문학교에 전임교수로 부임하는 한편 모교에 강사로 봉직하였다. 이것이 선생의 약 40년 간의 교육자 생활의 출발이었다. 그 후 1939년 9월까지 만 10년을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강의를 담당하였는데, 들은 바로는 선생은 형편상 화학과 영양화학을 강의하였다고 한다. 이 같은 이화전문에서의 강의는 오히려 그 후에 이룩한 일에 있어 여러 가지 뜻에서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가령 후일 연희전문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있을 때 이학부장직은 이원철 박사가 맡았지만 “실무”란 직책에 있었는데 바로 선생이 실무를 도맡아 하게 된 연유라든가, 또는 해방 후 이공대학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학과를 신설하는 문제, 교수 채용 및 교육 과정의 재정비, 시설의 확장 등 허다한 난관을 돌파하여 오늘의 이공대학으로 키우게 된 연유가 다 같이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의 폭넓은 강의에서 얻어진 경험과 지식이 아닌가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선생이 이승을 하직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리나 화학을 맡은 젊은 교수

들이 선생을 찾아와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대목을 가지고 토의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선생이 물리, 화학, 영양학, 생물, 기계, 건축 등 이공계 전 분야에 걸쳐서 상당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뜻한다. 어떤 때 선블리 선생에게 설명하려고 드는 젊은 교수들에게는 벼락을 내리듯 열을 내던 광경은 지금도 우리의 눈에 선하다.

선생은 미·일(美·日) 간의 감정이 점차 악화되어 가기 시작하던 1939년 9월에 이화여자전문학교로부터 연희전문학교로 옮겼다. 연전에서는 물리수학과장직을 맡아보는 한편 이학부장 이원철 박사를 도와 이학부장 “실무”직을 겸직으로 보좌하였다. 이에 더하여 1943년 3월부터는 경성대학 부속 중등교원 양성소의 강사로 출강하였다. 실로 교육자답게 선생은 교육에 대한 일념으로 일관한 외에 아무것도 관여한 바 없었다.

선생에게는 원래 약간의 유산으로 받은 재산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을 천직으로 삼았던 선생이라 박봉으로 생활하는 외에 여러 방면으로 문헌 수집에도 힘을 쓴 나머지 가산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가산을 투자하여 서울 근교인 벽계에 임야를 구입한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후일 그 곳에 선생의 유해를 모시게 될 줄이야 선생도 알지 못했으리라. 생각하고 보면 알 곳은 인연이라고나 할까.

그 당시 강의에 바쁘면서도 틈틈이 여가를 만들면 신간 서점이나 고서점을 두루 살피는 것이 또한 선생의 일과 중의 하나였다. 특히 우리나라 수학사의 자료 수집을 위한 노력은 대단하였다. 아마도 동북대학에서 선생의 스승인 후지하라 마쓰사부로(藤原松三郎) 박사로부터 자극을 받은 것 같았다.

후지하라 박사는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수학계에서는 외국에까지 널리 그 명성을 떨치던 학자였다. 특히 일본 수학사와 중국 수학사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한 분이다. 그 분이 장 선생에게 많은 서신 연락을 했었음은 물론이다. 일본 수학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건너갔기 때문에 때로는 중국에서도 구할 수 없을만큼 귀중

한 책을 우리나라에서 선생이 찾아낸 것도 있었다. 그래서 후지하라 박사의 글 중에 “경성에 있는 장기원 선생이 구한 자료”를 인용한 것을 몇 번 본 일이 있다. 장기원 선생의 강의에 의하면 원(元)의 주세걸(朱世傑)의 저서인 「산학계몽」이 발간되기는 1299년의 일인데, 「조선판 산학계몽」(朝鮮版 算學啓蒙)은 그 후 1440년경 조선에서 다시 인쇄되었다 한다.

이 「국초인본」(國初印本)은 일본 궁성도서 소장으로 남아 있으며, 1592년에 다른 산서(算書)와 함께 일본에 전하여진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초인본」을 찾아볼 수 없음이 유감이다.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일본 수학인 화산(和算)을 발전시킨 것도 바로 이 「국초인본」으로부터 비롯하였다고 선생의 유고에 적혀 있다. 계속하여 선생의 유고에는 명치 17년(1660년) 전주부의 김시진(金始振)에 의해 「중간 산학계몽」이 인쇄되었다고 적혀 있다. 이어서 더욱더 중요한 대목은 이러하다.

중국에서 자취를 감춘 귀중본인 「산학계몽」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차례의 전란을 겪으면서도 네 차례나 간행되었다는 것은 「중간 산학계학 서문」(重刊 算啓學 序文)에도 있다고 한다. 선생은 이와 같은 사실을 중요시하고, 우리나라에 뛰어난 수학자가 많았다고 보았다. 그들 수학자들이 중요한 수학 이론에 통달한 나머지 그와 같이 여러 번 중간이 됐으리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수학자들이 중국 수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을 자랑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선생의 노트 유고는 이와 같이 중요한 「산학계몽」의 목차와 오늘날의 산법을 대조하는 대목에 와서 끝나고 있다.

2

1945년 해방이 된 후 연전은 일제 말기 강제로 개편된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로부터 다시 연희전문학교로 환원되어 출발하였다. 선생은 그 해 10월 교수로 임명을 받았다. 백낙준 박사가 교장으로 취임한 것도 같은 해 12월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미·소 공동위원회 회담이 개막되던 날, 그러니까 1946년 1월 2일에 교내에서는 이순

탁, 조재한, 박효삼, 민병대, 조의설, 김윤경, 서두수, 이환신 등 여러 분과 함께 선생이 “대학 준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46년 연희대학교로 인가될 당시 선생의 보직은 이학원장을 돕는 “실무”직으로 되었고, 물리수학과장을 겸직했다. 강의는 물리학과 수학을 담당했다. 이때만 해도 이학원이래야 수학과, 물리기상학과, 화학과 등 셋뿐이었다.

해방 직후 정치적 불안이 몰고 온 혼란기에 이학원으로부터 이공대학으로 확장하는 일은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1950년에 수학과, 물리기상학과, 화학과 외에 새로이 생물학과, 전기공학과, 공업화학과, 의예과 등 4개 과를 신설하여 7개 학과로 이루어진 이공대학으로 확충시키기에 이를 때까지의 그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이리하여 연희전문학교는 연희대학교로, 이학원은 이공대학으로 되면서 선생이 초대 이공대학 학장으로 취임했다. 그런데 그 무렵에는 각 방면에서 인재가 귀하던 때였으므로 확장과 신설에 따라 일어난 가장 어려운 일의 하나가 교수 확보 문제였다. 이때 선생은 확고한 신념과 용기로써 이 난국을 극복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였다.

그 해, 즉 1950년에 다행스럽게도 수학과, 물리기상학과, 화학과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선생은 주저 없이 우수한 졸업생을 골라 바로 전임강사로 채용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몇 가지 의미에 있어 선생이 남긴 공로의 하나로 평가되어, 지금에 이르러서도 많은 제자들에 의하여 추앙되어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 우리 대학교에서 초창기의 교육 내용과 학문의 수준에 있어 자신감이 있었음을 대내외에 보인 데 그 뜻이 있다고 본다. 선생은 확고한 교육관을 가지고 교육에 임한 분이었고, 또한 교육의 성과에 관하여도 자신에 차 있던 분으로 여겨진다.

둘째, 젊고 의욕에 찬 제자들에게 강의할 기회를 주어 장차 연구와 큰 업적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그 의의라 할 수 있다. 사실 그 당시에 강의를 시작한 대부분의 제자가 현재 미국을 비롯한 다른 여러 선진국 대학에서, 또는 국내에서 눈부시게 활약

하는 중진 교육자로 성장하였다. 이는 선생의 교육이 성공적이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제, 제자에 대한 선생의 사랑이 지극함을 그와 같은 일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선생은 강의를 맡긴 제자에 대해 늘 격려했으며, 외국에 유학할 기회를 애써 주선하여 주기도 했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적극 도와주었던 것이다.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선생은 학교를 끝까지 지키다가 피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런데 인민군 치하의 일이었다. 6·25 사변 전 좌익 운동의 주동자로 제적시킨 학생이 있었는데, 사변이 일어나자 그 학생이 학교에 나타나 매일 선생을 협박 공갈하며 괴롭혔다. 선생은 끝끝내 피하며 학교를 지키다가 1·4 후퇴 때는 할 수 없이 부산으로 피난하였다.

부산으로 내려간 선생의 가족은 연고지도 없는 낯선 타향인지라 길바닥에 노숙해야만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부산에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다. 고(故) 우선구 선생은 선생의 딱한 처지를 듣고 즉시 선생의 가족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 한 집 식구가 되어 지내도록 도와주었다. 학교에서 영도에 임시 판자집을 짓고 천막을 세우자 흠뻑 젖었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피난지 판자집에서나마 연희대학이 다시 문을 열 무렵, 선생은 학교에서 지은 판자집으로 이사 오셨다. 방이래야 겨우 두 평 남짓한 칸막이방 하나뿐이다. 서재결, 칠실결, 응접실인 방이다. 그러나 선생의 생활은 조금도 불만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제자를 만나면 피난지에서 이렇게 무사히 그들의 얼굴을 대하게 됨을 반가와했고 그들 가족들의 안부까지 물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제자들의 소식을 걱정했다. 제회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선생의 인자로우미 얼굴에 역력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군복 차림의 한 미국 병사가 학교 앞을 지나다 들르게 되었다. 마침 선생이 수학을 강의한다는 것을 알고 반가이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 병사는 미국 어느 대학에서 수학과 대학원생으로 공부하던 중 입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생은 수학을 전공한다는 그 병사와 수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병사가 취미삼아 학생들과 세미나를 갖기를 원하자 이를 쾌히 승낙했다. 그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필자도 일요일마다 학교에 나가 그 병사의 강의를 들은 일이 생각한다. 교재를 타이핑해 와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의 강의는 매우 진지하였다. 선생은 그 병사의 강의를 영어를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적극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다소의 무리한 일일지라도 강행하는 것이 그 분의 성미였다.

피난지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생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선생도 좁은 단간방에서 고생스러운 생활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부담스러웠고, 어떤 학생은 학업을 중단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사정을 들어 보면 모두가 딱한 일이다. 며칠을 두고도 등록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을 불러 선생의 박봉에서 가불하여 등록시킨 일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필자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휴학계를 제출하면 휴학계는 없어지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 아직도 그때 입은 은혜를 잊을 수 없다. 오늘날의 스승과 제자 관계로 미루어 볼 때 그와 같은 미담은 요사이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선생의 제자에 대한 사랑은 한량없이 깊었다. 정부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자 연희대학교도 서울 본교로 옮겨졌다. 학교 건물은 전란에 파괴되었고 그나마도 비좁았다. 실험 기구와 시설을 새로이 장만하여야 했다. 새로운 건설이 시작되었다. 문자 그대로 불철주야 분주한 날이었다.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 사택에 입주한 선생은 학교가 곧 그의 집이었다.

학교에 오가는 길에 선생은 동네 아이들이 나무를 꺾는 광경을 보게 될 때가 많았다. 야단치려고 하면 벌써 아이들은 산으로 도망을 친다. 그러면 선생도 같이 뛰어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일화이다.

새로이 학과가 늘어나고 학생수가 증원됨에 따라 교실과 연구실도 따라서 확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온 사회가 재건을 서두르기 때문에 건축 자재를 구하기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자원 조달의 사정도 극히 좋지 못하였으나 선생은 백방으로 노력하여 학교 당국으로부터 과학관의 신축 계획을 관철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 는 건물의 설계 구상으로부터 시공 감독에 이르기까지 손수 뛰어다녔고, 아니한 일이 없었다. 공사 현장에서 시공자들을 책망하던 광경이 지금도 내 눈에 선하다. 지금에 와서 보면 방의 배치라든가 방의 크기가 이상적이 아닌 점도 있기는 하지만, 선생은 온갖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활동을 하게 된 것도 선생의 건강이 좋았기 때문이다. 평소 유별하게도 건강에 조심스러웠던 선생은 언제나 피로를 잊고 활동했다. 그와 같은 건강은 타고난 선천적인 건강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별다른 운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젊어서 익힌 테니스를 가끔 즐기는 편이었다. 선생은 평소에 음식물에 대한 주의가 깊은 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식을 좋아하지 않았다. 피치 못할 사정일 때에는 호주머니에 작은 병을 넣어 왔다. 간장을 담은 병이다. 시중에서 파는 음식점의 간장은 너무도 무책임하게 제조되어 그 속에는 몸을 해치는 독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또 선생과의 대화에서 건강 문제와 섭생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가졌던 일들이 지금도 자주 생각난다.

[3]

착공한 지 2년 1개월만인 1956년 10월 16일 과학관(연희관으로 명명되었음)이 준공되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연건평 2,014평이라면 국내 최대 규모였다. 이 과학관은 연희의 자랑스러운 과학의 전당이였다. 당시의 이공대 재학생이래야 겨우 9백 명에 불과하였다. 교실 22개, 연구실 6개, 준비실 20개, 공작실 20개 등 81개실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학생수의 다소간의 증가를 예상하고도

이만하면 공간을 충분히 잡았다 할 수 있었다.

이 건물이 약 2억 1천 7백여만 원이란 거액이 소요되어 완성되기까지 당시의 총장 백낙준 박사의 공이 절대적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돈만으로 이와 같은 큰 규모의 건설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선생이 명예나 공을 내세우기 위해 한 일은 결코 아니었다. 그저 이공대학장이란 그 직책을 충실히 다한다는 것과 순수한 애교심과 같은 하나의 신념으로 공사에 충실하였을 따름이다.

과학관이 준공된 지 약 2년 반 후인 1959년 3월에 선생은 이공대학장직을 사임하였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이래 약 13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 온 셈이다. 일부 교수들의 평과 같이 너무 오랫동안 보직을 맡아 왔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던가 한다. 1945년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서 겨우 안정을 찾으려던 1950년에 6·25가 일어났고, 그로부터 복구와 재건이 시작되었을 무렵, 그러니까 1953년부터 과학관의 신축 문제가 대두되어 1954년 2월 1일의 이사회에서 도서관, 체육관 및 임시 교사 신축 문제와 함께 과학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의 조달 방법이 정식으로 논의되었다. 그 당시부터 선생은 과학관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자주 백낙준 총장과 의논하곤 하였다. 이때의 상황으로는 과학관이 완성될 때까지 선생이 학장직을 겸직함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였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선생은 그 사이 사석(私席)에서 몇 번 학장직을 물러나야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이야기로써나 그분의 성품으로 미루어 보나 학장이란 보직을 오래 맡게 된 것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물론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학장직이 맡겨짐으로써 여러 가지 병폐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선생의 학장 말기에 몇몇 교수들이 인사 행정의 개혁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선생은 때를 늦추지 아니하고 평소 가졌던 소신대로 1959년 3월 학장직을 사임하였던 것이다. 오해

가 있었던 일부 교수들도 이로부터 선생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고 더욱더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본다.

1958년 10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선생은 30년 근속 교육상을 받았다. 교육에 평생을 바친 선생에게 당연한 상이었다.

1960년 4·19를 전후한 정치적 혼란이 몰고 온 바람으로 학원의 질서도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누구도 내일의 사태를 예측할 수 없는 판국이었다. 학생은 학생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새로운 학원 질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1960년 5월 18일 연세대는 학교 기구 개편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격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초대 총장의 사임이 있은 후 최현배 선생이 총장 서리로 잠시 자리를 지키는가 하면 다시 원일한 선생이 서리로 앉는 등 갈팡질팡하였다. 1961년 2월 11일 새로이 후임 총장으로 고병간 박사를 맞이하기까지 반년 간에 걸쳐 연세대로서는 크나큰 혼란을 겪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 총장은 1961년 9월로서 정년퇴직하였다. 불과 1년도 채 우지 못한 셈이다. 그만큼 후임 총장 물색이 어려웠음을 말해 주는 일일 것이다.

제 3대 총장을 물색하던 1961년 9월부터 1961년 11월까지 짧은 기간이었으나 선생은 총장 직무 대행을 맡았으며, 다시 제 3대 총장으로 윤인구 박사가 취임하던 1961년 11월부터 1963년 4월까지 잠시 동안 부총장겸 이공대학장직을 맡았었다. 그 사이 교무에 분주하면서도 선생의 전공 분야에 있어서 조금도 방심하지 아니하였다. 피치 못할 회의 관계로 몇 차례 휴강은 있었어도 평교수 때와 같이 강의에 충실하였으며, 틈만 있으면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었다. 특히 일생을 두고 정리하던 한국 수학사와, 수학에 있어 세기의 난제로 유명한 4색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연구가 있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로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시도한 끝에 4색을 n 색으로 확장시킨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뿐만 아니었다. 1952년 3월 이래 대한 수학회 부회장으로 학회 활동 또한 누구 못지 않았다. 당시 수학회 회장이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장 최윤식 박사가 별세한 후 1962년 5월에는 대

한 수학회 회장직을 역임하기에 이르렀다.

선생의 제자인 경북대학교 전 총장 박정기 박사가 벌써부터 선생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매번 선생은 이를 사양하고 말았다. 박 박사는 어쩔 수 없이 연세대 교무처로부터 선생의 생년월일, 이력서, 사진을 구하여 경북대학교 대학원에 명예 이학 박사 학위를 신청하게 된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경북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것은 1962년 3월이었다. 그 후 세상을 떠난 해인 1966년 6월에 우리나라 학자들의 최고 명예직의 하나인 학술원 회원으로 피선되었다. 또 같은 해 7월에 과학기술 국제 총연합회 이사에 피선되었다.

1966년도 추계 대한 수학회 모임이 전남 광주에서 열렸다. 학회장인 선생은 당연히 참석하여야 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고속도로도 없었던 때에 기차로 광주까지 가기로 한 시간이 너무 걸렸다. 할 수 없이 비행기편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고민이었다. 그 당시 비행기 사고가 잇달아 일어났었기 때문이었다. 선생이 광주로 출발하기 전에 유서를 작성하여 연구실 캐비닛 속에 넣어 두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나고 별세한 후의 일이다.

선생은 평생을 두고 귀중하게 수집하던 한국 수학사 자료를 포함한 모든 수학 장서를 학교에 기증한다는 내용이 이 유서에서 밝혀졌다. 이것이 오늘날의 장기원 기념관이 건립된 하나의 연유가 되었다. 지금 그 기념관에는 수백 권의 수학 장서와 함께 역사적으로 중요한 희귀본 등 약 155종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누군가가 이 귀중한 자료를 정리하여 선생의 유지를 받들고 연세 혈맥을 이어 나가게 되기를 갈구해 마지 않는다.

평소 조심스럽던 선생의 성격으로 보나 의욕에 찬 활동으로 미루어 보나 선생은 100세를 넘는 수를 누리게 되리라 믿어졌었다. 만년에 서강대학에 출강할 때에는 출퇴근시 차를 타지 않았다. 혹 동행길의 제자가 차를 타도록 권하여도 사양하였다. 운동삼아 걷기로 하였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차가 안전한 교통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그 분의 지론이었다. 그 당시에는 기회만 있으면 외국에 나가 보려는 것이 통념이었다. 그러나 선생은 그런 때마다 해외여행을 후일로 미루었다. 그것은 비행기 여행을 그다지 미더워하지 못한 탓으로 해석된다.

이토록 건강에 유의하였건만, 선생도 불의의 사고 앞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1966년 신촌 봉원동 골짜기에 조그마한 대지를 장만하게 된 선생은 여생을 보내기에 알맞도록 손수 설계하였던 집을 짓게 되었다. 그 해 11월초 새 집으로 이사를 마친 후 어느 날 뒷뜰에서 벽에 못을 박고 있을 때였다. 사다리에서 못을 박던 선생은 갑자기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넘어진 선생의 머리 뒷쪽이 땅에 솟아 있던 뾰족한 돌에 부딪혔던 것이다. 실로 일순간에 일어난 조그마한 사고였다. 그 후 의식을 서서히 잃게 된 선생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응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1월 5일 오후 3시, 63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돌이켜 보면, 선생은 엄한 교육자이자 자비로운 학자였다. 1950년 세대에 연대에는 “석두”라는 별명이 유행한 일이 있었다. 선생을 장석두라 부르는 학생이 있었다. 머리(성격)가 돌같이 딱딱하여 융통성이 없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으리라 본다. 그러나 그 “석두”라는 별명이 결코 나쁘게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시대에 있어 학생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교수가 “석두” 교수들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 시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진정한 교육자상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언젠가 다시 선생과 같은 교육자, 선생과 같은 학자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글·임정대/연세대 수학과 교수〉

윤 동 주

(1917—1945)

1

5월의 푸르름 속에 아카시아꽃이 눈발처럼 수놓는 계절이면 나는 동주를 생각하곤 한다. 연희전문학교에 다니던 5월의 어느 오후였다. 강의가 일찌기 끝난 캠퍼스는 조용했다. 나는 책 한 권을 끼고 노천극장으로 향했다. 무대 맞은편 잔디 위에 동주가 벌렁 누워서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늘 그가 즐겨 부르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라는 검둥이의 노래였다.

나는 동주(東柱)와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였는지 이젠 30여 년이 지났으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카시아의 향훈(香薰)이 미풍을 타고 우리를 감싸고 또 숲속에선 삐꾸새가 울었느니라 하는 것은 생각한다.

바로 이런 계절에 동주에 관한 글을 써 달라는 것이다. 이것도 무슨 기연(奇緣)인가 싶어 꽤히 붓을 들었다.

스물 여덟 살의 한 생을 산 동주는 스무 해를 간도(間島)에서 지냈고, 나머지 여덟 해의 반은 서울에서, 반은 일본에서 지낸 셈이다. 숭실중학의 1년을 평양에서 지냈으나 그 후 다시 간도에서 중학을 마쳤으니, 평양 시절은 계산에 넣을 것도 없다.

간도의 시절을 또 둘로 나누면, 소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명동(明東)에 있었고,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용정(龍井)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나는 이 용정 시절부터 동주를 알게 되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나의 형이 동주와 같은 중학교에 다니면서 찍이나 친했었다. 동주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기 때문에 나도 가깝게 사귀었으나, 고집통인 나의 형은 동생인 내가 그들 사이에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아랑곳 없이 잘 따라다녔다.

동주와 요한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사설만을 오려 내어 스크랩북에 붙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뒤에 알고 보니 요한은 사설만을, 동주는 문화면에서 시, 동요, 동화 같은 문예 작품만을 따로 모았다고 하니, 동주는 우리 집에 와서 요한의 스크랩을, 요한은 또 동주의 집에 가서 동주의 스크랩을 서로 도와주었던 것이다.

그 후 요한은 열 권이나 되는 사설첩을 나에게 넘겨 주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나는 해방되기 전까지 동주와 요한의 손때가 묻은 이 스크랩북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이젠 그 책도 없어지고, 동주는 저승으로 가고, 요한은 중국에 그대로 남아 있어 지금은 그 소식도 모르고 있다.

은진(恩眞) 중학은 4년제의 기독교 학교였다. 동주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으로 갔다. 그러나 평양의 숭실중학교가 일본 제국주의가 강요하는 신사 참배(神社參拜)를 거부하자 폐교가 되었다. 동주는 다시 용정으로 와서 내가 다니는 5년제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때부터 나는 동주와 단 둘이 만나는 기회가 많았다.

동주는 운동 신경이 제법 예민한 편이었다. 중학교 때에 축구와 농구는 전교 선수는 못 되어도 클래스의 베스트 멤버는 되었다. 평양에서 다시 용정으로 온 그는 농구만 열심히 했다. 그렇다고 선수가 되기 위한 연습은 아니었다. 나도 중학 3,4학년 때엔 농구에 미쳤었다. 그래서 동주와는 농구 코트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피부가 흰 동주의 농구 폼은 보기에든 시원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농구 게임을 두세 번 학교 집에 돌아올 때가 많았다. 그래서 동주와 함께 교문을 나설 때도 많았다. 마침 나의 집은 학교 근처에 있었으므로 나는 집 앞에서 “윤 형! 우리 집에 들러서 놀다 가지” 하여 몇 번 내 공부방에서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동주가 자기 집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책가방을 든 채 그의 뒤를 따라서 그의 집에 갔다. 그때 나는 그의 노트에서 동요를 보았다. 동주가 보여준 것이다.

“빨래줄에 걸어논／요에다 그린 지도／지난밤에 내 동생／오줌싸 그린 지도／꿈에 가본 엄마 계신／별나라 지돈가?／돈 벌러 간 아빠 계신／만주땅 지돈가?”

이 동요는 “오줌싸개 지도”라는 제목으로 1967년 발행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실려 있는데, 1936년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내가 동주의 집에서 읽은 동요가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왜 이를 기억하느냐 하면, 그때 이 동요를 읽고 동생이 알면 기분 나쁠 것이라고 했더니 동주는 픽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나도 어려서 오줌을 싸서 야단맞은 일이 있어.”

“그럼 형이 만든 지도가 아니오?”

“그러나 시에는 동생이라고 해야 귀엽지 않아?”

나도 웃었다. 작품을 미화(美化)시키기 위해 자기가 오줌을 싸고도 그것을 동생에게 넘겨 씌우는 것은 너무 한 것이라고 말하려다가 나는 꼭 참았다. 이미 그는 작품화(作品化)를 위해 귀여운 희생을 감행한다는 시인다운 용기를 갖고 있었다.

그가 태어나서 소학교를 졸업한 곳, 명동(明東)은 간도 땅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아늑한 고장이다. 나도 몇 번 이 고장을 찾은 일이었다. 두만강에서 멀지 않은 이 중국 땅은 한국의 독립 투사들이 개척해서 세운 유서 깊은 고장이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원대한 계획으로 소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 고국을 탈출하여 노서아로, 만주로 간 수많은 독립 지사들이 이 곳을 거쳤고, 또 동북 만주의 독립 운동의 근거지이기도 했다. 동주는 이 고장에서 뼈가 굵고 생각이 굳어졌으니, 그의 시나 사상 속에는 조국의 독립, 왜놈을 향한 항거가 뿌리 깊이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뒤에는 얇은 막한 산이 있는데 여기엔 복숭아나무 등이 꼭 차 있고, 앞에는 내가 있어 조국의 혈맥인 두만강과 이어지고 있다. 기름진 땅엔 수수, 조, 벼가 풍성하고, 마을엔 소, 돼지, 닭들이 살찌 있는 이 고장은

정녕 동주의 시심(詩心)을 더욱 영글게 했을 것이다.

용정(龍井)은 간도의 서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역(異域)이면서 이역이 아닌 한국인의 향수를 달래는 곳이다. 인구는 겨우 3만에 지나지 않았지만, 중학교가 여섯, 큰 교회가 넷이나 있는 교육과 종교를 겸한 도시이다. 해란강(海蘭江)이 흐르는 강변엔 중국 상포국에서 운영하는 큰 공원이 있어서 산책에 가장 적당한 곳이다.

동주가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한 첫번째의 여름 방학이다. 나는 아직 중학생이었는데 용정 감리교회에서 방학을 이용하여 하기 아동 성경학교를 경영했다. 귀향한 유학생들이 이 학교의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동주는 이런 교사로서는 가장 적임자였다. 동주는 나를 여기에 끌어들었다. 이 학교는 새벽 다섯 시에 시작하여 일곱 시나 여덟 시에 끝난다. 동주와 나는 이 수업을 마치고는 몇 번인가 해란강변을 산책한 일이 있었다. 어떤 때는 이화여전에 다니는 예쁘장한(지금은 할머니가 되었겠지만) 여선생도 동행한 적도 있었다. 해란강 기슭에는 비수리나무, 백양, 버드나무들이 우람하게 서 있어 울창한 녹원(綠園)을 이루고 있다. 말이 별로 없는 동주는 이 산책길에서 많은 시를 구상했을 것이다. 나는 주로 그의 시 생산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조수격의 구실을 한 셈이다.

용정 시절에서 동주의 기독교적 신앙은 그의 인간성에 알맞도록 굳어졌다. 흔히 크리스찬이 풍기기 쉬운 형식주의, 위선적인 뉘세가 그에게는 없었다. 주일마다 교회에는 꼬박 나가지만, 커다란 성경책과 찬송가책을 옆구리에 끼고 거리를 활보하며 크리스찬을 과시하는 일이 없었다. 주머니에 영어로 된 성경책(신약)을 넣고 빈손으로 교회에 나갔다. 찬송가책은 아예 들지 않았다. 또 교인들이 부러워(?)하는 찬양대 같은 데는 일선도 안 했다. 조용히 성경을 읽고 묵묵히 남모르게 기도하는 청년이었다. 나는 이러한 동주의 생활을 펴 좋아했다. 나도 영어 성경을 사 가지고 교회에 나갈 정도였으니까.... 나는 지금도 영어로 된 “주기도문”을 반 정도는 외울 수 있다. 이는 내가 동주의 권고로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했을 때 동

주와 함께 처음으로 바이블 클래스(원한경 선생이 주관한 것으로 기억한다)에 참여했을 때에 의우게 된 것이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이라는 주기도문의 첫 대목을 읊조릴 때마다 동주의 열굴이 똑똑히 드러나곤 한다.

동주의 조국을 향한 정열, 일제에 대한 분노, 기독교적인 윤리관, 다정한 휴머니티 등은 이미 그의 간도 시절에 확립되었다고 보아진다.
(글·장덕순/서울대 교수)

2

오면 가게 마련이요, 만나면 헤어지게 마련(生者必滅 會者定離)이라는 우주의 섭리를 중생으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는 하지만, 운동주처럼 늦게 와서 일찍 가고, 또 만난 지 얼마 아니 되어 애처롭게 헤어지게 되는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도 저주스럽고 야속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창 밖에는 새 울음이 봄의 무르익음을 기리고 온갖 꽃들이 향기의 밀물을 온 세상에 넘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소설의 시절에 영영 돌아오지 않는 연희의 벗이요, 겨레의 벗이요, 또 시의 벗인 그의 옛날을 되새긴다는 것은 참으로 비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다. 피할 길 없는 연륜의 짐과 망각의 알곶은 바람은 그 옛날 벗과의 생활을 거의 구름으로 날려 버려 이제 다시 더듬기가 힘들게 되었으니 고인과 세상에 죄송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상심의 뒤안길을 헤쳐 지난날 학창에서 더불어 살았던 삶을 여기 되새겨 보고자 서투른 붓을 드는 것을 용서하기 바란다.

동주를 만나기는 1938년 연희 동산의 문을 두드린 때—지금 따져 보면 묘하게도 꼭 38년의 곱이 되는 셈이다. 당시 식민지의 가혹한 학정하에서 일제의 증오의 대상이 된 연희전문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밖으로 중일전쟁이 확대되어 가기에 안으로는 한국인에 대한 경계가 심하였고, 특히 지식인에 대한 증오는 더 말할 나위 없었다.

이러한 때에 민족 운동의 본산인 연희 동산을 찾아오는 이들은

다 제각기 뜻이 있어 온 젊은이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그러한 자세와 정신에서 찾아왔고, 또 교수 역시 우리 겨레의 학문과 정신을 지도하는 가장 유명한 인사들이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더우기 언더우드 일가의 개교 정신이며 또 선교사측의 정신적인 뒷받침과 국제적인 관심도 이 학원의 비전과 학문 연구에 크나큰 밑받침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겨레의 요새라고 일컬어 마땅한 이러한 학원에 나라 밖의 민족 운동의 실전장이라 할 간도에서 운동주가 왔다. 말하자면 민족 투쟁의 일선에서 후방인 민족 교육과 학문의 본산지로 귀향을 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운동주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간도의 선배들이 이렇게 연회를 거쳐 갔고, 선배로 재학하여 공부하고 또 나라와 겨레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많은 예로써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주는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학원으로 청운(靑雲)의 뜻을 품고 온 것이다.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고종사촌인가 하는 송몽규(宋夢奎)와 더불어 왔다. 혈연 관계가 있기도 하겠지만, 얼굴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해서 마치 쌍둥이 같았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학원에 왔으니까 자연 학창 생활도 같은 길을 걸었다. 처음에는 지금 시비(詩碑)가 세워진 곳 뒤에 있던 기숙사에서 같이 지냈다. 그런데 성격은 완전히 반대라 할 수 있다. 동주는 얌전하고 말이 적고 행동이 적은 데 반해 몽규는 말이 거칠고 떠벌리고 행동 반경이 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시를 같이 공부하고 창작도 같이 하였다. 그러한 성격은 시에서도 역시 나타나서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러한 성격 차이가 한 번도 어떤 불화나 틈을 벌이게 한 것을 필자는 일찌기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말하자면 동주는 외유내강(外柔內剛)의 형(型)이라고 할까. 대인 관계가 그렇게 유순하고 다정하고 또 재미스러울 수 없는데, 그 조라든지 의지는 감히 누구도 어찌 못할 굳고 강한 것이었다. 문학에 지닌 뜻과 포부를 밖으로 내비치지 않으면서 안으로 차근차근 붓을 드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말에서는 따르지 못하지만 쓰는 글에서는 몽규보다 훨씬 양적으로도 많이 나오는 것이다.

연회전문에 들어오기 전에 동주는 이미 간도에서 소년지에 동요를 발표했었다. 당시 연회전문의 친구들로는 동요·동화 등으로 많이 활약을 하던 엄달호가 있었고, 또 판소리에 먼저 손을 댄 김삼불, 늘 밖으로만 나돌던 풍류객 김문응, 영어의 도사라고 할 한혁동, 강처중이 있었으며, 오늘의 한글의 석학인 허웅, 그리고 이순복 등 지금 보아도 지도적인 인물들이 많이 자리를 함께 하여 강의를 듣고 공부하였다. 그때에는 지금 연세 과학관 자리가 논이었고 그 위에 잔디가 있었는데, 우리들은 틈만 있으면 거기 모여 앉아서 잡담과 논쟁으로 낭만의 꽃을 피웠다. 이런 때에 동주, 몽규, 엄달호, 김삼불 등의 의견이 많이 나왔고, 또 남모르게 서로 울분을 터뜨리며 시간을 보냈다. 동주는 말이 없다가도 이따금 한마디 하면 뜻밖의 소리로 좌중을 놀라게 했다.

우리는 동주, 몽규와 더불어 서울의 이야기와 간도의 이야기를 교환하면서 당시의 민족의 서러운 사정을 하소연하기도 하고 또 격분하며 마음을 달래기도 한다. 동주는 신을 간편하게 신는 버릇이 있어 운동화 뒷쪽 운두를 뜯어내어 슬리퍼로 만들어 신고 기숙사에서 끈장 강의실로 오는 것이 보통이었다. 슬리퍼 소리를 짹짹 내면서 때로 뒤늦게 강의실로 들어오는데, 앉기는 대개 앞자리에 가 앉는다. 그러면 까다롭고 비꼬기 좋아하는 하경덕 교수께서 노력하며 “찢찢” 하는 경우도 있어 모두를 웃게 한다.

외술 선생의 「우리말본」 강의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했고 또 영광스러웠고 연회 동산이 얼마나 고마운 곳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동주 들은 얼마나 그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지, 항상 앞자리에 앉던 동주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게 눈에 떠오른다.

하경덕 교수의 영문법 강의는 숙제 발표로 우리를 적잖이 골렸는데, 동주 역시 상당히 시달림을 받았으나, 나중에 서로 이야기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 교수가 밋더니 지금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였다. 이러한 훈련의 덕은 동주를 일본에서 계속 영문학을 전공케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양하 선생의 강의는 또 다른 면에서 동주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된다.

그 분은 스스로 수필을 쓰시고 또 시도 좋아하시어 당시 몇몇은 평론이며 시를 써서 그 분의 지도와 조언을 받았다. 동주 역시 자주 접촉하여 지도를 받은 바 있다. 말이 서투르고 더디면서도 깊이 있는 강의, 무게 있는 강의에 모두 머리를 숙였다. 연전에 들어가면서 바로 우리는 그 분과 더불어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 동주와의 사진, 또 그때의 이양하 선생과의 사진이 필자에게는 지금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동주를 울렸고 우리 모두를 울린 일이 있다. 그것은 손진태 교수다. 손 교수께서 역사 시간에 잡담으로 퀴리 부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퀴리 부인이 어렸을 때 제정 러시아 하에서 폴란드 교실에서 폴란드말 공부를 하던 때 마침 시학관이 찾아와 교실을 도는 바람에 모두 폴란드말 책을 책상 속에 집어넣었다. 러시아말 책을 내놓고 떨며 있는데 시학관은 퀴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시학관은 교사에게 “너를 다스리는 원수님은 누구냐?”고 질문을 하고 학생 하나에게 대답을 시키라는 것이다. 퀴리는 눈을 감고 “선생님이어, 제발 저를 지적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교사의 지목은 드디어 가장 영리한 퀴리에게 왔다. 퀴리는 가슴을 졸이던 터라 떨면서 “쯔아”라는 대답을 억지로 하였다. 시학관이 만족해 칭찬하고 교실을 나서자 교사와 함께 학생들이 모두 엎드려 울었다는 것이다.

손 선생은 이 이야기를 소개하시고 자신이 울며 손수건을 꺼내자 우리들도 모두가 울음을 터뜨려 통곡을 하였다. 그 후 우리는 더욱 그 분을 우러러보았고 더욱 가까이하게 되었다. 동주의 시와 글에도 이러한 의식의 흐름들이 있음을 나는 느끼는 바가 있다. 송충이 잡이를 뒷동산에서 할 때면 손진태, 이양하 선생 등을 모시고 숲속에서 사제간에 담배를 피우며 은밀한 대화를 하던 것도 잊을 수 없다.

그 밖에 김선기 선생의 음성학에서 들던 이야기, 민태식 선생의 한문과 교전, 이묘목 선생의 회화, 특히 강낙원 체육 교수의 은근한 민족 의식의 고취는 우리의 의식 구조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원한경 박사의 소탈한 설교, 유억결

선생의 무거운 인격, 이춘호·최규남·김두현 선생 등의 가르침이 동주나 우리의 지성의 썩어있음은 물론이다.

동주는 교실과 서재와는 구별이 없는 친구다. 달변과 교수 기술과 박학으로 명강의를 하시는 정인섭 선생에게는 누구나가 매혹되었는데, 학기말 시험에 엉뚱하게도 작문 제목을 하나 내놓고 그 자리에서 쓰라는 것이다. 밤새워 해 온 문학 개론의 광범위한 준비가 다 수포로 돌아갔다. 억지춘향으로 모두 창작 기술을 발휘하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필자 역시 진땀을 빼며 써냈더니 점수가 과히 나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고 안심하고 지나쳤는데, 나중에 보니 동주는 바로 그 제목의 그 글을 깨끗이 옮겨서 신문 학생란에 발표하였다. 제목은 “달을 쏘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 모두가 말 없는 동주에게 멋지게 한 대 맞고 말았다. 이렇게 보면 교실과 하숙방, 그리고 생활 전부가 모두 그의 창작의 산실이었다.

그의 숙소에는 여러 번 갔다. 같이 시를 공부하는 터이라 늘 가자고 해서 가끔 갔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기숙사의 다락방과 아현동 하숙집, 그리고 누상동인가 소설가인 김송(金松) 씨 덕에 갔던 기억이 난다. 가면 늘 대접을 잘한다. 기숙사에서든 학자금으로 살며 다과를 내오고, 또 하숙에서는 꼭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을 잊지 못한다. 그런데 겸손한 것이 그의 성품의 일면이다. 자기가 쓴 원고를 다 내놓고 읽히고 꼭 평을 해 달라는 것이다. 의견을 말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의견을 어떤 이상한 편견으로 배제하려 하지 않고 신중히 자기 글에다 반영시키는 담백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중점이 시점(始點)”(지금은 “終始”로 改題)이라는 산문이 있다. 시로는 “투르게네프의 언덕”, “우물 속의 자화상(自畫像)”(지금은 “自畫像”으로 改題), “새로운 길”, “소년”, “흰 그림자” 등이다.

이 “자화상”과 “새로운 길”은 당시 연희전문 문과에서 발행하던 「문우」(文友: 1941년 6월 5일 발행)지에 발표되어 있다. 그런데 앞의 것은 「조선일보」 학생란에도 발표되어 읽어 본 기억이 있다. 「문우」지에는 동료로서 꿈별(夢奎)의 “하늘과 더불어”, 김 군의 “산가(山家)

의 밤”이 있고, 소설 번역에 한 군이 존 아빈의 “안전”, 윤태웅이 릴케의 “고독”과 “가을”을 번역하였고, 엄 군은 “묘사와 자각의 조화—올바른 창작 태도의 제의로서”라는 평론, 김성도의 “배개”, “물새” 등 시와 야아생(野兒生)의 “비온 뒤” 등 동요, 그리고 Star Kim의 “Wordsworth and his Sister”라는 영어 논문이 있고, 조의 설, 김선기, 니카이도 교수 등의 글이 실렸다. 강 군이 편집 겸 발행인이요, 송 군이 문예부 책임자로서 편집 후기를 썼다.

손진태 선생은 다정하시고 감격적인 분인데, 언젠가 강의 중에 밖을 내다보고 얼굴이 질리시는 것이다. 사연을 물으니, 금명간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공포 분위기는 특히 연희교수, 학생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 후 같은 반 친구들 10여 명이 연행되었다. 다행히 며칠 후에는 풀려 나와서 자리를 함께 했지만, 언제나 전전긍긍 살얼음판이었다. 그렇다고 동료들 누구고 결코 용기를 잃지는 않았다. 필자가 동주의 추도회 석상에서 읽은 시 중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동주 등이 소공동 “헐리웃”이라는 다방에서 친구들과 만나다 일경에 체포되어)연행된 일이 있다고 기억이 된다. 그런데 그때 누구누구가 얼마나 가서 고생을 했고, 경과가 어찌됐는지도 역시 지금 망각의 강으로 흘러갔음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다만 그 후 다 무사히 풀려 나와 학업을 마치게 된 것이 그저 다행이라고나 자위해 볼까.

동주의 시들이 일본에서 정병욱 등 친구와 가족에게 밀송되고 또 아슬아슬하게 보관되어 햇빛을 보게 된 것은 민족 해방과 더불어 감격해 마지 않는 일이다. 몽규와 더불어 그 몸쓸 일제 말악의 희생이 된 후 우리는 민족의 시인 동주의 추도회를 연 일이 있다. 동주가 연행된 그 다방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여의치 못해 아마 “플라워”라던가 하는 다방에서 연 것으로 기억이 된다.

그때 우리들 동창으로서의 격분과 애통과 울분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정병욱 등은 그의 필적을 그대로 복사하여 참석자에게 나누어 주었고, 김삼불은 아마도 지금 생각하면 문장 심리학의 학설을 이용한 것 같다. 동주의 시를 세밀히 분석하여 연구 발

표 검 비판을 하였다. 시의 문구들을 품사별로 분석하여 통계를 내고 문장 심리학에 비추어 이를 소월의 시와 비교하였다. 그리하여 이론으로 본 동주의 통계는 시의 우수성에서 소월의 시를 넘어섰다고 증명하였다. 이때 특별히 임석했던 정지용이 이를 반박하여, 민족의 얼을 시에 담고 순교로 겨레 앞에 쓰러진 시인의 아름답고 귀한 시를 자로 재고 칼로 썰고 잘라 요리 달고 저리 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니냐고 하며 그 나름대로 총괄적인 찬사를 보냈다. 이 모든 일이 잇을 수 없는 일들이다. 과연 지용은 「경향신문」 편집국장 자리에 있어 계속 동주의 시를 빛을 보게 해주었고, 오늘 의 빛나는 “암흑기 민족시의 별”로 인도하였다.

필자는 연세 동산에 동주의 시비를 세울 때 비문 작성의 부탁을 받고 고민과 주저를 마지 못하면서 마친 일이 있어 고인에 대한 죄책을 두려워한 바 있는데, 이번에 또 그를 추억함에 역시 동료로서 또 남아 있는 벗으로서 할 바를 다 못하고 결례만을 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을 금할 길이 없다.

③

1917년 12월에 태어나서 1945년 2월에 비명으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기까지 불과 28 년의 생애의 가장 꽃다운 시절, 22 세에서 25 세, 즉 1938년 3월에서 1941년말 까지를 동주는 연희 동산에서 보냈다. 짧은 그의 생애로서 보나 또는 그의 시의 위치에서 보나 이 시절을 그의 꽃피는 시절(開花期)이라고 일컫고 싶다. 굳이 그 앞뒤를 말한다면 간도 시절은 봉오리 시절, 일본 시절은 원통하지만 열매 시절이라고나 할까.

그의 시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보통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만큼 그의 대표작이요 역작들이 모두 이 연희전문 시절에 창작되었다. 이 사실을 필자는 그의 시집을 조사하다 깨닫고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물론, 그의 일생의 꽃피는 시절이 연희였다는 운명을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필자와 더불어 책상을 마주하고 연세 동산에서 살아

은 옛 일을 생각할 때 더욱 감회를 억누를 길이 없다. 또한 원통함과 분함을 잊을 수 없으면서도 한편 자위나마 영광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가 머물던 옛 기숙사 앞에 선 그의 시비 “서시”가 바로 그가 졸업을 앞둔 며칠 전에 쓰여진 것이라는 사실도 동문 동학들이 기억할 만한 일이다. 공교롭게 「나라 사랑」 최근 호에 비슷한 원고가 나오기에 여기서는 시를 중심으로 말하겠다.

편의상 연대별로 그의 시의 편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1934년 2 편, 1935년 4 편, 1936년 22 편, 1937년 13 편, 1938년 9 편, 1939년 4 편, 1941년 14 편, 1942년 5 편, 연대 미정 18 편, 모두 93 편인데 연전(延專) 시절에 쓴 것이 27 편에다 끝에 붙은 산문 세 편은 연대가 없지만 필자가 그의 하숙에서 함께 읽기도 한 것이다. 연전 시절의 작품임이 틀림없을 것 같다. 또 편자가(1955년 정음사판) 연대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이 시절에 배정해 넣은 것 약 세 편을 합치면 33 편 정도 된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연전 시절의 작품이다. 22 편을 기록한 1936년대는 간도의 중학 시절인데 거의가 동요니까 그리 비중을 둘 수 없다.

물론 짧은 생애의 전문학교 시절이니까 이 시절이 자연 비중이 가고 또 중요시되어 마땅하지만, 양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 연희 동산에서 이다지도 아름답고 감격적이며 놀라운 작품을 창조하였다는 것이다.

연희 시절에 쓰여진 역작들의 제목을 들면 “서시”(序詩), “자화상” “십자가”(十字架), “또 다른 고향”, “간”(肝), “별 헤는 밤”, “소년”(少年), “슬픈 죽속” 등이다.

지금 유달리 애독되고 문제시되는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다. 1942년에 쓴 “참회록” 또한 도일(渡日) 직전에 써 놓고 떠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역시 이 시절에 속하는 것이다.

도일 직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역에서 시작(詩作)이 여의치 못하였겠지만, 일본 시대에는 양도 그리 많지 않을뿐더러 더 많이 애독되는 시도 “쉽게 쓰여진 시” 정도이다.

그리고 보면 연희 동산이야말로 동주의 창작의 가장 좋은 한 산

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동산이 동주에게 기독교 정신과 더불어 자유 사상을 익혀서 세계적인 인간상을 기르게 하고, 또 당시 나라 안에서 가장 유명한 석학들에게서 학문 뿐만 아니라 나라 사랑의 열과 길을 터득케 하여 그의 시의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1937년에는 연희 동산을 그리는 동경과 정열에서 시상(詩想)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여 13편을 썼다. 38년에는 입학한 감격과 정열을 “새로운 길”, “사랑의 전당”에 실어서 시정(詩情)을 달래고 민족 의식을 어루만졌다고 하겠다. 이 “새로운 길”은 39년작 “우물 속의 자화상”과 더불어 1941년의 「문우」지에 실었다.

1939년에는 아마도 학창 생활의 반성과 더불어 연구에 몰두하지 않았는지 양으로나 질로나 대단치 않았고, 40년 역시 그러한 생활의 계속 때문인지 별로 보잘 것이 없었다. 41년에 와서는 앞에 든 역작들 11편이 다 이 한 해에 생산되었다. 아마도 연희에서 닦은 학문, 사상, 교양, 그리고 시상(詩想), 시 정신이 졸업을 앞두고 모두 성숙, 개화, 결실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불과 1년에 민족의 열과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 정신의 뜨겁고 거룩한 생을 그 곱고도 다사로운 시에다 담아 암흑기 민족시의 기념탑을 이룩한 것이다.

동주가 자주 거닐던 연세 동산의 산길들, 특히 청송대의 소리길들, 지금은 과학관과 건축과 건물들이 서 있지만, 그 위로 눈을 격하여 산 밑 잔디밭, 입학 당시 그의 보금자리요 시작(詩作)의 산실인 기숙사의 천장이 낮은 다락방, 이 모두가 동주의 눈길과 소리가 어린 곳이었고 그의 시의 만상의 원천이었다. 은색의 무수한 손을 흔들어 주는 백양로의 터널을 지나 동상 앞을 그와 올라오며 감격과 감동에 넘쳐 우리는 얼마나 이 동산을 사랑하였고 당시의 교수들을 자랑하고 또 수없는 연세의 설원과 기담을 지켰었던가. 이제 생각하면 이것들 모두가 그의 시의 산 피가 되었다. 이런 뜻에서 백양로를 그리워하는 우리의 진심을 한낱 향수에 불과하다고 일소하는 어리석은 이도 있다. 경험도 없이 어찌 이런 빠져린 사연이며 영월

히 잊지 못할 심정을 이해할 것인가?

동주는 백양로를 함께 거닐면서 빙그레 웃으며 외솔 선생, 이양하, 하경덕, 이묘목, 정인섭 교수 등의 이야기를 하고, 또 연희의 3대 불가사의가 뭐냐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하였다. 이런 일들이 모두 그의 시 속에 스며 성분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그가 자주 다니던 지금 학관의 3층 도서관이며 동산이며 어디고 그의 숨길이 있어 후배를 일깨우는 듯한 느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다닌 이 동산에서 마지막 1년에 우리 민족의 일과 아름다움을 실은 역작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가 순절로 간 지 이미 30년, 과연 그 후 연세의 시의 샘은 흐르고 문학 예술의 정열은 끓고 있는지? 연세인들 모두 다시 한 번 그의 시비(詩碑) 앞에서 머리 숙여 반성하고 스스로를 깨우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의 학창 시절의 생활 태도는 어떤가?

말이 적고 암전하고 그러나 항상 미소를 짓는 사람이었다. 친구들과 더불어 토론을 자주 하고 또 농담도 이따금 하지만, 절대로 충돌이나 말다툼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그와 더불어 강의를 들던 교실, 혹은 사학과 연구실에서 그는 키가 크면서도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노트를 하였다. 떠벌이 몽규와 같이 와서 같이 생활하는데, 반대되는 성격인데도 잘 어울리고 또 잘 지내는 것을 보면 이상할 정도로 관용의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의 시집 사진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씨는 그의 모습 그대로 우아하고 시원스럽고 또 관록이 있어 보였다. 기숙사에 있었기도 했지만, 그런 글씨로 노트를 또박또박 하니까 그의 노트를 빌리는 일이 많았다. 제대로 노트를 돌리지 않으면 “자식” 하고 가끔 꾸짖던 모습이 눈에 어린다.

채플은 그 당시 강의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어필하는 시간이어서 더우기 그가 빠지는 일이 없었다. 지금의 본부 2층에서 게일 씨가 찬송가를 인도하고 장석영 목사 등이 기도를 인도할 때 그는 열심

히 영어 성경을 들고 참석하였다.

특히 감명을 받은 설교는 원한경 선생, 유억겸 선생의 말씀, 정인섭 선생의 달변 등이다. 그 때의 말씀들이 지금까지 우리들 머리에 남아 있다.

릴케를 애독하고, 지드, 발레리, 베를레느, 투르게네프, 도스토예프스키 등을 애독하고, 사색과 산책을 좋아하며, 아마도 누상동에서 하숙하던 시절에 그의 역작이 전부 창조된 것 같다. 필자가 그를 방문할 때마다 그의 청대로 몇몇 시와 산문을 읽고 평을 한 일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던 모두가 꿈이요 또 격세지감을 금치 못한다. 그렇게 좋은 작품들을 창조하고도 일본으로 가기 직전에 그다지도 비장하게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거울 속에 나타나온다”는 “참회록”을 썼으니, 그의 나라 사랑, 자기 겸손의 뜨거운 인간성에 다시금 머리를 숙이게 된다. 또 일본행에 대한 그의 비장한 결의마저 엿보게 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글·유 영/연세대 영문과 교수>

4

1941년말 경 펜촉으로 꿈꿈이 쓴 육필 원고의 노트 겉장에 “하늘과 바람 별과 시”라는 제목을 붙여 놓고 70부의 한정판으로 인쇄하여 가까운 사람들에게라도 나누어 주려고 했으나 그것은 끝내 시도에 그치고 말았고, 그로부터 겨우 3년 뒤에는 남의 땅 후쿠오카 감옥에서 만 27년을 겨우 살다가 “별똥처럼 사라지긴” 윤동주.

시인 정지용의 말(1948년 간 첫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과 같이 그렇다 할 한 편의 시도 발표해 보지 못하고,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서 죽은, 그가 살던 시대에는 누구도 그를 시인이라고 불러 주지도 않았던 무명의 시인” 윤동주.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기도하던 가장 어두운 시대의 마지막 별 윤동주. 그리고 그 녹쓴 철창 사이로 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슨 뜻인지 모르나 큰 소리로 외치고”(윤

일주, 「선백의 생애」 참조) 한 마디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꽃다운 나이로 숨을 거둔 윤동주. 그리고 심지어는 “일세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와”했던 윤동주.

그의 앞에, 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무릎을 꿇을 만한 기력이 남았기에”(전계서: 정치용의 서문 참조) 비록 이 좁은 지면을 통해서라도 그와 함께 절규하고, 그와 함께 괴로와하며, 그가 남긴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서로 가슴 깊이 되새기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경외하는 나머지 그를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다만 그의 생애와 문학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좌표가 되고 우리의 심금을 감동시키는 한, 그는 엄연히 우리의 사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일제말의 가장 참담한 민족적 암흑기에 살다 간 그의 지순한 생애와 적의 땅 후쿠오카 감옥에서 죽은 그의 최후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 봄으로써, 비록 그가 원고로 남긴 1백여 편의 작품들이 이 민족의 문화사에 끼친 공적이 얼마나 크고 뚜렷한가를 인식함은 물론이요, 나아가서 그와 함께 “끝없이 번민함”으로써 좀더 성과 있는 “자기 성찰”의 계기를 얻게 될 것이며, 또한 “무엇이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낳게 하는가?”에 대한 이해에 구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의 친아우인 윤일주 교수의 술회에 의하면, 윤동주는 당시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만큼 개화된 가정에서 출생하였고, 소년 시절을 그런 환경에서 보냈다.

그의 집안은 이미 1886년경에 그의 증조부 윤채옥을 중심으로 함경북도 종성에서 만주 북간도의 “자동”이라는 곳으로 이주했고, 조부 윤하연 때(1900년경)에는 역시 같은 간도 지방의 “명동촌”으로 옮겨와 정착했는데, 그때에는 이미 소지주로서 가세가 넉넉한 편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특히 이 명동촌이라는 곳은 독립 운동가요 교

육가인 김약연 목사(그는 당시 “동만주의 대통령”으로 불리었음)가 이룩한 우리 민족사상 중요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이 곳은 심지어 중국 정부의 간섭도 거의 없는 곳으로, 1899년 김약연 목사가 함북 종성으로부터 김정규, 문정호, 문치정 등 10여 가가와 함께 두만강을 건너가 중국인의 입야 수백 정보를 개간하여 이룩한 뒤 그 후로 수많은 한국인이 이민해서 한인 부락이 된 곳이며, 또한 이 곳은 한국 기독교의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그 의의가 큰 곳이다.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하여 기독교가 전도된 곳이 아니라 한국인의 손으로 전도된 곳”(윤영춘, 「황무지에 세운 기록」, 김약연, 「한국의 인간상」 제 6권 p.393 참조)으로, 당시의 실정으로 보아 놀랄만큼 진보된 의식을 보였으며, 따라서 그 벽촌에 “중학교, 소학교, 여학교의 서구식 2층, 단층 건물과 아담한 한국식 교회당”까지 세워져, “신문화 운동이 다른 어느 곳보다 활발했던 곳”으로서, 소위 일제의 표현에 의하면 “배일(排日) 사상의 온상지”였다.

그리고 운동주의 부친인 윤영석은 김약연 목사가 설립하여 교장으로 있던 명동중학교 출신(문재린, 문성린, 김석관 등과 함께)으로 16세에 김약연 목사의 누이와 결혼하였다. 그는 명동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북경에 유학했고, 1932년을 전후로 해서는 토요일에 유학했다. 그러니까 운동주는 부친 윤영석이 북경 유학에서 돌아온 뒤 그의 모교인 명동중학교에서 문재린 등과 함께 교원으로 있을 때인 1917년 12월 30일(음력 11월 17일)에 태어났다. 그의 어렸을 때의 이름은 해환이며, 운동주는 그의 본명이다. 그리고 그의 형제는 누이인 해원과 동생 일주, 광주(생사 불명)가 있다.

그는 1952년(19세)에 명동소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명동소학교는 그의 외숙인 김약연 목사가 설립한 학교로서 처음에는 소학교와 명동중학교가 함께 있었는데, 중학교는 일제에 의하여 폐교되었고, 운동주가 재학할 당시에는 소학교만으로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했던 것이다(이 학교의 중요한 학과목은 조선 역사와 조선어였고, 학교 행사 때에는 태극기를 게양하고 애국가를 불러 애국 정신을 드높였다고 한다). 이 학교에서 운동주는, 나중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함께 옥사한 고종

사촌 송몽규, 그 외에 문익환, 김정우(송실고 교사) 등과 함께 민족주의 교육을 받았다.

이어 1928년(12세) 4학년 때에는 벌써 문학적 재질을 나타냄과 아울러 서울에서 간행되던 「어린이」, 「아이생활」 등의 잡지를 정기 구독할 정도였고, 1929년에는 등사판 문예지 「새 명동」을 송몽규 등과 함께 간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1931년(15세)에는 명동소학교를 졸업, 가까이 있는 중국인 도시 “대답자”라는 곳의 중국인 소학교에 편입하여 1년 간 수학했고, 그 다음해인 1932년에는 명동촌에서 30리밖에 있는 은진중학교에 입학했다. 이 학교는 당시 캐나다 선교부가 경영하던 미션계 학교였다.

윤동주가 이 학교에 입학하자 부친 윤영석은 윤동주의 교육을 위하여 명동촌의 농토를 소작인에게 맡기고 용정으로 이사했다. 이 학교에서 윤동주는 명희조라는 교사로부터 독립 사상과 민족 의식을 깨우치는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이 학교 재학 당시인 1934년에 그의 처녀작이라고 알려진 “초 한 대”와 “삶과 죽음”, 그리고 “내일은 없다”를 썼다. 그리고 1935년에는 평양에 있는 송실중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 창작에 몰두하였으며, 1936년(20세)에는 평양 송실중학이 소위 “신사참배” 문제로 관에 접수되자 그도 역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용정촌으로 돌아와 그 곳에 있던 광명학원 중학부 4학년에 전입했다.

이어서 1938년(22세)에는 광명학원 중학부를 졸업,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진학했다. 그는 여기에서 외솔 최현배 선생을 만나 민족 의식을 고취받고 조선어를 사사했다고 하며, 이양하에게서 영시(英詩)를 배웠다고 한다. 그는 연희전문학교 재학 당시에 더욱 시 작품의 창작에 몰두했으며, 동시에 키에르케고르를 필두로 하여 동서철인, 문호들의 사상에 심취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1941년 12월에 연희전문을 졸업, 졸업 기념으로 자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출판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였고, 1942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그 곳의 리쿄오 대학 영문과에 입학, 그 해 10월에는 토오시샤 대학 영문과로 편입했고, 우리가 알고 있

는 그의 최후작 “쉽게 쓰여진 시”는 이 해에 씌어졌다.

그리고 다음해인 1943년 7월 14일, 그는 첫 학기를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에 그의 고종사촌 송몽규와 함께 일경(日警)에 체포되어 카모가와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그래서 그는 1944년 2월 22일에 기소되었고, 3월 31일에는 “사상 불온, 독립 운동, 비일본신민”의 죄목으로 3년 구형, 2년의 형량을 언도받고 큐우슈우에 있는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조국의 해방을 5개월여 남겨둔 1945년 2월에는 그의 가족 앞으로 “2월 16일 동주 사망, 시체 가져가라”는 일제의 염서가 도착하여 부친 윤영석과 숙부인 윤영춘이 동주의 시체를 인수하러 일본으로 떠난 사이에 “동주 위독하니 보석할 수 있음. 만일 사망시에는 시체를 가져가거나 불연이면 큐우슈우 제대(帝大)에 해부용으로 제공함. 속담하시압”이라는 일제의 통지서가 뒤늦게 도착했다.

일본에 도착한 윤동주의 부친과 숙부는 먼저 윤동주와 함께 체포되어 수감된 송몽규부터 면회했는데, 그는 날마다 이름 모를 주사를 맞는다고 했으며, 그의 몸은 여월 대로 여위어 있었고, 그의 말에 따르면 윤동주도 이름 모를 주사를 날마다 강제로 맞아 왔었다는 것이었다. 그 주사는 아마 일제가 수감중인 조선인 청년들에게 해부 실험용으로 놓았음이 틀림없는 사실이며, 송몽규도 동주가 죽은 뒤 23일만에 그 이름 모를 주사로 인하여 옥사하고 말았다.

그렇게 우리의 젊은 시인 윤동주는 끝내 한 줌의 재가 되어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고향인 용정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3월 초순 만주 땅 거센 눈보라 속에서 나라 잃은 이주민들의 피눈물을 뒤에 두고 그는 한 마디 말도 없이 땅에 묻히고 말았다. 그는 그렇게 갔다.

한 많은 젊음을 오직 불타는 번민 속에서 보낸 우리 민족의 시인 윤동주, 그는 살아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시를 썼지만, 한 번도 시인 칭호를 들어보지 못한 채 그의 손으로 쓴 원고 몇 편만 두고 갔다. 이 슬픈 시인을 위하여 그의 가족들은 그 해 단오날 그의 묘지에 비석을 세웠으니, 거기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시인 윤동주지묘.”

그는 죽어서 위대한 시인이 되었다. 이 위대한 시인 윤동주는 우리 민족 문학사에 영원히 빛나는 젊은 별로 남을 것이다.

5

이상에서 대강으로 윤동주에 관한 전기적인 고찰을 해 보았다. 위의 전기적인 측면에 의한다면, 그가 왕성하게 시 작품을 쓰던 때는 1934년에서 1942년 사이인 8년 내외의 짧은 기간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한다(즉, 그의 육필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및 몇 편의 시 작품을 중심으로 한 연대로서, 특히 그는 그의 시 작품의 말미에 언제나 작품을 완성한 날짜를 기록했으므로 이 연대적 고찰은 용이하다). 물론 그가 일찍부터 습작 기간을 가진 바 있고, 또 동시를 써서 등사판 문예지에 발표한 일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논하려는 그의 본격적인 문학 활동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그가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1934년 12월 24일을 기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그는 1934년 12월에 “초 한 대”, “삶과 죽음”, “내일은 없다” 등을 쓴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흰 그림자”, “사랑스런 추억”, “흐르는 거리”, “쉽게 쓰여진 시” 등의 시를 쓴 1942년을 마지막으로 하는 시작(詩作)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1948년 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참조), 이 기간 중에서 1941년, 즉 그가 자선시집을 발간하려고 시도했던 해를 중심으로 그의 문학사적인 위치를 간단히 이야기해 보는 것이 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첩경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가 왕성하게 작품을 쓰던 당시에 비록 몇 편이라도 그의 작품이 발표되었다면, 더우기 그가 시도한 바와 같이 그의 자선시집이 여의하게 발간되었더라면, 그는 이미 그 당시에 바로 그의 시문학적인 위치를 굳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시대가 그에게 시 발표나 시집 발간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가 시를 쓰던 시기가 이 민족의 가장 궁핍한 암흑기였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그가 남몰래 써두었던 시편들

중에서 19 편만을 선택하여 시집을 발간, 70여 부쯤 만들어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나누어 주려고 시도를 하던 그때, 1941년 12월은 바로 마지막 발악을 하던 일제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던 때가 아닌가? 그리고 그에 따라 놈들은 소위 이 땅에 “학생 정신대”를 조직하는 것을 비롯하여 “근로보국령”을 공포하고,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는 등 완전히 전시 체제를 갖추어 함께 “전시 총동원령”으로 이 땅을 움짱달썩하지 못하게 숨통을 끊으려고 했으니,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군국주의 일본의 1941년 전후 7, 8년 간, 즉 운동주가 가장 시작(詩作)을 왕성하게 하던 시기의 민족적 암흑에 대하여 어찌 다 낱말이 열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그런 “식민지 조선의 완전히 암흑과 공포로 뒤덮인”(김병익, 「한국 문단사」 참조) 상황 아래서 도대체 운동주가 어디에다 시를 발표하고 어디에다 시집 발간을 의뢰할 수나 있었겠는가?

특히 문단사적인 입장에서 그가 시작을 하던 시기의 배경을 살펴 보아도 마찬가지다. 그가 첫 작품을 쓰던 때를 전후하여 일제는 철저한 군국화 시대로 치닫기 시작함과 아울러 소위 검열 제도를 노골적으로 강화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시절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듯이 그 당시에 지식인의 변절과 문학인의 어용화의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그것은 1935년의 백철, 박영희 등이 제 2 차 카프 사건으로 피검되었다가 전향한 일과, 3.1 운동의 민족 대표의 한 사람인 박희도가 이미 철저히 변절한 뒤에 조선인으로는 최초로 일문 잡지 「동양지광」을 발간해서 “내선일체의 실천”을 부르짖은 일과 아울러, 이어서 김동환(시인, 「국경의 밤」이라는 시집이 있다)은 「삼천리」와 「삼천리 문학」이라는 잡지를 통하여 “황도의 실천”을 강력히 요구하는(이하 김병익의 「한국 문단사」와 임종국의 「친일문학론」 참조) 사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어서 1937년 4 월에는 최남선, 김억 등이 주동이 되어서 친일 문학 단체인 “조선 문예회”가 발족되었고, 1938년 6 월에는 100여 명의 문학인이 중심이 되어 “시국 대응 전선 사상 보국 연맹”이 조직되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일제의 “문장 보국”의 시책에 앞장선 친일 어용 문학인들의 망발이었으며, 이러한

친일 문학은 더욱 노골화되어 소위 “충후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그 후 우리 문학사에, 더 나아가서 우리 정신 문화에 그 부끄러움을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더러운 한 페이지로 남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어찌 그것 뿐이었겠는가? 1939년 4월에는 이태준 등이 주동하여 “황군 위문 작가단”이라는 것을 구성, “북지 전선”을 위문하였고, 그 해 10월에는 “내선일체, 멸사봉공”을 강조하며 이광수가 회장이 되고, 김동원, 이기영, 김문집 등이 간사가 되어 “조선 문인 협회”라는 것을 발족시켰다. 그리고 1940년 8월의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폐간을 이어 1941년 4월의 「문장」, 「인문평론」(친일 문예지)의 폐간과 엇비슷한 시기에 친일 시인 단체인 “국민 시가연맹”이 결성되었고(1941년 6월), 친일 일어 문예지 「국민 문학」이 1941년 10월에 창간됨과 함께 “대동아 공영의 문학”의 기치 아래 “멸사봉공”, “문장보국”을 다짐하며, “문학의 황도화”를 주장, 문학을 통하여 “황도실천”을 외치는 일대 선봉이 종전(終戰)의 날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소위 “황도 문학”을 앞장서서 한 자들에게는 일체의 상이 주어졌으니, 김용제, 정인택, 이광수, 이태준, 이무영, 주요한 등이 “일어문학” 즉 “문장보국”을 위한 “황도문학”으로 “국어(일어) 문예 총독상”, “조선 예술상”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다만 국어(일어) 창작으로 “황도실천”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창씨개명을 하였고, 심지어 학생들에게는 “학병 지원”을 권유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숨막힌 상황 아래서 도대체 운동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였을까? 그리고 더더욱 숨막히는 살벌한 문단 풍토에서 우리의 지조 높고 고결한 시인 운동주는 어디에다 굴 한 줄 발표할 곳이나 있었겠는가? 아아, 이 따위 캄캄한 민족적 암흑 속에서 참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나이라면, 그는 자신이 쓴 번민(번민)의 시, 그리고 이런 암흑을 깨뜨리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참회의 시를 쓴 원고를 도대체 어디에다 활자로 찍어낼 수 있었겠는가? 만일 독자 여러분이 운동주의 입장이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였

했는가?

그러나 운동주는 이 시절을 살다가 왔다. 그는 물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에서의 의식과 밖에서의 의식이 서로 만나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 억압에 대한 반발, 즉 짓눌린 삶에 대한 반발, 그리고 풍족한 삶의 향수, 기쁨의 삶에 대한 지향”(김우창, 「시대와 내면적 인간」 참조)을 절실히 요구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식은 “정치적 행동”과 만나게 되고, 그러나 그의 단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어찌할 수 없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고통스런 현실과 맞서서 유혹과 억압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할 것임을 깨닫고”, “시대의 아픔을 자기화한 인간 고뇌의 형상화에 도달한”(김홍규, 「운동주론」 참조) 시인으로서 우리 민족사에 뚜렷이 남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다만 이 “자아의 탐구자”인 동주에게는 만해나 육사와는 달리 “가혹한 시대는 비장한 수난자의 지위밖에”(전계서: “내면적 인간” 참조) 허용하지 않았으나, “자기의 개인적 체험을 역사적 국면의 경험으로 확장함으로써 한 시대의 삶과 의식을 노래하였고(동시에 체험을 역사적 국면의 경험으로 확장함으로써 한 시대의 삶과 의식을 노래하였고), 동시에 특정한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의 체험을 인간의 항구적 문제들에 연결함으로써 보편적인 공감에 도달”(전계서: “운동주론” 참조)케 한 그의 문학적 업적 또한 우리 민족 문학사에 뚜렷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순절이 남달리 “시 작품을 통하여 스스로 얻은 결론”(김용직, 「비극적 상황과 인간의 길」 참조)이었으니 우리가 그 어둠 속을 살다 간 그에게 그 이상의 그 무엇을 더 바라겠단 말인가? 오직 그것으로도 우리는 그에게 “암흑기의 한국 문학사를 빛낸 마지막 별”이라는 찬사를 아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6]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

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 /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서시” 전문)

위에서 우리는 그의 고결하고 엄숙한 지정에 의하여 절조와 의지를 보여주며 또한 그의 불행한 죽음까지 설정한 “서시”를 읽어보았다. 시인 자신은 이 시를 쓴 날짜를 1941년 11월 20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의 비극적 생애, 즉 적의 땅 후쿠오카의 감방에서 비정한 최후를 마친 그의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생각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일제말의 극한적인 민족적 어둠 속에서 현실과 개인의 괴리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자아의 분열과 긴장이 그로 하여금 번민과 참회의 시를 쓰게 했고, 그것이 결국은 “시대의 아픔과 개인적인 아픔이 만나는” 자리에서 그는 숙명적인 절규와 선언으로 그의 많지 않은 시 작품을 남기고 떠났으나, 이 “서시”는 바로 그가 가진 지순한 내적인 세계와 그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민족적 현실과의 만남을 발견하고 외치는 절규처럼 들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가 과거의 폐쇄적, 은둔적, 도피적인 세계에 있던 자아를 확충해 나가기 시작한 맨처음의 것이기 때문에”(김우중, 「암흑기의 별」 참조) 이것을 그는 “서시”로 다루었으며,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닐까?

여기에서 그는 추호라도 자기의 결백이 흐트러질까 염려했으며 그것을 그는 지극한 엄숙성으로 노래했다. 도대체 사람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일세에 이는 바람”을 보면서 괴로워한다는 것, 이것을 어찌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나 있는 일이겠는가? 또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는 무한한 차원의 사랑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줌과 아울러 “주어진 길”을 단단히 걸어가는 그의 땀땀한 뿔모습을 우리는 피로 얼룩진 민족사의 창으로 보는 것 같아서 무한한 감회를 느끼게 되는 시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의 눈으로는 아주 하찮고 관심 없는 사물을 통하여 오직 그만이 가지는 깊은 자아의식과 섬세한 감각으로 형상화한 그의 “정신적 결의”에, 오늘을

사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참회하고 남몰래 자신을 가다듬게 하는 불후의 “준엄한 목소리”이기도 한 것이다.

따는 밤을 깨워 우는 버레는 / 부끄러운 이름을 슬피하는 까닭입니다. /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 (“별 헤는 밤” 끝 두 연)

앞의 “서시”가 “준엄한 목소리”라면, 뒤의 “별 헤는 밤”은 “미래의 기쁨에 대한 확신”이다. 물론 운동주가 살던 그 시절이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도 부끄러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언급하기도 싫은 “민족적 어둠” 속에서도 그래도 그만은 참들지 않고, 비록 너무도 멀리 있기 때문에 언제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다시 만날 조국의 기쁜 미래”를 노래한 그의 “별 헤는 밤”에서 우리는 또 다시 그 외로움과 아픔을 절규하는 운동주의 초췌한 모습과 만나게 된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 시에서의 화자는 시인 자신의 얼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얼굴은 뜨거운 기다림과 그리움으로 초조한, 어두운 현실과 꿈의 갈등 속에서 안타까와하는 시인의 “자전적인 얼굴”인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피하고, 동시에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며, 비록 낮은 현실적 상황 아래에서도 아득히 멀리 떨어져서 언제 돌아올 줄은 알 수 없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언젠가는 기어코 오고야 말 “민족의 기쁨”의 도래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은 꿈이지 현실은 아니다. 그리고 혹시 꿈과 같이 그냥 사라져버리거나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청춘이 아직 다하지 않은 까닭으로” 그 기다림과 그리움을 더욱 절실하게 확인하는 노래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시는 앞의 “서시”와 마찬가지로 또 “그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렇게 우리가 그의 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그다지 길지 않은 한평생을 조금도 “기쁨이 없이” 끝없는 우울과 번민으로 보냈고,

그러면서도 그 빈민과 우울을 개인적인 것으로 폐쇄시키지 않고 보다 더 넓고 큰 “시대적인 것”으로 확대시켜 차원 높은 “공감대”를 마련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독자들에게 주는 훌륭한 시인으로 남게 된 것이다. 그런 훌륭한 시인이었기에 그는 결국 포악한 일제의 채찍 아래 “피골이 상접한 몸”으로 민족의 십자가를 졌으며, “무슨 뜻인지 모르나 외마디 큰 비명을 지르코” 운명했던 것이다. 나라 잃은 젊은 스물 아홉 살의 시인의 몸으로 침략자의 감옥 그 차디찬 마루방에서.

이상에서 우리는 운동주의 생애와 시 작품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 보았다. 우리는 이 정직하고 고결한 시인을 대하면서 그가 이룩한 시문학적 업적에 대한 경외는 물론이요, 그의 내적 투쟁과 외적 고뇌의 만남이라는 필연성과 그것의 구체적인 귀결점인 그의 “비장한 순절”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접근을 하게 되었다. 그는 그의 양심이 그랬고 그의 작품이 그랬듯이, 너무나도 결백하고 정직했고 너무나도 투명했기 때문에 위대하게 된 것이다.

그는 결코 범속한 시인이 아니요, 따라서 위대한 시인인 것이다. 결코 “위대하지 않은 시인이 위대한 시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그가 “민중 속으로 뛰어들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범속한 시인의 대열로 떨어뜨리려고 한다. 혹자는 그가 살았던 당시에 “한편의 시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미발표작 다수를 남긴” 범속한 “문학 청년”으로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의 “서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만일 그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그런 내적인 자기 성찰과 부끄러움으로 인한 호소와 절규와 탄식으로 그 시대를 괴로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빛나는 삶의 절실성에 온 몸으로 부딪쳤으리라는 것은 다만 막연한 추측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가 그 시절에 시 작품을 발표하기를 바랐거나 세상에 유명하게 알려지기를 바랐다면, 그 시절은 분명히 그에게 휘절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갔으며, 고통의 노

래를 부르면서 그가 괴로움 속에서 확신한 “시대처럼 을 아침”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범상하지 않게 지조 높고 고결했기 때문에 일제는 그를 죽였고, 또 우리는 그에게서 무한한 감화와 산 교훈을 배우는 것이다.

〈글·양성우/시인〉

백 낙 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1

대체로 유전과 환경은 인생의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교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유전을 보고, 그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 그의 활동과 사업을 이룩한 배경을 알 수 있다.

나는 훌륭한 유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소박하고 노력하는 농부이던 아버지의 성격과 총명하고 능하던 어머니의 성품을 물려받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올바르게 물려받았는지는 몰라도 부모에게서 받은 자질이 나를 키워준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활 환경에는 많은 변천이 있었다. 나는 우리나라 역사의 한 전환기였던 청일전쟁 직후, 당시 중국의 대표 이홍장(李鴻章)이 하관(下關)에 가서 평화조약 담판을 시작했던 1895년(乙未) 3월에 평안북도 정주(定州)에서 태어났다. 그러니 갑오경장(甲午更張)이 시작된 이듬해였다. 갑오경장을 선포하였으나 혁신의 과업이 갑작스런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던 때였다. 그리고 국의에서 새로운 물결이 밀어닥친 시대였다. 신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나 아직 널리 전해지지 않았다. 내가 어려서 처음으로 새로운 문물(文物) 가운데서 성냥과 석유를 보았고, 철도를 부설하는 것도 직접 목격했다.

그러나 일반 농촌 생활에는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째는 빈곤한 것이요, 둘째는 질병이 많은 것이요, 세째는 무지한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농촌에서 자라면서 아버지께 천자문을 배웠고,

서당에서 사서(四書)를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읽었고, 총명한 아이라고 칭찬을 듣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노일전쟁이라는 큰 난리를 겪었던 것이다. 러시아군의 진초부대가 우리 살던 곳까지 들어왔다. 나는 그 때에 색다른 인종을 처음 보았다. 이 무렵, 국내 정세가 다 그러하였겠지만 서북(西北) 일대에는 사회 질서가 심히 문란하였다. 농촌의 유일한 문화 시설이었던 서당(書堂)들도 폐지되고, 서당의 훈장(訓長) 될 만한 사람도 없어졌다.

이리하여 공부할 길을 찾을 방도로 당시 우리 동리에 있던 예수교 교회를 찾게 되었다. 기독교를 통해 얼마 동안 교육을 받게 된 것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서당 생활을 통해 얼마만큼 배운 한문으로 교회에서 설립한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산술과 지리학과 물리학을 배우는 동안에 신학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소학교 정도의 신학문 교육을 받으면서 4, 5년이 지나는 동안 한일합병이라는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

합병 후 일반 애국 지사들이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고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일으킨 여러 운동이 있었는데, 교육으로써 나라를 구하자는 운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예수교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분들로부터 많은 지도를 받았다.

한일합병이 되던 해인 1910년 내가 선천(宣川) 신성(信聖) 학교에 입학하여 서양 사람들과 더불어 피차 접촉을 가진 것이 또 다른 환경적 변화라고 생각된다. 신성학교 학생 시절에도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잊을 수 없는 일은 근래 우리나라 역사에서 말하는 소위 “105인 사건”이다.

내가 직접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연루자가 되어, 나중에 기소장에서 꾸민 것처럼 내가 서양인 선교사들이 구입하여 몰래 은닉해 두었던 무기를 운반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지목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이 서울에서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조용히 숨어 지내

다가, 1913년 봄 공판이 끝나자 다시 돌아와 학업을 계속하고 졸업하였다. 그러나 나는 일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사람 중의 하나였으므로 조국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여 조국을 떠나 1913년 여름 중국으로 망명 겸 유학을 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4년 동안 지내면서 중국 혁명 과정과 그 실패와 재기(再起)를 보았고, 주로 한 일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일이었다. 하북성(河北省) 천진부(天津府)에 있던 신학서원(新學書院)에 입학하여 영어를 배우기 위해 먼저 중국어를 배워야 했다. 중국어를 통해 영어를 배우는 일이 쉽지 않았으나, 미국 유학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였다.

나는 한말(韓末)에 태어나 유교 사상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통해 신교육을 받았으며, 기독교 사상에서 큰 감명을 받게 되었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얻게 되었다. 그 후 중국 문화의 영향과 그 정치적 변동으로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나의 십대(十代) 시절의 정신적, 교육적 배경이었다.

구한국(舊韓國) 말년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과 변천하는 사회 현상의 영향과 한일합병과 같은 시대적 변동으로 말미암아 나는 조국을 떠나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유학차 떠나게 되었다. 내가 중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으니, 나는 동서양에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듣고 볼 수 있었다. 이 무렵 내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으므로 나는 전쟁을 앞뒤에 두고 내 생활의 변동을 같이 하게 되었다.

2

한일합병 뒤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유학은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 가기가 어려웠고, 둘째로 미국에 갈 수 있다 해도 그 곳에서 공부를 시작하여 계속하기가 어려운 일였고, 셋째로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쓰일 데가 없는 것이 그 어

려움이였다.

미국 유학을 위해서는 첫째 어려움을 우선 극복해야 했는데, 일본 제국주의 밑에서는 해외여행권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나라를 떠나 나라 밖으로 유학할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나라를 떠날 때는 망명을 해야 했고, 망명해 나간 뒤에도 합법적으로 유학을 할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 학생들 가운데는 이렇게 모험적으로 미국에 가려고 하다가 중도에 잡혀서 돌아온 예도 많이 있었으나, 요행으로 가게 된 사람도 적지 않았다.

나는 전번에 말한 것처럼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 행세를 해서 미국에 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중국에 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중국과 미국 사이를 운항하는 중미합자(中美合資) 기선 회사가 있었다. 이 기선 회사는 여행권을 갖지 않은 사람은 태워주지 않았다. 여행권이 없는 사람을 태워 미국에 갔을 때 하륙(下陸)이 허락되지 않으면 다시 태워서 돌아와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에 가서 하륙할 가망이 있는 사람이면 간혹 태워주는 수가 있었다. 나는 기선 회사와 교섭하면서 미국에 가게 되면 하륙할 수 있다는 여러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가 노동자가 아닌 학생이요, 한국 사람으로는 여행권을 얻을 수 없으므로 할 수 없이 여행권 없이 미국에 왔다고 말함으로써 하륙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렇게 교섭한 결과 배 타는 것을 허락받고 미국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배는 석탄을 싣기 위해 일본 항구에 머무르곤 하였는데, 내가 탄 배는 나가사끼라는 항구에 머물렀다. 그러자 일본 순사들이 배에 올라와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을 수색하였다. 그 때 많은 한국인들이 끼리끼리 숨었지만, 나로서는 중국어에 자신이 있었으므로 중국인으로 가장하여 통과할 수 있리라 믿어 선창에 나와 다니다가 일본 순사의 검색을 받게 되었다.

일본 순사는 나에게 여행권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나는 일본말을 못 알아 듣는 척했더니 필답(筆答)으로 여행권 제시를 요구했다. 나는 중국어로 내가 탄 배는 중국과 미국 배요, 내가 일본에 하륙하지

않은 한 당신이 나의 여행권을 조사할 권리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그 순사는 나를 일본 고위 관리가 앉아 있는 조사실로 데려갔다. 그 곳에 끌려온 사람은 대부분 독일인과 한국인들이었다. 독일과는 전쟁 중이었으므로 독일인 승객을 가장한 독일 군인을 체포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들은 모두 체코인이거나 폴란드인으로 밝혀져 통과하는 것을 보았다. 내 차례가 되어 나의 주소, 성명, 미국 가는 목적을 물었다. 나는 미리 준비했던 대로 대답하였다. 우리 옆에 사복 형사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나를 향해 “이 놈아, 넌 조선 사람이다”고 한국말로 외쳤다. 나는 태연히 돌아보며 “내가 일본말은 알지 못하니 내게 할 얘기가 있으면 중국말로 하라”고 중국어로 대답했다. 그것이 아마 나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줄로 안다. 그리하여 그 난관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었다.

나와 같은 배를 탄 한국인 학생들 20명 남짓 가운데 조사를 받은 학생은 4, 5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모두 이렇게 하여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배가 나가사끼를 떠날 때 우리 한국인 학생들은 모두 모여 애국가를 부르며 기뻐했다. 그리하여 배의 운항에 따라 호놀룰루를 경유했고 거기서 이승만 박사를 만나 우리를 격려하는 말을 들었다.

배가 항해를 마치고 목적지 샌프란시스코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미국 관리들에게 우리가 한국인임을 입증하여 여행권을 소지하지 못했음을 밝혀야 했다. 당시 미국에는 한국인 국민회라는 기관이 있어 이전에 있던 구한국의 영사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국민회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 한국인임을 증명해 주었다. 그리하여 미국 관리들이 친절하게 여행권도 없는 우리의 하륙을 허락하고 극진히 대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미국으로 가는 첫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미국에 간 후에 공부를 하는 문제였다. 그 첫 어려움은 어학이었다. 회화는 통할 수 있었지만,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을 떠날 때 중학교 교장으로부터 자기의 모교인 미주리

주에 있는 파크 대학(Park College)으로 가라는 소개를 받고 그 학교로 갔다. 파크 대학의 교무처장이 나를 불러 나의 학력을 물었다. 나는 한국에서 중학을 마쳤고 중국에서 4년 간 공부했다고 했더니, 내 학력이 대학 2학년쯤 된다면서 2학년으로 편입하라고 했다. 그래서 2학년에 들어갔으나 강의 내용을 잘 알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다시 교무처장을 찾아가 이 학교에 부속 중학교가 있으니 나를 그곳에 보내 달라고 하여 그 곳에서 2년 동안 미국 학생들과 똑같이 미국 문화와 미국 역사와 대학 입학에 필요한 라틴어를 공부했다.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학비를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파크 대학에서는 제도적으로 학생마다 매일 세 시간씩 일을 하면 숙식을 제공해 주었다. 나는 아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력 노동을 많이 하였다. 밭에서 일을 하거나 채소를 가꾸는 일을 날마다 하면서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었다. 체육 시간이 따로 없었으므로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체육 시간이었다.

[3]

당시 파크 대학의 5,6백 명 되는 학생들은 학교의 여러 일을 맡아보면서 한 가족처럼 지냈다. 학기 중에는 학교의 잡일을 하고, 방학 중에는 밀 추수하는 일을 하였다. 당시가 1차 대전 중이어서 식량 증산이 시급하였고, 우리 학생들도 어떻게 식량 증산에 참가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다. 내가 살고 있던 미주리 주와 그 근방 캔저스 주는 밀 재배의 중심지였다. 방학 동안은 밀밭에서 일했는데, 탈곡기를 따라가며 밀을 거두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으나, 이 일로 상당한 수입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는 내 손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다는 자신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한국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들어갔다 해도 학비 문제로 돈을 벌어서 공부하려다가 돈도 벌지 못하고 공부도 못한 이도 많았다. 또한 그 때에는 한국 사람이 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으며, 뿐만 아니라 동양인 모두가 대우를 다르게 받고 있었다. 우리도 미국에서 이따금 불쾌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특별히 대학 4년 동안 나로서는 사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초가 잡히기 시작했다. 공부하는 목적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의 할 일은 봉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자아를 완전히 실현시키려면 봉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깨달은 것이다. 이미 한국에 있을 때 기독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가졌다고 했으나, 어떤 생각에서였는지 모르지만 세례를 받지 않고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에 와서 세례를 받았고, 교회적으로는 미국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 교회에 참여하는 동시에 외국에 가서 봉사하는 일을 하려는 단체에도 참여하여 그분들과 함께 한국의 사정을 얘기하였고, 여름 동안 모이는 회합에도 참석하였다.

파크 대학에서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일은 3·1 운동이었다. 어느 날 나는 지방 신문에서 한국이 독립을 선언했다는 한 줄도 채 되지 않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애태우다가 얼마 뒤에 필경 독선선언서를 얻어 읽어 보게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다. 그 때 미국에서는 독립을 위한 애국적인 글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떠나온 조국에서 새 시대에 걸음을 맞추어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 정신을 선포한 것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독립 운동을 도울까 하여 각처에 있는 학교와 교회에 편지를 보내 독립 운동을 돕자고 호소하였고 여간한 수입이 생기는 대로 당시 한국 독립 운동을 하는 본부로 보내곤 하였다. 이것이 내가 학생 시절에 외국에 있으면서 독립 운동에 협조했던 경험이다.

나는 파크 대학에서 6년 간 지내면서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미국 생활과 문화도 많이 배웠고, 어느 정도 미국화할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국의 유학의 두 번째 난관을 극복하고 대학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유학의 세 번째의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미 말한 것처럼 공부를 마쳤다고 해도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당시에는 동양 사람을 동등 대우하지 않아 부동산도 소유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어떤 때에는 이발소에서 배척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리하여 공부를 한 후 어느 기관에 취직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수입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 졸업생 가운데 기술자나 의사가 된 사람은 취직이 될 수 있었지만, 일반적인 인문 분야를 공부한 사람은 취직이 무척 어려웠다.

더우기 어느 기관에 취직이 되어도 동등한 대우를 기대할 수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에 남아 있으면서 아무 일자리나 구해 생활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돌아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동포를 위해 할 일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나의 당면한 문제였다. 나는 뒤의 것을 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라 밖으로 떠날 때 일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는데 돌아가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 걱정이 앞섰다. 그 때 나는 한국에 가서 활동할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대학을 마친 뒤 복음의 일꾼으로서 한국에 돌아가 내 동포들과 생사교락을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신학교로 가기로 결심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3년 간 공부하는 동안 나는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프린스턴으로 돌아온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 분들 중에는 연회전문학교를 설립하고 그 곳에서 일하던 선교사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연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신학을 마친 후 연전에서 함께 일하자는 교섭을 받게 되었다. 신학교 3년을 마치고 귀국할 무렵 연전에서 소식이 오기를, 일본 법령 밑에서 전문학교에서 일하려면 학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학위를 얻기 위해 예일 대학으로 갔다. 파크에서 역사를 전공했고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므로 예일에서는 이 둘을 합하여 종교사를 전공했다. 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에 관해 연구하려고 하니 그 자료가 선교사들에 의한 한국의 기독교에 관한 것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한국 개신교회사」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 연회전문학교에 교수로 있던 언더우드 씨가 「한

국의 현대 교육」이란 책을 쓴 것이 내가 논문을 쓰던 그 때였다. 당시까지는 한국 교회사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 세 가지의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었다.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초창기 유학생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다.

4

나는 외국 생활 14년만에 본국에 돌아오니 낯선 것도 많아 배워야 될 일과 당면해야만 될 문제도 적지 않았다. 내가 몸 담아 일하게 된 연희전문학교는 왜 또한 무엇을 하려고 세운 학교인가? 연전이 1915년으로 출발 연대를 잡으니 바로 한일합방이 있은지 5년째 되던 해였다. 그 무렵 민족과 교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나라 밖으로 망명하였다. 이동녕, 이시영 일가의 대가족이 서간도(西間島)로, 안창호, 이승만, 김규식 등이 국외로 나가고, 윤치호, 이승훈 등은 겨우 감옥을 벗어나던 때였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라 밖으로 나가고 안에서는 잡혀 갇히게 되니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많이 잃게 되었다. 이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고등 교육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내가 출국하기 전에 흥왕하던 교육 구국 운동은 일제(日帝)의 탄압으로 더 나가지 못하였고, 더우기 고등 교육 기관을 설립할 엄두도 낼 수 없게 되었다. 조선 교육령에는 대학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1915년에 와서 총독부가 처음으로 전문학교령(專門學校令)을 발포하였다. 그리하여 관립 전문학교는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립학교 설립에는 먼저 학교를 설립하여 유지할 만한 재단법인을 조직하여 재단 허가를 얻은 다음 그 재단법인의 명의로 전문학교 설립 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국내에서 선교하던 4개의 선교 단체가 기독교 연합 재단을 구성하고 본교의 설립자 언더우드의 형님(John T. Underwood)의 후원으로 수경원(綏慶園) 일대를 학교 부지로 구입하고 기본금 48,019원 83전을 조흥은행에 예금하여 인가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1917

년에 연희전문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내었다. 나는 연전의 비교적 개방적인 정책과 종합대학 시설을 기초로 출발한 사업에 찬성하고 이 학교에 헌신하기로 하였다.

나는 이렇게 설립된 연전에서 일하기 위해 11년 동안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1927년에 귀국하였다. 연전 설립 후 12년이 되는 해요, 3·1운동이 일어난 지 8년째 되는 해였다.

내가 처음으로 연전에 부임할 때 부딪친 문제는 교원 인가를 얻어내는 일이었다. 나 자신이 과거 경력과 여러 이유로 그 일이 쉽지가 않았으나, 학교 당국의 노력으로 교원 인가를 받게 되었다. 첫 해에는 내가 귀국한 목적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함이었고 일본 당국의 감시도 있고 하여 성경 과목만을 담당하기로 했다.

설립 당시 연전에는 종합대학의 기본이 되는 문과, 상과, 수물과, 농과, 신학과를 두었으나, 신학과는 개강을 하지 못했고, 농과는 제 1회 졸업생을 배출한 후 지원자가 없어 폐과되었다. 내가 부임할 때는 문과, 수물과 4 학급과 상과 3 학급에 학생수가 234 명이었고, 교원은 정교수 15명과 강사가 12명이었다. 그 해 예산은 약 18만 원 정도였는데, 모두 선교부 재단에서 부담하였고 학생들의 수업료는 많지 않았다. 세브란스가 50명으로 시작하여 90명을 넘지 못했고, 승실은 특수한 교육 목적 때문에 그 숫자가 훨씬 적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그 종합대학의 구상이 내 시대에 와서 이루어질 것을.

당시 연전의 교장은 애비슨이었고, 그 후 부교장으로 있던 언더우드 교장이 되었으나, 점차 한국인들에게 학교 운영을 맡기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하여 상과, 수물과의 과장과 학감(교무처장)은 한국인이었으나 문과만은 선교사가 과장으로 있었다. 부임 이듬해에 내가 문과 과장이 됨으로써 학교의 주요 간부 네 사람이 모두 한국인으로 교체되었다. 문과 과장이 되면서 나는 담당 과목도 바꾸어 서양사를 가르쳤다. 당시 동료 교수로는 유억겸, 정인보, 조병욱, 최현배, 이순탁, 이춘호 교수들이 있어서 서로 힘을 모아 교육에 힘썼다.

그러나 학교와 사회가 조용하지 아니하였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 왜냐하면 1927년 무렵은 사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일대 전환기였기 때문이다. 일본을 통해 사회주의가 들어와 민족주의에 도전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민족 세력과 사회주의 주창자와 친일파로 갈리었고, 당시 세계적인 조류의 하나였던 현대 과학 사상이 들어와 진화론을 주장하며 창조론을 공격하였고 정통적인 신앙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문학 사조로는 크게 3개의 파가 있었는데, 민족 문학과와 프로 문학과(프롤레타리아 문학)와 해외 문학과로 서로 나뉘어져 신문지상을 통해 여러 문학적 이론과 주장을 치열하게 변론하던 때였다.

나는 나의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민족과 사회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사상적, 사회적인 전환기에 대처할 적절한 준비가 부족함을 느꼈다. 나는 유학 시절 미국에서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새로 시작되어 큰 조류를 이루고 있던 존 듀이의 교육학과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과 제임스 하비 로빈슨의 신사학(新史學)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종교적으로는 프린스턴과 예일에서 공부하면서 구태어 이름을 붙인다면 신정통주의라 할 수 있는 신학에 공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학문적 종교적 배경이 전환기에 처해 있던 국내의 사상적, 사회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기가 힘들었다. 외국에서 오래 공부한 나로서는 국내에 대한 지식의 부족을 크게 느껴 우리나라에 대해 공부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다.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지연(地緣)과 혈연(血緣)과 학연(學緣)이 큰 도움을 주는데, 나는 아무런 지연도 혈연도 학연도 없었으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과 내 자신의 실력과 신앙과 노력과 교내의 동료들의 협력과 이해로 이 학교에서 자리를 잡고 여러 방면으로 봉사의 기회를 넓혀 갈 수 있었다.

5

내가 연전에서 문과 과장으로 꼭 10년 동안 재직하면서 국학 개

발에 관계한 일들을 회상해 보려고 한다.

맨먼저 한 일은 나 자신을 위한 공부였다. 환국하여 보니 서투른 일도 많고 배워야 할 일도 많았다. 나는 서양사를 전공하였으나, 국사는 일찌기 중등학교에서 배운 정도의 지식 뿐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 지식을 얻으려고 애썼다. 당시의 우리 국어학에 관해서도 철자법을 바꾸는 것과 표준어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아 그 쪽의 공부에도 힘을 썼다.

또한 국내의 사적(史蹟)이나 고적(古蹟) 및 오래 된 전설이나 고유한 풍속을 연구하려고 노력했다. 나 자신의 수양과 학교에서 나의 직분을 다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 이런 분야에 관한 그때의 문헌, 즉 조선 고서 간행회와 광문회(光文會)에서 출간한 서적들을 사 모아 국학 분야의 지식을 넓히려 하였다.

당시의 사회 사정도 매우 복잡하여, 좌우 합작을 위해 신간회가 조직되었다가 오래지 않아 해체되었고, 민립대학(民立大學) 설립을 위한 운동이 펼쳐지다가 곧 좌절되었고, 광주 학생 의거와 잇따라 일어난 국민회의 소집 사건, 그리고 그 후에 한글학회 사건들이 계속하여 일어났다.

이런 와중에서 문과 과장으로 있으면서 나는 국학 분야 과목을 새로 만드는 데 주력했다. 그 때 일본 제국주의 밑에서 국사, 국어, 국문학이란 과목이 없었다. 한국 사람이 자기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동양사란 과목이 있기에 동양사를 가르치면서 그 일부인 한국사를 가르치기로 하고 이윤재 선생으로 하여금 이 과목을 담당케 했고, 그 뒤에는 손진태 선생이 담당했다. 조선어에 대해서도 일본의 정책이 조선어 사용을 금했으므로 학과목으로 가르치지 못했던 때였다.

정규 수업에서 가르칠 수 없었으므로 이 방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모아 수업이 끝난 뒤 과외로 조선어를 가르쳤는데, 일찌기 이 방면에 연구를 많이 한 최현배 선생이 이를 맡아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한국 문학도 일반 문학 특히 한문학(漢文學)을 가르치고 있었으므로 정인보 선생이 한국의 한문학으로 가르치기로 했다.

이렇게 하여 직접 간접으로 조선사, 조선어, 조선 문학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1922년의 대학령에 따라 경성대학이 1924년에 설립되면서 조선어, 조선사 과목을 두게 되자 우리도 이 과목을 정과목으로 가르쳤는데, 일제하에서 국학 분야의 교육을 연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여 가르치게 된 것이었다.

아울러 나는 외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기관과 이를 발표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여겨 이 두 일을 착수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지만, 당시 언더우드 홀의 큰 방들을 합쳐 과장실은 적게 하고 큰 방을 하나 만들어 “문과 연구실”로 만들고 연구에 필요한 서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때 모은 자료가 많지 않았으나 다 흠어지고 오직 「24사」(二十四史)만이 중앙도서관에 아직 남아 있는 줄 안다.

이 연구실에서 정인보 선생의 지도 밑에 문과 졸업생 신현철 군이 연암 박지원에 대한 연구에 힘써 왔으나 그 결과는 얻지 못했다.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케 하기 위해 「조선어문 연구집」이란 논문집을 발행한 것도 전문학교로서는 최초의 일이라 생각된다. 정인보 선생의 「조선 문학의 원류」와 최현배 선생의 「우리나라 문법의 품사 분류」가 여기에 실린 중요한 내용이었다. 특별히 정인보 선생의 「광개토대왕 비문 해석」이 이 연구집을 통해 처음으로 발표되어 그 후 오늘날까지 이 비문 연구에 이 글을 참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최현배 선생이 조선어 과의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유인물을 모아 「우리말본」 첫째 매를 처음 출판한 것도 이 때였다. 초판시 출판 자금이 없어 당시 학감인 유억겸 선생과 나와 최현배 선생 셋이서 출자하여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이 책이 뒤에 완성되어 학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여러 학회 활동에도 참가하였는데, 조선어학회의 회원으로서 조선어학회 사건에도 어느 정도 관련되었고, 조선어 사전 편찬위원회의 발기인으로 진단학회와 진단학보 창간에도 참여했다.

또한 조선 민속학회에도 발기, 기고하였고, 국내 서양인들이 조직한 한국 문화 연구 기관인 왕립 아세아학회의 회원으로 그들과 연구 활동을 함께 했고, 해방 후 일시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 10년 동안 여러 사회 활동에도 종사했다. 연희전문이라는 교단 연합기관에서 일하는 나로서는 기독교서회, 성서공회, 기독교청년회(YMCA) 등 여러 교회 연합사업에도 참가하였고, 어느 정도 공헌했다고 생각한다. 그리다 보니 교회인으로서 강단에도 많이 서게 되었다. 당시에는 또한 영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역을 많이 하게 되었다.

외국에서 온 손님 중에서 한국에 자주 왕래한 모트(John R. Mott)와 에디(Sherwood Eddy) 같은 분들의 통역은 내가 맡아놓고 하였다. 교내에서도 예비승 교장은 교수 회의나 강의 때에 나를 통해 통역하게 했으므로 통역할 기회가 많게 되었다.

문과 과장으로 있을 때 좋은 학생을 모집하는 일과 특히 졸업생을 취직시키는 일이 무척 어려워 전국 사립학교를 돌아다니며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 힘썼으나 성공적으로 된 일이 많지 않았다.

또한 국내에서는 동맹 휴학이 잦았는데, 우리는 학생이 학교를 이탈하면 학교 사정을 거론할 자격이 없으며 동맹 휴학을 하지 않고 학교에 남아 있으면서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이 문제를 처리했다. 당시의 동맹 휴학은 알다시피 학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위정자인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가운데에 있는 학교측의 입장은 난처했고 부당한 처우를 받은 선생과 학생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6]

연희전문학교가 민족 대학으로서 일제 밑에서 겪은 고난을 돌이켜 보려고 한다.

연전은 1915년에 개교하고, 1917년에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고, 1919년 독립 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제 1회 졸업식도 하지 못한 채 독립 운동에 참가하였다. 합병 뒤 민족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세운 대

학이므로 자연히 이 학교에 들어온 학생이나 교수들은 일제에 맞서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첫 4년 동안에 바로 이러한 민족주의적 전통이 다져진 것이다.

3·1 운동시 이러한 저항 운동을 지도한 연건 학생은 김원벽 외에도 여럿이 있었고, 제 1회 졸업생은 거의 모두 이 독립 운동에 참여하였다. 당시 세브란스 의전만 해도 독립 운동에 여러 사람이 참가했는데,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분인 이갑성 선생과 학생으로는 이응설이 독립 운동에 깊이 가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건이 당한 수난을 크게 서너 가지로 돌이켜 보려고 한다.

첫째는 교육적 수난이었다. 교과목과 내용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고 행정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교수 채용도 적당한 자격을 갖춘 이라 해도 총독부에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면 교원으로 허락해 주지 아니하였다.

그 중에서도 일본말로 수업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였다. 갑자기 일본말을 배우기도 쉽지 않았지만, 조선인으로서 학생들에게 일본어로 가르치는 것은 교육적으로 틀린 일이요 민족적으로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따금 총독부에서 소위 시학(視學)이 와서 교수 상황을 시찰할 때에는 일본인 교수들로 하여금 그들의 수업을 많이 담당케 했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어로 교수한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특별히 종교 행사에는 일본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 말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절시(慶節時)에는 일본인 교수의 칙어 낭독과 그 설명을 듣고, 일본 노래를 불러야만 했다. 이 모든 것은 효과가 없는 것이었지만, 한국 민족과 학생으로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수난이었다.

학생 활동도 제약이 많아 활발하지 못했고 할 수도 없었다. 그 중에서 체육 활동에도 차별과 제약이 많았다. 처음에는 중등학교들 사이의 친선 경기가 가끔 있었으나 계속되지 못했고 나중에 연희·보성 두 사립 전문학교의 경기가 해마다 계속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날의 연고전(延高戰)으로 발전된 것이다. 두 사립 전문은 운동 경기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민족적 감정을 같이 하는 데에 협력했다.

운동이 끝난 뒤 시가를 행진하면서 젊은 기백과 열정을 표현하여 민족적 감정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 때 총독부가 세운 경성의전과도 가끔 운동 경기를 했는데, 경성의전을 이기는 것이 마치 일본을 이기는 것이라는 심정으로 경기에 임하였다고 회고된다.

둘째로 생각되는 것은 민족적 수난이다. 일제 밑에서 한민족치고 연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민족적으로 수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연전의 교수는 일본인을 빼고 모두가 민족주의자라고 생각된다. 1937—8년경 일본이 대륙 침략을 감행하기 바로 앞서 우선 나라 안의 민족주의자를 단속할 필요가 있어 많은 민족주의인사들을 잡아들였다.

그 때 연전의 교수들도 다수 투옥되었다. 흥업구락부나 수양동우회에 관계했던 8,9명의 교수들이 투옥된 뒤로 연전의 교수진은 많이 줄어들었다. 감옥에서 나온 교수는 다시 교단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제가 연전의 민족주의적 기풍을 흠이는 데는 성공했다고 보았을는지 모르지만, 그들 하나하나의 민족적 감정과 정신을 바꾸어 놓지 못한 것은 그 분들의 출옥 뒤의 행동을 보아 알 수 있었다. 일제의 민족적 탄압은 연전의 민족주의적 전통에 큰 진통을 주었다.

민족적 수난의 다른 한 면은 나랏말 교육의 탄압이었다. 우리 연전에는 국문법, 철자법, 문자 언어사에 권위 있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었고, 이윤재 선생은 흥원에서 옥사하였다. 그 때에 연전에 재직하였다가 해방 뒤에 이복에 넘어가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던 사람도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종교적 수난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모든 국민을 일본 정신으로 통일시킨다고 하면서 조선 민족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신사참배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가 교파마다 서로 같지 않았다. 처음에는 모호하여 국가적 행사라 하여 참가하려 했고, 어떤 이는 종교적인 의식이라 하여 반대하였다. 이 문제는 4,5년 동안

기독교계의 큰 논란이 되었다. 국가적 행사니 그 형식만 따르고 교육을 유지해 나가자는 주장도 있었고, 일부는 신사참배가 엄연한 종교인데 종교가 아니라고 스스로 속여서 복종할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 그래서 종교 운동으로 본 장로교 선교사들은 한국에서의 교육 사업을 거두어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감리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국가 행사로 보고 형식적으로 순응하였다. 일제는 더 나아가서 말세론을 가진 모든 교회를 국내에서 없애기로 하였다.

연전은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 기관이었으므로 장·감이 피차 의견의 일치를 보기 전에는 행동을 취하기가 어려웠는데, 안으로는 종교적 박해로 알고 반대했지만 표면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서지 아니하였다. 교내 장로교 선교사들의 입장도 일치하지 않았으나, 그 당시 다른 장로교 계통의 교육 기관처럼 폐교하는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뒤 미일전쟁(美日戰爭)이 일어나자 선교사들은 모두 자기 나라로 물러갔고, 연전은 미국인의 기관이므로 적산(敵産)이라 하여 총독부가 학교 전체를 점령하고 관리 운영하게 되었다.

연전은 학교를 빼앗기고 말았다. 일본인이 교내에 들어와 살면서 우리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고, 학교 이름마저 경성 공업 경영 전문학교로 고쳤다. 우리 교수들도 다 흩어졌고, 남아 있던 분은 일본 교장 아래에서 고생하였다. 일본말로 교수하며 총독부의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도 공부하는 대신 노력 봉사라 하여 전쟁을 위한 노동에 동원되었고, 지원병으로 소집되어간 학생도 없지 않았다. 연전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때였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빼앗겼던 학교를 다시 찾을 때까지 연전은 그 본래의 사명을 가두어 둘 수밖에 없었다.

7

해방은 민족적인 기쁨인 동시에 연회전문학교로서도 학교를 다시 찾게 된 감격스러운 일이었으며, 개인적으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기쁨이요 감격이었다. 미일전쟁이 계

속되었더라면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온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해방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새로운 삶이 덤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해방이 되자 학교 관계자들이 접수위원을 구성하여 일본 사람들을 내보내고 학교를 다시 찾게 되었다.

그 때 이사회는 직능을 대신한 접수위원회의 결의로 유억겸 씨가 교장으로 학교를 대표하였다. 그러다가 미군정청 문교부의 한인 책임자로 있던 김성수 선생이 그만두자 유억겸 씨가 그 후임을 맡게 되어 연전의 교장 자리가 비게 되었다. 나는 그 때 연전 접수위원이었지만 서울대학(전 경성제대)을 접수받는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접수위원들의 결의로 1946년 1월에 유억겸 씨의 후임으로 연전의 교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학교를 다시 찾았으나 학교를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먼저 이전의 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키자는 문교 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사립 전문인 우리 학교와 보성, 이화가 먼저 그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청으로부터 연희대학교가 정식 인가를 받게 되어 비로소 종합대학 건립의 오랜 이상을 실현하게 되었다.

연희대학교의 승격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일본이 물러가자 그 전에 모자랐던 학생을 증원하기 위해 보결생을 모집했는데 전국에서 3천여 명이 지원하였다. 우리로서는 큰 기쁨이었으나, 부족한 시설과 모자라는 교수진으로 인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1천 명 정도의 학생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원자가 많았던 것은 미국이 전승(戰勝)하여 한국에서 군정을 펴고 있었고 연전은 미국인이 설립한 기관이며 또한 영어를 사용하였으므로 미국식 교육을 받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이다.

그들을 모아 대학을 시작했으나 그 많은 학생을 잘 교육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였다. 시설도 문제였지만 교수를 얻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이전에 일본어로 가르치던 일본 교수들이 다 돌아가

버렸고 전쟁 중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로 활동하다 교단을 물러난 사람들을 다시 채용하였고, 나중에는 우리 학생들을 더 교육시켜 교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재정적으로도 큰 곤란을 겪었다. 일본이 물러가면서 학생들에게 학비로 받은 10여만 원을 남겨 놓았으나, 그것으로는 거의 1천 명을 교육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미국 선교부의 기본금 이자를 4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자만을 보내 주어도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교섭을 하였다. 그러나 그 때 미국 선교부의 입장은 연전이 그 이전에 식민지 밑에서 선교부가 설립하여 선교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 독립국가가 되어 일제에게 빼앗겼던 학교를 한국인들이 접수하였으므로 계속 선교부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전의 관계를 갱신하기 전에는 적립금 이자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학교는 운영하여야 될 터인데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재정도 기초가 없어 그 때 학교를 책임졌던 나와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많은 고생을 하였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 때에는 서울에서 학교에 오려면 서대문에서 북아현동을 지나 이화대학 동편 고개를 넘어 논뚝을 걸어서 와야 했다. 나는 북아현동에 살면서 그 고개를 넘어서 걸어다녔는데, 신발이 모두 뚫어져 구멍이 나서 신을 만한 신발이 없었지만 이 학교길을 다니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또 다른 어려운 문제는 사상적 혼란이었다. 해방 직후 곧 개학을 못하였는데 그 때 무질서한 기회를 틈타 좌익 사상이 들어와서 사회를 혼란시켰고 학교 안에서도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대학으로 승격하고 많은 학생을 모아 놓았으나 선생이 부족하고 시설과 재정이 모자라고 안팎으로 혼란한 때였지만, 나 개인으로는 이 학교를 위하는 길이 내가 택하고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내 생명을 다시 바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우리 선생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일정(日政)이 계속되었다라면 다 죽었

거나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민족 해방과 더불어 무엇인가 할 일이 주어졌으므로 연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선교부측과 학교와 정당한 관계를 맺기 위해 1948년 정부가 조직되고 1차 선거를 실시하던 해에 나는 미국에 가서 선교기관과 교섭하여 연희대학이 선교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기독교 학교로서 운영될 것이라는 우리의 계획을 설명하였고, 그들도 우리를 신임하여 이전의 관계를 계속하기로 하고 그 해부터 선교부와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었다.

대학을 새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교육 제도를 많이 실시하였다. 지금은 모두 익숙하지만, 처음 실시한 수강 등록 제도와 선택 과목 제도는 서툴렀으나 차츰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고, 우리의 시작에 따라 다른 대학도 이를 채택한 것으로 안다.

또한 남녀공학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보급하였고, 기독교 정신을 이 학교의 정신으로 이어가기 위해 기독교 과목과 채플도 실시하였다. 그러는 동안 학생들도 많아지고 이 학교를 도움으로써 자신의 도움을 얻고자 한 이들의 후원과 외국의 여러 인사들과의 연락을 통해 학교의 기틀이 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교에 와서 봉사한 사람들이다. 많은 교직원들이 헌신적으로 일하였고, 학생, 교직원, 동문, 학부모들이 힘을 모아 일하는 가운데 학교의 기초가 다져지고 대학으로서 지도적 위치를 지켜오게 된 것이다.

[8]

나는 1950년 5월 정부의 요청에 응하여 대한민국 제 2대 문교부장관에 취임하였다. 문교부 장관 재직 30개월 동안 한 일을 대충 추려보면, 초등학교 교육을 위하여 의무 교육과 신교육 제도의 교육 자치제를 실시했고, 교과서의 무상 배급을 위하여 국정교과서 인쇄소의 설립 기초를 세웠고, 고등 교육을 위한 지방 국립대학을 설립한 것과, 성숙한 학자들을 위하여서는 학술원법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가 교육 전체에 관계한 것 등이다.

그러나 취임한 지 45일만에 6·25 동란이 터졌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 바를 몰랐으나, 정부와 행동을 같이 하여 가족들을 내버려둔 채 정부와 같이 수원, 대전, 대구로 피난했다. 나중에 부산에 정착하여 전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시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사기(士氣)였다. 전쟁으로 인해 어린이들마저 학교에 가지 못하면 부모들의 마음이 쓰일 뿐만 아니라, 전쟁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줄 알고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 교실과 시설은 많이 파괴되고, 학생과 선생들도 흩어지고, 일선의 학교들은 거의 군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천에서라도 학생들을 모아 교육을 실시하자고 교육자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피난민이 많은 지역에서 노천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노천 교육은 교육적 효과보다도 국민의 사기 향상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어린이들의 사교성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선생과 학생들은 노천에서나마 서로 만날 수 있었으나, 사용할 교재가 전혀 없었다. 교과서를 만들 종이도 인쇄기도 없었다. 1951년 나는 문교부 장관으로 미국에 가는 기회를 얻어, 라디오를 통해 한국 어린이들이 책도 없이 강가와 산비탈에 모여 공부하는 실정을 호소하여 미국 민간 자유 아시아 위원회로부터 종이 1천 톤을 기증받게 되었다. 임시 수도 부산에는 정부의 공문서로 사용할 종이조차 모자랐을 정도로 종이가 귀한 때였다. 종이는 생겼으나 인쇄소가 없었다. 대구에서 임시용 교재를 겨우 인쇄하여 전국 학교에 배부하였다. 그 후 유네스코(UNESCO)에서 전시 한국의 교사들을 돕기 위해 미화 10만 달러를 보내왔으나, 나는 장관으로서 이 돈을 교과서 인쇄 공장 건립에 사용하자고 제의하였다. 이 10만 달러가 기초가 되어 미국에서 15만 달러를 더 얻게 되었으므로 현재의 국정 교과서 주석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초중고생들이 노천 교육이나마 받게 되자 대학생들을 위해 부산, 전주, 대구, 광주 등지에 전시 연합대학 제도를 실시하여, 어느 대학 학생이든 어느 대학 교수이든 다 한 자리에 모여 배우고 가르칠 수 있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

었고, 전쟁 중이었지만 교육은 중단되지 아니하였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지방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느껴 지방 각도의 중심지에 이미 있던 사범학교나 농업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4개의 지방 대학교, 즉 경북, 부산, 전북, 전남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다른 도에도 국립대학교가 생기게 된 것이다.

나는 그 때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를 “어린 학생들에게 지금은 전쟁 중이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없으니 자라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할 수 없다” 하였다. 전쟁 중이라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노천 교육, 전시 연합대학 교육을 추진하자고 호소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는 징집을 연기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노천 교육이나마 실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문교 책임자로서 전시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었다. 내가 문교부에 있는 동안 연희대학교는 부산 영도로 피난하여 가교사(假校舍)에서 개강할 수 있었다. 그 때 김윤경 씨가 총장 서리로 있었고 나는 이사장으로 남아 있어 학교와의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러다가 휴전을 앞두고 나는 문교부를 떠나 연희대학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내가 평생 교육에 종사하였고 교육 입법(立法)에도 관계하였던 만큼 나의 교육관을 묻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교육 시책보다도 교육 목적이나 교육 이념으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을 주장하였다. 대체 우리가 교육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개인의 지능 개발과 기술 수련을 통한 개인의 영달(榮達)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영달도 필요하지만, 교육은 사리(私利)만 위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널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간의 복리를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교육의 이념이요 교육 받는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준비 시대에 있는 학도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국가와 민족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까 하여 지식을 넓히고 인격을 닦는 것이다. 사회에 나가 민족과 인류 공영(共榮)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때에 내 업적이 드러

나게 되고, 동시에 나 개인에게도 성공과 영달이 있게 되는 것이다. 봉사의 범위가 한 기관에 국한된다면 그 기관에서 인정을 받게 되며, 봉사의 행위가 온 국가에 미칠 수 있다면 그 개인의 지위는 국가적으로 넓혀지고, 우리의 봉사 능력이 온 세계에 미칠 수 있다면 세계적인 위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받을 때부터 최선의 자격으로 최대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교육을 받고 교육을 베푸는 이상(理想)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9]

내가 우리 대학교와 관계를 맺은 지 선 해가 넘었다. 그 동안 여러 모양으로 재단이사장, 총장, 학과장, 교수로 지내다가 요즘에는 명예 총장으로 학교와의 관계를 계속하고 있다.

선 해 남짓 봉사한 느낌을 한 마디로 말하면 고맙다는 생각 뿐이다. 첫째로 우리 대학이 나에게 봉사할 일터를 마련해 준 것이 고맙다. 우리 대학은 나에게 몸 바쳐 일할 곳을 주었기 때문에 이 학교와 더불어 나의 평생을 같이 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이 연세에서 함께 일한 많은 훌륭한 나라 안팎의 동료들이 나를 도와 주었고, 그 분들과 더불어 이 학교에서 같이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 고맙다. 또한 이 학교가 세워진 뒤부터 우리나라의 총명하고 준수한 청년 학도들이 이 학교를 찾아왔고 오늘날도 여전히 오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훌륭한 학생들과 교수 여러분들과 더불어 우리 대학교가 자랐고 또한 국가적, 민족적으로,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공헌할 수 있게 된 것을 고마와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본래 학자로서 출발하였으나, 처음부터 행정을 맡게 되어 학자의 생활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학자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었다. 학교 행정과 학문을 둘 다 완전히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에 있는 동안 나는 매우 폭 넓은 세계와 접촉할 수 있었다. 국내적으로 여러 기관에 관계했고, 국제적인 기관과의 관계와 활동도 광범위하였기 때문이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자

만,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의 기관과 우리나라 재건 운동에 관계했던 기관과 특히 미국의 여러 한국 관계 기관 가운데 내가 관계하지 않은 기관이 별로 없었다.

나 자신이 별다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세대학교라는 배경과 총장이라는 직책으로 세계적인 여러 활동에 폭 넓게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총장으로서 행정상 크게 두서너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교수들로 하여금 다른 걱정 없이 공부하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느냐는 문제이며, 둘째로 이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끌어 주느냐는 것이었다. 교수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정진하게 하려면 학칙을 정하고 학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행정적 과제라 생각했다.

그래서 교수들의 대우에 최선을 다했고, 나라 안에서 우리 교수들의 대우가 나왔으면 나왔지 못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해방 뒤 1946년 정월에 이 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학교 운영이 매우 어려웠던 것은 이전에도 말한 바 있다. 그러한 어려움을 맞은 뒤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나라의 원조가 없게 되더라도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여 나라 안의 기본급으로 학교 재단을 만든 것이 오늘날 학교에 남아 있는 재단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대학으로서 어떠한 이상을 열고 새로운 학문을 개척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행정을 맡은 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문제로 생각했다. 학문적 발전을 위해 재래의 기초를 계속해 나가고 독립 국가의 요청에 따라야 하겠지만, 급속히 발전해 가고 다른 나라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우리 연세대학교가 맨 처음으로 경영학, 도서관학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경영학은 우리나라의 상업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도서관학은 우리나라의 도서관 발전과 관리에 많은 공헌을 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독립한 마당에 학문적으로도 어떤 독자적인 특색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국학 연구를 장려해 왔다. 나 자신이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직접 연구하지 못할지라도 나라 안의 학자들로 하여금 이 쪽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한국적인 학문의 줄기를 세울 수 있도록 하려고 힘쓴 것은 사실이다.

나는 한때 세브란스 의과대학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의학은 전문적인 학문이지만 근대 학문의 세계에서 고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두 학교의 설립자들이 구상했던 대로 연희대학교와 합동하여 학문의 넓은 분야에 같이 참여하기를 추진하였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지체되었지만, 마침내 연·세의 통합이 성공을 보게 된 것도 관계자 여러분들이 협력하여 주신 덕분으로 여겨 고맙게 생각한다.

학교가 발전함에 따라 규모와 시설도 커지게 되었다. 나는 교육용 건물 네 채 반을 물려 받아 열 채 반을 더 지었으나, 내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니었다. 나라 안팎의 여러 기관과 유지들의 도움으로 가능하였던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지난 50여 년 동안 연세에서 봉사했던 일에 대해 여러 모로 고마운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과 함께 이 앞으로 우리 연세대학교의 장래에 대해서 나는 낙관적으로 대하고 있다.

지금 연세대학교는 지난 날에 다져 놓은 바탕 위에서 더욱 더 새 시대의 요구에 응하여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앞으로의 장래도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하는 가운데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없지 않지만, 이 학교의 정신으로 이끌어 갈 때 학교가 크게 발전하리라 믿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마운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10

나는 십대(十代)에 기독교회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 내가 다닌 교회학교의 교실 벽에 십계명이 붙여져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尊敬上帝)요, 둘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勿拜偶像)이

었다. 그 때부터 나는 신에 대한 개념보다 신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뒤로 신에 대한 이해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기본적인 신앙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 오랫동안 전하여 오던 잡신(雜神), 다신(多神)을 섬기는 습관을 벗어버리고 신은 오직 한 분 뿐이라는 신앙을 심어 주었으며, 나 역시 신은 오직 한 분이라는 유일신관을 내 신앙의 대상으로 갖게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유일신은 어떠한 분(what)이시며, 누구이시며(who), 어디에 계시는가(where) 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신은 사람의 감각(感官)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영(靈, Spirit)이다. 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도 영인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우리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인 팔을 “나의 팔”이라 하고 다리를 “나의 다리”라 한다. 나의 팔, 나의 다리라고 할 때 그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그 나도 역시 우리의 감각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으므로 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자기와 대화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선택할 줄 안다. 이러한 구실을 하는 실재를 인격적 존재라고 한다.

신은 영이다. 자기를 알고 자신으로 대화하고 자기의 뜻대로 고를 줄 아신다. 이러한 신을 사람에게 쓰는 호칭을 빌어서 인격적 존재라 한다. 사람에 비추어 신을 알려는 이론을 “의신론”(anthropomorphism, 擬神論 또는 神人同形同性說)이라 한다. 이 이론은 신을 알게 하는 일시적인 방식은 되지만, 신을 완전히 알게 하지는 못한다. 유한한 사람으로 무한한 신을 알 수 없고, 신은 절대자이시요 사람은 상대자(相對者)도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신은 절대 사랑이시요, 절대적 진리요, 자유이시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먼저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면 신이 계시는 곳과 때도 알게 된다. 나는 내 뜻이 발표되는 그 곳과 그 때에 있으니 신도 그 의지가 발표되는 때와 곳에 있다. 나는 내 신체를 내 의지의 발표 기관으로 사용하니, 영인 나는 내 신체에 없는 때가 없다. 신은 우주 만물이 그 의지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안 계시는 곳과 때가 없다고 믿는다.

신은 자기가 누구이시며 어떠한 신이신 것을 사람에게 알려 주시는 계시가 있다. 질서정연한 우주만물과 아름다운 자연계와 인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생애와 역사(役事)를 통하여 신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 하였다(요한복음 14 :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들도 있고, 신이 죽었다는 사신론자(死神論者)도 있는 모양이다. 신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신이 없다는 생각조차 못할 터이며, 있지도 않은 신이 죽을 수가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생각 자체가 신이 있음을 증명한다고 생각된다. 신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철학적, 종교적 이론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절대 무한하신 신을 말할 수 없으며, 우리가 신을 공경하고 예배하려면 이론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찌기 소년 시절에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 그 믿음을 변함없이 꾸준히 발전시켜 왔는데, 그 이유는 나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신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일생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쉽고, 기쁘고 슬픈 일을 많이 당하였는데,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여러 가지 학리도 생각해 보았고 여러 부정적인 이론도 보았지만, 나는 내 경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돌보시며 인격적인 분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영의 아버지로 믿는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해서 의지의 작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힘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적 이론이 있는 줄 안다. 우리의 믿음의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믿음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한다.

믿음은 크게 말해서 주관적인 믿음과 객관적인 믿음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셨고 성경이 가르쳐 준 모든 교훈에 따라 신학

적으로 유명한 성자나 현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을 우리 신앙의 객관적 조건으로 받아들일 때 이를 객관적 믿음이라 하고, 어떤 진리를 나 자신의 진리로 여겨 그 진리의 요구에 절대 복종하고 이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을 주관적 믿음이라 한다. 기독교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행하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인데, 이 신앙마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므로 이 은사를 받아야만 신과 신앙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II

이번에는 나와 책에 대한 얘기가 되겠다. 나는 책을 많이 읽었고, 또한 책에서 받은 영향도 컸고, 지금도 책을 읽으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맨 처음 접한 것으로 기억되는 책은 「입진록」이다. 내가 읽지는 못했지만 사랑방에 모여 입진왜란에 얽힌 이야기 책을 읽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남아 있다.

글방에 다니면서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읽으면서 율곡의 “역행 사상”(力行思想)을 배웠고, 최익현 등의 여러 선비들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걱정하는 글들을 읽고 나 이외에 나라가 있고 또 나라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중학 시절에는 양계초가 쓰고 신채호가 번역한, 이태리를 건국하고 통합한 세 영웅에 관한 「이태리 건국 삼걸전(三傑傳)」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 뒤 중국에 가서 「당송고문」(唐宋古文)을 흥미있게 읽었다.

내 평생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미국 유학에서 읽은 사무엘 스마일즈(Samuel Smiles)의 「자조론」(Self Help)라는 책이다. 이 책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근대 국가 국민의 인간상을 심어 주었다. 동양에서도 명치(明治) 초년에 일본어로 번역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남선 씨가 그 일부를 번역했고 홍영우 씨가 추려서 번역한 것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는 별로 많이 읽히지 않았고, 해방 뒤에는 온 국민이 읽고 실천 하여야 할 이 책을 구경할 수도 없었다. 12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학문의 어떤 분야를 다룬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사람 되는 길, 즉 사람이 가져야 할 습관, 성격, 인격의 형성을 지도한 책이므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나 읽어볼 만한 책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산업 발전을 어떻게 이룩했으며, 학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 학문적 업적을 쌓았으며, 정치가들은 무슨 비결로 정치에 성공했느냐 하는 등등 각 방면에 걸쳐 13장의 324개의 생생한 실례를 들어 설명해 놓아 많은 감동을 주는 책이다.

이 책이 나온 지 100년이 되던 1958년에 영국은 근대 복지 국가가 되었음에도 상관 없이 지금도 읽을 필요가 있다 하여 초판 발행 100주년 기념 증정판을 발행하였다. 세계 불멸의 명저 중의 하나인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과 국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읽을 수 있기를 권장한다.

내가 학문을 하면서 영향을 받은 책이 많았는데, 역사 공부를 하면서는 웰즈(H. G. Wells)의 「세계 문화사 대계」를 통해 세계사는 동양사, 서양사의 두 줄기가 아니요, 세계의 역사는 하나의 줄기로 발전하였다는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사 연구에서는 갈라일의, 영국 근대사 공부에서는 액턴 경(卿)의 사상에 접근하였고, 유럽 근대사를 공부하면서 콜럼비아 대학 교수였던 칼턴 헤이스의 「민족주의 진보사」를 통해 민족주의가 무엇이며 유럽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가에 대한 시사를 얻게 되었다.

프린스턴에서 미국사를 공부할 때에는 책보다는 나를 지도해 준 맥클로이(Maclroy) 교수에게서 미국 정신의 이해에 도움과 감화를 많이 받았다. 제 1차 세계 대전을 미국인과 함께 미국에서 치르면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의 연설과 그의 생애를 통해 민주주의의 새 해석에 감동을 받았고, 그의 생애를 본받으려고도 하였다. 그리고 에이브라함 링컨의 전집도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동양인으로는 간디의 사상을 흠모하여 그의 전기, 논문, 어록(語錄)을 많이 읽었고, 그가 편집하던 잡지인 「영 인디아」(Young India)를 즐

겨 읽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즈음 역사 이론이나 역사 방법론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프랑스의 사익노브와 랭그로스가 저술한 「역사학 소개서」와 로빈슨의 「신사학」(新史學)에서 역사 연구 방법과 역사 해석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그 뒤 교회사 연구에는 예일 대학의 은사 라토레트(K. S. Latoarette)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 뒤 시대가 바뀌고 나의 활동이 달라짐에 따라 여러 선각자들에게서 그 사람됨과 책으로 영향 받은 바가 많았다.

종교 생활에 관한 책도 많이 읽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예수전이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전을 썼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학은 공부했으나 신학자는 되지 못했지만, 예수의 생애에 관한 책은 손 닿는 대로 많이 읽었다고 생각된다.

내게 지금까지 늘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왔는데,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책을 지금도 늘 읽고 있다. 첫째는, 나의 신앙 생활을 위해 읽는 책으로서 자연스럽게 성경책을 제일 많이 읽고 있다. 둘째로, 우리 집에는 조그마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최고를 향한 나의 최선」이라는 책이다. 매일 이 책을 한 조목씩 읽고 나의 최선을 다하기 위한 한 가지 생각을 얻고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나의 신앙 생활의 일과이다. 그 외에 내가 아직도 종종 들춰보는 책은 「사서」(四書), 즉 대학, 중용, 논어, 맹자이다. 내가 어렸을 때 읽은 책으로 지금도 가장 많이 읽는 책은 성경과 「사서」이다. 최고를 향한 나의 최선을 다하려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12

나의 조그마한 학문을 이야기할 만한 것이 못되지만, 학문을 하느라 한평생을 보내고 있으니 어떠한 경로를 받아 왔는가를 되돌아보려고 한다.

나는 일찌기 학인(學人)으로 훈련받았으나, 두드러진 학문적 체계나 새로운 이론을 세운 것이 없으므로 학문적 미완성품이라 생각한

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에 와서도 내가 완성하려는 그 학문에 있어서도 아직 미완성품이다. 그러나 내가 역사와 신학을 공부하였으니 그 쪽에서 무슨 얻음이 있을 것도 사실이다.

역사를 공부한다 해도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낀 역사적인 일을 모두 아는 사람이 없고, 알 수도 없다. 대개 역사는 지나간 사실을 옳게 알아서 앞으로 나갈 길을 찾는 것이요, 역사학은 역사를 보아 분석하고 해석하고 종합하면서 자기 의견을 세우는 것이다. 내가 맨 처음 얻은 역사관은 주자(朱子)가 「대학장구서」(大學章句序)에서 “하늘의 운수는 들고 돌아가고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天運循環 無往不復)고 한 말에서 얻은, 역사는 되풀이한다는 생각이었다. 내가 처음 역사를 공부할 때에는 이 순환론이 크게 유행하였다.

그 뒤 사람이 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것처럼 역사도 생기고 발전하고 쇠하여 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새로운 이론이 나왔는데, 슈펜클리의 생각이 그러했다. 문명의 역사가 발생, 성장, 쇠퇴, 없어지는 과정에서 없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서 역사가 계속 된다는 것인데, 토인비의 역사관이 대개 그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역사는 시계추 같아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끝에서 또 다른 끝으로 나아간다고 한다. 그래서 한 끝으로 치닫는 것 보다는 중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생겼지만, 중도로 나아가려면 좌우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변론도 있는 것 같다.

변증법이란 것이 나와서, 헤겔이 말한 것처럼 모든 역사는 정반합(正反合)의 과정으로 바뀌어 간다고 했다. 정(正)이 생기면 반(反)이 생기고, 정과 반이 정돈되면 합(合)이 되고, 그 합이 다시 정이 되어서 역사가 전진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철학으로 발전되어 칼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 생기고 공산주의가 터를 잡게 되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던 역사관은 역사는 계속 진보한다는 진보사관이었다. 그 때 형편으로는 학문이 발전되고 사회가 안정되어 모든 제도가 민주적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이상에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세상이 점차 발전되어 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학문이 점차 발전되어 감에 따라 몇 가지 문제가 생겼다. 학문의 연구가 깊어질수록 그 범위의 축소 정도가 지나쳐, 나중에는 전문가일수록 다른 분야에는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과학의 진보는 원자를 파괴하는 정도에 이르렀고, 원자탄이 이러한 형식으로 계속 진보하면 진보하는 문명 그 자체마저 멸망시킬 상태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았다. 역사 발전이 잘못되어 그 문명 자체가 없어져 버린 고대 문명도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현대 문명의 장래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 역사관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보내시어 인류 역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 사실에서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겠느냐는 것도 생각해야 할 문제이지만, 나는 도의(道義)의 하나님이 이 세계를 도의적으로 이끌어 나가므로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침내 종말에 이르게 된다고 믿는다.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에 관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방향을 찾는 것이 역사가들의 할 일이라 생각한다.

학문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울곡 선생이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학문이 없으면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한 말이 생각난다. 학문은 모든 인간 관계에서나 일상 생활에서 적당하고 원만하게 살고 행동하는 것이지, 기기묘묘한 것을 알고 이적 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학문은 이론이나 체계보다도 학문의 결과로서 사람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다. 울곡 선생은 책은 책대로 남아 있고 나는 나대로 남아 있는(書自書 我自我) 것은 학문이 아니라고 했다. 책에서 얻은 것이 나의 진리가 되어 내가 실행할 수 있어야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책은 백 번 읽어도 소용이 없다.

나도 예나 지금이나 학문에 있어서 범위를 좁혀 한 가지만 깊이 아는 것도 좋지만, 학문을 보다 넓게 아는, 말하자면 박학(博學)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넓게 배우고, 옳은 판단을 내리

고, 진정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학문이라 생각한다.

나는 일찌기 소년 시절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아왔다. 이전에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거짓되게 살던 이가 참되어지고, 자기밖에 모르던 이가 남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을 보고 기독교를 통해 한 민족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독교를 전파하느라고 하였다.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 사람이 새로워지고, 오랜 역사를 가진 옛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여 보았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진행되는 동안 나라가 망하게 되었지만, 기독교가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요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한국을 다시 살릴 것은 기독교의 선생(新生)의 생활이라고 생각하였다. 1927년 연희전문에 부임하여 세례 요한에 관한 첫 설교를 통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새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므로 옛적 부패한 것을 모두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우리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하자고 호소한 일이 기억난다.

내가 교육계에 들어서면서 사람을 새롭게 하는 힘이 기독교 안에 있으며, 이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내가 전공을 택한 동기도, 이미 말한 것처럼, 나 이외에 나라와 민족이 있다는 생각에서 나만의 발전 뿐만 아니라 민족 모두가 새롭게 발전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역사를 택했고,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기운을 가져다준 초기 기독교의 활동을 연구한 것이다.

13

선학자(先學者)로서 후학(後學)에 거는 기대는, 보통 자기보다 더 훌륭한 학자와 인물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보다 훌륭한 학자나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는 나 자신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표준으로 후배들에게 기대한다는 표준이 드러나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나는 좀 막연할는지 몰라도 나의 후학들은

모두 큰 인물(偉人)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싶다.

위대한 사업을 이룩하여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업을 이룩하는 것인가? 한 변론 제목이 될 듯하지만, 나는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업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물이며 누구인가?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볼 때 세종대왕은 임금으로서 훌륭했고, 이순신은 군인으로서 훌륭한 인물이었다. 그 외에도 훌륭한 정치가, 경제인, 과학자, 예술가,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종사한 분야와 이루어 놓은 일은 각각 다르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대한 인물이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분야의 위대한 인물들이 가진 같은 점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거나 못한 일을 하나씩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인류의 행복의 증진을 위해 어떤 한 방면에 남다른 위대한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위인 될 자질을 타고 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교육이나 살아온 시대와 환경의 작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에 타고난 자질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나는 후대에 오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훌륭한 큰 인물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가 이러한 기대를 가지는 까닭은, 첫째로 우리 민족의 타고난 자질이 훌륭하다는 사실이요, 둘째는 오늘날 이러한 자질을 발휘할 보다 많은 기회와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사람을 의기권 밖으로 보내기도 하고 다녀오기도 하는 그런 민족 못지 않은 재질을 지니고 있다. 다만 예나 지금이나 소위 말하는 선진 민족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과 기술을 익혀 볼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시대보다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가 점차 늘어나고 그 지식과 기술이 점차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는 오늘의 선대가 생각할 수 없는 정치·

경제·산업·문화의 모든 면에서 엄청난 업적을 세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교육 기관과 국가는 오는 세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기회와 환경을 더 많이, 더 넓게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다.

우리 민족 가운데서 훌륭한 사람들과 위대한 인물들이 더욱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느 민족을 보더라도 그 민족의 맨 위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은 별 차이가 없다. 최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민족이건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최상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인격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점에서 나라마다 공통적이다. 그러므로 한 민족의 우열을 판가름하는 것은 그 나라의 중간층이다. 우리 한민족이 선진이나 후진이나를 판가름하는 이 때에 우리 민족 모두가 이 다음 세대에 가서 다른 민족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중간층이 전체적으로 보다 훌륭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를 모두가 외모가 똑똑하고 행동이 인격적이며 세련되게 사람을 대하고 남을 생각하고 존경할 줄 알며, 자기의 이익보다 남을 섬기려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우리 민족 모두가 훌륭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후학에게 거는 기대의 이론적 이야기는 그만하고, 내가 후학에게 거는 구체적인 기대를 말하고 싶다. 나는 우리 대학교에 나의 일생을 바쳐 왔다. 나는 오늘과 내일의 연세 후학들이 이 학문의 전당을 지금보다 더 훌륭한 민족의 역사적 교육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고 또한 나의 기대가 틀림없을 줄 믿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내 공인(公人)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후대 우리 민족의 체질과 생활이 나아지고 정신 연령이 더욱 높아져서 건강, 성숙, 세련, 진실, 조화 있는 국민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민족이 지금 구체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조국의 평화 통일이다. 후학들이 재질과 기회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선용하여 통일을 기필코 성취하는 위대한 일꾼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앞으로 내가 산 시대보다 더욱 훌륭한 시대가 올 것이며, 이러한 시대를 오게 하려면 먼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내가 오늘날 대학인에게 주고 싶은 말은 앞서 위인론에서 말한 것처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기회를 최대한으로 선용하여 먼저 큰 인물 되기를 힘쓰라는 것이다.

14

이번에는 학문을 왜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학문을 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람이 밥을 왜 먹느냐 하는 문제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한다.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문은 왜 하느냐 하면, 살아 가면서 알고 알려 주기 위해 학문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철학적 혹은 인식론적인 여러 설명이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알기 위해서 산다고 할 수 있다.

태어나서 처음 말을 배울 때부터 시작하여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 알지 못한 것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 정도에 이르게 되면,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종종 하는 것처럼 모든 분야의 어떤 문제의 퀴즈가 나오든지 척척 맞힐 수 있으리만큼 지식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세계 어느 나라든지 보통 정규 교육으로 중등학교를 마치게 되면 배운 것을 사용하면서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직업에 종사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계속 얻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생 교육(全生教育)이라 한다.

중등학교 교육은 주로 교과서 중심이므로 교과서의 내용만 통달하면 모르는 것이 없는 것같이 생각된다. 세상에는 중등 교육만 가지고 성공한 인물들이 많이 있다. 꼭 대학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문을 닦을 생각으로 대학에 들어오면 교과서의 범위를 벗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방면에서든지 이전보다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모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고 고 하는 것이 학문하는 길의 시작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 가운데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나라는 사람의 타고난 천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타고난 재간, 즉 발전 가능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학문하는 터가 잡히게 되고 그 터 위에 학문의 전당이 세워지게 된다.

나를 아는 동시에 나를 둘러싼 세계를 알아야 한다. 세계는 크고 무한하다. 물질 세계, 정신 세계, 지나간 세계, 오늘의 세계, 모두 큰 문제들이다. 우리의 유한한 지능과 유한한 삶을 가지고 다 감당할 수 없는 지식 분야들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학문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학문의 넓고 깊음을 학해(學海)라고 형용하기도 한다.

학문을 하기 시작하면 알고 싶은 사실과 이론이 더 많아진다. 그것을 지성의 호기심이라고도 하고, 지식에 대한 기갈증(飢渴症)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기까지가 문제이지, 생기기만 하면 학문을 왜 하느냐가 문제가 안 된다. 시장한 사람이 음식을 요구함과 같아서 그만둘래야 그만둘 수 없어 학문하기를 계속하게 된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여러 방식 가운데 제일 쉬운 것은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 커 갈수록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으로 깨닫는 사상이나 이상이 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넓게 많이 알려고 하지만, 사상이나 이상에 대해 알려고 할 때 어느 한 방향으로 좁혀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얻어 가지는 사상이나 이념들을 보다 분명히 알고 깊이 연구하기 위해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것이다.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얘기할 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이 많으니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여러 이론을 알아야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 이론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론들 중에는 옳은 것도 옳지 않은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것이 옳은 이론인가를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를 깊이 하여 내 이론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이론이나 이념이 옳고 참되다고 하여 그것을 내 이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우리의 학문하는 정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것이 내 생명 연장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모든 이치를 다 알아 가지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학문할 때에도 그 학문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다만 알지 못했던 것을 순순히 깨달아 아는 그것으로 만족하여 배우지만, 어느 정도에 이론 다음에 학문의 뜻을 밝히기 위하여 학문의 범위를 좁혀서 깊이 연구하는 진리 탐구가 진실로 학문하는 목적이다.

생활을 위한 방편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이론의 전개 능력을 조장시키는 것도 학문하는 목적이 되겠지만, 나 개인의 인격 형성을 위해 필요한 교훈과 방식을 연구하는 것과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과 의의를 발견하고 완성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학문하는 주요한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기술을 얻는 것이 학문하는 목적이라 생각한다. 나 개인을 위하는 동시에 나와 관계가 가장 깊은 내 민족과 국가와 세계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기 위해 학문을 하는 것이다.

왜 학문을 하는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학문을 하여 내 인격이 형성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인류 사회에 공을 세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좀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학문을 한다고 생각한다.

15

마지막으로 제출되어 온 제목은 나의 인생관에 대한 것이다. 인생관에 대해서는 철학적, 경험적인 또는 그 밖의 다른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여기서 나 개인이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얘기해 보려고 한다.

내가 확실히 아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살아 있다

는 사실이다. 내가 살아 있다면 무슨 힘으로 살아 있는 것인가? 나로서는 내 힘으로 내가 살아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반드시 나로 하여금 내 생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힘은 우리의 감각으로 얻는 힘이라기보다 우리의 영감으로 얻는 힘이며, 망령된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내가 산다고 믿는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행동하고 일하기 위해 맨 처음에 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삶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말에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가문을 이루었다는 뜻의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다. 보통 불우한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한다. 서양에도 이와 비슷한 “셀프 메이드 맨”(self-made man)이란 말이 있어, 청년 시절에 “셀프 메이드 맨”이 되라는 격려를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컨대, 나는 “셀프 메이드 맨”이나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 오면서 가까이 있는 부모, 친척, 친구들에게 배운 바가 많고, 여러 스승과 옛 성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에 의지하여 내 인격을 이루고 성장해 왔으며, 내게 영향을 준 분들이 나라 안팎으로 많았고, 특히 내가 유학하던 미국의 여러 친구와 교회와 기관의 혜택을 입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날의 내가 있게 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빛진 사람이라 생각하는 때가 많다. 그것은 이미 말한 것처럼 나에게 가르침과 영향을 준 분들과 나에게 은혜와 혜택을 베풀어 준 여러분들에게 다 보답할 수 없는 무거운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심령적으로도 빛진 자이다. 우리 인간은 본래 죄인이며 우리 죄를 구하여 주신 구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 역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빛진 자이다. 그리고 지식과 인격이 조금 성장한 다음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을 때에 이

르러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기대한 것도 많았지만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 동포와 인류에 대해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빚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 힘과 경험을 다 바쳐 봉사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나의 생활이요 인생관이다. 이 봉사는 일찌기 얘기한 것처럼 이기주의보다도 이타주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다.

봉사에는 여러 면이 있고 종류도 많지만, 우리가 맡은 일을 통해 내 힘이 미치는 데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구체적인 일을 하는 것이 봉사의 생활이다. 내가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나는 내가 봉사함으로써 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생활을 살아 간다.

이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경험한 다른 한 가지는, 산다는 것은 일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다르게 말하면 산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도 있지만, 더욱 깊은 싸움은 내가 인격을 이루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옳지 못하고 좋지 못한 습관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싸우는 큰 싸움이다.

우리 주위의 사정이나 개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을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사는 생활이요, 이 싸움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 주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 싸움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밤낮이 없으며 쉬는 때가 거의 없으니만큼 이 싸움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종교의 힘이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는 성신(聖神)의 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 싸움을 이기는 비결이라 믿는다.

우리 종교인으로서 우리의 사는 목적은 교리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세워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많다.

그래서 바울이 한탄한 바와 같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되며,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 종교인으로서의 사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의 생활을 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일생을 살아온 자세이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 적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나 스스로도 알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평하는 사람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 되기를 바라고 계신 줄로 믿는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가르침과 영향과 혜택으로 살아 왔고 마음으로는 잘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후배들은 우리보다 나은 기회를 잘 이용하여 나보다 더욱 승리의 생활을 사는 후배들이 되기를 바란다.

眞理와 自由의 旗手들—延世의 礎石 15人

1982년 9월 10일 인쇄

1982년 9월 20일 발행

편자 출판위원회 편

발행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전화 322-6201(직)

322-0161(대)} (교)2554~56

323-0131(대)}

대체구좌 667055

등록 1955년 10월 13일 제7-106호

인쇄 二友印刷社

YUP-223

정가 3,500원

